

2003년 설교

- [2003.01.05] 복을 부르는 사람들 (창세기 30:27, 39:5)
[2003.01.12]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사무엘상 23:1~14)
[2003.02.02] 인생유전 (사무엘하 9:1~13)
[2003.02.09] 화를 복으로 바꾼 레위 (신명기 33:8~11)
[2003.03.12] 하산아! 하나님의 뜻이란다 (누가복음 22:39~46)
[2003.03.19] 나는 문둥이었다. (레위기 13:1~17)
[2003.03.23] 사자를 웃기신 하나님 (창세기 18:9~15, 21:1~7)
[2003.05.11] 차라리 짐승을 키우지 (이사야 1:1~20)
[2003.05.25]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 (창세기 4:13~24)
[2003.06.15]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뭘 어쩌라고? (열왕기상 17:8~24)
[2003.06.25]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누가복음 16:1~15)
[2003.06.29] 어느 선지자의 억울한 죽음 (열왕기상 13:1~34)
[2003.07.09]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요한복음 6:24~40)
[2003.07.23] 하나님의 폭탄세일 (레위기 5:4~13)
[2003.07.27] 꼭 개천을 파야 물을 주시나? (열왕기하 3:13~20)
[2003.08.10]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울수야? (로마서 14:13~18)
[2003.08.16] 아브라함의 능력있는(?) 기도 (창세기 20:1~18)
[2003.08.20] 어떻게 이런 믿음이? (마태복음 8:5~13)
[2003.09.03] 믿을 걸 믿어야지 (이사야 2:6~22)
[2003.09.07] 내가 누구냐? 한다면 한다. (출애굽기 6:1~13)
[2003.09.28] 돌연변이를 꿈꾸며 (창세기 15:1~11)
[2003.10.01] 가슴이 아픈 선지자 (이사야 6:1~13)
[2003.10.15] 역대지략에 기록된 행적들 (열왕기상 14:6~20)
[2003.10.19] 147년 만의 고백 (창세기 48:1~7, 15-16)
[2003.10.29] 스스로 귀뚫은 종 (신명기 15:12~18)
[2003.11.09] 고생은 내가 하고... (사무엘하 7:8~17)
[2003.11.19]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창세기 35:9~15)
[2003.11.23] 병 주고 약 주는 선지자 (열왕기상 1:5~14)
[2003.12.03] 마땅히 선생이 될터인데 (히브리서 5:11~6:2)
[2003.12.07] 깨어보니 꿈이더라 (열왕기상 3:1~15)
[2003.12.14] 백성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사야 7:1~17)

복을 부르는 사람들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개역, 창세기 30:27]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개역, 창세기 39:5]

예 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직전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베들레헴과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는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옮기셨나요?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 먼 북쪽 갈릴리에 살고 있는 만삭의 마리아를 남쪽 베들레헴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이용하셨습니다.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면 들은 적 있죠?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표기해 놓은 겁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뜻이 뭐예요? 고등학교 책에는 아우구스투스를 '존엄자'라고 번역해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줬는데 존엄자라는 뜻이랍니다. 존엄자란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고 불렸던 황제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갈릴리에 있던 만삭의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로마 황제가 무엇 때문에 로마 전역에 호적령을 내렸을까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 거두는 게 주목적이죠. 아우구스투스는 그 목적으로 호적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 사실을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남이 들으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과 신앙 체험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고 느끼고 감격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전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건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이고 일반적으로 보는 걸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의 공주인 바로의 딸이 지었습니다.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모세는 아마 자기 이름을, 양어머니라고 할까요? 양어머니가 나를 어릴 때 강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름을 '건져내다'라고 지었다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팔십이 되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나로 하여금 모세 즉 건져내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분은 우리 양어머니가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나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이름을 붙여 주셨구나!"라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독단일 수도 있죠.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더 진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로마 전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로마가 아니라 한쪽 귀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 왕도 사라지고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땅에서도 시골 한쪽에 있는 배부른 마리아를 옮기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백성된, 바로 나에게 있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님이십니다.

오늘 두 본문 중에 먼저 읽었던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자기가 큰 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본인 스스로 ‘나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아니고 바로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고향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고향집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습니다. 정말 멀리 떨어진 외삼촌 집에 갔지요.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머물렀습니다. 외삼촌 집이니까 가면 잘 봐주겠죠? 아뇨! 야곱이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두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 야곱이 떠나려 하니까 라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게 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잊지 마시다.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먹고살기 위해서, 쫓겨나지 않고 부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이 14년입니다.

나중에 읽은 창세기 39장도 요셉의 이야기인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온갖 귀여움을 다 받아가면서 포시랍게(호강하며) 컸던 그가 종살이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편안했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대우를 잘 받아도 좋은 종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나 때문에 내 주변에서 복 받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서 종노릇한 지가 13년쯤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 세월이었는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붙였습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죠?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이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이니가 ‘망각’ 정도 되지 않을까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한 말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원통하고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야 그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일을 잊을 수 있다’는 거겠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 하면서 이빨을 안 갈았겠어요?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살아서 돌아가기만 해봐라!’ 그렇게 이빨을 갈았던 그 집안 일들을 이제는 다 잊었다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므로, 신앙이 좋았으므로, 이런 얘기하기 전에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온갖 고통을 다 이겨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고통과 요셉의 그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거룩한 고민을 했겠어요? 기껏해야 울며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었지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걸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이 처가살이를 제가 지금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셉 같으면 ‘죄도 없이 형님들 때문에 이렇게 팔려와서 이 억울한 종살이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긴 몰라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했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이 어려운 시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몹시 힘들고 아팠겠지만 그 힘든 아픔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거든요. 참 재미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표현보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쳐 흐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습시다마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넘치게 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후손이 누구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야곱이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믿음의 후손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야단을 치고 혼을 내도 결국은 자식을 이롭게 하는 법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였으니 힘들고 어려운 고비 고비를 겪고 있음에도, 또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잠시 접어두고 그저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개인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큰 복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땅에서 예수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복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 니 이웃이 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평안함을 누리고 내 가족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야곱이 이런 복을 받기까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에게까지 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꼭 해야 되지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내 수고와 인내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수고와 아픔을 지낼 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로 흘러 넘칩니다. 인내와 수고를 다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질은 있는대로 다 부리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런 얘기 같으면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안 왔네!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저 얘기는 우리 신랑에게 맞는 얘긴데...?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저 사람이야 듣든 말든 바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성질 죽이면서 살면,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사명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놀리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한 푼도 쓸 생각 안 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구요? 나로 인해서 내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직장이 복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는커녕 나 때문에 짜증만 일어나고 분란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내하고 수고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는 내 비위나 성질을 다 맞추어서 완벽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인내와 수고, 희생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상하지 못한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복을 부르긴커녕 거꾸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사람들도 더러 있죠 저주를 불러들이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때문에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불행이 들어왔거든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아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사람입니다.

저주만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태풍을 불러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태풍이라서 답이 안 나오는가 본데 성경엔 태풍이 아니라 대풍이죠. 요나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바다에 대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같이 탔던 선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탄 많은 선원들이나 바다에 던진 재물에 있지 않았습시다. 오직 한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나 같은 짓을 하게 되면 나도 괴롭지만 내 이웃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내가 요셉이 되고 야곱이 되면 나도 엄청난 복을 받겠지만 나로 인해서 내 이웃, 내 가정, 내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아담이 되고, 아간이나 요나가 되면 나도 괴롭지만 내 이웃은 더욱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스스로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원래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은 우리에게는 정말 쉬운 일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인가? 혹시라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신 분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입니다.

효자제일교회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했는지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우리 교회의 입구가 원래 이 현관에서 똑바로 나가면 목사님 서재 옆에 있었고, 목사님 서재가 있는 곳이 주차장이었습니다. 몇 대쯤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이 잘 안됩니다. 서너대 댈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몇 년 사이에 성장해서 지금 이 마당에 차를 잘 넣으면 50대 정도를 댈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이 거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렵던 시절에 가슴을 앓아가며 눈물 뿌려 기도한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눈물 뿌려가며, 가슴 앓아가며 교회를 위해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되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드리고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아니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더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마당이 넓어지고 건물이 커지는 이런 변화보다는 우리 효자제일교회가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많은 인재와 인물이 배출되는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우리의 수고를 다 해야 합니다. 건물이 커지는 것이나 마당이 넓어지는 것도 복이겠지만 더 큰 복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이끌어갈 인물이 없으면 비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없더라도 제대로 된 인물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걸 위해서 우

리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희생을 각오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수고와 인내는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구 한우 식육점 개업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2년 전 성탄절에 우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성탄절 예배드리러 오시는 집사님이, 남편도 교회 안 나오는 여집사님이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필이면 병원이라는 병원이 전부 문 닫은 날에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 그 날 우리가 얼마나 속을 태우고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영영 이 집에 복음이 끊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까지 가지고 마음을 졸였는데 그 사이에 교회 나오지 않던 남편이 세례를 받고 월반해서 집사님 되셔서 저기 떡하니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혹시나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인내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복으로 채우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열국의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나라마다 그 몫을 나누어 주셨다는 뜻인데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배당한 몫을 따라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인종을 분정하셨다는 것은 인류가 종족별로 흩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폐하고 민족들로 하여금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시는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들을 흠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두에 두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세계 역사를 한번 훑어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이 주변이겠지요, 수메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후에 아카드의 후예인 바빌로니아가 세워집니다. 고바빌로니아가 앗시리아에 망합니다. 앗시리아가 득세했다가 또 다시 바빌로니아가 섭니다. 그걸 신바빌로니아라고 말하죠. 신바빌로니아를 넘어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다시 로마로 넘어가죠. 로마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현재 유럽 각국으로 갈라졌습니다. 팔레스틴의 아래 쪽에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사의 흐름에 이스라엘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역사책을 기술해 나갈 때에 이들의 역사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겨우 한쪽 귀퉁이를 차지하면 다행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는 주변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나라들이 세워지고 갈라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두에 두고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하나님 눈에는 갈릴리의 가난하고 힘없는 요셉과 마리아보다 나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세계 역사가 아무리 거대한 물결처럼 흘러가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쉽게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결단코 이 우주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늘의 저 아름다운 모습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사시, 년한, 계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의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면 별 재미가 없어요. 도는 모습이 거의 똑같은 테니까요.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또 다른 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밤하늘의 변화무쌍함을 관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별이 앞서가다가 뒤쳐졌다가 또 앞서가기도 하는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지구에서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한쪽 옆에 비껴나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이 잘 낫질 않아서 성모병원에 갔었습니다. 약 타려고 내려가니까 전에 우리 신장로님 집이 있던 자리에 큰 약국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장로님 집이 저쪽 어디 있다'고 하던데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여요. 한참 후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처음 느낌은 '세상에 여기에도 집이 있네' 싶었어요. 아마 그 집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집이 팔렸습니까? 의약분업 때문에 팔린 겁니다. 의약분업 아니고는 그 집이 팔릴 거라고는 전혀 상상이 안돼요. 약국에서 약 사들고 나오면서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 장로님을 얼마나 이쁘게 보셨으면 우리 장로님 집 팔아서 좋은 데로 옮겨가라고 세상에! 의약분업까지 다 하셨네' 이런 느낌을 받고 온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이 볼 때는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할 수 있습니다.

6.25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김일성의 야욕 때문입니까? 스탈린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역사가들은 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욕심을 내어 가지고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온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6.25전쟁을 예측했다고 그러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고도 해방이 된 이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소리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내었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야 말 것이다'는 경고의 소리가 있었는데 6.25가 터졌거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외적을 들어서 징계를 가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맞습니까? 이런 말씀을 한 목사님들의 말이 맞습니까?

역사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할 뿐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세속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인이 보는 신앙적인 체험이죠. 그건 남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비밀스러운 사랑이야기입니다. 남들이야 보고 '무슨 소리?' 할 수도 있고, '웃기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남이야 뭐라든지 내가 보기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애길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전에 교육부장관 지낸 어느 분이 있죠. 학교에 몸담고 있을 때 저도 참 욕 많이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온 이후로 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분이 그 장관이거든요. 그 분이 개혁을 한다고 학교를 뒤엎어 놓았는데 '더 이상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서류 작성하고 보고서 꾸미는데 시간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교직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몇 년간 공부하려면 돈이 문제가 되는데 한 몇년 동안 걱정 안 하고 먹고살아도 될 만큼 줘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교육 개혁이라는 것이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을 못 내리고 너무 미루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 보라고 제게 주신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고백입니다.

자녀들 중에도 시원치 않은 자녀가 집집마다 있듯이 하나님께도 시원찮은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라고 온갖 관심을 다 쏟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가 내밖에 없나?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고 그러겠냐?' 그런 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히 못한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의 형제가 5남 1녀인데 어떻게 된 건지 형제들이 애를 많이 먹어요.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앉아 우시면서 하는 푸념이 '어째 마음 편케 해주는 놈이 한 놈도 없나?' 하고 우시는데 좀 섭섭하더라구요. 한 명쯤은 빼줄만도 한데..., 자식이 아무리 해 봐야 애 안 먹인다는 것은 빈 말이겠지만 그래도 별 애 안 먹이고 걱정하실까 싶어서 동생들 애기 들으면서 감추기도 하고 나름대로 도와준

다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나도 애를 많이 썼는데, 이런 아들을 옆에다 두고 “어째 마음 편케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노?” 하니 섭섭하더라 말입니다. 왜 그래요? 왜 옆에 자식이 하나 있는데 생각도 안 해주고 왜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잘난 자식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가 있어요? 제일 못난 자식에게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바로 내 자식이다. 네가 잘 해서 내가 주어야 할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자식입니까? 하나님은 나보다는 저 자식이 이뻐 보이지요?’ 이런 소리하면 안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린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마음 약한 남자가 프로포즈하려고 애인 옆에 앉아서 용기를 내서 입을 열려고 합니다. “있잖아...” 하는데 “아, 우리 옆집 강아지 있잖아, 어찌고 저찌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게 얼마나 미운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도 허탕,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용기를 좀 내서 말하려고 하는데 딴 소릴 한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답답하고요.

남편이 출장 갔다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빨리 자자” 하는데 잘 생각도 않고 옆집 강아지가 어떻게 옆집 순이가 어떻게 자꾸 얘기하면 그거 얼마나 미운지 아세요? 남편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데 엉뚱하게 다른 소리 자꾸 하고 있으면 되게 답습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고상하지 않다는 걸 감안해서 미움받을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잘 났건 못났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잘난 자식 많이 있는데 나 같은 자식에게 뭐 하나님께서 관심이나 기울이겠습니까?’ 이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면 나의 인내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 회사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 거대한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한쪽 귀퉁이에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흔들고, 나라를 뒤흔드는 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는 일들이 생겨나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수고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이웃에게 흘러 넘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가면 복이 쫄쫄 따라오는 고귀한 신분’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예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지방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예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의 종의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꾀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심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개역, 사무엘상 23:1~14]

목

사님께서 사회 보고 전도사가 설교하니까 황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더랬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냥 설교하시라”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양하는 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사양하는 흥내만 내다가 그냥 하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넘죽 받은 건지, 어느 것이 본심인지 저도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옛날에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마치면서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나중에 장가가면 아들 낳는가 봐라”였습시다. 훈련 마치면서 왜 아들 안 낳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고생을 나 혼자 하든 댕지 아들에게는 차마 이런 고생 못 시키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도 약을 올렸습니다. “아들 안 낳겠다는 것은 좋은데 너 아들 딸 골라서 낳을 자신은 있냐?” 그렇지만 제대하고 나오면 깨끗이 잊어먹고 결혼하면 아들이건 딸이건 관계없이 낳아서 기르고 그 아이가 군에 갈 때가 되면 ‘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자식이 또 얼마나 고생할까?’ 이러면서 애처롭게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된 판인지 군인도 아니면서 해병대 훈련소 들어가는 사람 더러 있대요. 짐작입니다. 마는 공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짐작컨대 돈 내고 고생하지 싫어요. 군인도 아니면서, 더군다나 여자아이도 가끔 있는데 왜 자기 돈 내면서 심하다는 해병대 훈련소에 들어갑니까? 군에 가서 고생했던 사람이 그걸 보면서 좀 모자라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끌려가서 훈련 받는 것은 공통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돈 내고 들어가서 고생 실컷 하고 나오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쓸데없는 것 했다고는 안할 겁니다. “역시 남자는 군대를 한 번 가 봐야 되고 훈련소 한 번 겪어 봐야 되고 배울 점이 참 많더라.” 이런 소릴 하겠죠.

훈련소? 고된 겁니다. 신대원 진학하니까 동료 전도사들이 자꾸 물어요. “시험 문제내고 채점하고 야단치다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시험치고... 요새 기분이 어떠냐? 학생들 심정이 이해가 되느냐?”고 그래요. 학생이 되어서 공부하면 숙제도 해야 하고 시험준비 해야 되고... 힘든 겁니다. 어떤 훈련소든지 재미있고 즐거운 훈련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소를 차려 놓고 우리보고 들어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 내고라도 한 번 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끌려 갈 때까지 버티어 볼랍니까? 아니면 죽어도 못 간다고 요나처럼 반대

쪽으로 도망가 볼랍니까? 도망을 요나처럼 가면 안되겠네요. 얼마 못 가고 다시 잡혀 들어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차려 놓은 훈련소에는 안 들어가려고 버티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억지로 끌려 왔다면 이왕 들어온 김에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받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끌려 들어가서 그 고생하느니보다는 내 발로 들어가는 게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단단히 고생하고 있구나 싫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창 도망다니고 있는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에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죠. 갈려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신하들이, 3절입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리이까’** 유다 땅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이 판국에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한국식 속담으로 말하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 판국에 어떻게 블레셋하고 싸우려 간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신세가 사울에게 쫓겨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 아닙니까? 그렇게 신하들이 항의하니까 다윗도 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다윗은 자신도 쫓겨다니는 형편이면서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사울이 **‘그가 문과 문밧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면서 다윗을 잡으려 내려올 궁리를 합니다. 평소에 다윗은 광야나 들판, 황무지 이런 곳으로 도망다니고 있었으니 찾기가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그일라라는 성에 들어갔거든요. 문과 밧장이 있다는 것은 성만 포위하면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넓은 마당을 뛰어 다니는 쥐는 잡기 어렵지만 방안에 있는 쥐는 방문만 닫아 놓으면 독안에 든 쥐라는 겁니다. 사울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잡으려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11절에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오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또 묻습니다. 12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 줬음에도 이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답변은 12절 끝에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하고 너를 사울에게 넘겨 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라고 합니다. 갈 수 있는 곳이 뭐예요? 갈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갔더라는 뜻입니다. 그일라에 있지 못하고 갈 수만 있다면 어디든 이곳 저곳 가릴 것 없이 어디든 갔더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도망 다닌 곳이 14절에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심 황무지 산골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 다니는 형편에 다급하니까 어디든 열심히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말씀이 참 묘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요? 다윗이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꼬박꼬박 대답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요? 어떤 아버지는 성질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계속 몇 번 물으면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대답을 잘 해 주십니다. 부자지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참 친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다윗이 매사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묻고 하나님은 거기에 꼬박꼬박 대답해 주시니 참 친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돌보아 주시는 겁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사울 손에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돌보신다는 게 분명합니다.’** 물으면 답을 차근차근하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돌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그렇게 친하다면 하나님께서 무얼 해 주시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한 가지는 안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쫓겨다니는 것은 안 막아요. 이왕에 다윗을 지켜 주시려면 모

처럼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을 때 사울이 못 오게 해 주시면 좋잖아요? 다윗도 이왕지사 물으려거든 “하나님 사울이 못 오게 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대답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이번엔 막아 줄게” 하고 다윗이 그일라에 좀 편하게 있도록 해 주셨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올까요?” “응, 올거야.” “이 사람들이 날 배반할까요?” “응, 배반할 거야.” “그럼, 도망갈까요?” 하고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친하게 대하시고 잘 대해 주신다면 사울을 좀 막아주고 고생 안 하게 해 주시는 게 좋지, 묻는 족족 대답하시면서 “하나님 도망가야겠습니까?” “응, 도망가” 이상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라 도망 다닙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남긴 말 중에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한 걸음만 빠듯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면 그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좀 돌봐주는 게 옳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잡히는 건 막지만 쫓기는 건 놔둔다는 애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마음먹어 본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집에 웬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형님들을 다 모아 놓고 누가 좋은지 골랐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하는 일에 아이들이 끼면 안된다. 그러니까 넌 나가서 양이나 봐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애들은 가라’죠. 어른들끼리 실컷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물었어요. “아들이 답니까?” “뭘,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조그마한 아이라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왔더니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아들이 이 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란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예요. 자기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운 이후에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군대장관이 되고 군사를 이끌고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왕의 사위까지는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왕이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왕의 사위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죠. 요새 텔레비전 드라마에 ‘도망자’라는 게 있어서 도망자라는 말이 친근감이 좀 있죠?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멋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도망 다니는 겁니다. 아내도, 가족도 버려두고...

나중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가족과 함께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데리고 있는 군사들도 처음엔 400명이었는데 본문에는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성깔깨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 틀리면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이 사람들 손에 다윗이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성질 고약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 저곳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도망은 다니라는 거예요. 한번은 도망 다니다, 다니다 못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번 도와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오더니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도망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다윗을 도와 주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갔어요. 견디다, 견디다 못해 국외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들어와서 복이기 시작합니다.

비유컨데, 권투심판이 “재하고 권투 한번 해봐라. 내가 심판 보면서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시합을 시작했는데 이기게 해 주겠다고 심판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나만 터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링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링 밖으로 내쫓았는데 심판이 “이기게 해 준다고 했잖아. 올라와.” 그래서 올라갔더니 또 터지는 거예요. 계속 터지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해 주신 말씀은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와라 이것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 유대 땅에서 네가 도망다닐 수 있는 한 최대한 다녀라. 그러나 사울에게 잡히지는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도와주시려면 제대로 도와

주시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넓은 땅(영토)을 주겠다는 것과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는 것인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땅이라고는 바가지를 쓰고 산 무덤 하나, 후손이라고 해봐야 겨우 희미한 아들 하나 뿐이었습니다. 후손들도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임무가 다윗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되풀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하시는 것은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과 그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훗날 다윗은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둘 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250년 정도 유지되다가 망해버립니다. 250년 동안 왕조가 9개입니다. 왕조가 9개라는 것은 쿠데타가 8번이나 있었다는 뜻이죠. 한 왕조가 20여년 정도 유지되었다는 뜻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기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잘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면 그 아들이 암살을 당하거나 독살을 당하거나 어떻게든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쪽 이스라엘은 약 500년 가까이 왕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왕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왕조가 100년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사방에 강한 나라들이 켜다다 무너지고, 켜다다 무너지는 그 사이에 끼여서 500년 가까이 왕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 나라는 500년이 채 안되어서 무너지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나라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런 나라를 세워야 할 임무가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나라를 세워야 할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특별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임무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평생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이 40년을 왕노릇했지만 그가 차지했던 땅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작은 땅입니다. 블레셋을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결국은 다윗이 그 모든 민족들을 제압하고 튼튼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열심히 도망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면 다윗에게 게릴라 훈련을 시킨 것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솔로몬은 이런 훈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에게 쫓긴 적도 없고 전쟁을 위해서 훈련받은 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역할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고생하면서 세워 놓은 나라를 물려받아서 안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지 이런 류의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대단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기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이 흘린 많은 피는 자의적으로 흘렀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켜놓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의 역할은 나라를 세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솔로몬의 역할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맡았고 솔로몬은 세워진 그 나라를 지키고 누리는 역할을 맡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

회가 그리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고난보다 어쩌면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딛고, 일어서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선 것입니다.

아직도 그 나라는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언제 완성되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와 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처럼 나라를 세우고 그 완성된 나라에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죽어라고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서 이 훈련소에 집어넣고 굴리는 겁니다. 열심히 굴려서 제대로 만들어 낸 후에 다시 그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겨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그 다윗이 있었기에 솔로몬같은 지혜의 왕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까? 누군가가 다윗이 되어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는 겁니다. 고생하면서 차 운전하시는 분은 다윗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차를 타고 편안하게 오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차 타고 내려면서 운전하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건방진 솔로몬입니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다윗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차려 놓으니까 온 성도가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식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즐겁게 식사하는 것은 솔로몬의 일입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는 다윗의 몫입니까? 누가 설거지하고도 몸살난다고 그러데요. 힘든 일이지요. 설거지도 힘들지만 나중에 상 치우는 것도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구요. 그 시각에 제일 여유있는 게 저밖에 없더군요. 찬양대 연습해야 되고 회의 들어가야 되고... 다들 바쁘니까 그 시각에 여유있는 제가 상을 치우는 게 옳겠더라구요. 요즘 저, 상, 잘 집습니다. 선수 다 됐어요. 작은 일이지만 상 접는 것도 다윗의 역할입니다.

교회 내에 가스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부엌에 가스가 안 나오면 어디로 가봐야 합니까? 제1교육관을 돌아가 보면 통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다 텅텅 비어 있으면 어디로 전화해서 불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급하면 목양실을 돌아가면 가스통이 또 있어요. 사택에 쓰는 것인데 그걸 빼다가 부엌에 쓰면 됩니다. 아침에 급하게 석유를 빼다가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석유통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런 역할들을 누군가가 잘 해주지 않으면 솔로몬이 와서 은혜롭게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청소 도구, 전기 스위치가 어디 있으며, 비가 오면 어디부터 새는지 잘 알아서 감당하는 분은 다윗입니다.

이런 일들은 열심히 해도 빛이 안 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번쩍번쩍한 왕은 솔로몬이지만 다윗없이 솔로몬의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나지 않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싸우고 다닙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이라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담당하는 모든 일들이 사소해 보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배시간을 제껴 놓고 나서는 것은 그렇게 잘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바쁘고 힘들더라도 예배시간까지 빠져가면서 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고에 한번 가 보십시오. 은혜 됩니다! 세상에,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정돈을 해 놓았을까! 제주도 제주도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정말 잘 정돈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스스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하고 집사하고, 누가 교회의 진짜 일꾼이어야 합니까? 집사요? 전도사를 무시하는 겁니까? 설교할 때는 설교자이지만 설교단에서 내려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교회의 일꾼입니다. 전도사 일 따로

있고, 집사 일 따로 있습니까? 비가 새면 전도사 따로 있고 집사 따로 있습니까? 나는 집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교회의 집사여야 합니다.

오래 전 일입니다만 비가 온다 싶으면 전 항상 가방에 옷 한벌을 챙겨 들고 교회로 갑니다. 오래된 교회 건물인데다 지어진 내력이나 구석구석을 잘 알기 때문에 비가 오면 어디서부터 샌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이 정도 비같으면 조금 고였겠다, 이 정도 비같으면 양동이 받쳐 놓고 쓸어내야 되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옷 한벌 챙겨 들고 가는 겁니다. 집사가 되고서 하는 일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하던 일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아무 걱정 안된다고요? 집사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차가 오늘 운행하다가 빠졌네.” 내가 못 타서 짜증만 낚니까? 아니요, 어떻게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나서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솔로몬처럼 살 겁니까? 모두가 솔로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구석구석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소중한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다윗이 맡은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시든, 휴지 한 장을 주으시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소하지만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다윗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겠구나.” 싶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감당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소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이런 어려운 기간들을 다 거쳤습니다. 모세는 40년 지도자 노릇을 하기 전에 애굽 왕궁에서 40년 교육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이라는 훈련을 거친 후에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바울은 당대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훈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훌륭한 제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셈이죠. 장교훈련이 사병들 훈련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장교들은 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더 심한 훈련을 받은 셈입니다. 위대한 왕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난 후에 위대한 다윗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꼭 붙들려 가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런 훈련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질한 일들이 다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도 중요한 훈련입니다마는 특별히 말씀에 대한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효자제일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을 다시 정돈하면서 쪽 훑어봅니다. 참 훈수같은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기가 해 놓은 설교를 읽으면서 은혜 받는다면 이상한 사람입니까?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말씀드린 설교를 다시 읽어보면서 정말 소중한 설교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설교는 정말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말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설교 한 편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설교를 수년 내에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배시간에 한 번 빠지는 것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놓치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들으나마나, 그게 그 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 교회에는 이미 성경공부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잘 모여요. 대부분의 성경공부는 인내력 테스트입니다. 잘 참고 버텨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성

경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모이는 모임은 벌써, 창세기, 계시록, 레위기를 마치고 다니엘서를 또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으면 주일 오후 가장 피곤한 시간에 모여서 끝도 없이 산을 넘고 또 넘어 갈까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도 스스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잘 훈련된 조교가 있으면 더 쉬울 뿐입니다. 공부하자 할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 지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옛날 약장수의 말이 생각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천천히 하지요? 글썄요? 그러다 후회하지 마시고 공부하자고 할 때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의 자잘한 일에 신경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훈련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속에 든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날을 위해서라도 훈련을 좀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말씀에 관한 한 다윗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설교 한편, 공부 한 시간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해 놓으면, 내가 다윗의 노릇을 해 놓으면 훗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솔로몬이 나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을 많이 해 두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일꾼입니다. 아니 모든 제직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보고 다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좀 있는가 싶어서 와 보면 부지런하고 손 빠른 분들이 먼저 다 해 놓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인원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나중에 억지로 훈련소에 잡혀 들어가서 이를 갈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일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애를 쓰셔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를 누릴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저 영화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유전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독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발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발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겟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독이더라 [개역, 사무엘하 9:1~13]

아 무런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복은 더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좀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어느 범위 내에서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지만 그 때까지는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는 이런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유전이라면 ‘돌고 도는 인생’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지요.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란 게 있었지요. 지금은 못나고 형편없지만 언젠가 나도 한번 별들 날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듯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란 것과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이 어려운 땅을 즐겁게 살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름도 별로 좋지 않은 시바란 인물이 있고 또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 시바는 사울의 종,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얼마 후에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는 다윗에게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왕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일부는 지하로 숨어들기도 했을 때입니다. 그러자 시바가 왕족들의 재산 일부를 자기가 가로채서 제법 평평거리며 살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들이 열 다섯이고 종이 스물이었습니니다.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를 누리기까지는 절름발이 므비보셋을 방패막이로 삼지 않았을까요? 왕의 후손을 보호한다면서 한쪽에 유배시키다시피 가둬 놓고 재산을 차지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므비보셋이 있었던 지명이 4절에 ‘로드발’입니다. 히브리 단어도 조금씩 아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히브리 글자에 ‘로’는 부정어입니다. 로암미 로루하마 가장 대표적인 말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를 로암미라 하고, ‘하나님의 공회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뜻에서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이란 말도 ‘드발’이 없다는 뜻입니다. 드발은 목초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목민에게 풀이 없다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땅이란 뜻입니다. 므비보셋이 머물러 있던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목초지가 없는 땅’ 그러니까 아주 황폐한 곳이란 의미입니다.

황폐하고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에 두 발을 쓰지 못하는 트비보셋을 숨겨놓았거나 아니면 반 강제로 유배시켜 놓았을테죠. 아마 공갈도 좀 쳤을 겁니다. 옛날에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전 왕의 후손들은 자칫 잘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네가 숨어 있다는 것을 왕이 알기만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꼼짝하지 말고 숨어 있어라.” 트비보셋은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감지덕지하면서 그 황량한 곳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바닷가에서 우리교회 어느 집사님이 아주 지능적으로 옆에 있던 분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당하는 분은 물에 빠진 자기를 건져주는 줄로 알고 바닷물 먹어가면서도 “고맙습니다.”를 연발했던 분이 지금 여기 있어요. 알아야 안 당하죠! 트비보셋은 깊은 산골에 갇혀서 시바가 자기를 도와주는 걸로 알고 감사하면서 거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시바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혼란기에 잔재주를 부려서 벼락 출세하거나 때돈을 버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돈을 잘 못 번다고 말하죠? 그러나 정직하고 부지런하면 돈은 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혼탁하고 어렵다 해도 부지런하고 정직하면 돈은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못 번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 때 말하는 돈은 때돈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착실하게, 꾸준하게 버는 돈이 아닌 한꺼번에 어떻게 왕창 벌 수 있는 그런 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탕주의가 너무나 만연하고 있는데, 버려야 합니다.

혹시 복권사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 로또 열풍이 부는데 복권 사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전혀 남의 일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때돈이 생기거나 벼락출세하는 일이 생기거든 받으십시오. 다만, 이건 내 것이 아니므로 남을 위해서, 혹은 선한 일에 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복권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디서 막대한 재산이라도 굴러 떨어지기를 바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벌지 않은 돈은 때돈이 들어온다 해도 결국 자기 것이 안됩니다. 복권만이 아니라 운동 선수들이 젊을 때 때돈을 벌어서 말년까지 행복하게 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착실하게 노력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막대한 재산을 물려줬을 때 자식들은 거의 대부분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유명한 어느 교수님께서 큰 회사에 강의하러 갔더니 자기 봉급의 몇 배 되는 강사료를 주더랍니다. 그걸 받아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학교수를 망쳐서 되겠습니까? 한 번 강의하러 내려오니 봉급의 몇 배를 주는데 대학교수가 밤낮없이 연구할 생각을 하겠어요? 어디 강의할 자리 없나 싶어서 찾아다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해서 주는 강사료일는지 모르지만 이런 막대한 강사료가 대학교수를 망칩니다.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마시오.” 그러고 갔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때돈이나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의 큰 돈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런 걸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그런 것을 바라고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하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힘써서 차곡차곡 벌어가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시바는 영 거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다윗에게 불려갑니다. 왕에게 갔더니 대뜸 한다는 얘기가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 내가 숨겨온 트비보셋이 있는데 있다고 말해야 되나, 없다고 말해야 되나? 잠시 고민이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질문에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대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3절을 보세요.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그 다음 말 보세요. 냄새가 나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하죠? ‘절뚝발이니이다’ 아니,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될 일이지 절뚝발이라는 소리는 왜 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장애인도 같은 인격으로 대우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장애인도 사람 대우를 못받았습니다. 절뚝발이를 찾아서 뭐에 쓰시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찾지 마

세요. 이런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므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부름을 받으면 시바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라는 낌새를 채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 뭐하시겠어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불러 오는 순간에 시바는 그동안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부와 재산과 지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다시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9절을 보세요.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과 네 종들은 주인을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궤하라’** 다시 종의 위치로 가게 됐죠?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친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건 사필귀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시바가 잔피를 부려서 누리고 있었지만 시바 자신에게는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썼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니... 잔피로 요령껏 쌓은 것은 무너질 때가 되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부정하게 쌓은 재산도 무너질 때는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정직하게 차곡차곡 쌓지 않은 부는 무너질 때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면 그 이전에 많이 누리고 누렸을수록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서 큰 소리치며 멋지게 살던 사람이 쫓겨나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가지입니다. 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느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언젠가 쫓겨날 때 바깥 어두운 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를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시바의 처지를 한 번 보세요 정말 땀방울이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이아들이 어느 순간에 전부 므비보셋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시바로서는 너무나 원통한 일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극히 정상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락없이 이 시바의 삶을 닮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므비보셋은 어릴 때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왕이요, 아버지 요나단이 왕자였는데 므비보셋이 다섯 살 때에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전쟁에 지자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삼촌이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은 평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삼촌이 암살되자 다윗을 피해서 방금 말한 이 로드발에 숨어서 살았죠. 재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목숨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을지도 모르죠.

시바가 재산을 다 가로챘지만 어쩌면 므비보셋은 자기 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것을 고맙게 여기며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므비보셋이 살아 있다는 걸 다윗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사실은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했더라면 더 일찍 므비보셋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주변에 싸워야 할 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제압하고 나라를 안정시켜 놓고 나니까 문득 옛날에 요나단과 맺었던 연약이 생각난 겁니다. ‘후손들을 꼭 지켜달라’고 한 부탁이 생각나서 그제서야 요나단의 후손 중에 남은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겨우 찾아낸 사람이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이 다윗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변했나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다윗이 찾는다는 말을 아마 시바를 통해서 들었겠지요. ‘다윗 왕이 널 찾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므비보셋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7절을 봅시다.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왔을 때에 다윗의 첫 마디가 ‘무서워 말라’입니다. 왕조가 바뀌었는데 전왕의 후손이 설마 좋은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윗이 알고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고 합니다.

내 상에서 먹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 상, 누구의 상입니까? 왕의 상이죠.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왕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므비보셋이 왕의 가족이 되었다면 왕자일 수밖에 없죠. 두려워 말라고 한 다음에 므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 준 겁니다. 로드발이라는 황량한 곳에 유배되어 있는 등 마는 등 한 므비보셋이 다윗의 부름을 받고 나간 순간에 신분이 왕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찾은 것은 거기에 비하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므비보셋이 나중에 재산을 다 잃어버릴 상황에 처합니다. 그 때 “재산은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므비보셋에게 있어서 재산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적한 곳

에 숨어서 몰래 살아야 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고 왕의 궁에서 왕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두 사람의 생애를 비교하며 정돈을 해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유전이라고 할 만합니다. 돌고 돌다가 결국은 예전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래 위치로 돌아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실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고 요나단의 후손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13 절부터 보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 때 왕자는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음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편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이 경쟁자가 될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기에 다윗의 대적은 자기 아버지도 포함됩니다. 적어도 요나단이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17절을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 사랑하듯이 사랑하면서 이런 부탁을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말대로 요나단과 사울은 다 죽었고 다윗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평정하고 나라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그때 옛날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생각해 내고 트비보셋을 찾은 것이죠. 다윗의 이 신실함 때문에 뒤집어졌던 상황이 바르게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등장함으로써 모든 불합리한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합리한 세상 이, 우리 눈에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것들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가 가졌던 억울함이나 분함이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이 좀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더라도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조금 물러나서 “그 래, 잘 먹고 잘 살아라”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여러 면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합니다. 다윗의 왕 위가 영원하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다윗의 나라는 다른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길었지만 결국은 끊어졌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위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속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시바입 장에서 본다면 심판의 나라입니다.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공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이지만 시바에게는 심 판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시바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들이 언젠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비명을 지를 날이 올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공의로 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시바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행한 말입니다.

반면에 트비보셋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트비보셋이 볼 때 이 나 라는, 다윗의 나라는 정말 은혜로운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요, 메 시야의 나라입니다. 트비보셋이 왕자가 되고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트비보셋이 한 일이 뭐니까? 아무 것 도 없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 트비보셋에게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과는 상 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한 일이 있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하나 있습니다. 트비보셋이 한 일이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 떨면서 다윗에게 나아온 것 뿐입니다. 그것도 일이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왕이

찾는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래서 내가 지금 붙잡혀 가면 얼마나 혹독한 고초를 당할지도 모르니 가서 고초를 당하느니 에라 미리 죽어버리자. 죽어버릴 수도 있을텐데 죽지 아니하고 왔으니 큰 일(?) 한 것 아닙니까? 두려워 떨며 다윗에게 나아온 이것이 므비보셋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복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게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을 알고 예측하고 나오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별 생각없이 그저 끌려서, 그냥 체면 때문에 한 번 가본 것이 어찌면 교회에 나온 첫발걸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므비보셋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한 노력이 됩니까?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라, 예배 시간마다 출석하라, 교회 일 뒤에서 돕는 것 다 한 번 모아보세요.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섬기셨는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 낮이 익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어요?” 하니깐 20년 다녔대요. 20년을 다녔는데 왜 제게 안면이 없지요? 전 40년 가까이 다녔는데? 그러자 그 분 하는 얘기가 2주에 한 번씩 갔으니까 20년이면 500번 되네요. 500번요? 엄청나게 갔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한 것을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얼마인지 네가 아느냐? 하나만 얘기할까? 내 아들을 죽였노라”고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계산한 게 어떻게 되죠?

우리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예요. 교회를 몇 년간 다니며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30년, 40년요? 꽤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몇 천년인데? 우리끼리 비교해보면 고생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교하면 우리는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것을 므비보셋에게서 표현을 빌린다면 ‘두려워 떨며 왕에게 나아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우리 능력으로 되지도 않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위한 상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입만 가지고 와서 숟가락, 젓가락만 들면 되는 만찬이었는데 우리의 구원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 상에 차려져 있는 떡과 포도주도 예수님께서 친히 차리신 것입니다. ‘맡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상에 올려놓은 음식마저도 예수님의 몸이요 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잔치에 제자들은 숟가락만 들고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 만찬에서 “숟가락이 무겁네, 짭네, 아니면 맛있는 반찬이 있니, 없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중요한 특징한 가지는 내 노력으로, 내가 많이 애쓰고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또 한가지 중요한 특징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재산을 회복하게 되었고 지위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회복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중 하나는 므비보셋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 정말 쓸모있는 유익한 인간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절뚝발이니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 말은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찾아서 뭐하시겠습니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제일 끝에 ‘두 발이 절뚝이었던’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저자가 절뚝발이에게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맨 끝에 이런 표현을 왜 붙여놓았을까요? 없어도 될만한 이야기를, 이제 왕자의 자리에 올라간 므비보셋의 이야기에 하필이면 이 한마디를 붙여 봐야 무슨 직성이 풀릴 일이 있는냐는 말입니다.

두 발이 절뚝이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에게 다윗이 풍성한 은혜를 주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앞 12절에 ‘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미가가 나중에 큰 일가를 이루어서 다윗의 나라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후손이 번성해서 훌륭한 용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12, 13절은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고 ‘이 쓸모없는 인간같은 므비보셋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아주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위도 회복되고 재산도 회복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쓸모없는 인간이 아주 요긴한 인간으로 변했더라 그것이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뜻입니다.

13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거하나라**는 말이 나오죠? 왕자가 되고 왕의 상에서 밥을 먹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야 말 안 해도 알 것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왜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지 않을런지 몰라도 므비보셋에게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감격 그 자체입니다. 전에는 로드발에 거했죠? 아무도 찾지 않는, 인적이 드문, 그 황량한 로드발에 살던 므비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나라. 이것은 대단한 감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황량한 로드발과 같은 땅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버려진 것 같은 므비보셋이 갑자기 왕자가 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왕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생활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므비보셋이 왕에게 나아올 때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8절에 보세요.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고 합니다. 죽은 개는 어디다 써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갖다 물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죽은 개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의 생각에 자기는 죽은 개나 마찬가지였던 말입니다. 그런 그가 뭘로 변했어요? 왕자로 변했습니다. 므비보셋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므비보셋의 그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로드발에 살고 있는 므비보셋과 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분통이 터지겠지만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때로는 시바의 공갈이나 위협이 우리를 겁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불렀을 때에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두려워 떨며 죽을지도 모른다고 갔더니 죽기는커녕 내가 알지 못했던 귀한 복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혹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참석하면서 나온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발걸음인지 아셔야 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져야 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감격스럽고,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남을 속이려면 누구부터 속여야 하는지 아십니까? 워낙 선하게 살다보니까 이런 말은 잘 모르시죠? 그러나 들어두세요. 남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남을 속이려면 자기를 먼저 속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거짓말도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말해 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진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므비보셋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시도도 없었고 그렇게 해 낼 능력도 그에겐 없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불렀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풀려버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 서 이 땅에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모두 왕자의 신분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일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긴 하지만 이미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저 멀리 로드발에 살고 있는 므비보셋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므비보셋이 누렸던 감격을 항상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복으로 바꾼 레위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그 노염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홀으리로다 [개역, 창세기 49:5~7]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돌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브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으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개역, 신명기 33:8~1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개역, 민수기 25:6-7]

어떤 분이 사고를 당했는데 찾아가서 “야, 이거 전화위복이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轉禍爲福’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사용할 때는 ‘이것은 전화위복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복이 될지 누가 아느냐?’는 정도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확실히 복이 된다.’든가 ‘확실히 복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혹시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아느냐?’라는 이 표현은 좀 희미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으니 단순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말한다면 일종의 요행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나 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이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아니면 비슷한 표현으로 ‘그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알맞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좋은 말씀이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참을 걸 참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확실히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혹시 복이 될지 누가 아느냐? 희미합니다. 요행수 비슷해요. 그만하기 다행이다? 위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긴 하겠죠.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만하기가 다행이다.’는 말이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1. 레위의 장래에 대한 야곱의 예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열 두 아들의 장래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로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들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므

온과 레위에게 하는 이야기는 별로 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5절을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라는데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입니까? 다른 사람도 다 형제인데 왜 이 둘만 형제라고 할까요? ‘둘이 똑같은 놈이요’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비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야곱의 가족이 세겟성 근처에 갔을 때 세겟성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몸을 짓을 하였습니다(창 34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딸을 범하고도 우리 아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으니 통혼을 하고 함께 잘 지내자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희와 통혼할 수 없다. 만약에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된다면 그 때는 가능할 것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겟성의 모든 남자들이 동시에 할례를 받고 드러누워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겟성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만약 주변에 있는 다른 성 사람들이 합세해서 들고 일어나면 살아남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야곱은 너무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고을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 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 후의 일이지만 열 형제들이 요셉에게 갔다가 인질로 잡힌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짐작컨데 동생을 팔아 넘기자고 앞장 서서 주장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많은 형님들 중에 하필이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놓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낸 것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과격하고 잔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이들의 장래사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절 끝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홀으리로 다’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400여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이들의 장래사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레위 지파의 장래와 야곱이 말한 레위 지파의 장래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 복받는 레위

신명기 33장 8절을 봅시다. ‘주의 둠뎁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한마디가 모세가 말한 레위 지파의 훗날에 대한 요약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 놓고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사장의 복장에는 가슴에 관결 흉패라는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흉패 속에 넣어두는 것이 우림과 둠뎁이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 착용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의 둠뎁과 우림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레위가 대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의 일을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장차 레위 지파에게 있을 일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주께서 그를 맛사에서 시험하시고 브리바 물에서 그와 다투셨도다’라고 하는데 이 맛사와 브리바라는 곳은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돌로 치려했던 곳입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을 얻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와 레위에게 대항하고 싸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그랬다고 합니까? 주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다투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를 향하여 다투고 시험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리 하셨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투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를 시험하고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백성의 중보자로 훈련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갈등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저주와 같은 정도로 벌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9절입니다. **‘그는 부모에게 대하여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지킴을 인함이라’** 말을 바꾸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알지 못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들을 돌보지 말고 팽개치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있었는지는 나중에 다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10절에는 앞으로 레위 지파가 하게 될 일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레위 지파라면 10절과 11절에서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만약 레위 지파라면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재산 풍족 아닙니까? 이번에 복권 많이 사고 싶었죠? 어느 집사님이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미워 죽겠더라고. 내가 무슨 잘못을 많이 저질렀나 했더니 복권이 사고 싶어서 못 건디겠는데 전도사님 설교를 생각하고 못 샀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에는 따라가려고 흉내도 내지 맙시다. 부모님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부모도 건전한 삶을 영위하겠지만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미칩니다. 일확천금? 결코 복이 아닙니다. 바라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로또 복권 이야기가 추적 60분에도 나왔단니까 열풍이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인데 초연하십시오.

재산 풍족도 레위 지파가 받는 복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더 나은 것 있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걸 제 뭉신데 고집사님이 욕심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꿈은 키우셔야 합니다. 재산 풍족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공부하자고 할 때에 열심히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전도사 노릇을 그나마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 제 걸로 남겨놓고 다른 것을 집으세요. 재산 풍족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재산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풍족하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의미로 재산 풍족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레위는 어떻게 소득을 얻지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레위의 몫입니다. 소득이 그것 뿐인 레위가 풍족해졌다는 것은 모든 지파가 풍족해졌다는 뜻입니다. 레위의 재산 풍족은 레위 혼자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풍족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가난한데 목사님은 사례를 많이 받아서 부유한 것과 교회는 아주 부유한데 목사님은 그냥 형편없이 살고 있다면 어느 것이 잘 하는 겁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목사님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온 교회의 복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풍족하다는 것이 곧 교회의 성도들이 풍족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레위가 그런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끝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이것은 어때요? 내가 레위 지파인데 내 말 안 듣고 나한테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허리를 꺾는다면 이거 어때요? 간혹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 말을 안 듣고 대적하면 패가 망신할 것이요 목사가 싫다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병이 들 것이고...’ 그런 말과 비교해 보세요. 레위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레위에게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그건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목사님들은 하시는 일이 잘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깨 놓고 얘기하면 본인이 회개해야 할 대목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잘못하고 일을 망쳐놓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겁도 없이 이런 소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저도 압니까 세월 지나면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할지요, 그래서 못된 소리한다 싶거든 “전도사님 언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하고 깨우쳐 주세요. 이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쓴다면 그건 성경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면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꾸중도 너무 심하고 잔소리도 너무 심해요. 아들이 생각 끝에 아버지 방에다 성경구절 몇장 걸어서 하나를 걸어서 두었습니다. 뭘 걸어서 두면 좋을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4) 좀 점잖네요.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공갈을 그치라’ /**상전들이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이니라**(에베소서 6:9) 이걸 아버지 방에 딱 걸어 놓으면 성경구절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함부로 떼어 내겠어요?

성경구절을 이렇게 쓰는 것은 성경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니만 성경 잘 아냐?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아들 방에 무슨 구절을 걸어두면 될까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마태복음 15:4) 이러면 이것도 성경 말씀 아니예요. 성경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까?’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말씀을 필요한 대로 떼어내서 이 말씀으로 저 녀석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결코 가져서는 안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에베소서 5:22)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아내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걸 남편이 외우면 안돼요. 남편 성경에는 그 구절이 없는 겁니다.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신 것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에베소서 5:25) 이걸 누가 외워요? 남편이 외우면 잘 하는 것이지만 그걸 아내가 외우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성경말씀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무서운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엉뚱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개석상에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올 때 절대 지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기는 지각하지 않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 듣기에 따라서 그날 따라 늦게 들어왔는데 하필 “저 기도가 날 들으라고 하네.” 이렇게 들릴 소지가 있다면 내용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든지 설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특정한 개인을 겨냥하는 것은 극구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조금 추상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잘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요약해 보면 레위가 앞으로 맡게 될 임무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은 레위가 하게 될 일을 말하는 것이고 11절은 레위가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레위의 장래는 8절의 첫 문장 **‘그의 둠뎡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 더 탐을 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자녀까지도 버릴 수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용기있고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겠습니까? 가족의 임무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버려야 할 때가 생긴다면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버릴 수 있다는 각오가 레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3. 저주받은 레위가 복을 받게 된 이유

야곱이 예언한 것과 모세가 예언한 것의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뭔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 속에 흠어져 버립니다. 흠어져서 거기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드리는 일을 맡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지요.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야곱이 말한 것과 모세가 말한 건 영 달라 보이는데 묘하게도 두 사람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흠여지리라고 하였는데 흠여졌습니다. 흠여져서 모세가 말한대로 제사장으로서의 귀중한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화를 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방식입니다. 레위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 남의 탓 아닙니다. 자기 탓이에요. 야곱이 언급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서도 그것이 그 자체로 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레위가 이렇게 변모했는지를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은 분명히 화였는데 이 화가 모세에게 건너오면서 복으로 바뀌어버린 이유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인 모세를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부르고 미리암을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이 아이를 어여뻐 여겨서 어머니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아이를 키웠죠.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낼 때 그 아이를 따라갔던 누이 미리암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래 따라갔다가 결국은 그 아이의 엄마를 유모로 들여놓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건져내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위 지파를 들어서 이 귀한 일을 하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본 그 본문에서 주께서 레위를 시험하시고 또 레위와 다투셨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반면에 레위의 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를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좋은 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중에 삼 천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부모고 형제고 친구고 자녀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조건 처단하는 이 일에 앞장섰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징벌하는 데에 레위가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좀 전에 보았던 그 말씀과 모세가 말했던 그 부분과 맞춰 보세요. 비슷하게 잘 맞습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거기서 모압 여자와 음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때에 이스라엘에 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이 때에 묘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2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울고 있는 때에 한 사람이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에 가운데서 일어나 그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엄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엄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사천 명이었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느낀 사람이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였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냐?” 싶지만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 자신의 질투심, 건드릴 수 없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4. 기회만 있으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 백성에게 별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만 있으면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설사 잘못을 범했다 해도 만회할 기회를 늘 주시려고 하십니다. 기회를 줄 때 조금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레위 지파가 비록 야곱에게 화를 받았지만 광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화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마음먹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응답할 때에 주어진 저주마저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에덴동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엉망진창이 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합니다. 아담이 세상을 얼마나 망쳐 놓았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을 계기로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화를 선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가 광야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5. 기회를 놓친 시므온

이쯤에서 설교를 마치면 되는데 우리교회에는 예민한 분들이 많아서 “전도사님, 레위는 그렇게 되었는데 시므온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는 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겠네요. 설교가 끝난 다음 “전도사님 이걸 이렇고 저건 이런데요.” 하는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직접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잘 듣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되새김질 하다보면 빠진 것이 있다고 질문을 추가로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되었지요?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이 같이 화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이야기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레위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가 비록 이런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

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복된 지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레위는 그렇지만 난 아무래도 시므온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 말입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언급한 이 복에 시므온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앞 뒤를 잘 비교해 보시면 광야생활을 시작할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오만구천삼백 명입니다. 그런데 40년 지난 후에 인구조사를 다시 할 때에 보면 이만이천이백 명입니다. 오만구천 명이었는데 이만이천이니까 절반 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다른 지파는 숫자가 다 늘어나는데 시므온 지파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려요. 이건 광야생활 도중에 많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좀 전에 보았던 민수기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 25장 14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과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혼이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족장 중 한 족장이며...’** 어느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입니다. 심지어 시므온 지파 중에서도 족장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광야생활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시므온 지파는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급감해버렸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전투를 하면서 땅을 확보해 나갑니다.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땅을 가장 넓게 차지한 유다 지파의 한쪽을 얻어서,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얻은 땅을 얻어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거기 그냥 살지 않아요. 각자 개인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이리저리 흩어져서 지파의 땅이 없어요. 이리저리 다른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레위 지파도 각 지파에 흩어지고 시므온도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6. 우리는 시므온인가? 레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레위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시므온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레위 지파로 부르셨구나!”라고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레위로 부르셨을까 시므온으로 부르셨을까?” 제발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레위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레위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필요하지 “내가 잘 하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레위로 부른 것이 아니고 시므온으로 부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레위 지파가 가진 그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거기 가서 “복이 될지 누가 아나?” 혹은 “아이고 그만하기 다행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마시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깁니다. 하긴 그 말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긴 하죠. 그러나 더 나은 것은 비록 이런 일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것을 복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레위가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그 질투심은 누구의 질투심입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레위가 가졌던 그 질투심은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질투심을 갖고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부모도 형제도 막을 수 없다는 이런 열심, 이런 질투심이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레위가 큰 복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2003.02.09] 화를 복으로 바꾼 레위 (창세기 49:5~7)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질투심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도 레위가 받았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선아! 하나님의 뜻이란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개역, 누가복음 22:39~46]

아 이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갑자기 넘어졌을 때 엄마의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를 안고 호들갑을 떨니다. “왜 조심하지 않고 그랬냐? 어디 다친 데 없느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으로 아이를 돌아보며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는 무덤덤해요. 그냥 “일어나!” 그러면서 쳐다보기만 합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엄마와 무덤덤한 엄마 중에 어느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생각할 것 없습니다. 둘 다 진짜 엄마입니다. 그러면 어느 엄마가 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애가 넘어져서 다치면 애를 끌어안고 호들갑을 떨고 난리법석을 떠는 엄마가 더 잘 하는 겁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이를 더 감정적으로 대할 뿐이죠. 넘어진 아이를 향해 “일어나!” 하면서 말만하고 거들어 주지 않는 엄마도 여전히 친엄마입니다. 단지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일으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고, 일으켜 주고 싶지만 스스로 일어나라는 뜻으로 기다리는 것이 삼자가 보기에는 무덤덤해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속까지 무덤덤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엄마는 아이를 좀 이치적으로 사랑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가 잘 하고 못 하고의 차이는 아닙니다.

어느 집사님이 토요일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틀림없이 애가 따라 나설 것 같아서 미리 단도리를 했답니다. “너, 오늘 이것 이것 다 해 놓으면 교회 갈 때 데려간다. 안 해 놓으면 안 데려 간다.” 두 시간 뒤에 “다 했니?” 하고 물으니 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다 해 놓은 아이는 다 큰 아이입니다. 대부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은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해서 “너, 하라 한 대로 안 했으니 안 데려 간다” 하는 순간부터 애가 울고불고 떼를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손을 짹짹 빌면서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온 동네가 떠내려가도록 우는데도 엄마가 독한 마음을 먹고 떼어놓고 내려와서 차를 타 버렸답니다.

차 타고 한참 오다가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울어대던 애가 염려되어서 전화했지요. 전화하니 애는 깨끗이 잊어먹고 잘 있더라고요. 전화통에 대고 하는 애기가 “엄마는 딸이 그렇게 우는데도 마음이 안 아파? 어떻게 날 버려두고 그냥 갈 수 있어?” 말하자면 작전상 옳었다는 거죠. 지금 누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내려오면 그냥 내려오지 차 안에서 전화는 왜 해요? 걸으로는 매정하고 냉정하지만 사실은 불안한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는 어떤 경우에 걸으로는 태연하지만 속으로는 애간장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 제 딸 애가 일찍 깨워달라고 해서 깨웠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가니까 “금새 공부 다 했다.” 하고 또 누워 있더라고요. 빈둥거리고 있더니 한참 후에 “아빠 오늘 늦었으니까 차 좀 태워줘.” 하는 거 있죠. 저도 좀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네가 누워서 뒤척거리다가 늦었으니 네가 책임져! 그런 경우는 못 태워준다.” 결국은 그냥 보냈는데 집사람한테 야단을 좀 맞았죠.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게 매정할 수 있는냐?”는 거죠. 아무 말 안 하려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안 태워주는 나는 마음이 편한 줄 알아?”

개가 오후에 집에 올 때까지 난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저 녀석이 아빠한테 빠진 거나 아닐까? 성질이나 부리지 않을까? 오후에 집에 들어올 때 애 표정부부터 살피고 있었습시다. 그런데 애는 깨끗이 잊어먹고 탄 소리하면서 들어오는 것 있죠. 그때야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태워 달라는 것 안 태워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안 태워줄 때는 제 마음도 편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자기 처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럴 땐 태워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안 태우는 게 더 힘들어요.

최근에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애썼는데 하선이 가 또 수술을 해야 하고 한쪽 안구를 적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저도 몸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자인 제가 그럴 것 같으면 부모의 아픔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힘이 듭니다. 또, 신대원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더군요.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도 후진국가란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조금만 사리판단이 분명했거나, 조금만 용감했거나, 조금만 책임감이 있었더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어떻게 저렇게 크게 벌어질 수 있었느냐는 생각에 화가 난다고 그럴까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튿날 신문을 보다가 더 가슴 아픈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방에 잘나지도 못한 제 얼굴이 크게 그려진 초상화가 있습니다. 실물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아이가 계대 미대 졸업식에 가다가 사라진 거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을 두고 보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그 초상화는 다른 액자로 가려버렸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예배 마치고 대학 동문들이 몇 명 모여서 “수요일 저녁예배 후에 기도라도 하자” 하고 모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데 계시는 어느 동문 교수님의 큰 딸이 초등학교생인데 3년 전에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1년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때 그 아버지가 치료방법을 이리저리 연구하고 찾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뼈를 잘라내서 태워가지고 그걸 다시 원 위치에 끼워 넣어서 치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 둘째 애가 또 그렇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동문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모였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더니 월요일에 장례를 치렀답니다. 애 둘을 그렇게 잃어버린 선배의 마음이 어떠할는지...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답니다.

그런 참에 저희 형제가 5남 1녀인데 기도해야 할만한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바로 밑의 동생이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랍니다. 위암인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본인으로서 조기발견이라서 괜찮다는데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햇수는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때에 그 부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아야겠지요.” 하더니 “그렇게 빌고 빌었는데 어떻게 신랑을 데려갈 수 있느냐?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만 있어도 괜찮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아야겠지요.”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었어요.

위로할 말이 없었지만 그 때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남편을 그렇게 데려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아픈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픔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님은 가신 분의 몫까지 다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계시는데 두어 주 전에 집사님이 거길 갔다 왔어요. 몇 년 동안 소식도, 사는 모습도 잘 몰라서 궁금했는데 다녀와서 하는 말이 “홍 집사님이 그 때에 위로하던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편 복은 안 주셨지만 돈 복은 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IMF시절, 그 어렵던 시절에 하는 일 마다 잘 되고 남들은 안된다 안된다 하던 시절에 매출이 배로 올라서 한마디로 돈을 감당 못할 지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솔깃한 분 계시요? 남편 복이 닳습니까? 돈 복이 닳습니까? 빨리 대답하는 것이 점수 딸 기회인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하고 이런 아픔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픔을 당하여서 눈물짓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이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우시진 않았습니까라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단순한 친구의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 왜 이런 죽음이라는 아픔이 오게 되었는지,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참아야지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주 큰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신 말씀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했는데 대단한 신앙고백이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 의도적으로 나쁜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하면서 이 아픔을 “하나님의 뜻이니 참아야겠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애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신앙고백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마는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닐 수도 있음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뜻은 닥쳐오는 잔을 피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어려워했던 것이 무엇에 대한 고통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구구절절이 설명하기도 합니다마는 설명을 이해하기조차 어렵더군요.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이었느냐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이 고통을 견디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큼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이 고통,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극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는 육체의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아 본 사람만이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데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피해가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피땀 흘려 행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고통 앞에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힘들었고 기도가 간절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을까요? 천사가 도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힘을 더해 주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부자지간에 왜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이 고통은 하나님 자신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또 이 잔을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다는 이 마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겼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을 사람이 깨버린 겁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깨버렸단 말입니다.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땅은 저주를 받고 온갖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 불행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온갖 수고와 병과 전쟁이 끊임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간의 뜻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뜻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인간의 실수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구지하철 참사를 보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을 위로하거나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희생을 당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소임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후진적이고 온갖 부패, 무책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총집합 된 것,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었겠느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인간의 실수요,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무능함이 그 원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암이란 병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예전에 대흥교회에서 저희 또래끼리 모여서 왜 이렇게 암이 많이 생기느냐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주원인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작전을 하나 쓰자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했는데 제일 좋은 의견은 “아무에게도 소식을 알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사라지자. 하루만이라도 집이고 교회고 아무데도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 깨끗하게 사라져서 어디 산에 가 가지고 하루쯤 있다가 내려오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찬성했습니다. “한 번 그래 보자. 참 재미있겠다.” 다 좋아했는데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실행할 용기까지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암이란 병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아직도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니까 ‘정말 드물고 희귀한 사례다’면서 감탄(?)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이 문명의 발달이 어찌하면 이런 병의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많이 생겨나는 원인 제공자도 여전히 인간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면 치료할 수 있는데도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쳐 버리고, 치료하지 못하는 이것도 어찌하면 인간의 책임일지 모릅니다. 에이즈가 왜 그렇게 온 세계적으로 말썽이 됩니까? 이 병이 번창하게 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부 인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도저히 치료되지 않는 강한 내성을 키우는 병원균들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병원균들을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 것도 여전히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감기를 우습게 알았죠. 그런데 요즘은 우습게 볼 수 있는 병이 전혀 아닙니다.

왜 이것을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인류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전쟁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데 쓰는 돈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데 돈을 썼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엉뚱한 곳에 가서 쏟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불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병원을 세우고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허비하는데 쓰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한 번 보세요. 정말 인류를 위해 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허비하는 돈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시내 한번 나가 보세요. 병원은 군데군데 있는지 모르지만 여관이고 술집은 빈틈없이 들어차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여관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집 놔두고 왜 저기 가서 자냐?” 누가 그러대요. “출장가면 저런데 가서 자야지.” 그러더라구요. 출

장간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 시내 한복판에 무슨 여관이 그렇게 많은지 왜 집 놔두고 다른데 가서 자요?

사람들이 돈을 정말 써야 할 곳에 쓰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병들이 다 정복되고도 남았을텐데 그런 곳에 투자 않고 엉뚱한 곳에 다 허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병들어 좀 더 일찍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로 저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위로한답시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참으셔야지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이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인류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예방하고 병을 고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그런 노력으로 해서 이 세상이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이 낫기 위해서, 이 불행한 세상에 불행을 막기 위해서, 이 불행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친히 겪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이 떠남으로서 발생되었고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오셔서 이 험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어떻게 사람에 의해서 깨어질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어버릴 수 있었는지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너살 먹은 갓난아이가 다 큰 어른을 울릴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정말 사랑할 때는 갓난아이가 부모를 울릴 수 있어요. 이주영 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 왔다가 어떻게 좀 늦게 집에 갔더니 애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덩치가 커다란 윤 집사님은 위층으로 거의 울부짖다시피 애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다니더라고요. 금방 찾았길래 망정이지 바로 못 찾아내면 다 큰 어른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쏟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나 버린 겁니다. 그랬기에 아름다운 에덴동산은 다 망쳐졌고 우리는 거기서 쫓겨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더라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더 낮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불합리하고 불행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다시금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불행이 우리가 당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행, 이 아픔을 중지시키고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었을까요? 너무 쓸데없는 고민합니까? 차라리 이런 고민이 나아요. 어느 분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누가 먼저 이것을 제안했을까? 두 분은 같은 분이예요. 같은 분 즉, 한 분이예요. 한 분이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하나님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들거나 혼을 줌 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면 아이가 매 맞아서 울고 아니면 고집을 피운다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더 아픈 사람은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매를 들고 야단을 쳐본 사람만이 압니다. 온 동네가 떠내려가도록 울고불고 하는 아이를 냉정하게 뿌리치고 내려온 엄마가 내려오면서 전화는 왜 해요?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정작 아이는 열심히 울어대다가 엄마가 간 것을 보고는 더 울어봐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딱 그쳐 버립니다.

어린이들도 비빌 언덕 보아가면서 비비는 겁니다. 부모가 냉정하게 자르기 시작하면 아이는 더 이상 비비고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정작 아이는 정신을 차리고 더 울어봐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놀고 있는데 그때까지 마음 아픈 건 그 아이를 떼어놓고 나가는 엄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편치 않게 만든 것이 인간들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고통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이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가 문제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도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인간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 당하며 힘들어 하고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이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께서 먼저 겪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못 견뎌하며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이 불행한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요 하나님 당신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싶거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범죄한 이래로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불행한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아픔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나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효자제일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는 결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깨끗이 순복하겠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 이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주 좋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이런 세상이 빨리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이 세상을 빠르게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심한 고난을 먼저 당하셨음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가장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시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의 장난입니까? 하나님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마귀의 장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마귀의 짓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확실히 알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욥을 응원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마귀의 장난이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처럼 “아 하나님께서 아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울의 정신나간 짓입니까? 사울에게 쫓겼던 것이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훈련이 되고 나중에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튼튼한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측면으로는 사울이 지금 정신이 나가서 다윗을 죽이자고 쫓아다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누구의 뜻이나, 원인이 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탄의 짓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마귀가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 짓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부인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베드로의 연약함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귀한 사역자로 세우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혀 본다면 베드로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누구의 실수냐 이런 것보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 마귀의 장난짓,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연 집사님께서 하선이 수술을 끝내고 남긴 글에 “하나님께서 하선이 한 쪽 눈을 가져가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김수연 집사님의 이 고백을 부정하고 싶거나 그 아름다운 고백에 흠집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된다면 이보다 더 나은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도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아픔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에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하고도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칫하면 마치 체념인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니 그런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전에 왜 이런 불행이 생겨났는지를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 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선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란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에 그 결과로 생겨나는 가슴 아픈 현실이란다. 우리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더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해서 이런 불행한 결과가 왔단다. 그렇지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불행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단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고통 모든 슬픔이 없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나은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픔을 겪는 김수연 집사님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와서 겨우 2년 동안 계시다 가셨지만 믿는 신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모범을 참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을 겪을지 모릅니다.

또 하선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오히려 시험이 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꼭 한 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설교 한편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 버려서 조금 탈진하다시피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드려야 할 말씀이 참으로 많지만 절제하고 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때때로 자녀의 아픔을 도와주기보다 바라보기만 해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 일들도 물러서서 그냥 바라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방이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을 누가 지켜보다가 하도 애처로워서 껍질을 찢고 나방을 꺼내어 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나방이 날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쓰는 동안에 날개에 채액이 퍼지고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이 찢고 도와줬더니 접은 날개가 퍼지지 않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날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에 가슴이 아파도 가만히 놔두고 봐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불쌍하다고 도와주면 안된다는 뜻이죠.

마라톤 선수가 풀 코스를 다 뛰고 마지막 10m쯤 앞에서 기진해서 넘어졌습니다. 일어날 힘은 없고 겨우 갑니다. 가서 도와주면 됩니까?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지만 가서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가서 몸에 손을 대고 일으키는 순간에 그동안의 모든 고난은 물거품이 됩니다. 실격으로 처리됩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일어서라고 온 힘을 다 해서 고함을 지르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은 기어서 가든지 굴러서 가든지 선수 자신이 가야 합니다. 안타깝다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애깁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을 당할 때에 이 아픔이 우리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한 아픔을 겪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이 아픔에서 잘 이겨내도록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응원단장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을 내가 먼저 당했고, 내가 먼저 겪었고, 내가 먼저 이겼단 말입니다. 견디내라고 하나님께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겻세마네 동산에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크고 더 큰 아픔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덮쳐 오는 이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이 땅의 작은 아픔을 잘 견디어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하선이와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문둥이었다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칠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칠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칠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개역, 레위기 13:1~17]

문둥이의 세 가지 의미

다 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 들으면 거부반응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경상도 사람들끼리는 거부감이 전혀 없는 표현 중의 하나가 ‘문둥이’라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만나면 이름도 없고 전부 동일하게 ‘문둥이’입니다. 경상도 사람들끼리는 상당히 친근감이 있는 말입니다. 원래 문둥병 환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문동(文童), 학문하는 아이라는 뜻에서 썼던 말이 그렇게 와전된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둥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띠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 어릴 때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겁줄 때 하던 말이 ‘문둥이에게 잡혀간다’는 말이었습니다. 본 적도 없지만 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데도 어른들이 아이들 겁줄 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둥이가 아이들을 잡아가서 간 빼 먹는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소견에도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간을 약으로 쓴다고 그러는가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좌우간 말 안 듣고 집에 잘 안 들어 오고 혼자 숲에 늦게까지 놀면 ‘문둥이가 잡아간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문둥이라면 무서워했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이 비참함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슬픈 이야기마다 주인공이 문둥병이 들어서 소록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릴 때 읽었던 이야기에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소록도로 가는 배를 타는 곳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가족들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까지 가서 마지막 순간에 배를 안 타려고 부둥가를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장면을 묘사했던 소설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의 문둥이는 비참함과 서글픔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병을 오늘날 우리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병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요. 나환자촌에서 나온 고기나 계란을 아무 거리낌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있지만 우리가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거기서 사는 아이들도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걱정을 않지만 2-3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천형이었죠. 하늘이 준 천벌이라는 의미에서 천형이라고 불렀던 병입니다. 하물며 이 병이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은 상당히 긴 본문인데,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을 ‘나병’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한센씨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본문도 언젠가는 그렇게 바뀌어지리라고 생각

합니다만 본문에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으니 용어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냥 쓰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자체가 좀 재미없죠? 문자 그대로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함께 레위기를 공부했던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레위기도 이렇게 재미있습니까?”라고 하는데 알면 재미있고 모르면 재미없는 법입니다. 기회가 되거든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전체도 언뜻 보면 재미없는데 특별히 레위기 13장 문둥병에 관한 이 얘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미도 없고 상관도 없는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까? 재미없고 의미가 없는가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보약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살펴 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봅시다. 레위기에 제사제도가 많이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나 제사제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것임에도 우리가 제사제도를 공부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걸 잘 공부하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또 레위기의 많이 부분이 정결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오늘 우리와 관계없는 듯 합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 삶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구속받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문둥병의 판정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문둥병은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문둥병은 이제 정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현재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영혼에 드는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데려갈까요? 치료를 위해서 데려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이나 아니냐를 판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3절에는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제사장이 문둥병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애매한 경우가 나옵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칠일 동안 금고하라고 합니다. 금고란 격리 수용하라는 뜻이죠. 7일 후에 다시 살펴보아서 문둥병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확인합니다. 칠일간 금고했음에도 잘 모를 경우에는 다시 또 칠일을 금고했다가 살펴보라고 합니다. 10절에,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난육이라는 것은 피부가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11절에,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여졌으니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부정한 것이 확실하므로 격리 수용해 둘 필요 없이 바로 문둥병 환자로 취급하라는 말입니다.

번역의 어려움

13장 전체 본문이 너무 길고 내용도 많아서 주의사항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오늘날 의학에서 말하는 문둥병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47절 이하에, 옷이나 가죽에 나타나는 증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둥병이라기보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성 곰팡이 종류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악성 피부병이나 곰팡이류까지도 본문에서 말하는 문둥병이라는 표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앓았던 병이 무슨 병이죠? 속병입니다. 속병이라는 것이 현대 용어로 하면 무슨 병일까요? 어쩌면 화병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습니다. 골병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심장병일 수도 있지만 전부 도매금으로 속병이라고 했습니다. 병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2000년 3000년 전에 레위기가 기록이 될 시절에 병을 분류하는 방식이 오늘날처럼 세밀하고 전문적

이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성경이 좀 폭 넓게 이런 병들을 전부 문둥병이라고 규정을 하고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교사로 있을 때 경주로 발령이 나서 가다보니까 출근길이 참 아름답더라구요. 수업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그 소감을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꽃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개량된 무궁화도 많이 피고 벚꽃도, 개나리도 많이 폼니다. 이런 꽃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니까 이름도 괴상망측하고 길어서 설명이 잘 안돼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으냐?”고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네요. “당신은 미국 사람 아니냐? 미국 사람이 영어로 이걸 모르면 어떡해?” 그래도 잘 모르겠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주변에 꽃들이 많이 피면 우리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분 얘기가 지금 자기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꽃들이 미국에서 보던 꽃과 다르답니다.

우리나라의 멸치, 쫄치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같은 고기는 아닙니다. 비슷한 고기와 연결시켜 놓았을 뿐이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랍니다. 옛날에 히브리말로 기록된 것을 시간도, 공간도 엄청나게 다른, 오늘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긴다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병에 대한 분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되기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이해하면 현대의 악성 피부병에 해당되는 곰팡이 종류를 문둥병이라고 한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가지는 30절부터 보시면 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일종의 기생충입니다. 욕 종류도 문둥병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번역상 어느 정도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도 과거를 되짚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옮길 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엘로힘’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옮길 때 뭐라고 옮길 것인가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멋지게 발견해낸 말이 ‘하나님’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없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발견해낸 것은 성경을 번역해낼 때 발견해낸 멋진 말입니다. 그렇다고 매사가 이렇게 뜻대로 쉽게 되지는 않았습시다.

옛날 성경을 구경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말에 개념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이란 걸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저도 상상도 못했지요. 안식일을 ‘사밧날(日)’이라고 해놓았더라구요. 이게 뭐냐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말로 안식일은 ‘사바쓰’인데 영어로 ‘사밧day’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사밧날(日)’이라고 한 겁니다. 성경 본문에는 ‘사밧날’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다가 설명을 길게 달아놓은 거죠.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보면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수고한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보이는 듯 싶어요. 그렇게 성경을 오래도록 쓰다가 누군가가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내었겠지요.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안식일이란 용어를 씁니다만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병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 모든 걸 감안해서 정확하게 번역해야 하겠지만 초창기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번역해 준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특히 한국이 선교역사에서 특이한 것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성경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가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의 한 분이 존 로스라는 분인데 이 분은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던 목사님입니다. 어떤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한국사람들에게 한글을 배워가며 성경을 번역하려고 시도했는데 하도 어려워서 지원을 요청했더니 언어 번역에 재능이 있는 분을 물색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목사님을 파송한 겁니다.

이 분은 도대체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이 머나먼 곳에 와서 한국말을 배워가며 성경을 번역해낸 겁니다. 번역을 완료한 후에도 그걸 한국에 전달하기까지 얼마나 고충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번역된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탓하기 전에 이 일에 먼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 좋은 번역들이 나오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분들을 잊지 맙시다.

지금도 성경번역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선교하는 방법이 독특하죠. 그냥 사는 겁니다. 살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를 다 배웁니다. 배워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때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선교사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몇 개 국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 정도 재능과 능력이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찾아가서 살고 있는 곳이 후진국이고 어려운 곳입니다.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위험한 곳에 살면서 오직 성경을 번역하는 것만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역을 합니다.

네팔에 성경번역 선교사로 가 있던 선교사 한 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귀국했다가 공부를 하느라고 신대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이 분은 샤워를 하루에 두 번씩 꼬박꼬박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깐 밀린 것 한꺼번에 다 한대요. 네팔에는 샤워시설이 없답니다. 목욕탕도 없고요. 그냥 계곡 물에 풍덩풍덩 하다가 행귀서 나오면 끝인데 때를 민다는 개념은 아예 없답니다. 그렇게 6년이나 있었으니까 여기 와서 앞으로 못할 것까지 감안해서 부지런히 하고 갈 거랍니다. 하루에 한 두 번은 꼭 샤워장에 가서 아예 독판치다시피 그렇게 있어요. 다시 네팔로 돌아가셨으니 또 몇 년간 때를 묻혀서 오겠죠.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조금 말이 어렵고 옛날 표현도 많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잔소리가 고마울 때

어떻게 보면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고 덕될 것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사람의 병이 문둥병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 이 사람의 생애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옵니다. 문둥병이라고 판정이 나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려면 아주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함부로 문둥병이라고 판정하면 되겠어요? 진단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걸린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재미도 없는 얘기를 뭐 길게 하고 있느냐?” 그러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남의 일이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단정짓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버릇입니다. 적어도 이 병이 문둥병이냐 아니냐를 판정 받아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사 문제가 걸린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겁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야기를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대체로 잘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대범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대범하게, “그래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가만히 내버려 뒤편 보세요. 사고가 터져도 얼마나 터지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붙들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 잘 하는 선생님입니다. 너무 심해도 안되겠지만 아이들을 붙들고 일일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자잘한 선생님이 잘 하는 거지 사고를 치든 말든 숙제를 하든 말든 대범하게 입 꼭 물고 “그래 마 잘 한다.”고 내버려두면 결코 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술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입장이라면 이 기록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영적인 문둥이

제사제도나 다른 정결제도에 있어서도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문둥병에서도 우리는 분명

히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것이 이 문둥병의 모습이 죄가 지니고 있는 속성과 아주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문둥병은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 걱정을 하지 않지만 2-30년 전만 해도 이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고 천형, 하늘이 내린 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문둥병을 고친 기록은 몇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몇 군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고치신 경우만 몇 번 언급될 뿐이지 문둥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오늘 설교제목이 '나는 문둥이었다' 과거형으로 된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린 지금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병이 다 나은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서 놓여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만 치료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음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없었다는 말이지요. 문둥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것보다 교회 안 다니면서 선하게 사는 우리가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 이상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끼리 선하다, 비교적 착하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끼리 선하다 착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슨 선한 일이 되겠으며 무슨 착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선하고 충성스럽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오히려 더 큰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 5공 시절에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의리와 충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보스에게 충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충성이지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백성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안겨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끼리 선하고 착하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는 오히려 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과정으로도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병이라고 의심이 되어도 제사장에게 데려갔고 병이 나았다 싶어도 제사장에게 데려갔습니다. 치료하러 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둥병은 제사장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문둥병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의 형태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 몸의 튀어나온 부분이 점점 뭉개져 버립니다.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튀어나온 부분이 뭉개지니까 문둥병 환자는 형상이 아주 혐악해집니다. 우리 몸의 튀어나온 부분, 귀, 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뭉개져 사라집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해 놓으셨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을 점점 무너뜨려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문둥병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병이 들면 가족을 다 버려두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환자촌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나환자는 전부 소록도로 가는 길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환자촌이 지방마다 군데군데 있더라구요. 그 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남편이 병이 들어서 가게 되면 따라간 부인들이 더러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부인이 병들어서 떠나야 할 때 따라간 남편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말을 들을 그 때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반성을 하기는 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즘 같으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개과천선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이 병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의 형상이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속의 죄악된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완치된 문둥병자지만 과거에 병들었던 흔적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지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완치되었으면 손가락이 붙어 있었겠지만 손가락이 떨어져나간 후에 완치되었으면 완치되었지만 그래도 손가락은 없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많이 끼쳤고 우린 지금도 그런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되었지만 아직도 이 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을 흉칙하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찢려서 아픈 것도 행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문둥병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교육 받을 때 문둥병의 증세 중의 하나가 살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 흰털이 나고 바늘로 찢러보아서 아프지 않으면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난삼아서 옆에 있는 아이를 콧 찢러보고 “아야!” 하잖아요? “니 문둥이 아니네.” 그러면 찢린 놈도 웃고 말죠.

여러분, 문둥병은 찢러도 감각이 없습니다. 나환자들을 치료하던 의사 한분이 아주 피곤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신발을 벗는데 뒷꿈치에 감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바늘로 찢러보았더니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분이, 나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던 외과의사였는데 ‘내가 나환자를 돕자고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해야 된다고 여태껏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내가 나환자가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리고 나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외과수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혼자 밤을 새우며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해 오던 모든 일을 손을 놓아야 하고 나도 나 혼자서 떠나야 하고 여태까지 내가 나환자를 도와야 한다고 그렇게 많은 일을 벌였던 것이 이제 오히려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될 입장이 아니냐?’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튿날 아침에 또 찢러본 거죠. 찢러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찢려서 아플 때 기분이 어떨까? 세상 천지에 바늘로 찢려서 아픈 기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피로하고 조이는 신발을 신고 너무 많은 여행을 한 끝에 잠시 신경이 마비가 되어있었던 걸 의사 자신도 모르고 나병 걸렸다고 밤새도록 오만 가지 그림을 다 그렸더라는 겁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신발에 있는 못이 올라와서 발바닥을 찌릅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 부분이 상처가 나고 썩어 들어가는 거죠. 찢러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것이 문둥병의 특징 중의 한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싸움을 하거나 안 좋은 소리하고 난 다음 돌아가서 ‘그래도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차마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면서 속으로 가슴이 아프고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습니까? 아직은 문둥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감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염려스럽습니까?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옆의 성도들과 싸우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못된 소리 해 놓고도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 잘 주무십니까? 감각이 죽었다는 뜻이고 문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찌르면 찢리는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찢려서 아픈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쓴소리 한마디 내던지고 나니까 ‘그 성도가 나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고, 아니면 남이 전혀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힘들어 하실까?’를 생각하고 가슴 아픈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찢렸을 때에 아픔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둥병자예요. 죽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문둥병의 특징은 언제 걸렸는지, 자신이 걸려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병입니다. 병이 걸려 있으면서도 이게 어떤 병인지, 내가 걸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령 건강이 악화되었다거나 화상을 입었다거나 종기가 났다거나 하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 속으로 한발 한발 내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죄짓는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김하게 하려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발 한발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터져 나오는 거죠. 일단 터져 나오게 되면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삶이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이나 회사라면 IMF가 터져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나 회사는 IMF 이후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빚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이 생각합니다. 빚 안 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우리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감안해서 수준에 잘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공짜같은 기분으로 능력 이상의 카드를 긁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 스스로 감당 못하게 되고 맙니다.

'복권사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수요일날 우리 백 강도사님이 '샀는 복권 잤다 버리십시오'라고 설교하더군요. 아니 그거 하나 사면 어떻게 또 이왕지사 사 놓은 것이 혹시 당첨되었을지도 모르는 데 한 번쯤 보는 게 뭐 어때요? 또 어느 분이 질문해서 답변을 잘 못했는데요, "강도사님! 메가마켓에서 사 은권을 주는데 당첨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삶이 되려고 한다면 분명한 주관을 하나 가집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공짜를 바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잘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사기꾼이 어떤 사람을 노립니까? 공짜 좋아하는 사람을 노립니다. 공짜를 전혀 바라지 않는 사람은 사기꾼에게 잘 걸려들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전한 삶이란 작건 크건 공짜를 바라지 않으며 불로소득이나 한꺼번에 큰 횡재가 떨어지는 요행수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공짜나 불로소득이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올 때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꼭 죄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금살금 잠식해 들어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건강한 삶이 되도록 긴장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공짜 좋아하고 횡재를 바라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새벽기도를 나오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볼 수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즐기지는 마십시오.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토요일에 토요일영화까지 다 보면서 어떻게 주일을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일찍 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 올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가 나를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는 보초로서 이 기도와 말씀은 좋은 보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완치된 문둥이

45절과 46절이 문둥병자가 해야 할 행동들에 관한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야 됩니다. '나와 접촉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표시를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애양원 다녀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애양원이 나환자를 수용해서 치료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발전하게 된 초창기의 얘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나환자가 발생하면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광주로 가다보니까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한 명 발견한 거죠. 고치겠다고 자기 말에 태워서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자갈과 모래를 던지더라고요. 선교사가 서툰 한국말로 “외국인인 나도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동족 아닙니까? 동족을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데려가서 치료하려고 애쓰다가 그 여인은 죽었습니다. 그걸 가슴 아프게 여기고 나환자 치료를 시작한 거죠.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치료해주었던 그분들이 천사 아닙니까?

반대로 이 병이 들었다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시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살 수 없는 문둥이 같은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놓여났고, 그 죄에서 깨끗이 용서함을 받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지 마십시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 잘 먹습니다. 음식마다 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이 많죠.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먹니 못 먹니 하지만 옛날 임금님도 이만큼 못 먹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나서 어떻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레위기 13장을 읽으십시오. 13장의 이 문둥병자가 바로 과거의 내 모습이고 내가 죄인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늘 이 모습으로 아니 앞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가끔 괴롭습니까? 성질 같으면 욕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믿는 내가, 내가 조금 더 안다는 것 때문에 참느라고 괴롭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하는 말 한마디 듣고 나니까 가슴 아프고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납니까? 교회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릅니까? 여러분이 문둥이 시절에는 옆에서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들어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넘어져도 아프지 않았습시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질대로 싸우는 것은 감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아픔을 느끼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성도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힘들다고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감각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마귀 손에 넘어가서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정이 신앙적이든 아니든 내 신앙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면 이 모든 일에 무감각한 나는 문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이 참 많더라.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이 병을 고쳐서 감각이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레위기 13장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문둥이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모양에 이상이 있다 해도 ‘완치된 문둥이’입니다. 우리에게 떨어져 나간 지체가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깨끗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라를 웃기신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개역, 창세기 18:9-15]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 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령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개역, 창세기 21:1-7]

성경에도 탁월한 유머 감각이 있다

분 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농담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즐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웃자고 한마디 했는데 분위기를 싸늘하게 식혀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듣고 있던 사람이 “아, 그거? 나 아는 얘기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하면서 앞질러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인지는 몰라도 정말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사람입니다.

웃자고 한마디 하면 아는 얘기라도 모르는 척 하면서 들어주고 함께 웃어줘야 하는 법입니다. 이걸 너무 잘 알아서 탈이 나는 경우이고 또 나쁜 경우는 몰라서 탈인 경우입니다. 농담을 한마디 했는데 그걸 진담으로 듣고 엉뚱한 소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적당하게 농담을 할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할 때 별로 웃을 분위기가 아닌데도 가벼운 유머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더군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6.25동란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왔던 어느 미군 부대장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유머를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 놓으면 한국 사람에게 전혀 우습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장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유머를 한마디 톡 던졌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 낼 재간 이 없는 겁니다. 아니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 봐야 이 근엄한 한국 사람들이 웃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대장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지금 웃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와~” 웃었다는 거죠. 이 미군 부대장은 자기가 아주 유머러스한 사람인 것에 우쭐해서 연설을 흡족하게 잘 했답니다. 통역 치고는 명통역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얼굴 표정은 좀 딱딱해요. 지금도 아주 근엄한 얼굴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표정이 심각하고 딱딱한 분들은 사는 것도 그렇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좀 근엄해야 됩니까? 아니면 즐거워야 합니까?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것 보면 그렇게 즐거운 것 같진 않아요. 찬송가 부르면서 마음껏 손뼉을 치자면 어딘가 눈치가 보입니까?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딱딱해져서 찬 바람이 불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는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너무 근엄한 표정으로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 사라는 웃기신 하나님

성경이 즐거운 책입니까? 심각하고 무서운 책입니까? 성경에는 웃음이라는 단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30여 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기뻐서 웃는 것은 기뻐해야 세 번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럼 나머지 서른 개는 비웃음입니다. 웃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비웃음입니다. 성경에 비웃음은 서른 개 안팎인데 반해서 우리가 말하는 웃음이라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럼 성경은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까? 언젠가 “이상하다. 성경에 왜 웃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없는가?” 궁금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고 알게 된 결론은 웃음은 없지만 기쁨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이나 기뻐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 얼굴 표정에 묻어 나는 외형적인 것이라면 기쁨은 우리 내면에서 넘치는 것이다. 속이 기쁘고 즐거우면 얼굴에 웃음은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웃음보다 내면 깊숙히 들어가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을 강조하느라고 기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도 웃음이라는 단어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책인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근엄하시고 엄숙하기만 하신 분일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도 유머감각이 탁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웃음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머와 함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가를 살펴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18장 9절부터 봅시다. ‘그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가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왜 웃어요? 사라가 웃는 이유가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치에 안 맞기 때문인가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입니다. “이 나이에 날 보고 아들을 낳는다고?” 더군다나 ‘경수가 끊어졌고’ 하는 말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폐경기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난 겁니다. 공장문 닫은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들을 낳겠다? 이거 웃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라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웃겨도 지금 한참 웃기십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떤 의미에선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웃었습니다. 때를 잘 맞춰서 웃어야지, 웃지 말아야 할 때에 웃다가는 엄청나게 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에 가서 웃다가 많이 터졌습니다. 고참들에게 군기 빠졌다고 야단맞고 기합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잘 웃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래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졸병시절이 참 처량하더군요. 노래도 못 불러요. 본래 잘 부르지는 못해도 동요나 가곡을 늘 흥얼거리고 다녔는데 노래 소리만 들리면 “졸병이 군기 빠졌다.”고 불리다가 “차려, 열중쉬어...” 이랬답니다. 웃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참이 뭐라 하는데 그 앞에서 씨익 웃으면 바로 얻어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어요?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웃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도대체 말이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 안 웃지요? 아무리 그래도 사라가 좀 조심을 했어야지요. 밖에 손님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엇들으니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 남의 얘기를 몰래 엇들지 마세요. 엇들어서 실수가 생깁니다(?). “도대체 내가 이 나이에, 폐경이 지난 지가 언젠데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이걸 사라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라가 볼 때는 말도 안되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사라처럼 씨익 웃고 마는 경우가 적잖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라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몸을 바라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다행히 사라는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한 번 버티어 보았다가 이내 돌아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나 지적을 곧이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천사가 소돔성에 와서 롯과 그 아내를 불러낼 때에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러 하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 가자.” 그럴 때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합니다. 사위들이 그걸 농담으로 여길 만한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은 무슨 벼락요? 무슨 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 자신들의 능력으로 볼 때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유사이래 없던 일입니다. 말이 안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말과 ‘웃었더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나 말씀이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 볼 때 우스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웃다가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생각만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며 그 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예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는 명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앧은벱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앧은벱이고 평생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앧은벱이입니다. 그 앧은벱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하십니다. 앧은벱이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평생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일어서라’고 한다면 뭐라 대답을 하시겠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가보다 여기저기 말고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서겠습니까?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앧은벱이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일어서려고 몸을 움직이려고 마음을 먹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갈 때 강물이 독에 콰콰 흘러 넘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멘 제사장들을 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고요? 홍수가 나서 독에 넘칠 만큼 강물이 콰콰 흘러가는 그 옆에 한번 서 보세요. 오금이 저립니다. 거기를 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더러 죽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들어가라. 그러면 물이 끊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맨날 강둑에 앧아 “강물을 끊어줘야 들어가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러면 끊어질 것이다.”는 애기죠.

‘내 년 이맘 때에 아들을 주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사라가 만약에 한마디 더 한다면 “이왕 줄려면 지금말고 젊을 때에 줘야지 다 늙어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할 이 때 아들은 무슨 아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앧은벱이라면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할 때 “고쳐줘야 일어나지요?” 어찌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많은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아니, 적군이 14만이나 되는데 300명 데리고... 아니, 3만 명이라도 모자랄 판인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가야 될 일입니까? 웃을 일입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말이 안되는 듯한 명령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은 너무 하지 않으신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을 볼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분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으니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앓은뱅이도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킨 것 아닙니다. 일어나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일어나려고 힘을 썼더니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우리 시선이 나를 향해 있고 내 능력을 생각하고 내 것을 자꾸 계산하고 있으면 우린 언제든지 이런 앓은뱅이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제 말씀이 말씀 같은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러면 우리는 평생 앓은뱅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 곧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능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웃고 말았습니다. 사라가 보기에 는 하나님은 참 웃기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2.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하시죠. 저는 그 다음 대답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왜 웃느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얼떨결에 한다는 얘기가 “안 웃었는데 요.” 이게 왜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뭔가 잘못했는데 들기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발뻘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웃고, 책망하시는데 “아니요.” 하는 사라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실수 한 번을 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가졌던 믿음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 한마디로 그 분의 전 생애에 걸친 믿음 생활을 송두리째 부정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사정을 살펴보면 사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지금까지 몇 십 년동안 아들없이 지내왔고 이젠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씩 웃었던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라에게 믿음이 없는 처사가 아니냐고 너무 쉽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싶을 때 빨리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사라만 그랬나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웃었던 사람은 사라가 아니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다. 17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 믿음이 확실함에도 때로는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멀찍이 따라가서 한사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그가 신앙이 있는 겁니까? 신앙이 있다 없다가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은 정말 틀림없습니다. 단지 그 순간에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잠시 정신이 좀 나갔던 것, 실수라고 봐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즉각 순종하기보다 웃고 말았던 사라에게 잠시 책망을 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주었습니다. 21장 6절 봅시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에 웃음이 나옵니다. 앞에서 사라의 웃음은 분명히 비웃음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지요? 환한 웃음입니다. 7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 노령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아들 많이 낳았던 분들은 “겨우 하나 가지고요?” 하시겠지만 사라에게는 이것이 감격에 찬 승리의 찬가입니다. 얼마나 기쁜 노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실수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지만 약속하셨던 아들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웃느냐?”고 야단을 치시면서도 약속하셨던 아들은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주신 벌이 뭐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은 죄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 그래서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입니다. 어떤 분이 “왜 사람 이름을 보리 이삭으로 붙였냐?”고 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이삭이 아니라 히브리말로 이삭인데 우리말로 굳이 옮기면 ‘웃음’입니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별을 준 것입니다. 어떤 별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어?” 평생 그 때 그 사건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웃었지. 사라는 조금 더 절립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속으로 웃었다가 하나님께 들켰지.” 할테고 사라는 “내가 웃었는데 하나님이 왜 웃냐 하시잖아 그런데 안 웃었다고 잡아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라잖아.” 이것이 사라로서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글썄요, 별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머감각이 탁월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유머스러운 별을 주신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웃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고 해도 못 웃는 거죠.

3. 부러워할 것 없는 롯의 딸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너무 뚝 떨어져 있어요. 붙어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이걸 똥똥지 같은 생각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뜻밖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떼어놓은 그 안에 두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하나가 롯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고 거기서 롯과 두 딸이 간신히 빠져 나옵니다. 이후에 그들은 굴에서 살았는데, 여기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미성년자는 새겨들지 마세요.

두 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과 결혼할 사람은 없고 후손은 있어야 부끄러움은 면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기는 글렀지만 자식은 낳아야 하고 후손은 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정신 없는 아버지와 관계해서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정식 부부 사이입니다. 이 부부가 평생을 해로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롯의 두 딸은 제 정신이 아닌 아버지와 관계해서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 선수예요? 아들 잘 낳기 선수 말이예요. 사라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일은 없지만 가정해 본다면 사라가 가서 물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평생 정상적으로 살았는데도 아기를 하나도 못 낳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잘 낳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정상적인 부부로 평생을 살면서 아들을 못 낳은 사라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정말 쉽게 아들을 낳은 롯의 딸들이 행복합니까? 누가 더 복이예요? 사라가 더 복이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서 사라는 이제까지 아들이 없었다. 아들없이 불쌍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아들 잘 낳는 롯의 딸들을 부러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평생 아들 없이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라가 아들 잘 낳는 롯의 딸들보다 더 복되다는 겁니다.

이런 사라에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렇게 아들을 낳은 사라가 감격에 겨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하는 일이나 출세하는 데는 느리고 돈 버는데 재주가 좀 없어요. 그런 반면에 실력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정직해 보지 않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승진 잘 하고 출세 잘 하고 돈도 잘 버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짜증스러울 때가 더러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빨리 진급하려면 술부터 잘 마셔야 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비위 맞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거든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빨리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쳐다보면서 “저 놈은 롯의 딸이로구먼. 그 놈 재주 좋다.” 그렇게 웃고 마십시오. 정말 재주 좋지만 롯의 딸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재주를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노파심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정상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동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되니까 진짜 복을 사라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뿐입니다.

사라가 아들 하나 낳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이에 정말 아들 잘 낳는 롯의 딸 이야기를 끼워 놓았다는 것이 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유머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아비멜렉 사건이죠. 아비멜렉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는데 어쨌건 아브라함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가문의 태를 다 닫아 버렸습니다. 도중의 얘긴 다 생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사람은 선지자라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장 17,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기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음이라’ 모든 여자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버리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 한 번 딱 했더니 썩 다 풀렸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능력있고 기도 잘 하면 우선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고 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몸에서 자식이 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약간 빠져서 “따 됐습니다.” 한 적도 있거든요.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많이 기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들 안 주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 옆집에, 별로 좋지도 못한 저 집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이 들어주셨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자기는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남의 집을 위해 기도한다? 그런데 그 기도는 깨끗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예요. 왜 이렇습니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기도나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란 얘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낳은 이 이야기 속에 다른 두 이야기를 끼워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분명히 아들을 주는데 이 아들이 진짜 복이지 아비멜렉의 집안이나 롯의 딸들이 낳은 아들이 복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 얘깁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는 아들 하나도 없으면서 아비멜렉의 집의 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 자신은 그렇게 화려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게 두드러진 것 같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냥 겉으로 보면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어요. 초라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 힘없고 약해 보이고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전문가, 정치인이 따로 있지만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배를 탔을 때 그 배를 몰고 가는 전문가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장도 있고 선원들도 다 있었지만 그 배의 운명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선원들이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리고 모두가 자기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지만 그 배의 운명은 그 선장과 선원들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황제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아구스도(아우구스투스)가 전 로마제국에 명령을 내려서 전원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명령을 통해 움직이는 수 많은 사람들 중에 저 북쪽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는 배부른 마리아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볼 것 없고 보잘 것 없지만 나라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해야 할 사명이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자기가 부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 자기는 아들 하나도 없으면서 기도 한 번 해서 아비멜렉의 집의 태를 다 열어놓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웃고 말았던 사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내 웃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언젠가 크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4. 다시는 웃지 못하는 사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다시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웃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못 웃는지 아시죠? 그 때 한번 웃었다고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고 붙여놨으니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할 때 “아뇨” 했던 이 장면을 사라의 평생 못 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웃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셔도 옛날 생각이 나서 못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할 때 엄마가 어떡하겠어요? 맨 정신으로 그냥 보내요? 아무리 하늘 같은 남편이라도 이진 안됩니다.

요즘 같으면 더더욱 안되죠. 차라리 남편 없이 살지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록이 분명치 않으니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라의 웃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웃을 수 없어서 기꺼이 보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는 웃을 수 없는 사라였을 테니까요. 사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릴 때 스케치북 산다고 500원 얻어가지고 200원짜리를 샀죠. 300원은 만화방으로 갔습니다. 스케치북 하나 사들고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누나가 “그게 무슨 500원이냐 200원이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화를 팍 내면서 “내하고 문방구 가 보자. 가가 만일 이거 500원 맞으면 누나 죽었다.” 그러면서 끌어 당겼던 기억이 나요. 그 뒷 장면이 기억에 없어요. 참 다행이긴 다행인데 그 때 우리 누나가 따라 나와서 문방구까지 같이 갔더라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조카들 다 모이고 형제들 다 모여 즐겁게 지내다가 우리 누나가 “차가 옛날에 있잖아...” 하면서 스케치북 사건 꺼낼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제 느낌에 우리 누나는 그 일을 깨끗이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생해요. 뭐가 생생한지 압니까? 500원짜리를 200원에 샀다는 것 말고 “가 보자” 하고 끌어당겼던 것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의 저보다 더했을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상대로 “안 웃었는데요.” 했거든요. 다시는 웃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배 출석 잘 하는 어느 집사님이 한 번 수요일날 빠졌는데 목사님께서 볼 때마다 “어! 수요일.” 하거든요. 아니, 자주 빠진 것도 아니에요. 안 빠지고 잘 나오다가 한 번 딱 빠졌는데 목사님이 “수요일 집사,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수됩니까? 볼 때마다 ‘수요일 집사’ 하면 다시는 수요일 예배에 빠지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웃지 않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웃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불행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웃지 못하니까 아들을 바치라 해도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잃었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갔다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몇 주 안되어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웃을 수 없어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 산을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웃지 못하는 것이 불행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입니까? 성경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습단 말이에요. 정 우습게 여겨지거든 웃으셔도 됩니다. 웃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런 내가 행복하다고? 하나님, 정말 웃기 십니다.”

아니면 “이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없고 우습기만 하거든 웃으십시오. 내 수준이 그 것밖에 안되니까 우스운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러만 있다면 그 우스운 말씀이 진실로 나를 웃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웃게 만드실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습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처음부터 감사하고 받으시면 정말 크게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맞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기꺼이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정말 큰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대로 내 잘못된 생각대로 일 다 저질러 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니까 맨날 그런 말하지 우리 형편되어 봐라.”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 머리로 다 이해되는 복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상상도 못했던 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혹시 실수를 범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벌마저도 우리를 징벌하고 괴롭히려는 벌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 가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기만 하다면 룯의 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의 가정을 부러워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의 것입니다.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 나라의 운명 까지도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많은 잘난 사람 제쳐놓고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차라리 짐승을 키우지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찌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예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니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임의 말씀이니라 [개역, 이사야 1:1-20]

제 게 보일러 놓아드려야 할 고향집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움직이는 보일러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보 고향집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라는 광고 말입니다.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모두 부모님께 효자노릇 하고 싶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겠는가?” 생각은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이를 잘 섬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 애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편하게 모시지도 못하면서 절기가 절기인 만큼 이런 애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아버지보다는 고통받고 힘들어 하는 불행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의 전신이 무슨 사립 사범대학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40년 전에 그 대학에 딸을 보내놓고 등록금을 빌리러 간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데 돈 빌리러 갔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처음부터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일부러 좀 거들어 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실컷 거들어 주고 조심스럽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줄 아는데 없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돈을 빌리긴 빌려야 되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열 세 번이나 가서 겨우 빌렸답니다.

그러니까 대학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탔습니다. “엄마, 나 월급 많이 받았는데 조금 줄까?” 그러면서 지폐 두 장을 꺼내줬다는 겁니다. 40년 전이니까 액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식으로 하면 월급을 한 2백만원 받았다 치고 지폐 두 장이면 천원짜리겠습니까? 만원짜리겠습니까? 많아야 2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 딸이 저희 아버지께 들어오고 40년이 다 지난 지금도 제 귀에까지 들어왔겠습니까?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킨다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 알아주는 자식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고생

스럽게 키워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도 우리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 자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때 되어서 부모님들에게 생활비라도 보내드려야겠지만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마침 학자금 융자제도가 만들어져서 등록금을 은행융자로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보증서 준 분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요 앞 큰길에 관문주유소가 있다가 문 닫고, 그 옆에 또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에 밤 늦게나 새벽에 가시면 기름 넣어주시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옛날에 학자금 융자받을 때 도장 찍어주신 분입니다. 의도적으로 새벽녘이나 밤중에 한 번씩 갑니다. 참 고마워요. 저희 아버지께서 도움을 받았지만 30년이 넘었어도 그걸 기억하고 가끔 일부러 찾아갑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하고, 착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되어서 ‘부모가 우리 때문에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 고생하며 공부시켜 놓았는데 나중에 월급 탔다고, 돈 많이 탔다고 자랑하면서 천원짜리나 만원짜리 한 두 장 꺼내서 준다면 섭섭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불행한 아버지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사람을 키우겠냐? 차라리 짐승을 키우지’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듯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버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의 시작 부분인데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에 끝에 ‘야’ 자가 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끝에 ‘야’가 붙어 있으면 전부 ‘여호와’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가령 ‘엘리아’라면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엘리’ 아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요 어미 ‘이는 나의’ 입니다.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고 거기에 ‘야’가 붙었으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가 됩니다.

이사야도 “틀림없이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 부분의 ‘이사’는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는 말이라도 자음끼리만 비슷한 말을 찾아봐도 답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음끼리만 맞추면 ‘이사’가 ‘예수’라는 말과 비슷하죠? 우리말로 ‘이사’라고 음역해 놓았지만 히브리말로 발음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렇게 발음하면 ‘예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뜻이 ‘구원’하십니까? 결국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릅니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아주 거창하게 서두를 시작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둘 사람이 없어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천지를 불러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하늘과 땅이 듣고 너희가 증인을 서 달라’는 뜻에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옆에서 증언을 해 줄 사람이 없으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큰 길거리에 ‘목격자 구함 후사하겠습니다’ 하고 플랭카드 걸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증인이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증언해 줄 대상이 없어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상대로 재판을 해야 할 형편이니 어디 가서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성경이니까 표현을 부드럽게 했지 ‘소는 그 임자를 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이 소만도 못한 놈들아!’ 이 정도는 점잖은 표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소가 아니라 짐승입니다. ‘어떻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밥통을 아는데 너희는 어찌되어서 애비도 몰라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겠

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첫째가 어떻게 해서 애비를 모르고 주인을 모르느냐는 겁니다. 집에 있는 개도 주인을 얼마나 잘 알아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이 짐승보다 못하냐 말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것을 하나 더 지적합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더 맞으려고’ 하는 말씀은 이미 매를 많이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 매를 맞으면 알아듣습니다.

저희 안장구역에 개가 한마리 있는데 참 불쌍합니다. 구역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게 말을 안 듣는다고 ‘손들어’ 하면 앞발 딱 치켜들고 별 서듯이 한참을 버티더군요. 저 놈의 자식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저러나 싶어요. 이런 강아지나 짐승도 몇 대 맞으면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더 맞으려고 계속 패역한 길로 가느냐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리실까요? 6절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 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치료받을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낳고 기른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과 또 그렇게 매를 맞고도 계속해서 패역한 것을 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나쁜 것만 골라가면서 행한 것 같죠?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저러시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무수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또, **‘나는 수양의 기름과 살찐 짐승에 배불렀고...’** 아, 하나님께서 많이 잠수셨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양하고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는 뜻입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는 아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13절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라는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월삭이나 안식일을 정해 놓고 대회로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해 패역했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눈을 가리우고...’**에서 ‘손을 편다’는 건 뭘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너희가 짐승보다 못한 것을 하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선 억울합니다. “우린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를 만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저러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한 말씀을 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냥 예배를 드렸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정해진 때에 모여서 정해진 규정대로 제물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분향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손에 피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무슨 피입니까? 짐승 잡은 피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6절에,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금혼을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이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나를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효자제일교회가 교회생활 하기에 결코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려니 힘들어 못하겠다는 비명이 가끔 들립니다. 열심히 내지 않고 그냥 예배에만 몰래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교회죠. 거기다가 기존의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인지 따라가려면 정신이 다 없을 정도니까요. 열심히 교회생활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예전 교회의 일입니다.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하는데 낯선 분이 말씀하시는 투는 그 교회에 오래 다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죠. “이 교회 다니신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한 20년 다녔대요. “20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근 40년 가까이 다닌 제게 낯이 서냐?”고 물어봤죠. “20년요?” 그러니까 이 분 하시는 말씀이 “20년 다녔는데 2주에 한 번씩만 나와도...” 한참 계산을 하더니 “500번이나 나왔네요.” 하시는 겁니다. 주일에 500번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스스로 대견하게 여깁니다. 500번이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러면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새벽기도, 매주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일, 구역예배, 성경공부, 금요기도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20년 다녔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느냐 할 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챙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린 예배가 몇 번이나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접어놓고 그냥 회수만 채우고 현금 액수만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겁니까? 열심히 현금하고 열심히 교회 들락날락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현금, 전도한 것이 몇 번이냐고 물으면 경우에 따라서 한번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새 차를 사면 고사 지내기 가장 좋은 장소가 포항에서는 연일다리라고 합니다. 수면에 가장 가까우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죠. 왜 거기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뭍 가까워서 고사 지내면 차에 있는 액운이 물에 다 떠내려간다.”냐요? 전에 같이 있던 선생님이 그 소리를 하길래 “야! 차라리 차를 크레인에 매달아서 물에 넣고 풍당풍당 해버려라. 짹 씻겨나가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냐?”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둑이 사업차 차를 사도 그 앞에 고사상 차려놓고 절합니다. 사고나지 않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그 고사떡 얻어먹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사고 안 나게 해 주는 신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신입니까? 말이 안되도 한참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냥 때가 되었으니 예배 드리러 가고, 제사 드려야 한단니까 드리고, 나가서 못된 짓 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므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고 있었습시다. 그건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울부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신앙 따로, 사는 것 따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당신은 교회 가면 천사, 집에 오면 폭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얼마나 점잖고 우아한지 모릅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식구들에겐 폭군, 고집, 독선.....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가정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교회 다르고, 집 다르고, 가정 다르고...’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려도 싫다. 네가 도대체 나를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니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런 악행을 전부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악행, 이웃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읽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11절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잔뜩 먹어서 배가 터질 지경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부지런히 옵니다. 오긴 오는데 “누가 오라고 하디냐?”는 겁니다. 자식은 틀림없는 자식인데 말하자면, 꼴도 보기 싫은 자식들이 어버이날이다 뭐다 해서 집에 와서 복세통을 이루고 있는데, 싫다는 겁니다. 14절 봅시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날 수도 없다는 얘깁니다. 피곤해서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듣기 싫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입에만 발린 말을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제발 입 좀 다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만신창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못난 자식을 많이 둔 죄죠. 달리 죄가 아닙니다. 부모 된 죄죠. 못난 자식을 많이 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픔을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인해서 또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요?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땅에 어두움이 내렸던 그 사건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요?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게 죄라면 죄입니다. 사랑할만하지 못한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 당하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던 모양입니다.

10절을 봅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고모라도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소돔의 관원들이’ 합니까? 아니 누구를 보고 ‘고모라의 백성아’ 합니까? 자기 백성을 보고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 마음이 몹시 상하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안 부르는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한 군데 있죠? 광야에서 방황하고 다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안 부르고 모세를 가리켜서 ‘네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한다고 네 자식이 됩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저히 내 백성이라고 못 부르겠다, 그래서 고모라의 백성들 부르겠다, 그래서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고모라의 백성이 되고 남의 백성이 됩니까? 죽으나 사나 내 자식인 건 틀림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면 자기 백성을 가리켜서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해야 할 바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깨끗이 멸해 버렸습니다. 지

금은 소돔 고모라가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추측컨대 사해 남쪽 깊은 곳 어디가 아닐까요? 사해는 굉장히 낮은 바다입니다. 사해 표면이 지중해보다 200m 낮아요. 또 사해가 깊은 곳은 표면에서 800m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을 내려 멸하실 때 흔적도 없이 깨끗이 없어 멸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겼어요? 8절에, **‘달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을 완전히 망하게 하면서도 하나를 남겼습니다. 망대같이 남았습니다. **‘원두막의 상적막같이’** 그냥 원두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없애도 원두막 한 개는 남겼고, **‘예워싸인 성읍같이’** 다른 모든 성읍들은 다 멸했더라도 하나를, 지금 완전히 적으로부터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마는 그런 성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시고 책망을 가하시면서도 핵심은 8절의 제일 끝에 **‘겨우 남았도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 하고 가 해도 어쩔 건 남깁니다. 이유는 징계를 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남겨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맞을래?” 야단치는 이유는 “제발 때 맞을 것 그만 좀 하라!”는 겁니다.

1절로 되돌아가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시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라고 말씀하시죠.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는 거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완전히 망할 거야. 북쪽 이스라엘을 보고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18절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악한 죄가 있다 해도 와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너희가 깨끗하게 회복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책망한 본심이 군데 군데 묻어 납니다.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를 훑어보면 누구의 예언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실 것이 잘 나타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패역하면 때를 맞는다 맞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후반으로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쏟았음에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아버지의 이 안타까움을 알아주지 못하는 자식을 가진 이 아버지가 어쩌면 가장 불행한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부모에게 효를 다 하고 어떻게든지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효를 다 해야 할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드릴 때는 물론이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나 이웃사람을 만날 때 직장생활 할 때 심지어 자동차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어야 우리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철없는 자식들이야 부모마음 알기 어렵죠. 저도 지난 어버이날 그동안 투자한 게 많아서 꽃 두 송이 얻었습니다. 그동안 투자 얼마나 했는데요? 참 투자 많이 했는데 겨우 꽃 두 송이 얻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누워가지고 “사다 놓았으니까 갖고 가세요.” 하더군요. 그런 일로 섭섭한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자식들에게 쏟는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식들은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역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섭섭하게나 안 하면 잘 하는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할 것 아

닌가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잘 사는 것 아닐까요? 잘 산다는 게 남보단 땡땡거리며 산다는 것보다 부모가 걱정 안 할 만큼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도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먹고살기에 급급한 자식이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더 걱정하더라구요. 제대로 먹고사는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용돈을 부치니까 그게 전혀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 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걱정거리 안될 만큼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산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최소한 건전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개를 참 많이 길러요. 푸른 잔디밭이 참 아름다워요. 저런 곳에 누워서 뒹굴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들어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왜 못 구르는지 아세요? 그 파란 잔디밭이 온통 개똥 천지거든요. 무슨 개똥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워낙 개를 좋아하고 개를 많이 기르니까 잔디밭이 온통 개똥 천지더라구요. 서양 사람들은 개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제가 생각하기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쏟아야 할 정을 전부 짐승에게 쏟는 것 아니냐 싶어요. 사람에게 정을 쏟으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 서양 사람들이기에 개인적으로 정을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한국 처녀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였는데 실수를 한 겁니다. 아들을 낳고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버릇대로 이 아들을 안고 시아버지에게 가서 “아버님, 아이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시아버지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머느리가 있나?” 그래서 아이 이름 지어주고 아들에게도 안 물려준 재산을 손자에게 바로 다 넘겨 버렸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미국 사람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집가고 장가는 것조차도 경우에 따라서 부모에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넘어가면 자기 결정 하에서 시집가고 장가는 그런 사회에서 “세상에 머느리가 아이 낳았다고 이름 지어주세요.” 하고 왔더라 말이지요. 이 실수가 미국인 시아버지를 얼마나 감동시켰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정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굶주린 정을 어디다 쏟아 부어요? 개에게 쏟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개밥 먹는 수도 종종 있었답니다.

개밥하고 사람 먹는 것을 좀 구분해 놓으면 좋은데, 물론 자기네들은 쉽게 분간해요. 싸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개밥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먹었다고 그러던데 맛도 있던 모양이지요. 사람 키우느니 짐승 키우는 게 낫다는 게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아!’ 이 말은 ‘너희를 키우느니 차라리 짐승을 키우지!’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감동시켜도 엄청난 복이 쏟아지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옵소서 내가 주의 낫을 밟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에 나가 에덴 동편 못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았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았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쉴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개역, 창세기 4:13~24]

제 목이 설교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설교라기보다는 특강처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도 필요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얼마 전에 어느 초등학교 때문에 가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쯤 되면 갈등이 좀 생깁니다. 아무래도 성경말씀보다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얘기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사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성경은 으레 그러려니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창세기 공부를 하다보면 이런 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 있겠느냐는 고민을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학년은 어렵겠지만 고학년은 여름성경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기회를 한 번 잡아보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어른들은 예전에 배웠던 세계역사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답하기 전에 우리들 자신이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1. 핵전쟁으로 열 명만 살아 남으면 인류는 원시인이 될 수밖에 없다

가정이지만,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우리 중에 열 명만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좋은 집에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죽고 열 명만 살아 남았으면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는 계속해서 살 수 없습니다.

물이 들어옵니까? 전기가 들어옵니까? 연료공급이 됩니까? 아무 것도 안됩니다. 먹을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집집마다 숨겨져 있는 음식 찾아 먹습니까? 그런 생활이 얼마쯤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통조림이 제일 낫겠지요. 몇 년을 버틸까요? 당장 시급한 게 먹는 문제와 거주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내나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고층아파트는 아주 불리합니다. 아니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살지 못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일이 닥쳤다고 생각하고 빨리 빨리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겨우 살아 남았는데 그냥 죽으렵니까? 살아 남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가 제일 적당할까요?

물이 흐르는 산골짜기에 가면 먹을 열매가 있고 고기도 있고 식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연료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결국은 굴을 파야 됩니다. 열 명이 살아 남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산 속을 헤매다가 이것 저것 뜯어먹게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뭘 잘못 먹어서 죽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럴 때 산에 가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지식이 아마 가장 유용할지 모릅니다.

나물인지 독초인지 분간 못하는 사람은 살아 남기에 불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 먹었다가 큰일이

나면 “이것은 먹으면 절대 안된다.” 이라는 과정에서 먹을 것, 안 먹을 것을 서서히 분간해 나가겠죠. 혹시 그런 일 생기거든랑 최승묵 집사님을 따라가십시오. 아주 생존하기에 유리합니다. 다른 지혜는 별로 도움이 안돼요.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더 흘러버리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문명이라는 건 깨끗이 잊혀집니다. 한 두 세대쯤 지나면 후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과거에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고 자동차를 타고 뽕뽕 달렸단다.”고 말하면 후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옛날에 이랬단다.” 하는 이야기는 전부 신화가 되고 맙니다.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니까요? 모든 게 다 잊혀집니다.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구요? 100년 200년 흐르면 깨끗이 묻힙니다. 허물어지고 없어집니다. 수백, 수천년이 흘러 다시 문명의 싹이 트고 사람에게 여유가 좀 생겼을 즈음에 어쩌다 문명의 흔적이 나타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겠지요. 그러면 불가사의로 취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원시인들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인류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꼭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와 흡사한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대로 사람들이 짐승에서 진화하여 원시인처럼 살다가 문명이 차츰 발생했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놀라운 고대문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성경 내, 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대에 놀라운 문명이 있었다(성경 외의 예)

반드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에밀레 중 얘기를 참고로 합시다. 유홍준 교수님이 쓴 나의 문화역사 답사기에 보면 에밀레 중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경주 박물관이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에밀레 중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새박물관을 지금 자리에 지어놓고 이 중을 옮길 때에 워낙 크고 무거워서 시내를 지나 갈려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곽지대로 둘러니까 다리가 너무 약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시내 한복판을 통과해서 지금 있는 곳에 옮겼습니다. 한전의 전기공사 차가 앞 뒤로 붙어서 앞 차는 가면서 전 화선, 전기선을 다 끊습니다. 그런 다음 중을 실은 트레일러가 지나가면 뒤에 오는 한전 차가 끊어진 걸 바로 연결시킵니다. 이러면서 시내를 통과했습니다.

간신히 중을 옮겨놓고 중을 달려고 하니까 중 위에 있는 구멍에 맞는 쇠막대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 다니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니까 이해하십시오. 포항제철에 그 구멍에 맞는 쇠막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현재의 기술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 무게를 지탱하려면 구멍이 더 넓고 굵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좁은 구멍에 들어갈 쇠막대로는 그 무게를 지탱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철을 실처럼 꼬아서 달아매었습니다. 이 좋은 중을 그렇게 달아놓으니 영 볼품이 없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어쨌든 예전에 꽂았던 쇠막대를 찾아내라. 그래서 다시 박물관을 살살이 뒤져서 그 쇠막대를 찾아내서 지금 달려 있습니다.

유홍준 씨가 그 글을 쓰면서 2000년 전 신라시대 때 사람들은 그 작은 구멍에 들어갈 단단한 쇠를 만들어 달았는데 왜 제철에서는 그 현대적인 기술을 가지고 못 만드느냐는 겁니다. 제철에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현대의 쇠 만드는 기술이 발달이 되었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과는 별도의 쇠 만드는 기술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은 사라지고 더 나은 것도 없는 새로운 기술을 간신히 알아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 2000년, 3000년 전 사람들은 원시인들이니 뭐 알겠나 싶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술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함부로 무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런 생각이 옳은지 우선 성경 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가사의라는 것이 왜 불가사의라고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 오늘 여기서 포항의 2000년 전 역사를, 제가 이런 저런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한다고 쳐봅시다.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B.C. 3세기경에 마네토라는 이집트의 한 제사장이 이집트의 역사를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BC 3세기에 그로부터 2000년 이전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2000년도 더 되는 그 이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했는데 이 책은 전해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용한 것을 모아서 내용을 복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근거가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할까요? 정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외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 역사 중의 묘한 것 하나가 피라미드의 이야기입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세 번째 왕조부터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피라미드는 조잡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 개가 나란히 서 있는 피라미드가 4왕조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5왕조에서 12왕조에 이를 때까지 피라미드는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흔적까지 포함하면 피라미드는 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이 80여 개가 되는 피라미드 중에 확실하게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것은 4왕조 때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세 개 뿐입니다. 그 이전이나 이후의 것들은 흙으로 만들고 벽돌로 만들어서 허물어지거나 흔적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만든 것은 후에 만든 것일수록 조잡합니다. 어떤 것은 많이 허물어져서 피라미드인지 언덕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피라미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4왕조 때 만들었던 이 세 개만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지금도 그 비밀을 다 캐내지 못했습니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4왕조 때 이렇게 훌륭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 어느 왕조에서 더 나은 것이 나오거나 최소한 비슷한 것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왕조와 비교하면 이 세 피라미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왕조의 순서를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설명도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좀 큰 것은 높이가 60m짜리가 있고 20m짜리도 많이 있는데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피라미드는 높이가 140m를 넘습니다. 안 놀래시네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20층 고층 아파트가 기껏해야 60m도 안됩니다. 피라미드 하나가 고층 아파트의 두 배를 훨씬 넘는데도 안 놀래요? 평균 2.5톤 되는 큰 돌이 250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록에 따르면 약 20년에 걸쳐서 30만의 노예들이 동원되어서 3개월마다 교대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생각해봅시다. 250만 개를 25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었다면 1년에 10만개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1년에 10만 개 쌓아 올려야 한다면 하루에 쉬지 않고 공휴일도 없이 시작해서 하루에 약 30개를 올려야 됩니다.

한 변이 230m나 되는 바닥에 이런 바위를 까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평균 처서 70m 높이에 이렇게 거대한 바위를 하루에 30개를 올려서 위치를 잡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슨 도구를 어떻게 써서 올렸겠어요? 이 기록대로라면 이 시기가 겨우 돌을 깨어서 농사짓고 나무 막대기 갖고 땅 파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쌓아 올렸느냐는 겁니다. 이 돌들이 종이 한장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아귀가 딱딱 맞는 겁니다. 이런 돌을 깎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지만 내부에 방이나 석실을 만들기 위해서 직각으로 파내었습니다. 단단한 바위를 직각으로 파내는 일은 강력한 동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에 30개씩 저 높은 곳에 어떻게 올렸겠어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높이 올라갈 때 길(언덕)을 만드는 겁니다. 굴삭기가 높은데 공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듯이 길을 만들어서 돌을 올리고 한 층이 더 올라가면 또 길을 높이고, 올라가는 만큼 또 길을 올리고... 이렇게 길을 만들면서 올라갔다는데 100m 높이에 올라가려면 비스듬한 경사로를 어느 정도 길이로 만들어야 할까요? 기울기를 10도로만 잡아도 경사로 길이는 1km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사로를 한쪽에서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한쪽만 만들면 틀거나 바로 앓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사로가 다른 방향에서 또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런 도구도 없는 시기에 사람의 인력만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어 올렸다고 생각을 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피라미드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달리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표현입니다. 모르겠다는 말이니까요. 그렇게 돌을 쌓아 올려놓

있는데 그 속에 층층이 쌓인 바위 속으로 일직선으로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더군요. 쌓아놓고 돌을 관통시키는 구멍을 뚫었는지 아니면 사전에 설계를 그렇게 해서 꿰어 맞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일반적인 역사의 발전 단계와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으니 어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수정되어야 할 요인이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술을 가진 문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그레이엄 헨콕이라는 사람이 '신의 거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몇 년 전에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7대 불가사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보았더니 지금 대만 근처에 요나구니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앞 바다에 수중 30m쯤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서 수면 약 7m까지 이를 정도로 거대한 건축물이 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완벽하게 이것이 인공적인 건지 자연적인 것인지 결론을 못 내린 상태인데 사진 상으로는 분명히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건물이라고 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유명한 이스트 섬의 거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5m를 넘는 거대한 돌이, 보통 20톤씩 나가는 큰 돌로 된 석상이 600개가 넘는답니다. 또, 나스카에는 너무 커서 땅에서 보면 아무 흔적도 안 보이는데 높으니까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거대한 도형이나 새의 모양이나 지면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 재미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문명의 흔적들이 한결같이 지금부터 약 10,500년 전 어느 시점을 겨냥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무슨 일인지는 본인도 모르겠대요. 그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이 문명들이 보여주는 흔적들을 다 꿰어 맞춰 보니까 분명히 놀라운 천문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만년 전에 있었던 하늘의 모습을 이 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라미드를 만들 때 사용된 수치가 지구의 남북의 길이와 적도 둘레의 비율에 맞춰 놓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구의 크기를 알았다는 말이 되고 심지어 어떤 수치는 세차운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별들의 움직임에 나타나는 숫자를 피라미드에 적용시켰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지으면서 이 문명이 적어도 만년 내지 만이천년 이전에 있었던 문명일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3. 고대에 놀라운 문명이 있었다(성경의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대체로 언제 발생했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4대 문명의 발생 시기를 잡을 때는 주전 1500년 내지 2000년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B.C. 3000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문헌이나 흔적을 통해서 과거를 최대한 추적해 갈 때 그 최고치가 B.C. 3000년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이상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레이엄 헨콕이라는 사람이 불가사의라는 것을 다 조사하고 내린 결론은 적어도 만년 이전에 문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분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치가 B.C. 3000인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재 자료나 문헌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노아홍수 이전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 때의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하나 주셨는데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인을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가인을 해하게 되면 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문자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셨다면 이것은 문자일 가능성이 큼니다. 최초의 문자는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썩기 문자 말입니다. 그 역시 B.C. 3000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것은 그때 통용될 수 있는 문자가 있었다는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나가서 제일 처음에 해 놓은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성은 들 판이나 산등성이에 지어 놓은 것이 마치 돌담 비슷하게 보입니다마는 외국의 어떤 성은 고층건물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성을 아무렇게나 쌓아올립니까? 제가 본 어떤 성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 초고층 건물이더라구요. 이 성이 간단한 돌담 같은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성인지 알 길은 없지만 성을 쌓는데는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22절입니다.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라고 합니다. 여기 기계라는 말이 나와요. ‘철’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는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사람들이 히타이트족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이 보통 B.C. 11세기 15세기에 활동이 왕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도입했던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꽃핀 것은 그보다 훨씬 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고대에 이미 철기문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강요하는 표현입니다.

날카로운 기계 이야기도 있지만 바로 그 앞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아내를 가졌고 여러 아들을 두면서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식으로 말하면 경제계를 주름 잡은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금과 통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문화계를 전부 장악한 아들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날카로운 기계는 무기라고 봐야지요. 신무기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가 기고만장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내 하나는 정상이고 몰래 둘 가진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 아내가 둘이라는 표현이 별 충격이 없을 겁니다만 라멕이 두 아내를 가졌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창조섭리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이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시절에 처음으로 아내 둘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라멕이 두 아내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몇 명을 죽였습니까? “두 명 같은데 몇 명 죽였어요 하는 것 보니 두 명은 아닌 것 같다?” 머리는 아주 잘 돌아가시는군요! 성경이 같은 내용을 단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겹쳐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같은 내용입니다. 소년 하나. 사람을 하나 죽였습니다. 창상, 상처를 좀 입었던 말이에요. ‘상처를 좀 입었길래 사람을 죽여 버렸다’ 이것만해도 큰 잘못이죠. 그런데 무슨 서운 말은 그 뒤에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에 이르리로다’** 그러죠?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는 이유없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가인을 죽이면 벌이 칠 배라고 하는데 나는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나를 해하면 벌이 칠십칠 배다’ 이걸 기고만장입니다.

라멕이 이런 소리를 할 만한 것은 아들들을 통해서 당시에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당시에 문명이 크게 발달했고 모든 권력을 휘어잡은 라멕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성경의 앞 부분(창 1-11)을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었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두뇌가 있었습니다.

우리 평생에 아무리 많이 써도 머리를 3% 내지 5%밖에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쓸데없이 이 무거운 머리를 왜 이고 다닐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만드셨을 때 100% 다 쓰도록 만들었다가 범죄한 이후에 사용량이 축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당시에 있던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일 만큼 보는 순간에 바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알 수 있을 정도의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의 인류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양의 두뇌가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홍수의 원인은 성적인 문란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가장 많은지 보세요.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짓는 죄는 주로 도둑질이고 강도질이죠. 그런데 문화가 발달한 후에 가장 보편화되는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은 이런 성적인 죄는 잘 안 짓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바람피울 여력이 그리 없어요. 그런데 고생 다 지나가고 여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거의가 성적

인 범죄입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나름대로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 살기가 넉넉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4.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노아홍수의 제 일 원인이 성적 문란이었다는 것을 위시하여 여러가지 일들을 종합해 보면 '홍수 이전에 굉장한 문명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달된,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문명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깨끗이 다 날려버린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가 있었다니까 세상이 물에 한 번 다 잠겼다가 물이 그치고 난 다음에 원위치 되었다고 이해하는 건 순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그런 홍수가 아니에요. 홍수가 그치면서 변화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크나큰 변화 중의 하나는 사람의 수명이 십분의 일로 줄었어요. 900년씩 살던 사람이 갑자기 100년 정도로 나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줄었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술 많이 마시고 담배 열심히 피우면 수명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면 수명에 얼마쯤 타격을 입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담배나 술이 끼치는 해독은 예를 들어서 100년 살 사람이 10년 정도 준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건강에 해롭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한 10년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100년에서 10년 준 게 아니고 100년이 10년으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900세에서 100세로 줄었으니까요. 이건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 변화와 함께 따라나온 것이 그전까지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다가 허용됩니다. 무지개가 없던 하늘에 무지개가 생겨납니다. 단순히 하늘에 무지개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기 자체가 큰 변화를 겪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과 달리 무지개가 생겨날 수 없는 대기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무지개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심어주셨을 뿐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초래한 사건입니다. 불가사의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과거 어느 시점 이후에 해수면이 100m 정도는 올라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육지에 있었던 건물들 중에 많은 것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수중도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불가사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산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밑으로도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점이 궁금해서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샀는데 이런 책들은 잘 팔리지도 않아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 한 번씩 봐야 합니다. '신의 거울'이라는 책은 한 번 볼만합니다. 불가사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노아 홍수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잃어버린 문명의 원인에 대해서 해수면이 100m 올라갔다는 것을 가정하기도 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해수면이 올라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홍수가 다른 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분명히 알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전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질학에서도 이 지구는 원래 육대주가 한 덩어리였다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떨어져 나간 거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원래 한 덩어리였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에베레스트산도 한 때는 물 밑에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지질학도 많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끝이 끝대로 믿기가 곤란한 게 많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고대에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단순하게 큰 홍수였다는 식의 이해는 홍수의 본질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홍수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가끔 흔적이 나타나면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가사의'라는 것은 아주 점잖은 표현입니다. 그걸 솔직히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모른다'입니다. '모르겠다. 이런 게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솔

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끔 솔직하지 못한 학자들이 더러 있죠. “아마 발달된 외계인이 왔다가 흔적을 남기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 표현은 정직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외계인은 어디서 왔다 갔느냐?”는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 결국은 ‘모른다’가 답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쓸데없는 외계인 얘기는 왜 합니까?

의사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쓸 수 있는 좋은 말이 있어요. 아프다는 사람을 붙들고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의사가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좋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실력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잘 모르겠습니다.”고 말하면 좋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의사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제일 좋은 표현이 “아! 이거요. 신경성입니다.” 물론 신경을 너무 써서 생긴 병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신경성이라고 하면 맞아요. 신경성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목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잘 안 나아요. “빨리 나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목 쓰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 말 같으면 나도 하겠다.” 목을 안 쓸 형편이 아닌데 쓰지 말라고 하면 되나요? “그럼 목 쓰지 말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거 빨리 삭혀 주세요.” 그랬더니 “글쎄 안 쓰는 게 제일 좋은데...”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을 홍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의사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모른다고 하면 될 것 가지고 실력 없다고 할 것 같아서 “신경성입니다.” 아니면 “알레르기입니다.” 이래도 할 말 없어요. 원시시대 이전에 그런 문명의 흔적을 보고 “어디서 외계인이 왔다 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인류의 조상은 숲에서 원시인처럼 살다가 다음에 수렵생활을 하다가 내려와서 차츰차츰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말하는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깁니다. 다만 그 출발점을 노아홍수 이후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10명만 살아 남았는데 원시인처럼 살다가 다시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하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차츰 문명이 다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면 처음 내용을 어디서부터 적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은 산의 굴에서 살았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다른 발달된 문명이 있었다고 상상을 못합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건 불가사의다.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홍수 이후에 고대 문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인류는 기억 상실중에 걸렸다!

묘하게도 성경은 그 이전에 문명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헨콕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 인용하면 ‘인류는 기억상실중에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B.C. 3000년까지의 인류 역사는 기억상실중에 걸린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인류는 모른다는 얘깁니다.

이분은 불가사의라고 소문난 것만 평생을 연구하고 뒤지면서 나름대로 고대문명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우리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분명히 잃어버린 고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세계 역사를 함부로 틀렸다고 말할 일은 아닙니다. 다른 점은 그 역사가 사고에서 깨어난 그 이후부터의 기억입니다. 문제는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얼마만한 세월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점입니다.

B.C. 3000년이니까 우리의 기억은 최대 5000년을 넘지 못합니다. 흔히 인류가 이 땅에 출생한 것이 길게는 200만년 전이라고도 하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50만년 전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짧은 주장은 2만년 전이라고도 합니다. 인류가 이 땅에 2만년 전에 등장했다고 쳐도 15,000년 동안의 역사는 알 수 없고 단지 5000년의 역사만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60세인데 이 분이 45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 45세 이후의 일만 기억하고 있는 것에 비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류의 역사는 것이 45세 이후의 일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더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은 20대, 30대에 있었을 텐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현대 문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

이 어찌면 50대 60대의 서투른 솜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억 이전에 있었던 문화의 흔적이 발견되면 우린 너무나 쉽게 불가사의라고 돌려버리고 우리가 가진 현재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피라미드 하나만 해도 도무지 설명이 안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얘기가 안 맞는데도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지요. 피라미드 하나만 해도 지금까지 도저히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7대 불가사의 하니까 불가사의가 7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골라서 7대 불가사의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불가사의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급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6. 아무 생각없이 믿는 것도 복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성경이 역사와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전설입니까? 그냥 누가 아무렇게나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너무 쉽게 그렇게 단정할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고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자는 얘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믿어지면 그것도 복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믿는 것도 복입니다.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생각없이 덮어놓고 믿는다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는 것도 복이겠지만 과연 그러한가 해서 생각하고 이것 저것 추리도 하고 정돈도 해 가면서 가능성을 이해하면서 믿으면 그냥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확신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꼼꼼하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동원해 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긴 책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계시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믿는 믿음에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먼 옛날의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옛날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느냐를 설명해 오는 과정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학문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어떤 부분은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뭘 어찌라고?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줌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개역, 열왕기상 17:8~24]

배교한 이스라엘 대신 까마귀와 사렙다 과부

이 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왕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자서 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아마 전국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이 맡았던 임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던 일들을 전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거의 없어졌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아합왕 특히 이세벨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우로가 없으리라'고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따로 숨기셨습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두 가지였는데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다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아볼 사람이 이스라엘에 그렇게도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전국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숨겨주고 먹여 살릴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불러서 이 귀한 사역자를 먹이고 보존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결한 새입니다. 불결한 새가 물고 온 떡은 못 먹죠. “하나님, 이 불결한 새가 물고 온 걸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결한 까마귀에게 양식을 주어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까마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까마귀보다 나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마음이 상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지 않고 까마귀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도 아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까마귀가 음식을 나르다가 얼마 후에 시내가 다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지역은 시돈 땅에 있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

려고 혈안이 되어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참 묘하게도 이세벨의 친정 지역에다 숨기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도 가장 불쌍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부와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데, 이방인이며 거기다가 과부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싫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것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이방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도 살림이 넉넉하고 부유한 과부도 아닙니다.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떡을 구워먹고 내일 죽겠다고 마음먹은, 극심하게 가난한 이 과부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거부하고 모두가 우상을 숭배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계속할 것이고 사람 축에 들지 않았던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끝내 이루고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정녕 아무도 하지 않겠다면 까마귀도 있고 이방인 과부도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사도바울의 표현처럼 세상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보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인가?

까마귀가 먹을 걸 날라주었던 그릿 시냇가는 사해 동쪽 편입니다. 시돈은 거기서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꽤 먼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잘 아는 곳도 아닌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르밧 과부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먼 지역까지 가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조건은 사르밧의 과부라는 것 뿐입니다. '사르밧에 가면 너를 먹여 살릴 과부가 하나 있을 것이다. 가라' 해서 갔습니다. 플랭카드에 '환영, 엘리야 선지자라고 써서 들고 있다면 모를까, 아니면 어떻게 찾죠? 아무리 좁은 지역이라도 공개적으로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이 이 과부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지요? 어쨌든 사르밧 지역으로 갔습니다.

한 여인이 남루한 모습으로 성 밖으로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저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탁한 것이 '물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시절에는 물을 얻어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뭇가지 몇을 주워서 떡을 구워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말입니다. 형편이 넉넉할 때는 남의 부탁도 잘 들어주겠지만 지금은 남을 생각해줄 형편이 못 됩니다. 마음이 넉넉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더욱 힘든 일일 겁니다.

미군이 한국에 근무하게 되면 한국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특별히 따로 교육을 시킨답니다. 이런 항목이 있대요. "차선을 바꾸고 싶거든 깜빡이를 넣지 말고 짹 들어가 버려라." 그렇게 교육을 한답니다. "이쪽 차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차에 깜빡이를 넣어주면 뒷 차가 약간 공간을 만들어주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못 들어가니까 깜빡이를 넣지 말고 그냥 짹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한국에서는 왜 그래요? 깜빡이를 넣으면 뒷 차가 비켜주기보다는 그냥 짹 당겨 버린대요. 그러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깜빡이를 넣지 말라는 건데 이게 한국인의 보편 심리인가 봅니다.

웃기는 사람!

한국인들은 평소에도 이렇다는데 내가 지금 끓어 죽을 판인데, 이것 먹고 죽으려다.는 사람에게 "물 좀

떠다주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여인이 낯선 사람의 부탁을 듣고 성에 물 가지러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물을 가지러 들어가는데 뒤에다 대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떡을 좀 구워다가 주시오.” 이 여인이 듣기에 기가 막히는 말일 겁니다.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몰염치냐? 저 사람이 내 형편을 알거나 알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염치한 부탁을 해도 됩니까? 엘리야가 낯선 과부에게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이 평소에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과부를 찾아내려고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내가 이런 부탁을 해서 내 말을 들어준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여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무리한 부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리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먼 곳으로 갔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좌우간 우리 주인님이 시켜서 여기까지 왔으니 제가 기도할 때에 한 여인이 오거든 내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물을 내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약대 열필에게 물을 다 먹인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우리 주인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약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 짐승인지 아시죠? 사막을 다니는 짐승이라서 자주 물을 먹는 게 아니고 먹을 때 한꺼번에 잔뜩 먹어 놓고 몇 날을 물 안 먹고 가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것도 열필이나...

늙은 하인이 하나님께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엘리야가 요구한 것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물 좀 달라.”고 할 때 그것 갖다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에다 “떡도 좀 달라.”고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저렇게 남루해 보이는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여인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이 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뭄이 시작된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물을 좀 달라? 그것도 낯선 체면에? 아니 그것도 물이 있는 곳에서 달라면 그래도 좀 낫지 성 밖으로 나와 있어서 물을 한 잔 대접하려면 성 안의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떡도 좀 달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것 털어먹고 죽을 판인데 요즘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 알거나 알고 하는 소리야? 아마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이 낯선 사람 엘리야는 참 웃기는 사람일지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는 기막힌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가루 한 움큼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 떡을 구워먹고 우린 죽을 참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버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통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그 말을 기꺼이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코웃음치고 말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이 여인이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밀저야 본전인데?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저 사람에게 마지막 양식을 떼어서 주면 하나님께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 준다? 만약 저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과 떡 해 먹어도 하루나 이틀 목숨이 더 연장될 뿐이다. 속는 셈치고 하나 구워주자. 만약에 저 사람의 말대로 되지만 된다면 얼마나 큰 득이냐? 속는다고 쳐도 손해볼 것은 조금이지만 저 사람의 말대로 된다면 굶어죽는 것을 면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면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그렇더라도 기분이 상하거나, 느낌상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면 따라가기 어렵죠. 어느 쪽이었던 사르밧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야를 공궤하도록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런 이런 사람이 찾아오거든 그의 말을 잘 듣고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대접을 잘 해라.”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과부

가 미리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을 테지요. 그러나 이 과부는 양식도 다 떨어졌고, 살 도리도 없고, 해도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것 털어먹고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간섭하셨습니까? 어찌면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한 번 도와줘 볼까? 속는 셈치고 한 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때는 이런 저런 계산으로 그랬거나 아니면 “속는 셈치고 한 번 해볼까?”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을까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먹었던 작은 마음, 선을 베풀려고 했던 작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권한 것이이었구나.”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난 후에 사르밧 과부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작지만 선한 욕심이 생겨날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찌면 이 작은 욕심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선하지만 작은 욕심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선뜻 작은 돈 한푼을 주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창피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주고 싶어요. 작지만 적선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못 나서는 이유가 남의 눈 때문이라는 거죠. 작은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 생각을 사장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욕심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명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순종이 결국은 통의 가루가 부어도 부어도 다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복의 통로

사르밧 과부는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삽니다.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가루를 부어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는 원망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벌써 죽었어야 하는 아이입니다. 엘리야가 찾아온 며칠 뒤에 양식이 떨어져서 아이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굶어 죽었어야 할 목숨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자를 엘리야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원망부터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적과 은혜에 대해서는 깨끗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그동안 벌써 죽었어야 할 아들이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어 온 것조차도 생각을 앓는 겁니다. 우선 급하니 원망부터 튀어나온 거죠. 사르밧 과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려받은 우리 아닙니까? “아담아 네가 다 먹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누구 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 탓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이 여자 탓이죠. 내 탓은 없잖아요. 나는 그냥 씹은 것밖에 없죠? 아이들 공부 못하면 누구 탓입니까? “생긴 거는 내 닮았는데 말이야 하는 짓은 꼭 자기 엄마를 닮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쁜 아내를 데려다 주어서 그동안 아담이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갱그리 잊어버리고 사고 터지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될 때는 좋아라 하다가 혹시 뭐 잘못되면 전부 남 탓으로 돌리고 원망부터 먼저 하는 우리가 아닌단 말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질이 나서 못 견디겠다 싶어도 이런 말을 먼저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십시오. 그 사이에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어려웠던 과정이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둘이서 똑딱거리며 싸우면서도 ‘싸우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방법은 있게 마련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싸우다가 제게 문뜩 떠오른 생각이 “잠시 중지, 여보 당신 본적 어디야?”였습니다. 실컷 싸우다가 본적을 물으니깐 ‘포항시 덕산동 236번지’ 하더라구요. 제 본적입니다. 우리 처가는 대구시 북구 노원1가 1645번지입니다. 결혼한지 올해가 20주년인데 그걸 어떻게 외울까요? 설교하려고 일부러 외운 게 아니고 평소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연애편지를 일주일에 두통씩 써 보십시오. 손에 익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본적 버리고 내 본적을 자기 본적이라고 ‘덕산동 236번지’ 하는데 싸울 일 뭐 있어요? “그만 합시다!” 그래서 끝냈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총각 귀신으로 늙어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당신이 총각 귀신 면한 것 아니냐?”고 그러지 마시구요. 사실 곰곰히 따져 보면 받은 게 많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잘못되면 원망부터 하기 쉬운데 사르밧 과부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함께 지내다가 아들이 죽은 것은 이로 인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은 걸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났던 모양이죠.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이 터지면 “아이고 내가 어제 몰래 무슨 짓을 했더니, 혹은 과거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을 보고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시는구나!”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는 이방의 과부

날마다 이적 속에 살면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지요.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결국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의 한 여인을 이모저모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마지막 양식을 털어 먹고 내일이나 모레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왔다는 것은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몇 십년 사는 것이 우리 눈에는 긴 세월이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이건 순식간이고 금방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 이외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가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복음송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장미꽃도 감사, 가시도 감사! 그러면 다 감사하다는 거지요.

복음송 가사 중에 참 가슴 찡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다섯 개 중에 빼고 싶은 게 뭐죠? ‘사랑스레 아픔과...’ 아픔을 왜 넣어요? 아픔은 좀 빼고, 그 다음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꼭 수고해야 합니까? ‘아픔과 수고’가 들어 있기에 그 구절이 제게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아파도 감사, 수고스러워도 감사, 이게 진짜 감사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물 좀 달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떡도 달라?” 지금 남아 있는 한 움큼 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하루 먹고 치울 일인데 그걸 내 놓으라고 한단 말이죠.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뭘 어찌라고요? 이걸 가지고 누구를 대접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한 게 있다면 ‘성경 공부합시다’ 한 것밖에 없습니다. 쉬운 요구입니까?

“공부합시다.” 하는 말에 속으로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옛날부터 책이나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인데요. 이 나이에 공부하자면 그게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축구선수로 지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종일 공 차죠. 오전에 공부합니다. 어떻게 하죠? 주로 자지요. 잔다고 뭐라 합니까? 축구선수니까 시간 중에 자도 그냥 봐둡니다. 제 옆자리에서 잘 자다가 하루는 갑자기 책상을 째 걷어차는데 책상이 90도 정도 돌아갔습니다. “내 공” 하고 벌떡 일어서더라구요. “참아라. 잠을 자도 곱게 자라.”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다닌 친구가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공부하자고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아들 공부 좀 시켜야 되는데 니가 좀 시켜줄 수 없냐?” 그래서 교회에서 아침에 따로 모였습니다. 우리 식구와 그 집 식구가 좀 일찍 와서 빈 시간에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만 차고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던 이 친구가 나중에 교회에 봉사할 때가 있을 거라고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따내고 열심히 다니더니 뻔뻔하기 이룰 데 없던 녀석이 오락 시간에 사회를 제법 잘 보는 것 있죠. 나중에 한 술 더 뜨더니 수화 배우러 다니더라구요. 지금은 제법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교회에서 쓸 수 있을 거라는군요. 수화도 외국어입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그 모습이 참 은혜롭더라구요.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뭘 어찌라고?

“내가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 말과 “내게 있는 밀가루가 한 움큼 뿐인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고 비슷한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석만 하면 되지 공부는 또 무슨 공부? 계속 그러십시오. 그러면 사르밧 과부처럼 이것 털어먹고 죽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시간도 없고 모여질 것 같지도 않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 번 해 보자고 했을 때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낯선 사람에게 말 한 번 붙여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슨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 ‘겨우 한 움큼 남은 가루가지고 누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똑같은 애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남에게 나눠줄 것 없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복이 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황수관 박사가 여기 안강 촌사람이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고 그러대요. 그랬던 그 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의대 교수로 가게 된 동기가 어느 찻간에서 누구에게 전도한 것이었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교수가 되고 유명하게 되었답니다. 전도를 한다고 우리 모두 의대 교수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능력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작은 것을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교회 봉사합시다.” “주일 학생들을 가르칩시다.” 그럴 때 “뭇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대답하려면 이유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야지요?” “사는 게 얼마나 바쁘는데 새벽기도 갈 틈이 어디 있어요?” 이유를 말하려면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 하나 하나가 어찌면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가루를 가지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3인데 12시 반에 집에 오기도 하고 1시 넘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바로 자야될 텐데 그 밤에도 텔레비전은 켜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먼저 자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압니까? 이튿날 텔레비전을 켜 보면 채널이 자기가 잘 보는 곳에 돌려져 있거나 음량이 아

주 낮추어져 있거든요. 텔레비전을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없앨 수 없는 게 집에 어른들이 계시니까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인젠가는 불편하면 안 틀려나 싶어서 리모콘을 감추기도 했어요. 늦게 들어오면 빨리 자야 좋은데 그 와중에도 한 번은 틀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텔레비전 볼 시간은 있나봐요? 그 애만 그렇습니까? 구역예배를 빨리 마쳐야 인어아가씨인가 공주인가 볼 건데... 탓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그렇게 없느냐는 말이지요. 아니 그렇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조금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움큼밖에 없는 가루를 조금 떼어서 드렸을 때 이 여인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그런데 왜 여기에 '이제야'가 들어갑니까? 이 일을 다 겪고 보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알았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엘리야를 대단히 좋아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십니까? 무엇 때문이죠? 인물이 잘 나서? 웃으면 안되는데요. 키가 커서? 눈이 시원해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하시니까 존경하고 좋지, 그것 말고 볼 것 뭐 있어요? 있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셈이죠.

저도 신학교 가고,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생겼거든요. 뭘 보고 좋아합니까? 생기길 잘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키가 큼니까? 우리 딸도 자꾸 키 재어보자고 덤비는데... 아니 굳이 좋아할 이유가 별로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 저를 무척 기쁘게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야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정돈해 봅시다. 어느 날 낮선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반신반의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속는 셈치고 한 번 믿어보자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그녀로 하여금 완벽한 신앙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찾아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체면치레로 달려 나온 사람도 있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나온 사람도 있죠. 심지어 총각 시절에 장가가려고 교회 잠시 출석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장사속으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 나올 때는 그렇게 거창한 것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처럼 하도 졸라대니까 귀찮아서 따라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왔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성전 미문 앞에 동전 몇 푼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던 앓은뱅이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이려면 동전 몇 푼 받았겠죠. 그런데 얻은 게 뭘니까? 일어나 걷고 뛰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앓은뱅이라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하고 일어나 걷고 뛰는 것하고 어느 게 큼니까? 동전 몇 푼을 바라고 그들에게 요구했다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멋모르고 나왔든 아니면 불들려서 억지로 나왔든 어쨌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받은 것도 크지만 앞으로 받을 건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팔자 고친 사람이요 황제한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렇게 황제한 사람입니다. 언감생심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도 이방의 과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다. 우리는 놀라운 감격 속에 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보다 앞으로 받을 사랑이 더 큼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보잘 것 없는 이걸 어떻게 드리겠느냐? 능력도 보잘 것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보잘 것 없는 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한줌 남은 그것을 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지마십시오. 작은 것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시면 결과적으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노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드리며 그로 인해서 받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날 날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개역, 누가복음 16:1~15]

예 전에는 한번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거의 평생을 그 직장에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정년도 많이 줄었고 명퇴다, 구조조정이다 해서 아직은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이는 들어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테 퇴직 연령은 자꾸 줄어듭니다. 혹시라도 일찍 퇴직을 하게 되면 무얼 할 것인지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년까지 다 채우고 퇴직하셔도 퇴직한 이후에 갑자기 노쇠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정년퇴직 이후에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할 일도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주인에게 쫓겨날 처지에 놓인 청지기가 한 사람 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고민을 하는 청지기가 한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란 말씀이 있으니 제자들을 상대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 부분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곁에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많이 허비해서 주인이 **네 보던 일을 셈하라**는 말을 합니다(2절). 이 말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인수인계를 하라는 뜻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파면에 해당됩니다. 정리해고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으로 해서 파면에 해당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청지기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꾀를 부린 겁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를 들어서 빚이 기름 백말이라면 차용증서를 가져와서 50말로 고치고 밀 백석을 빌려간 사람은 팔십석이라고 고쳐 썼습니다. 밀도 백석이면 오십석으로 하지 왜 팔십석으로 했을까요? 밀이 기름보다 좀 비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밀은 이십석을 감해주고 기름은 오십말을 감해주었는데 이것을 당시 가격으로 대충 환산을 해 보면 거의 같은 가격이랍니다. 오백 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오백 데나리온이면 일년 육개월치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감해진 기름 오십말과 밀 스무석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요즘 은행의 꺾기처럼 기름 팔십말을 빌려주면서 소위 폭리 이자까지 계산해서 늘려 가지고 백말이라고 써 놓았는데 그 부분을 감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 팔십 말인데 자기 뒤편으로 이십 말을 추가시켜 봤다가 그것을 뺏을 가능

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주인에게 빚진 자를 전부 불러서 두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모두 다 불러서 증서를 고쳐 썼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의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문제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재산을 허비한다고 맡은 일을 전부 정리해서 인수인계를 하라고 시켰더니 한다는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전부 불러서 빚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을 했으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으니까 바로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야 합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당장 감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칭찬했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보이면 문맥을 따라서 앞 뒤로 쪽 훑어가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인데 바로 그 앞 15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아시죠?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 말씀 드렸습시다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선한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버지가 멸절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주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처사입니다. 재산을 주면서 이걸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 줄 뻔히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범 죄하고 떠난 인생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5장의 이야기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선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16장에 나오는 청지기와 주인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집 나간 아들과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와 흡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집 나간 탕자와 일치시켜 볼 수 있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가 이런 짓을 하고도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청지기의 탓이 아니고 청지기를 그렇게 봐 주고 있는 주인이 너무나 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그를 당장 감옥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네 일을 정돈하라고 시간을 준 것이 한 예입니다. 당장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준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전부 불러서 서류를 다시 작성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줬다는 것은 이 주인이 선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이 청지기가 한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굉장한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럼에도 칭찬을 했다는 것은 이 주인과 청지기가 어떤 특수한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어떻게 설명이 잘 안돼요. 자기의 재산을 줄여 놓았는데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주의할 것은 청지기의 행위 자체를 지혜롭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청지기는 이제 쫓겨나서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피부리는 행위를 주인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경우가 어떤 때 있을 수 있는지 한 번 봅시다. 아이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것을 다른 애들에게 잘 나눠주면 이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기 것을 꼬박꼬박 챙기고 욕심 많은 놈이 이쁠 때가 있어요. 욕심이 좀 있으니까 이쁘고 욕심이 너무 없고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 해 수능 시험에서 어떤 학교에서 수석한 학생이 음대에 지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석한 애가 음대 지망하면 이거 논란거리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좋은 성적 가지고 왜 거기 가냐?”는 겁니다. 이 아이가 대학을 소신껏 갔습니다. 갔는데도 옆에서는 자꾸 물어요. “그 좋은 성적 가지고 왜 음대 갔느냐?”고. 음악 전공하신 분들 예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적이 좋으면 적성과 취미는 제쳐놓고 어디부터 가야 합니까? 공부는 잘 하고 성적은 아주 높는데 낮춰서 가면 이게 그렇게 밍더라는 겁니다. 누가 미워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미워해요. 엄마 아빠도 거의 다 미워해요. 그런데 거꾸로 욕심이 많아서 자기 것

만 끌어 안고 있는 놈이 때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쁠 때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고 말 잘 듣고 착한 녀석은 선생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회사원이더라. 그런데 공부는 조금 못해도 욕심이 많은 놈들은 한자리 하더라.” 그러면서 욕심 많고 별났던 놈들을 꼽는데 아 진짜 그렇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엄마 말 너무 잘 듣고 너무 착한 아들이 가끔 미워질 때가 있어요. 욕심 좀 내고 자기 것 좀 챙기면 그래도 큰 일 한 번 할 건데 왜 이리 욕심이 없느냐 싶으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는 아이가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제 뭇은 챙기고 살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여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희미한 사람은 어려운 시대에는 좀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잔피를 부리는 걸 보고 칭찬하는 주인은 어쩌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 청지기는 오히려 주인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재산을 허비하는 이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그 행위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의 때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주인이 칭찬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 청지기가 일을 그만두고 쫓겨나야 될 이런 상황이 바로 여러분의 상황이니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결단을 하라”는 뜻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은 ‘지혜롭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8절 끝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지혜를 언급하면서 위기의 때에 이 세대의 아들들은 지혜롭게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참 열심이고 지혜가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버는 일에는 좀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좀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버는 일과 출세하는 일, 승진하는 일에 웬일인지 좀 뒤처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지식해서 장사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더 잘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짓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라는 말입니다. 못해도 으레 그러려니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정직하고 원칙대로 산다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마저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니 아예 이길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행하는 지혜로움은 본을 좀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솔직한 건 좋지만 그렇다고 미련하게 살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지혜로움은 보고 배워야 합니다.

이단에게도 배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가끔 찾아오는 이단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까? 하나 있어요. 열심은 배워야죠.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설명하려는 것은 안 배워도 그 사람들의 열심 하나는 배워야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중에 방법이나 구체적인 수단은 배척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몰려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 지혜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일이나 공부를 잘 하거나 승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예수 믿는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애를 써도 될까 말까 한데 부정한 방법으로 앞서 나가거든 그럴 때는 우리하고 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노력하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노력조차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태복음 10:16)’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참 어려웠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고만 하셨다면 꼭 그렇게 산다고는 말 못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였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워라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도 시장에 가서 뭐 하나 사 오면 늘 바가지를 썼다고 야단을 맞아요. 반 값 정도로 깎아야 하는데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왔다고 야단을 맞는 거죠. 어떻게 에너지를 해야 하는지 이론은 배웠습니다. 상점주인이 말하는 가격의 절반밖에 돈이 없다고 우기라는 거죠. 그렇게 밀고 당기다 보면 많이 깎을 수 있지만 조금 깎아 달라고 하다가는 별로 깎지 못해요. 이론은 알았지만 한번도 제대로 실천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물건 사려 안 갑니다. 달라는 대로 주고 나오면 쉬운데 바보 소리 듣거든요. 바보 소리 안 들으려면 싸우다시피 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하라면 그래도 해볼 텐데, 순결하기도 하고 뱀처럼 지혜롭게도 하라고 했던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개 다 하기보다는 하나만 하는 경향이 있죠. 주로 어느 쪽입니까? 비둘기 쪽입니까? 교통사고 나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까?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목소리부터 높이고 보는 게 우리 사회 아닙니까? 그렇게 싸울 능력이 없거든 제발 사고 안 나도록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어쩐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죠? 표현을 조금 바꾸면 바보같이 물러서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도 이 세대의 아들들의 그 지혜를 칭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시다. 그 사람들처럼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데 위기의 때에 지혜롭게 최선을 다 하는 그것은 배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을 안 해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마땅히 해야 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봐주실 것이라고 믿고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야 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가요? 저축해야 합니다. 저축 외에도 막지 못할 큰 위험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할 일마저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병이 들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때 사전에 보험을 들었을 때와 들지 않았을 경우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보험이 저축처럼 변질이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보험이란 사고가 나면 여러 사람이 모아서 희생자를 돕는 것이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전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보험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대책은 어때요?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나이 들어서 너무 어렵게 사는 것도 곤란합니다. 차근차근 생각해 두어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서 또 미래에 되어질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얘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9절을 봅시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진짜 본론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구절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와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야기는 거의 같은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3절을 먼저 봅시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두 주인이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과 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아서 앞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9절의 불의한 재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이라는 의미로 보기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세속적인 돈이나 어쩌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재물을 가리켜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진 재물과 재산은 우리를 의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지만 그 재물을 친구 사귀는데 쓰는 것은 잘 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9절의 이 말씀이 재물보다는 오히려 친구를 사귀는 것을 목표로 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뒷말이 또 이상해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불의한 재물로 사귄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친구를 뜻하는 게 아니네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란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귀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그 속에 자기가 얻을 이익을 다 숨겨 놓았었는데 청지기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감춰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너희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시대가 바뀌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위기의 때에 재물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되지 않는다. 그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웃습니까? "돈을 포기하라고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돈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그럴 수 없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이 지혜로워야 하고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쪽이라면 모든 걸 켜 개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까? 여러분, 재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재물을 버려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직장도 버려두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중간에 들어있는, 해석하기 어려운 이 말씀입니다. 10절을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충성하라는 거죠.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입니까, 큰 것에 충성하라는 말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면 작은 일에만 충성하라는 말입니까? 목표는 큰 것에 두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불의한 경우도 보세요.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참된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에게 줄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세 표현이 다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세속적인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삶에 충성하고 노력하라고 말하면서 실제 목표는 큰 것, 참된 것, 우리가 누려야 할 것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것은 그것인데 그 과정으로써 이 땅에서 작은 것,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에 충실하다는 것은 그 뒤의 표현을 빌리면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충실하다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은 재물을 써야 할 곳에 잘 쓴다는 말입니다. 어디에다 써야 돼요?

가장 소중한 일에 써야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죠? 재물을 움켜쥐고 재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곳에 잘 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재물 자체는 불의한 것이고 작은 것이고 남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소중한 곳에 쓰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어찌다가 지갑 잃어버리거나 돈을 좀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렇게 아까운 돈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쯤 쓸 수 있겠습니까?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재물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평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남 보기에 여봐란 듯이 살기 위해서 재물을 투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에 대한 생각없이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축도 하고 장래에 대한 노후설계도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도 소중하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여기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목표가 아니란 겁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그 다음에 큰 것에 충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것, 이 땅에서의 삶,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지향하고 누려야 할 목표는 더 큰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의 삶도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최대 목표인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돌아올 뭇을 전부 포기하고 사람들의 빛을 전부 탕감시켜 나가는 것처럼 너희가 욕심부리고 있던 그것을 다 버리라는 뜻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비슷하겠지만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는 의미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저축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면서 은행에만 저축하지 마시고 한 군데 더 하셔야 합니다. 천국에도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신경써야 할 건강은 따로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이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보험요? 사고날 것에 대비해서 들 건 들어두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보험에 가입해 둘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보험 모집하러 옵니까? 천국보험을 들라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아낌없이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움켜쥐고 발발 떨어지게 종의 노예입니다. 벌 때는 악착같이 벌어서, 써야 할 때 요긴한 곳에 적절하게 잘 쓰는 것은 돈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큰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몇 가지 비유를 들어봅시다.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 집에도 고3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언제 집에 오는지, 공부는 제대로 하는지 신경쓸 필요도 없고 쓸 수도 없어서 제쳐놓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고3 하나 있어보면 예상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작은 일이에요. 이 땅의 일입니다.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소홀히 하라는 말입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큰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을 잊지 말란 뜻입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어떻게 이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틈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부모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직장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직장에 충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작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충성하여야 합니다. 여가 시간에 오락을 즐기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낚시도 필요하고 등산도 필요한 일입니다.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합시다. 그러니까 직장 일도 열심히 하고,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하고, 놀 때는 열심히 놀아야 되죠. 텔레비전 드라마 볼 때 열심히 보셔야지요. 그러면서 큰 일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시간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특별히 성경공부에 시간 내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면서 또 우리의 목표가, 진짜 신경 써야 할 큰 일이 따로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일은 작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큰 일이라면 큰 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돈을 투자해야 될까요? 그랬다간 모든 것을 다 드러버리면 아무 것도 못하겠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십일조를 드리는 것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소득이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십일조만 내라고 하십니다. 소득도 시간도 십일조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텔레비전 드라마 많이 보셨으면 그 많은 시간중의 십분의 일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의 여유도 없이 일에만 완전히 몰두한다면 작은 일에 너무 충성하다가 큰 일을 놓쳐버리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이 공부시키는 일에 온통 정열을 다 쏟다가 큰 일을 놓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중의 일부 시간을 꼭 떼어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동시에 큰 일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일과 큰 일 중에 아무래도 시간이나 돈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갑니까? 아무래도 작은 일에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밭을 딛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 놓으라고 하셔도 다 드러야 할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오늘부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쫄쫄 굶다가 내일 죽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아뇨!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모시면서도 이 땅의 삶도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의 이 땅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고를 쳐서 쫓겨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좋은 방법을 쓰진 않았습시다. 여전히 불의한 방법을 썼지만 그것이 어떻게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에 선한 것도 아니요 잘 하는 것도 아님에도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실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잘한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노력이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행동은 절대로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탕자의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와 가지고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한 것이 아들 탃입니까, 아버지 탃입니까? 그건 확실하게 아버지 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짓을 행했음에도 주인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주인이 선한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하진 못하건 우리가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 해 주시겠지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요?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일에 봉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잘 하고 조금만 신중하게 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렇게 믿는 믿음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큰 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의 작은 일에 여전히 충성하라는 명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지자의 억울한 죽음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벳엘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 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벳엘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 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벳엘에 오던 길로 좇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벳엘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벳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좇아 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 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벳엘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개역, 열왕기상 13:1~34]

황제가 믿은 병사들

‘제’ 국의 아침 ‘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고려 광종의 이야기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왕건이 나라를 세웠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지방의 호족들이 워낙 강성해서 황제의 권한이 약한 나라를 어떻게든 지방 세력을 다 끊고 황제의 권한을 확대시켜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광종인데 지방의 호족 세력들과 피비린내가 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지방 호족들을 불러모아 놓고 연회를 베풁니다. 유약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광종이 대접을 잘한 후에 “우리 군사들의 춤 솜씨를 한 번 보여주겠다.” 하고 군사들을 불러 들였는데 군사들이 들어와서 검무, 즉 칼춤을 춥니다. 칼춤이 차츰 차츰 격렬해집니다. 나중에는 진짜 칼싸움이 벌어지고 철퇴를 가지고 정말로 치는 겁니다. 구경을 하고 있던 지방 호족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춤인 줄 알았는데 춤이 아니고...? 격렬한 검무에 질려버립니다. 병사들 몇 명이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나갑니다. 광종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뭘 이만한 일 가지고 그러느냐?” 우리 군사들이 어느 정도인지 보라면서 은근히 지방 호족들의 기를 꺾는 거죠.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다 파한 다음에 부하 장군을 불러서 “다친 병사들을 잘 대해 줘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황제의 권한을 강화해서 나라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눌러야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다친 병사들은 적어도 나라를 세운 공로자다. 황제가 그것을 알고 있다. 황제가 그들을 염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도 몇 사람의 자원하는 희생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실 때에 때로는 이런 희생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할 동안에 많은 사람의 희생과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로보암의 범죄

우선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말년에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리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여러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열 지파를 떼내어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쪼개서 그에게 주려고 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나라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영원히 잘 간직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를 쪼개서 네게 주는데,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온 것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나라를 떼어줄 것을 예언합니다.

예언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져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 선한 왕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열 아홉 왕이 등장하지만 성경은 열 아홉 왕이 전부 악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떼어서 자기에게 맡겼는데 나라를 다스리면서 걱정이 뭐냐 하면 유월절 제사 드릴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삼팔선을 넘어서 전부 남쪽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저렇게 내려갔다가 나를 버리고 르호보암 왕을 섬긴다면 난 뭐난 말이죠. 나라에 대한 염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대신에 북쪽 이스라엘 경내에 두 군데 산당을 세웁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지역인 베엘과 최북단의 단에다 산당을 하나씩 세우고 거기에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너희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면서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남쪽 유대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영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선지자의 책망

여로보암이 베엘에 있는 단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에 남쪽 유대에서 선지자가 한 사람 찾아옵니다.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단을 향하여 여호와와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제사장을 단 위에서 살라버린다는 것이죠.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단을 부정케 하고 단을 전부 훼파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남쪽 나라 선지자가 올라와서 이 예언을 하니까 “저 놈 잡아라!” 했겠죠. 그런데 내밀었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손 좀 풀어달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가 기도하므로 다시 회복됩니다. 여로보암이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불러다가 대접을 잘 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가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왕의 대접을 받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해버리는 거죠. 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중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 는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휴식과 대접을 거절하고 돌아갔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유혹

이 소식을 베엘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안장을 채우고 어느 길로 갔는지 알고 따라옵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좀 쉬었다가 가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18절입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물도 떡도 먹지 말고 가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도 선지자라 그리고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당신을 대접해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따라오시오 한탄 말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저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어떡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주는 말씀이 다르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만 하나님 믿는 것 아니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없으니까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이 이야기를 걸면 아예 귀를 막아버리죠? 듣지 않는 것도 잘 하긴 잘 하는 일 입니까는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공부하고 배워서 함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신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을 믿

는 사람이요” 하고 성경 들고 오더라도 진짜와 가짜를 스스로 분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은 선지자의 예언

어쨌거나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속여서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떡을 먹고 있는데 20절부터 봅시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한 말은 거짓말이었고 이게 진짜입니다. ‘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는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젊은 선지자가 말씀을 어겼으니 죽어야 한다는 선고를 했고 결국은 돌아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늙은 선지자가 듣고 짐을 챙겨서 또 찾아갑니다. 가서는 죽은 선지자의 시체를 수습해서 데려와서는 애통하며 슬퍼하며 장례를 잘 치루어 줍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하는 말이 31절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엘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 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선지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이 본문은 어딘가 앞뒤로 연결이 잘 안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거짓말을 했으며 또 남쪽 유다에서 국경을 넘어서 북쪽 왕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가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요? 만약에 이 늙은 선지자가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젊은 선지자를 꼬여서 죽게 만들었다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뒷처리를 하며 하는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지자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느냐에 대해서도 이 본문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선지자가 죽은 것이 단순한 실수나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남쪽의 선지자가 자기 구역에 와서 이 일을 하고 돌아갔으니 북쪽에 있는 선지자가 자기 영역을 침범한 것에 대한 알력의 문제로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하고 죽게 만들지 않았겠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죽고 난 후에 뒷처리를 하며 그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며 더구나 이 선지자가 외친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리라는 확정을 하는 걸 보면 남쪽 선지자와 북쪽 선지자 사이에 알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단순한 알력으로 이 선지자를 죽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문제로 이 선지자를 죽게 했다면 그가 외친 예언이 후대에 가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사자가 이 선지자를 몰아서 죽였다면 시체를 물어뜯었어야 하는데 선지자를 죽여놓고 사자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자가 멀뚱하게 그냥 있어요. 나귀도 도망을 안 가고 그 곁에 그냥 서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란 뜻입니다. 사자가 배가 부르면 옆에 토끼가 놀아도 안 잡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공연히 죽여놓고 그냥 있는 것도 그렇고 나귀가 도망가지 않고 같이 있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고 있는 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경고에 끄떡도 하지 않는 여로보암

이 일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32절과 33절입니다.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라고 하죠? 여기에서 힌트가 될 만한 말은 ‘이 일 후에도’라는 말입니다. 아니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일’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게 할 만하다’는 의미죠. 그런데도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일이 여로보암에게 경고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벰엘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 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는 말씀은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행한 저주가 반드시 이룬다는 보증으로 생겨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요시야가 아주 어릴 때 8살엔가 왕이 되죠. 뒤에서 제사장이 잘 지도해서 아주 좋은 왕이 됩니다. 유다의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되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쳐서 여호와와 종교를 다시 부흥케 했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여로보암 때부터 세워져 있던 산당을 전부 제거하면서 **‘그 뼈를 단에서 사르리라’**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 나갑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모든 산당을 파괴하고 이 우상의 단에서 해골을 불사르던 요시야가, 2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에서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우상의 단을 더럽게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라는 말은 우리가 좀 전에 본 열왕기상 13장에 나온 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 선지자가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다음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나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벰엘의 단에 행하신 이 일을 요시야 왕이 행한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묘실 앞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요시야가 뭔지 모릅니다.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왕께서 지금 행하신 이 일을 과거에 어느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의 묘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누가 합니까? 17절에 성읍 사람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왕이 모르는 것을 성읍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답변을 하더라는 겁니다. 젊은 선지자가 행한 일을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대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일을 여로보암이 몰랐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이 일을 여로보암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가 올라왔는데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사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데 무엇을 어겼습니까? 여로보암이 들어보니 정말 작은 일입니다. 아니, 잠시 쉬면서 떡 먹고 물 먹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치셨다는 얘깁니다.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남쪽 유대에서 북쪽까지 온 사람, 더군다나 왕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저주를 전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며 얼마나 용감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뻐했느냐 말이에요. 그가 돌아가다가 떡지 말라고 한 떡과 물을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자기와 비교될 것 아닙니까?

원래는 자기도 왕이 될 꿈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선지자가 찾아와서 솔로몬의 범죄 행위를 꼭 지적하면서 ‘이런 행위 때문에 나라를 떼어내서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대로만 순종을 한다면 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면서 나라를 떼어주셨는데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어요?

이 선지자는 떡 먹고 물 먹은 것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는 떡 먹고 물 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공짜로 받은 그가 행한 일이 떡 먹고 물 먹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했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지 않느냐는 말

이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한다면 자기는 백 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33절의 ‘그 일 후에도’ 하는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걸 다 알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은 이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을 향한다면 여로보암에게 얼마나 큰 심판이 내리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얼마나 큰 심판이 임할 것인지 여로보암에게 알아 들으라는 애깁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왕위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비극을 당하게 되죠.

선지자는 소모품인가? 희생양인가?

이 선지자의 죽음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소모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순종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소모품처럼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꼭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 없이 체험하면서도 자꾸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고 있을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나 말리지 마라. 이 백성들을 전부 전멸시켜 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버려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심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심입니까 하고 물으면 됩니까? 그래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진심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예, 옹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 데리고 다니는데 정말 골머리가 아픕니다. 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짝 없애고 새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 망신입니까? 모세도 망신이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저 애굽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능력도 없는 신이 자기 백성이라고 끌고 가더니 산에 가서 다 죽였단다 그러면 하나님 꼴이 뭐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전부 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는 말이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니면 마음에 없는 말을 왜 하십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모세가 잘 할 것이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 예.” 이랬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때 정말 기도를 잘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를 늘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멋진 기도를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 마음놓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저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해서 재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였다는 애깁니다. 앞에서 광종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왕의 그 의도를 알아서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 위에 또 그런 사람들의 협력 위에 튼튼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과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하신 일은 천지창조 외에는 없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합니까?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애깁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이 선지자는 정말 위대한 일을 남겼지만 정말 사소한 일로 죽고 말았습니다. 허무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황제가 그 다친 병사들을 잘 돌봐주라고 당부하는 그 장면처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크게 위로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줘서 어떻게든지 정신 좀 차리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했었다. 정말 수고했다.”고 크게 위로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미더운 자식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때로는 이런 희생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보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 점검해 봅시다.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만 하지 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고, 똥 싸면 똥 치우고, 배고프다 하면 먹이고, 춥다 싶으면 덮어주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이것 주셔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이것 주셔야 합니다.”면서 받기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예배시간 지키기에 급급하고 그냥 때우기 급급한 그런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천날 만날 어린아이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에게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긋방긋 웃고, 주는 거나 잘 먹고, 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부모님이 은근히 뭔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훈련도 시키고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크면 무리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진짜 미더운 자식에게는 때로는 큰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부도를 내서 엄청난 빚을 저 버렸습니다. 형제간의 일이고 부모와 자식에게도 “내가 형편이 좀 나으니까 형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미더운 자식이 아니면 형제간에 돕는 일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미더울 때에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갓난아이처럼 보고 계실까 아니면 내가 조금 컸으니까 이렇게 훈련도 하고 이렇게 노력도 하라고 기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희생을 요구하실 만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깝게 되었는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나에게 뭔가를 희생하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이 있다. 드라마에 나온 병사처럼 큰 부상을 입고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부상이 평생에 자랑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황제가 나를 믿고 행한 일로 인하여 얻은 상처다.”라는 자부심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은 아니죠. 안심되는 자식도 있고 마음 든든한 자식도 있습니다. 반면에 생각만 하면 불안하고 답답한 자식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 집안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얘기는 “우째 가지고 마음 편케 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노?” 이러시는데 제가 속으로 “집에 같이 있는 자식은 거기서 좀 빼주고 그러지.” 싶어요. 옆에 놔두고 그렇게 말하면 난 뭐야? 좀 빼주고 “나가 있는 자식들이...” 이러면 좋겠는데 집에 있는 자식은 안 보이네요. 걱정되고 말썽피우는 자식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고 자식이라고 다 미더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미더워 하시는지 아니면 생각만 해도 불안한 그런 자식인지 한 번 돌아보십시오. “야, 너

오늘 예배 안 가는 것 보니 또 빠졌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서 또 어디 가서 싸웠냐?” “너는 어디 나가서 뭐 한다 하면 내가 아주 불안하다.” 하나님이 우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나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왕에게 왕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돌아가던 그 선지자가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불쌍하고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믿고 귀한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하늘 나라에서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고난 겪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셨기에 고난을 참고 견디었노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도 절대 없습니다. 진급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 싫어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싫어해서 ‘아니다’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돈, 지위, 명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희생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깨끗이 물리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효자제일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써야 할 때 바로 믿고 쓸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니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막역, 요한복음 6:24~40]

이적이 많은 사람을 모을 수는 있어도...

새벽기도를 인도하다가 새벽기도에 오신 분의 숫자나 수요일 예배 드리는 숫자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새벽기도에 많이 오신다는 말이죠? 뒤집으면 ‘수요일 예배에 좀 적게 참석하신다’ 그런 뜻도 되지요? ‘어떻게 하면 수요일예배에 많이 참석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고 나면 마술처럼 손에 만원짜리가 하나 생긴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요일에도 많이 오실까요? 웬만하면 아이들 다 데리고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가 보자!’ 하는 분들도 꽤 많을 테고 그러면 수요일 예배가 북적댈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나 설교가 만원짜리보다 못하다는 얘기 아니냐는 생각도 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만원어치도 안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재주를 보거나 아니면 이적을 보게 되면 모여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탄을 하고 모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배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만원짜리가 생기는 기적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시간에 듣는 말씀과 이 예배가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감격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문서답

요한복음 6장 말씀은 비교적 낮이 익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주고 받은 얘기가 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돈이 잘 안돼요. 왜 정돈이 안되냐 하면 대화로 치면 거의 동문서답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

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하고 물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됩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만나를 먹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참 떡이 바로 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대화가 어딘가 모르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24절에 '우리가 거기서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그러니까 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바다를 건너온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바다 건너 간 것까지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25절에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 예수님의 답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고 대답하시는데 일종의 책망이죠.

여기에서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떡 먹으러 오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있을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고 물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사람들의 답변은 "예수님 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거절하든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내가 주리라'는 말씀보다 그 앞에 있는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걸 내가 준다'는 것은 쉬운 말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가 이적적으로 베푸는 떡을 먹고 배부르다고 나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임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해야 그 떡을 구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들의 말이 거꾸로 잦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걸 꼭 외워두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무얼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도 여전히 믿으라는 얘깁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표적이 됩니까?"라고 또 물어요.

예를 든다면 모세가 과거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런 표적이 뭐냐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온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떡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고 실체가 아닌 그림자라는 거죠. 그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먹었지만 결국은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중에 '진짜 떡,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는 진짜 떡이 내려오는데 그 진짜 떡이 바로 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전히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바꾸면 여전히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떡인 메시아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떡에만 팔려 있습니다. 이들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떡을 얻어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떡 먹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참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뭔가 보세

요. 34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러면 좋을텐데 거기에 묘한 느낌이 들도록 ‘항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뭘니까? ‘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떡만 있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애깁니다. 이 떡만 있으면 굶주림은 면할 수 있겠다는 뜻에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태도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태도와 흡사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어떤 점이 좋아서 생수를 달라고 합니까? 그 생수를 얻으면 더 이상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나 여기 유대인들이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그 떡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육체에 필요한 떡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바로 이 떡이고 나를 먹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1.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이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뭘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까? 전도하는 것, 교회를 위한 봉사,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겠죠. 무엇이 결과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뒤따라오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정말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탐나서요? 여러분의 힘이 탐나서요? 무엇이 탐이 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희생시켰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한 게 있어야지요. 능력이 있어 부업일을 잘 합니까? 운전을 합니까? 가르칠 가르칠 재주가 없어서 교사도 못하니 하는 게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얼 하셨죠? 믿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러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영 엉뚱한 소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얼 얼마를 했고 얼마동안 다녔고 무얼 했고 여기에 두지 말고, 아니 거기에 두셔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두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땡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죠?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신앙도 그런 겁니까?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잘 드러나지 않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따져야지 내가 얼마나 일을 했으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게 뭐냐를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고 감격스러움을 먼저 느끼고 그런 다음 교회 일도 하고 가정 일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슬픈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슬퍼하고 뭘 가지고 분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간다면, 내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다, 이것이 느껴질 때 가장 슬퍼야 합니다.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이요 목사님이신 분이 설교를 하면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오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평평 울더라고요. “채가 왜 저러냐?”고 하니깐 “다른 애들은 도시락 반찬에 전부 소세지 가져오는데 나는 맨날 김치 뿐이다.”라고 그러면서 울었대요. 도시락 반찬에 소세지 넣어 달라고 울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목사 딸이고 신학교수 딸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겨우 소세지 때문에 울고 있다? 이게 천불이 나더라는 겁니다. 도시락 반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꼴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로서의 소원이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울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꿈이 너무 큰 거죠? 아이는 그렇다치고 우리는 무슨 일을 가지고 기뻐하고 무얼 가지고 분노하고 슬퍼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진짜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치 않다고 할 때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단 하나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봉사나 섬김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잠시 쉴 틈도 주지 않고 사람들이 따라 다녔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바라보며 능력을 보고 열심히 따라 다녔지만 진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 다니고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해도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에 예수님의 참된 기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많이 하시죠? ‘예수님 믿는다’는 이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래서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 이러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기적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남자들만 오천명이 먹었던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표적이 이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표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주시렵니까?” 하고 묻는 거죠. 나름대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훌륭한 신앙인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훌륭한 믿음을 주고 네게 이런 사명을 주노라.”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감격하며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분들을 보곤 봤습니다. 환상을 한 번 보고, 그 환상을 잊지 못하고, 그 환상을 의지하면서 평생을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예를 보면 기적을 체험했다고 반드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뛰어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라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께서 대학생들을 지도하시는데 그 분의 특기는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겁니다. 집에서 요리하고, 맛있는 것 사 먹이고 그래서 우~ 몰려다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대학생은 저래가지고 안될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야 먹는 것, 맛있는 것, 자기 기분 좋게 해주면 잘 따라다니죠. 머리가 조금 굵어지면 그것만 갖고는 잘 안됩니다. 빵 얻어먹는다고 잘 따르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떡 얻어먹는 재미로, 아니 옛날에는 밥 먹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 다니면서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없는 신앙이 생기고 자라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적을 체험해서 신앙이 좋아진다면 광야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출애굽 때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기적 속에서 살았잖아요? 만나가 며칠동안 내렸습니까? 광야생활 내내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았으니 기적을 먹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했겠습니까? 광야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평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기적 속에 살아도 그것이 그대로 훌륭한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시다.

사렙다 과부도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조금 남았던 기름과 가루, 이것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하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날마다 그런 이적을 체험하면 사렙다 과부는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나중에 아이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아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사렙다 과부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열왕기상 17:24)’**고 신앙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오랫동안 체험했지만 그것이 그 녀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육체의 떡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 대화가 겹도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대로 말씀하시고 듣는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립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듣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듣기 때문에 실컷 이야기하고도 나중에 보면 영 말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달랐고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찾아온 목적이 여전히 떡 얻어먹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끝내 진짜 선물인 믿음을 얻지 못하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목적을 잘못잡고 있는 겁니다.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내세이고,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예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러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서 병이 나았답니다. 그런 다음

처음에 진단했던 병원에 다시 가니까 의사가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오진을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병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환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오진이었다는 말을 믿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나은 경우일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잘 했습니다. 한 몇 년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기도해서 다리 고쳐준 대가로 그만큼 다녔으면 되었지...” 하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적이나 기적 같은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온전하게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우리의 믿음이 바로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가장 큰 이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열두명이 남자만 오천명 그러면 적어도 전체 숫자가 만명쯤 될지도 모르죠. 만약에 만명이면 백명씩 무리 지으면 무더기가 백개입니다. 오십 개로 잡으면 무더기가 이 백개입니다.

학교 아이들이 200학급이 한 장소에 소풍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먹이려면 아마 최신 자동화 설비가 된 공장에서 빵이 마구 쏟아져 나와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보통 이적이겠습니까? 이런 이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큰 이적입니다.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적을 목격하고도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한 그 분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진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아십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과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 되심이 믿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고 싶다고 노력해도 안되고,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면 기적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졌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3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을 논하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생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을까? 구원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걸 독입니다. 궁금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속에서 내게 오는 자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5절도 봅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는 말씀에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확신을 누려야 할 근거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요인이 또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또 한편에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확신을 누리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되겠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떡을 얻어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떡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는 떡도 줍니다. 문제는 그 떡보다 더 나은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감격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 유대인들이 누렸던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정말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은 할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말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게 너무나 많았지만 그 중에 요약하고 요약해서 이 조그마한 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도 자세히 기록하려면 굉장히 긴 이야기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난 이야기도 자세히 기록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십 절 정도, 바다 위를 걸어난 이야기는 여섯 절 정도를 기록해 놓은 다음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믿어라 하는 말은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읽은 2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대충 계산을 해 보았더니 약 50절이나 됩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일을 10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를 6절로 끝낸 사람이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자그마치 50절을 할애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기적보다 믿는다는 사실이 더 소중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지 표적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체험한다고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사소한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기적 자체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표적이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무런 의심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살다보면 짜증나는 일도 많고 성질나는 일도 많지 않겠습니까? 평생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고민이 참 우습더군요. 기껏 고민이라는 것이 다리 굵은 것 하고 다리에 털이 많은 것이랍니다. 얼마나 행복하면 그런 걸 고민하고 있나 싶어요. 제가 그 애들만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3 때도 새벽기도 뛰어다녔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뛰어다닌 것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잤죠. 개들 다리 굵다고 설마 새벽기도 가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할 게 없으면 저러나 싶어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들에게는 심각한 고민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고민도 이런 식 아닙니까? 본인만 심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고민하고 힘들어 하고 양양거리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수 한번 하면 만원짜리가 하나씩 생긴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만 그건 미끼고 떡밥입니다. 낚시대도 시원치 않고 기술도 시원치 않은데 떡밥하고 미끼만 많으면 어떻게 돼죠? 강물만 버려놓죠. 냇물만 오염시켜 놓습니다. 혹시, 우리가 낚시대도 없고 기술도 없으면서 미끼만 잔뜩 들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가 위치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성도간에 사랑이 넘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겁니다만 미끼요 떡밥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떡밥하고 미끼만으로는 안됩니다. 말씀이 있어야죠. 그들을 정말 거듭나게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야 목사님, 강도사님 소관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의문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훌륭한 낚시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입니다. 진정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폭탄세일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예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매역, 레위기 5:4~13]

세일, 바겐세일, 폭탄세일, 자폭세일!

여러분, 세일 좋아하십니까? 살 물건이 있어도 일부러 세일 할 때를 기다려서 사는 경우가 더러 있죠? 세일이라는 말이 이상합니다. 제대로 쓰려면 바겐세일이라고 해야 옳은데 '바겐'은 떨어져 버리고 간단하게 세일, 세일합니다. 바겐세일이 됩니까? 염가판매, 싸게 판다는 뜻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낮추는 것은 손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려는 것이겠죠.

예전에 바겐세일이라고 하면 싸게 한다는 것이 10%나 많아야 30%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인폭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이런 세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알뜰한 분일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알뜰해서 세일을 좋아하는 걸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썩 곳을 찾아다니면서 살 수 있을텐데 물건을 볼 능력이 없으니까 메이커만 믿는 거죠. 어떤 회사 제품이라는 것만 살펴보고 싸게 팔 때를 기다려서 가는 거니까 결국은 질보다는 메이커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일한다 하면 손님들이 모이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세일할 때 팔았던 물건들은 나중에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모양입니다. 세일용 제품을 따로 만들길래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바겐세일을 비꼬아서 바가지 세일이라고 불렀죠. 바가지 세일이 조금 바뀌어서 왕창세일도 나오고 몽땅세일도 나오더니 요즘에는 폭탄세일, 자폭세일이 유행하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깎으면 폭탄세일이 됩니까? 80%, 90%도 세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가져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물건의 값을 엄청나게 깎아내리는 이유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처분하고 현금화시켜서 덕을 보겠다는 것이지 소비자를 위해서 가격을 그렇게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다보니 때로는 물건을 제값 주고 산 사람만 바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물건 사기가 겁나는 거예요. 누구는 50%에 살 수 있는데, 아니 80%로 깎아 살 수 있는데 제값 주고 샀다 싶으면 바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회는 그렇게 건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경주 최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집에 이런 가훈이 있었답니다. '절대 파장에 물건 사지 말라' 아침 일찍 가서 제값 치르고 물건 사 오라는 얘깁니다. 같은 성격의 말이지만 '홍년에 땅을 사지 말라' 홍년에 땅을 사면 헐값에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려운 시기를 노려서 땅을 넓히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런 류의 가훈이 열 가지나 있었답니다. 정말 오래도록 부를 누릴 만한 가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값 주고 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바겐세일이니 폭탄세일이니 심지어 자폭세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폭세일의 원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는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이 말은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양을 바칠 능력이 없거든’** 말입니다. 그 뒤 12절에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비둘기를 드릴 능력도 안되면 그것보다 더 낮추어 줍니다. 세일에 비교한다면 80%, 90%를 훨씬 넘는 세일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흔해 빠진 세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값을 깎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소였습니다. 소를 드릴 능력이 안되니까 일차로 깎아주신 것이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양과 염소가 어느 정도 가격이 차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20분의 1정도 떨어지는 것 아닐까 싶어요. 말하자면 90%이상 깎아버린 겁니다. 그래도 능력이 안되거든 양이나 염소대신에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마저 안되거든 가루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피가 흘러야 하는 것이었는데 가루는 피흘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깎아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양보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깎아주셨는지, 끝에 보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기보다는 흉내만이라도 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소를 드려야 하는데 양으로? 그것도 능력이 안되거든 비둘기로? 비둘기도 능력이 안되거든 가루로? 또 압니까, 누가 찾아가서 “그것도 드릴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공짜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루도 드릴 능력이 없으면 돈없이 값없이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정에 돈도 없이 값도 없이 나오라는 초청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갖고 오죠? 갖고 오라는 얘기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얼 들고 가죠? 가져 오라는 얘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 놓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엄청난 제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 편으로는 제사제물을 엄청나게 깎아줍니다. 심지어 그냥 와서 제사 드리는 흉내만이라도 내라고 하십니다. 나중에는 빈손들고 오라고 합니다. 가진 것 없이도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제대로 값을 지불하라면?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이 떠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정도 재물을 드려야 눈을 뜨죠? 공양미 삼백석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아니, 소경 아버지와 어린 딸에게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공양미를 삼백석이나 바쳐야 하나요? 그것 좀 깎아주면 안되나요? 깎아줍니까? 깎아달라고 말도 한마디 붙여 보지 못한 채 팔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신이 어느 누구에게 제물을 깎아 준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적 하나에 심한 것은 수 천만원 한다고 그러고 짠 것은 몇 만원짜리도 있다고 그러대요. 혹시 부적사러 가서 깎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수 백만원도 하고 수 천만원도 하는 부적을 깎을 생각을 왜 안합니까? 부적을 깎으면 효력이 떨어진단가요?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깎아주는 것이 없더라는 얘기죠.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까라는 옛날 장례식장에 가면 횡포를 많이 부려요. 왜 상주에게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돈을 뜯어냅니까? 어려운 처지를 보면 동정하고 도와주려는 마음보다 그것을 약점으로 잡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소위 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도 우리의 형편을 도와주고 이해해 주려는 신보다 내놓으라는 신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신들이,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것보다 빼앗아 가려는 판인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양보하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안되거든 양이나 염소나, 그래도 안되거든 비둘기로, 그것도 안되면 가루로 그것도 안되거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돈없이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해서 별 감동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공양미 삼백석을 바쳐

야 했던 심청이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에누리란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읽은 얘기들이나 전설의 고향에 매년 처녀 하나씩을 바쳐야 한다는 얘기는 수두룩해도 깎아준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물의 양을 스스로 줄여가면서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깎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해서 바겐세일을, 아니, 폭탄세일 내지는 자폭세일에 가까운 세일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용서 받으라!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 받으라는 얘깁니다. 반드시 속죄를 받으라는 얘깁니다. 제물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져 못하겠느냐? 다 면제해 줄테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물 때문에 못 나오느냐? 면제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면 내가 다 해 주겠다 나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반드시 속죄의 길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왕창세일을 하고 폭탄세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손님들을 위한 겁니까? 손님들이 덕을 보는 수도 많이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뿐이고 진짜 목적은 자기 자신들을 위함입니다. 제가 시내 있을 때에 집 근처에 이 마트라는 대형 슈퍼마켓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에 보니까 야구르트가 잔뜩 들어있어요. 라면도 대형봉지가 몇 개나 있고...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잘 없었거든요. "저거 웬 거예요?" 했더니 깜짝 세일에서 샀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느닷없이 지금부터 4시까지 반짝 세일입니다." 하면 소량이긴 하지만 아주 싼 값에 판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야구르트 다발을 그냥 준대네요. 부피는 많아도 돈은 얼마 안챜대요.

동네 아주머니들, 주로 할머니들이 우리집 주변에 모여서 잘 놀고 계시다가 "깜짝 세일 한단다." 하면 가서 줄을 꼭 선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할값에, 아니 동전 몇 개 받고 좌우간 큰 물건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공짜 비슷하게 물건들을 많이 얻었는데 그래도 하나 사 줘야지 그냥 올 수야 있냐?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사서 왔다." 그러시대요. 그게 재미인지 가끔 광고지 들고 "오늘은 깜짝 세일할 때 될 파는가?" 열심히 들여다 보시더라고요.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상인은 손해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상인들보다 더 많은 값을 깎아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그렇게 값을 깎아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덕 볼 일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발 '네 길을 다 닦아 놓을 테니까 내게 오기만 와라'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찾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성경 전체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식 사랑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도 오지 않겠느냐는 초청의 이야기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하늘나라에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각각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오지 않았습디다. 그 때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초청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니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격을 따지지 말라는 얘깁니다. 잘나고 못하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데리고 오라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격심사를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격을 굳이 따지신다면 여기에 당당하게 오실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물을 따지는 게 좋겠습니까, 학식을 따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똑똑하고 잘난 아들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재산 주세요." 했습니다. 엄청난 바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똑똑한 아들이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재산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못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아버지는 모릅니다.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발견하기는 쉬워요. 아버지는 그 장소에 그 모습으로 그대로 계실테니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에서 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져간 재산 다 털어먹고 거지꼴로 돌아올 것이라는 건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뛰어갔다는 얘기는 돌아올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구 애깁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과 밖으로 나가 버린 한 마리의 양 중에 어느 쪽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까? 따지자면 아흔아홉 마리가 더 소중합니다. 그 한 마리 찾아다니다가 이 아흔아홉 마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 집 나가 버린 양 한 마리를 메고 돌아와서 잃은 양 찾았다고 잔치를 하네요.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죠? 혹시 아이들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 얘기 하거들랑 큰 거는 타고 작은 거는 타지 말라고 그러세요. 작은 장학금 타면 장학금 탔다고 여기 한턱내고 저기 한턱 내고 나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도 타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마리가 그런 거 아니예요? 집 나가 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다는 것,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뜻이 잘 맞을 때는 사이 좋게 지낼 수 있지만 안 맞는 사람하고 사이 좋게 지내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박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양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에게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그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금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생각이 부족한 사람처럼 되어서 다가가는 것이 바울의 수법이지요. 어렵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나도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 선교사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바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참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 버렸을 때 그걸로 끝을 냈으면 하나님께서 편했을텐데 떠나간 아담, 떠나간 그 인간을 다시 불러 들이기 위해서 그 때부터 이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에 홍수로 심판하시면서도 노아의 가족만은 특별히 남기셨습니다. 그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나 노아가 살아있던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불러내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불러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케 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옳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다. 그들조차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그쯤되면 포기하는 것이 편하실 텐데 또 한번 불러내십니다.

마지막으로 불러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중의 일부를 불러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이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내게 나아오라’는 이 초청을 받아들인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이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값으로 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얼마나 양보하시면서 이 사랑을 전해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편합니다. 알면 참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을 베풀어도 베푸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러니 베풀려고 애를 쓰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인내하고 참으며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탓할 건 아닙니다. 자기 밥그릇을 챙길 줄만 알아도 고맙게 생각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밥그릇도 못챙기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사람은 보통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끔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별 능력도 없고 별 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보하며 제물을 깎아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좀 부족하거나 좀 모자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며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아이 골라서 가르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결과가 별로 안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지사 아르바이트 하시려면 돈은 좀 적게 주더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를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납니다. 아무나 가르치면 안돼요. 돈이 목적이려면 학교 선생님도 공부 못하는 아이 붙들고 오후에 남겨서 붙들고 해도 별 도움 안됩니다. 아르바이트는 목적이 돈 아닙니까? 일단 학비가 목적일 때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돈에만 눈에 멀어 돈 되는 일만 찾고 앉아 있으면 제대로 된 선생이 아닙니다. 사람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본분이라면 못하는 아이들, 부족한 아이들을 더 잘 챙겨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옆의 성도들과 어울려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뜻이 잘 맞는 사람과 친하게 어울려 지내는 것이 주목적이 되면 안됩니다.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람이 오히려 내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려면 옆에서 나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절대 닮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를 도우고 그를 완성시켜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완성된 성인들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완성된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해서 만난 겁니다. 두 사람 다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품입니다. 미완성품 둘이 만나서 서로 깎고 깎이며 완성되어 가는 것이 부부의 삶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 왜 변했느냐구요? 원래 각본에 그렇게 되어 있었었습니다. 상대방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집사람에게 저런 안좋은 버릇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아, 저건 내 몫이다." 그래서 채우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이유를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물을 깎아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와 이 사랑을 받아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달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깎아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물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강아지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예쁜 강아지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 모양이죠. 아이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는 관심이 있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강아지에게는 별 관심이 없단다.”고 했는데 아이에게는 굉장히 서운한 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에겐 별 관심이 없어요. 양고기에도 별로 그리 흥미있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여러분들이 들고 온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제물은 얼마든지 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물은 흥내만 내고 정 안되거든 마음만 들고 빈손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말씀 잘 아시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짜 제사라는 얘깁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까지 하셨을까요? ‘이제 마 질렀다. 그 제물 좀 가져오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제사가 싫다는 거예요. 제발 드리지 마라고 하는데 그거 왜 자꾸 드리냐? 제발 문 좀 닫아버려라. 왜요? 제물에 질렸다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죠? 그 제물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으니 그런 제물 받기 이젠 질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제물, 마음이 없는 헌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있는대로 다 쏘아 부어버립니다. 복을 얼마나 쏘아 부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복만 해도 과분한데 또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걸 비명입니다. 비명을 지를 만큼 큰 복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복을 주신다는 얘깁니다. 부모가 온갖 희생을 치르고 자녀들을 기릅니다. 뭘 바라고 그러냐요? 이 자녀가 다 커서 “엄마 나에게 뭐 얻을려고 나를 이렇게 키운건 아니지?” 하고 나오면 심정이 몹시 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뭔가 얻을려고 희생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쏟았는지, 그 마음만 잘 읽어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제일 큰 보답 아닙니까? 그거면 충분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자녀를 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 마음을 읽어줄 수만 있어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부는 사랑을 먹고 산다

부부도 마음을 헤아리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가끔은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냐?” “한달 내내 뼈빠지게 일해서 월급 타서 한푼도 축 안내고 다 주지 않았느냐?” 큰 일 했죠? 큰 일 한 것 아니에요? 월급만 잘 챙겨주고는 남편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남편들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언제 위험한지 아세요? 뜻하지 아니하게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되면, 말하자면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때부터 바람빠진 풍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월급이 작고 돈이 전혀 없더라도 집에 가서 당당한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왜 당당한데요? 월급 때문에 부부가 아니에요. 돈 없어도 마음만으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들이 장래를 위해서, 돈 못 벌 때를 위해서 미리부터 돈 못벌어도 당당한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서로 주고 받으며 그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튼튼한 부부사이기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좀 부실하고 다른 능력이 좀 없어도 튼튼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고생하고 월급 타다 췌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선배 중에 한분의 부인이 키가 조금 작았습니다. 얼굴이 조금 까무잡잡한데 둘이 같이 하와이에 보름 동안 갔다와서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말이, 의도는 분명히 부인 예쁘다고 한 겁니다. “당신 꼭 필리핀 미인같애.” 그래서 대판 싸웠답니다. 이 남편은 평소에 부인더러 예쁘다는 투의 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모처럼 큰 마음먹고 ‘당신 예쁘다’는 말을 한다고 한 것이 ‘필리핀 미인 닮았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뭐라고 이해했느냐 하니까 “그래 내가 키가 작고 까무잡잡하다 이 말이지? 어디 미인이 없어서 하고 많은 미인 중에 하필이면 필리핀 미인이냐 말이야?” 그래서 싸웠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외국어를 쓰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외국인 선교사가 “오늘 장로 세 마리하고, 집사 두 마리...” 해도 “아하 저 분이 사람을 헤아리는 말과 짐승을 헤아리는 말을 혼동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듯이 서로의 마음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대화가 그렇게 쉽게 통하지 않아요. 속에 든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느낄까?”라고 한번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남자하고 새겨들을 줄 모르는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게 부부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마음을 읽어내지 않으면 내 식으로 해석해서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남자들은 표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말 같아도 “저 양반이 아마 이런 의미로 말을 했을거야”라고 생각을 좀 넓혀야 합니다.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하고, 여자는 생각을 잘 안하니까 다툼이 많이 생기지요. 필리핀 미인이라고 하거든 “아, 예쁘단 뜻이구나”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마음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해야 이런 문제가 덜 생깁니다. 좌우간 부부는 마음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이들도 사랑을 먹고 산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밥만 잘 먹고 옷만 잘 해 입히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할 일을 다 한 겁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잘 먹여야 합니다. 사랑을 먹여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없이 밥만 잘 먹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빼놓지 않고 밥만 잘 먹인 아이들, 물질적으로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게 키운 아이들이 나중에 비행 청소년이 되면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큰 아이들보다 훨씬 큰 죄를 저지릅니다. 대형사고 친단 말입니다. 나중에 사고친 아이들을 붙들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안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큰소리 치지만 부족한 것이 딱 한가지입니다. 다 췌는데 가장 큰 것을 주지 않았어요. 자녀의 마음을 읽는 그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아무 것도 주지 않은 것보다 더 잘못된 겁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마음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소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부족한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실 때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짜 치장은 마음의 치장입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치장해서 드리지 아니하면 바깥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치장합니까? 누구는 보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데 저 밍생이를 또 쳐다봐야 되나? 쳐다보기만 해도 짜증이 납니까? 그러면 마음의 치장이 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베푸셨음을 잊지 않고 이웃들에게 베풀려고 마음을 먹으면 평소에 밍던 사람도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양보, 양보, 양보하면서 정 안되면 빈손으로라도 나아오라고 하실 정도로 양

보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읽어 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 우리도 물리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부족한 사람을 돌볼 수 있을 겁니다.

진짜제물은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보하신 세 번째 이유는 제단에 드리는 그 제물이 사실은 진짜 제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제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흉내만 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제사 때 드러진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나는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태우면 향기가 납니까? 생고기를 그냥 태우면 향기가 나요? 불고기집의 맛있는 향기는 고기 냄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념 냄새 아날까 싶어요. 양념을 잘 해서 좋은 냄새를 많이 풍겨야 손님이 많이 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 생고기를 태워서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난다칩시다. 그 향기로운 냄새가 대기권을 타고 올라가서 천국까지 가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신 것은 진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진짜 향내는 소나 양의 죽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받으시는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식가는 아닌가 봅니다. 맛있는 고기를 원하신다면 암소고기를 원하셔야지 제사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식당 이름에 '암소 한 마리' 또 어느 집은 '처녀 돼지'라고 하던데 '황소 한 마리'는 어때요? 손님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저 집 고기는 몹시 질길거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숫송아지 고기를 원하신 것은 고기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물은 상징이요,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진짜 기뻐하시는 제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깎아줄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소도, 양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향내나는 고기일까요? 구원내나는 제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포장할 수 있고 남 보기에 그럴 듯하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속은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신 소나 짐승을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정말 공짜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선물입니까?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물을 다 깎고, 깎고 정 안되거든 빈손 들고라도 나아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신 진짜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이렇게 깎아 주셨습니까? 꼭 오라는 애깁니다. 마음을 달라는 애깁니다. 너희 대신 예수께서 죽었으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간절한 초청의 말씀이고 어떻게 본다면 답답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우리들의 마음에 들만큼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길 외에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이 귀한 초청에 감사해서 그에게 나아가는 것 외에는 내가 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또 그게 잘 안돼요. 음식 중에 맛이 고약해서 먹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맛이 있다고 열심히 골라서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되는 분은 몸으로 체험해 보지 않은 탓입니다. 남들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손도 못대는 음식이 있거든 눈 질끈 감고 몇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맛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없으면 못살지도 모릅니다. 그런 음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맛을 아는 사람은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눈 질끈 감고 말씀대로 한 번 해 보세요. 맛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개천을 파야 물을 주시나?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낫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 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예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개역, 열왕기하 3:13~20]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북 쪽 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아버지를 잘 만난 덕분에 나라 는 상당히 부강했고 오랫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파로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넘어지기 마련입 니다. 모압 왕이었던 메사가 조공을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나섰는데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어떻게 든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유다의 속국으로 있던 예돔 왕과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갔습니다.

문제는 세 나라 연합군이 대군을 이루어서 모압까지 먼길을 갔습니다. 모압 가까이 갔는데 골짜기에 물 이 전혀 없는 겁니다.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물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요. 여호람 왕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전부 벌을 주시려고 하는가보다’ 하는데 그 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 불만한 선지자가 없느냐?”고 하는데 묘하게도 엘리사가 따라갔던 모양입니다.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 다.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합니다. “난 하나님의 선 지자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는 거지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이 말은 “여태 까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가짜 선지자 밑에서 그들을 섬기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러로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 위기 때나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법입니다. 14절에 ‘엘리사가 가로 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왕의 낫을 봄이 아니 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낫을 보아서 하나님에게 뜻을 물 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 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게 되면 구름도 없고 비도 없 는데도 이 개천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천을 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 개천에 물 이 가득하여 모두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냥 골짜기에 물을 채우시면 안되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못 이룰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꼭 개천을 파야 되느냐는 겁니다. 물을 주시려면 개천을 파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물이 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에 앞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물을 주시면 안될까요? 아니 왜 꼭 개천을 파라고 하셨을까요?

열왕기하 4장에 가난한 생도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빗을 호소합니다. “빗을 못 갇아서 어린아이들을 빼앗길 판인데 선지자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에 결국은, 가지고 있는 기름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것을 팔아서 빗을 다 갇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있어요. 기름이 많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빌려 온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더니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기름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집에 그릇도 없고, 무슨 독도 없고, 큰 술도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무 데나 그냥 채워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사르밧 과부도 비가 오지 않는 오랫동안 기름이 다 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요구받은 게 하나 있었죠? 마지막 남은 가루 한줌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달라는 거죠. “아니 남은 것이라고는 이것 뿐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달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무리한 부탁을 다 합니까? 그런데도 그걸로 구워서 주었더니 줄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은, 결과와 비교하면 작지만 사르밧 과부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걸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이 강둑에 넘쳐 흐르던 때였습니다. 이걸 건너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함께 케를 메고 언덕에 넘치는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너희가 마른 땅같이 건너가리라는 겁니다. 쿵쿵 넘쳐흐르는 강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케를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태어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했기 때문에 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강둑에 흘러 넘치는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4명이 케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강물을 끊어주셔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먼저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발을 담궈야 물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조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꼭 떠나야 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복의 근원이 되면 안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받아 가시려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앓은뱅이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앓은뱅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사롭게 보이십니까? 앓은뱅이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라면 당장 이럴 겁니다. ‘일어나라구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나를 보고 일어나라구요?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있다면 여태 이려고 있겠어요?’ 앓은뱅이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보겠다고 움찔거리는 순간에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냥 일으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 참 어렵지요? 부모님들은 과외도 시키고 억지로라도 “공부 안 하나!”고 그러면 다 잘할 것 같지만 학교에 있어본 제 경험으로는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야, 이거 조금만 올리면 될 것 같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조금이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등수를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도 해요. 그런데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잠시 머리라도 식히려고 땀 짓을 한다 싶으면 “또 공부 안 하고?” 이런 고함부터 칩니다. 자칫하면 반발을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힘드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이 소리를 참 싫어해요. “엄마는 날마다 나에게 공부해라는 소리 말고 한 게 뭐가 있냐?”고 따집니다. 그것보다 더욱 심한 얘기가 앓은뱅이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앓은뱅이었다면 그 때 일어나 보겠다고 다리를 움찔거렸겠어요? 아니면 “태어나서 평생 일어나 서 본 적이 없는 나 보고 일어나라구요? 지금 누구 놀리는 겁니까?” 하고 대들었겠어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전에 꼭 요구하는 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무언가를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역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다 하신 일은 천지창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 단독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든지 자신이 다 하시면서도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지만 우리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마치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쳐놓고 단독으로 사역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항상 사람을 준비시키고 준비시킨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 않았습시다. 적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지언정 움직이지 않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 전에 골짜기를 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골짜기를 판 사람들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역사하십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할 만한 핏계거리, 표현이 참으로 이상합니다마는 무슨 건더기라도 있어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배 만들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씨를 보전할 능력이 없어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만드셨고 다르게 취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마치 짐승에게 밥 주듯이 하시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짐승이나 가축에게 밥 줄 때는 시간 맞춰서 적당한 양을 주면 끝입니다. 거기에는 교제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할 때 먼저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일주일이나 한 달에 얼마를 주기로 정해 놓았다 칩시다. 때가 되면 아이가 용돈 달라고, 세금 받듯이 달라고 하는 것과 아무 말 없이도 때가 되면 부모가 챙겨주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정해 놓았으니 때가 되면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는 사람이 재미가 좀 없어요. "저 자식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볼까?" 기다려 보아도 달라는 소리 끝내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안 줘요? 그래도 줘요. 주긴 주는데 재미가 좀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마치 세금쟁이가 세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야, 맡겨놓았냐?" 이러면서도 차라리 그게 나아요. 용돈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부모와 자식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화도 없이 때가 되면 통장에 입금하듯이 넣어주면 부자간에 아무런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든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면서도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우리나라 휴전협정에 관한 기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휴전협정에 싸인하는데 7분 걸렸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집을 사고 팔 때에 매매계약서 써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걸려요? 집을 사고 팔기로 하고 낯선 사람과 만나서 계약서 한 장 쓰는데 7분 만에 될까요? 안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통성명이라도 하고 어디서 사시고, 어찌고 저찌고 얘기도 좀 오간 다음에 “자, 이쯤하고 씁시다.” 쓰는 데도 한참 걸려요. 쓰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로 “이것도 인연인데 한 잔 하고 갑시다.” 이러면 30분 넘어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물며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중지하고 서명을 하는데 7분밖에 안 걸렸다면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했을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문구 미리 다 써 놓고 싸인하고 목레조차 없이 그대로 헤어졌다는 뜻입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교제란 전혀 없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딱딱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동화된 닭장 속의 닭에게 모이 주듯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월급만 타다주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간혹 있죠? 아내에게 생활비 잘 갖다주고, 아내는 밥만 잘 먹여주면 부부로서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느냐? 밥 주고 생활비 주었으면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부자간에, 부부간에 교제가 없는 상태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월급을 타다 놓고 최소한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하다.”던가 “참으로 수고 많았다.”던가 이런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적든 많든 주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 이런 것이 부부사이의 교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부부싸움의 근거가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매개로 해서 부부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그것이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보탬이 되는 게 아니고 싸움의 주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다가 흘리거든 그것을 주워오지 말라고 합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추수를 하다가 이삭을 흘리면 그것도 그냥 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와서 이삭 줍는 것을 위해서 그냥 두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추수를 하면서 일부러 뽑아서 흘리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왜 그렇게 돕습니까? 깨끗하게 거두어서 추수해서 돕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삭을 알뜰살뜰 다 긁어모으지 말고 또 추수하면서 좀 흘리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위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얻어먹는 것보다 밭에 가서 당당하게 노력하고 벌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리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 주는 이는 무엇이며 심는 이는 무엇입니까? 자라는 이가 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심는 자가 필요하고 물 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일을 조금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작은 순종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일과 골짜기 개천에 물을 채우는 일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 물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앓은뱅이가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어나게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토나 집을 버리면 몇 배나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 한 채를 헌신하면 몇 채요? 백 채를 주신다고요? 그만하면 만족하십니까? 사실은 집 백 채보다 더 큰 영생이 따라옵니다. **‘땀방울 곁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마가복음 10:30)** 이 땅에서 백배는 별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을 한 채 바치면 얼마를 얻을 것인지 그걸 계산하고 계시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생에 비하면 집 백 채라는 것은 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딤니다. 발 디디는 것은 제사장들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엄청난 물을 끓여버리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문둥병을 낫게 한 일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시면서 나아만에게 요구한 건 뭘니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니 큰 일입니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강물에 일곱 번 씻는 것이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비교할 수 없도록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작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갔습니까? 내가 가면 선지자가 쫓아 나와서 기도하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건방지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못한 강이 없단 말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선지자의 요구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경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이게 나올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앓은뱅이 보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려는 것도 마음먹기 나름이지만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몸을 움직여 본 적이 한 두 번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마음먹는다면 일어나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일에 비교하면 내 노력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깨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큰 장애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합니다. **“이건 너무나 큰 장애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정말 작은 걸 요구했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요구하시고 큰 걸로 갚으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작은 걸로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이걸 참을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면 가벼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늘 작은 걸 요구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작은 것을 드려야 할 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인데 그 앞 부분에 무슨 구절이 있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행할 작은 일,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만용에 가까울 정도의 용기를 부리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이 아닌 만용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 생각없이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얘깁니다.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성공의 수단으로 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믿고 함부로 카드 막 긁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분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습니까?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대접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을 준비하는 자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면밀히 따져서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고 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는 미리 예산을 잘 짜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면밀히 생각해 보고 작은 것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엉뚱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난폭 운전을 마구 해 댁니다. 졸음운전도 사양 안 합니다. 개업하고 문만 열어 놓고 예배만 드리면 손님들이 왕창 모입니까? 중요한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의 뜻과 동역자라는 놀라운 신분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다 말씀하신 후에, 12장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롬 12:2-3).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무얼 원하시는지를 생각도 아니하고 무조건하고 믿습시다 하고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없이, 사람과 관계없이 혼자서 무슨 일이든지 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려고 하십니다. 말을 바꾸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겠다'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데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몹시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겠단 싶어도 내가 보기에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때로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나의 이 작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걸 요구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렵다 싶어도 지난 후에 돌아보면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작은 걸 요구하시고서 큰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물을 채우시기 전에 개천을 파라고 하셨습니다. 개천을 파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개천을 파는 작은 명령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다른 것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늘 고민하고 찾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야?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개역, 로마서 14:13~18]

독한 빈대

빈 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어릴 때는 빈대 구경을 못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기숙사의 다다미방에서 생활했는데 빈대가 있구나 봐요. 저는 빈대든지 모기든지 간에 한 방에 둘이만 같이 있으면 걱정을 안 합니다. 제겐 안 덤비고 꼭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가더라도요. 저하고 같은 방을 쓰던 친구가 “이 방에 빈대있다.”고 엄살을 몇 번이나 부리길래 “세상에 빈대는 무슨 빈대? 빈대가 어디 있냐?”고 무시해 버렸더니 어느 날 이 친구가 건디다 못해서 옆방으로 가 버렸어요. 그 날 밤에 난생 처음으로 빈대한테 물렸습니다.

그 때까지 빈대를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나?” 싶어서 불을 켜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책상 두 개를 붙이고 올라가서 누웠는데 사사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껌싸게 불을 켜니까 빈대가 벌어진 벽지 틈새로 들어가더군요. “빈대란 놈이 이런 데 숨어 있는구나!” 하면서 벽지 바른 곳을 주욱 따라가면서 누르니까 딱딱하고 터지더군요. 벽에 틈이 있는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다 눌렀죠.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때 빈대를 처음 보았는데 조그마한 것이 납작한 접시모양으로 생겼더군요.

정주영 회장과 빈대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정주영 씨가 쓴 글에 보니까 빈대 얘기가 나와요. 이 분이 몹시 절망하고 있을 때에 빈대를 만났던 모양입니다. 빈대가 하도 덤벼서 역시 책상 위에 올라가 잤답니다. 자는데 책상다리를 타고 빈대가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상다리 네 개에 전부 세숫대야를 받치고 거기다가 물을 채웠답니다. 그러니까 빈대가 세숫대야를 타고 올라오려다가 물에 빠지니까 안심을 했는데 그래도 물렸대요.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장에서 목표물을 찾아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분이 그렇게 빈대에게 물리면서 “빈대도 저렇게 좌절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이만한 일에 좌절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일어섰답니다.

정 회장님은 빈대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도전해서 신화적인 일을 이루었는데 참 아쉽게도 그 아들이 아버지가 빈대에게 받았던 교훈을 제대로 못 살리는 바람에 정 회장님의 빈대 이야기는 힘을 조금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자살한 정 회장 아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래도 조금 더 참고 견뎌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홍 강도사가 무슨 빈대 이야기를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 바라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초가삼간 태울 수야?

우리 속담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야 없지 않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빈대 때문에 집을 홀랑 날린 사람이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일이라도 있었으니 이런 말이 나왔겠지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빈대가 얼마나 지독하면 건디다 못해서 빈대 잡겠다고 집을 태웠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빈대 때문에 집을 태웠다면 모든 사람이 욕을 할겁니다. “어떻게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을 홀랑 태울 수 있겠느냐?”고 비난을 하겠지만 태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빈대한테 한번 시달려 봐라. 얼마나 화나면 내가 이 짓이라도 했겠느냐?”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빈대에게 시달렸다 하더라도 빈대 때문에 집을 다 태웠다면 어느 누구에게서나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면 우리 보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여기에 무엇과 무엇이 대비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식물과 형제, 형제도 그냥 형제가 아니죠? 어떤 형제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고 살려 놓은 형제와 식물이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본문은 ‘식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케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케 하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알게 모르게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13절,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판단하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 너무 따지지 말자는 얘기도 됩니다. 이렇게 따지는 데서부터 “니가 그러고도 집사냐?” 또는 “그런 짓을 하면서도 니가 교인이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우린 적잖게 잘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교회를 섬기고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흔히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말이겠지만 바울은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일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흔히 하는 말로 “좀 안다고...” 또는 “좀 먼저 믿었다고...” “아니, 지가 집사면 집사지, 되게 그러네?” 이것도 여전히 형제를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가 남이 아닌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시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누가 이 교회에 먼저 나왔는지, 누구 인물이 더 나은지, 재보다는 내가 좀 잘 났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 판단하지 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저 형제가 나를 섬겹게 한 모습이 보이는지, 아니면 저 형제를 사랑해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나는지요? 항상 그 생각이 먼저 들기를 바랍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단이나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에게까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14장 6절입니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좀 못났고, 좀 성질이 고약해도, 결국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죽으나 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해도 물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위한 자료수집도 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자료수집을 했나요? 알게 모르게 남을 판단할 자료수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형제에 대해서 알게 된 바가 있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걸로 하십시오.

판단할 자료수집도 불가!

저희 부부가 직장생활을 할 때 한 달에 봉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아버지가 아시니까 문제가 되더라구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강원도에 가서서 집으로 전화 걸 때 100원 짜리 동전 하나 넣고 급하게 몇 마

다 하시다가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아끼시면서 평생 사셨으니까 돈을 보는 눈이 아들과 달라요. 아들, 며느리의 봉급이 아버지 눈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 당신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시고는 '헤프다'고 꾸중을 자주 하시는 겁니다.

가족간에 자주 문제거리가 되길래 액수를 모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봉급을 받아도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계속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교회 회계부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일조 내역을 아시는 겁니다. 십일조 액수는 실제 수입보다 많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서 아들 내외가 온통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회계부서에 들어가셔서 일하시다가 누가 십일조를 얼마 한다는 것을 장부정리상 알게 되었다더라도 거기서 한발짝 물러나는 순간에 기억에서 지워야 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회계를 담당하면서 알았던 것은 거기서 나오는 순간에 깨끗이 잊으셔야 합니다. 누가 현금을 얼마하고 누가 어떻게 하더라. 이런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됩니다. 흔히 직장생활에서 하는 표현을 빌린다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은 죽을 때까지 비밀에 붙여야 합니다.

공무상 취득한 비밀은 죽을 때까지 비밀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문제 때문에 학부형을 만나서 이런 저런 상담을 하다가 개인적인 것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어디에 나가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그래서는 안됩니다. 아이 상담 때문에 학부형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 자기 혼자 아는 걸로 끝내야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석에서 옮기는 것은 도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알게 되었다면 내가 아는 데서 끝나야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누구는 새벽기도를 얼마 동안 다니고 있고, 무얼 어떻게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떠하고, 집사가 저래서 되고 안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무명으로 현금도 하시고, 무명으로 좋은 기자재를 설치하신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약한 버릇을 가진 분들이 계시요. 본인이 밝히지 않고 했으면 그걸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했을까 궁금하지요?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지만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누가 했을까? 누구 아닐까? 하고 묻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판단을 위한 정보수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가 했는지 나중에 알았더라도 자랑스럽게 "야, 누가 했단다." 이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말할 때에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간에는 결코 누가 어떤 사람이나 이런 판단을 하지 말고, 할 말이 있다면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얘기만 하자는 겁니다. 좀 못 났으면 어떻고, 성질 좀 고약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만 기억하자는 겁니다. 매사에 판단도 않고 생각도 안하고 무식하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안되지만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생각을 잘 해야지요.

실족치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로, 13절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요약해 보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저 사람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필연코 그 형제를 실족케 할 위험이 있습니다. 형제 하나를 실족케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할 바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감고 빠져 죽으라는 거죠. "나는 아이를 그렇게 한 적 없다?" 그 소자가 꼭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교회 잘 다니고 있던 형제를 실족케 하면 더 큰 잘못 아닙니까? 잘 믿는다는 사람이 좀 못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실족하게 되었다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를 실족시킨 겁니다. 형제를 실족케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빈대도 할 말이 있다

여러분, 빈대가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밤잠을 못자도록... 이게 도망은 얼마나 잘 가는지... 빈대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나요?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빈대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언제 너를 괴롭혔냐?”고 그럴 거예요. 왜요? 빈대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날 괴롭히냐?” 그러면 “내가 언제 괴롭혔는데?” 괴롭힌 적 없다고 할 겁니다.

고슴도치와 다람쥐가 사랑을 했더랍니다. 고슴도치가 “다람쥐야 반갑다!” 하고 덩석 안기면 다람쥐가 아프다고 야단입니다. 고슴도치는 다람쥐를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사랑해서는 안돼요. 고슴도치는 사랑하기 전에 자기에게는 바늘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사랑도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고슴도치가 아닌가? 혹은 내가 빈대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게 뭐 아픈데?” “그만한 일 가지고 뭐 그렇게 기분이 나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아, 내가 고슴도치구나!’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야, 왜 그게 기분 나쁜 말이야? 남들도 다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고슴도치라는 애입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하는 말에 상대방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면 내가 고슴도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빠지긴 뭘 빠져? 남자가 켜켜하게!” 남자라고 안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가 아주 튼튼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남자는 어떤 그릇이라고 하지요?

수퍼맨의 비애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가 붙었어요.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자는 ‘연약한 그릇’이죠. 남자도 연약한데 사람들마다 남자가 남자가 하나까 할 수 없이 강한 척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 강한 척 해야 하는데 실제로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롭지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수퍼맨의 비애’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수퍼맨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늘을 날 수가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난 하늘을 날 수 있고 힘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노래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능력없는 수퍼맨이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뭐 그만한 일로 빠지고 그래?”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내가 고슴도치라는 애입니다. 내가 빈대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1절을 봅시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잘나고 못나고 이런 얘기 할 필요없이 무슨 일이든지간에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 말이 그르고 내 말이 맞고...’ 이런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울이 그 다음, 15절을 봅시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것 아니냐?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를 따져보면 아주 논리적인 사람도 어떤 때는 정말 비논리적입니다. 머리로 실컷 생각해 놓고 결정적인 것은 그 때 기분에 따라 썩 바뀌어 버립니다. 부부가 싸웠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하루종일 고민합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네. 오늘 들어갈 때 미안하다 그렇지? 잘못했다 그렇지?

집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그랬네. 오늘 신랑이 들어오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러다가 퇴근시간에 만났는데 하루 종일 생각했던 말 따로, 그 순간 튀어나오는 말 따로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루종일 생각해 놓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말은 영

영똥한 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논리적인 듯 하면서도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머리로 대할 것이냐 가슴으로 대할 것이냐는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름을 실컷 따져 보아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본래 좀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라서 머리로 옳고 그름을 열심히 따져도 잘 안됩니다. “여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잖아?” 하고 실컷 얘기해 놓으면 “그래, 말은 맞아.” 그런데 안 해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면 잘 안 들어도 사랑해 주면 잘 듣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람이 비논리적인 경우죠. ‘해라 해라’ 해도 안하는 사람이 내버려두면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정말 사랑으로 대하면 죽을등 살등 하는 수가 있어요. 잔소리보다는 사랑이 약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고 정성을 쏟는데도 안 들으면 구제불능이죠. 그 구제불능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그래도 사랑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유일한 약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나,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약발이 잘 듣지 않습니다.

왜 잔소리가 효과가 없느냐 하면 잔소리는 항상 나는 가만히 있고 “당신만 바뀌시오.”라는 말이지요.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나도 변하고 저 사람도 변하고 그래서 둘이 같이 변해가는 겁니다. 효과도 없고 말도 되지 아니하고 이러다가 내가 손해만 보지 않을까 싶어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결국은 약이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하기도 말라

여러분, 믿는 성도간에 사랑이 아니라면 위로의 말도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도 내가 진정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로의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집사님, 회개하세요. 우리 모르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들고 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십시오. 비록 그가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믿는 성도간에 따지려 가지도 마십시오. 꼭 따져야 될 일이 있거든 찾아가세요. 가서, 놀다 오세요. 거기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 열심히 해 봐야 남는 게 없어요. 성질나고, 힘들고, 견딜 수 없다 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을 베푸는 것 뿐입니다. 견딜 수 없는데, 밤잠도 못자고, 성질나 죽겠는데, 그래야 하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엄청난 가시를 주는 형제일지라도 저 형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

20절 봅시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하나님이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알아야 어떻게든 할 것 아니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유일한 사업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없이 죽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구속(救贖)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사업은 이것 뿐입니다. 천지창조도 있잖아요? 천지창조는 인간창조를 위한 보조적인 일일 뿐입니다. 천지창조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사랑한 것이 더 큰 사업이라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업은 구속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업,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 겨우 구해놓았는데 내가 무너뜨려요? 그것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요?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판단하거나,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유일한 사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자금을 드린 사업입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값으로 칠 수 없는 엄청난 자본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는 형제에게 가시가 될만한 일, 믿는 형제를 답답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만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로 넘어지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목숨을 버려서 구해놓은 형제를 네가 먹는 문제 가지고, 네 기분 좀 나쁘다고 해서, 네가 손해 좀 봤다고 해서, 그럴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유일한 사업이 옆에 있는 저 못난 형제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도 거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나에게까지 오셔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주님이 치르신 값이 얼마인데, 그걸 내 성질 때문에 내 손해, 내 문제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사랑으로 형제를 감싸지 않으면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선한 것이 뭘까요?

옛날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초가삼간이 작은 것이지만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집을 빈대잡자고 태워 없앴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비난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바로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고 너희를 구원했다더니, 겨우 그런 문제로 싸우냐?” 이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 그게 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이 아름다운 것을 다른 사람들이 깔보고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우리가 조그마한 일로 형제와 실족하고 형제와 싸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별 것 아니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린다고 하더니 “야, 목숨 버리기 전에 너희들끼리 그 일이나 잘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선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수는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노라’고 말할 때 모세가 기도를 잘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가 왜 안된다고 말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 애굽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능력도 없이 백성을 끌고 가더니 꼴 좋다.”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차가 움직일 때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다른 차는 위반해도 잘 몰라요. 저게 누구 차인지 어디 차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차는 옆에, 앞에 이름을 큼지막하게 써 놓고 못갈 곳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핸들을 꺾지 말아야 할 곳에 한 번 꺾어서 오는 이득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에게 먹는 욕은 정말 큼니다.

저도 운전할 때 좀 별납니다. 옆에 누가 있으면 자제를 좀 합니다. 뒤에 아이가 타면 더욱 더 부드러워 집니다. 더구나 교회 차를 몰 때는 정말 조심합니다. 잘 해야 본전입니다. 조금만 늦게 가면 늦게 간다고 잔소리, 조금 빨리 가면 빠르다고 잔소리,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작은 것 때문에 욕 얻어먹을 수 있지 않느냐?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귀중한 것이 정말 별 것 아닌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게 해서는 안됩니다.

옷이 아까워서 몸을 찢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되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7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도들이 모임 때마다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야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가지고 싸우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신체와 의복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신체에 해당되면 먹고 마시는 것은 의복에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 몸에 위험이 닥치면 옷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어디 다치면, 몸에 피가 나면 아무리 고운 옷이라도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데 옷이 문제입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형제를 찢어내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드는 형제라고 해도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지키려고 몸을 찢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18절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신이 빈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되는 결과입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누가 빈대냐?’를 생각하면서 한참 쳐다보니까 ‘아무래도 당신이 빈대일 것 같애.’ 이러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바꾸어서 ‘여보, 내가 이제까지 빈대노릇을 많이 했지?’ 속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묻는데 옆에 있던 짝지가 ‘맞아, 당신 빈대 노릇 좀 했지.’ 이러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당신이 빈대냐? 내가 빈대냐?는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세요. 부인 쳐다보면서 빙긋이 웃고 있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왜 웃는지 아세요? ‘하지 말라니까 안하는 거지, 속으로는 우리집 빈대는 당신이요.’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 당신과 만나서 사랑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이 생각만으로 쳐다보세요. 결국 두 사람이 다 변해야 일이 됩니다. 한 사람만 변해서는 잘 안돼요. 두 사람이 다 변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남긴 그 빈대 이야기가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감동을 못 준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빈대는 우리 가정에서 혹은 우리 믿는 형제간에 ‘정질 고약한 그 친구 말이야, 말 좀 조심하면 좋겠는데 입이 험해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케 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면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이 사람을 내 성질대로 대할 수는 없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게 아니라 튼튼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있는(?) 기도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 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나와 네가 돌려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관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었도다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 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네가 은천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음이라 [매역, 창세기 20:1~18]

하나님은 자동판매기?

민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하나님을 자동판매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몇 배를 붙여서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일부 맞는 점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위험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겁이 많아서야

창세기 20장 본문이 기도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는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잘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두 번이나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에 거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평탄한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남방으로 옮겨가서 그랄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 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평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렇게 옮겨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긴 그럴 용기가 있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나진 않았겠지요. 머무르라고 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보니까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잘 보입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더구나 이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당한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주장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신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 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정녕 다 죽을 줄 알지니라’**고 하십니다. 아내를 돌려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돌려보낸 후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희가 살리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화도 났을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책망하고 저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가 없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온전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따질 것 다 따진 후에, 돌려보낼 것은 다 돌려보내고 예물도 보냅니다. 당당하게 처신합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있는 기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재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한 번 기도했더니 불임에 걸린 아비멜렉의 집안 전체 여자들이 한꺼번에 다 나왔더라는 겁니다. 한번의 기도로 온 집안의 태를 다 열 수 있는 능력이 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로 모든 사람의 태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불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도원을 하나 차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원 간판을 ‘불임치료 전문 기도원’이라고 하면 잘 될 겁니다. 단 한번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다 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에게 결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뭐니까? ‘열국의 아비’ 즉 여러 왕들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거창한 이름이에요? 어디 낮은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통성명을 합니다.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 왕들의 조상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그렇습니까? 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라고 물으면 참 곤란해요. 한 명도 없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한 두 번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정말 오랜 세월 자식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지 못한 사람은 다 오라”고 광고를 하고 싶지만, “내가 아비멜렉의 집에 이렇게 능력있는 기도를 했다.”고 하고 싶지만, 정작 자기 아들이 없는 걸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정말 능력있는 기도인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하기만 하면 기도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작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하는 것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보다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드렸을지라도 그것이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슨 무슨 기도 도량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능력없는 우상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큰 나무 있어도 빌고, 큰 돌이 있어도 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신으로 알고 그 앞에 엎드려 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국사람들도 연초에 해 뜰 때 그렇게 안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정초에 동해안 바닷가로 사람들이 몰리는 여파가 포항 시내까지 미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시내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동해안이 미어터진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새해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라고 할 것도 아닌데 말 끝마다 기도, 기도랍니다.

이것이 심해져서 요즘은 심지어 기독교 전문 점쟁이도 생겼다고 합니다. 점쟁이가 광고하면서 '기독교인 환영'이라고 쓴답니다. 거기 가면 복채는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복채 안내는 대신에 현금 낸대요.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는 성숙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 달 보고 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 보고 절하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빌던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게 마련입니다.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뱃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전까지는 그 할머니가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은 교회 나오기 이전에 하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빌기만 한다면 우상에게 엉뚱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말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성품이나 취미나,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부탁이나 요구할 것이 있어도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지 알아야 제대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자동판매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고치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위해서 행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입니까? 한 번 기도를 통해서 이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이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을 향한 기도는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탓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욕심이나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도 모른 채 나름대로 온갖 고생 끝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압박강까지 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형님을 생각하면서 온갖 잔머리를 다 굴립니다.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씨름을 시작한 겁니다. 매달려서 뒹굴다 보니까 야곱이 늦게서야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때부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눈치 없는 야곱이 늦게서야 겨우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놈이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너 잔머리만 굴리고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안타까워하며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내게 매어 달리라'고 한 것이 야곱의 기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바울에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말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앞서 가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따라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고 여러분이 뒤 따라 가면서 기도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기도는 내 기도가 앞서가고 하나님은 보조자로 따라오는 것이죠.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성숙된 기도요 바른 기도라는 뜻입니다.

어릴수록 자기 고집만 부린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입장만 놓고 고집을 부려댑니다. 어릴 땐 그래도 돼요. 그러면 부모가 질 확률이 많죠. 어릴 땐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말 이죠? 신앙이 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만큼 알고, 신앙 안에서 좀 자라났다고 생각하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께서 따라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것이 성숙된 기도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백번 낫습니다. 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런 기도만 행하지 말고 좀 자라자는 거죠.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따라오면서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이의 고집대로 부모가 따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아는 부모의 뜻을 아이가 따라가는 것이 아이에게도 행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신 것은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 하나를 왜 빨리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피를 말리셨느냐는 말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어렵고도 불가능한 방법으로 출생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힘이 드셨지만 그리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육신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삭을 가리켜서 육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임에도 육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육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의 아들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마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의해서 된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힘이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긴, 긴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그렇게 늦게 태어나야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은 많은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미루어 두시고 당장에 들어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시면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돈 많죠, 권력 있죠, 자식 많죠.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어려운 때를 지나기 위해서 잠시 이곳에 머무르려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나이답고 잘 생기고 하는 것이 멋지다 싶은 것은 아비멜렉입니다. 바보같고 쪼다같은 짓을 한 아브라함이지만 진짜 복을 누리고 행복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단 한번의 기도로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 번 돌아보십시오. 주위에 여러분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죠. 불행한 사람을 보며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당당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행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남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가난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넘쳐 난 그 복을 누가 누리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넘쳐 난 복은 그 이웃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이라는 점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고통스럽고 힘들니까? 한번쯤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은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만큼 그리 큰 부자는 잘 없어요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꽃동네에 천원원 이천원 현금한 어느 대통령 있죠. 차라리 하지나 말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머니를 털고 현금을 할 때에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릅니다. 재산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만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 부자냐 아니냐 하는 생각의 근거는 될 수 있을망정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을지라도 남에게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가난한 것입니다.

설령 백번을 양보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온갖 호색을 다 누리고 살았다 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호사를 누리고 살았다 한들 죽고 나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원한 삶,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 삶의 목표라면 그것은 영원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은 싫으나 좋으나 백년이 채 안되는 삶 아닙니까? 백년과 영원한 생명을 비교하면 수학적으로는 백년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무한대 분의 백은 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애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일생을 망치는 것과 흡사한 생각이 듭니다. 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일생을 망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린 열심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보조밖에 안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배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 성숙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내 뜻대로, 내 고집만 피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내가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어리지 않은 내가 어린아이처럼 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성숙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와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없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개역, 마태복음 8:5~13]

백부장대 예수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간절한 소원을 드렸습니다. 백부장이라면 자기 휘하에 군사가 백명 정도 있는 중간 지휘자입니다. 부하의 숫자만 생각한다면 중대장 정도 되겠습니까마는 현재의 중대장 정도로 이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군이 중대장으로 비교를 하려면 아마 전이나 계엄하의 중대장으로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에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5.16혁명 때 대위였습니다. 일개 대위였던 사람이 느닷없이 혁명을 주도했던 박소장을 어거지로 찾아잡니다. 혁명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나서서 육사 생도의 혁명지시위를 유도해 냅니다. 중대장 정도에 해당하는 대위도 전이상황이나 혁명적인 상황하에서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지위가 아닙니다. 한 때 박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있으면서 제 2인자로 군림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권세를 너무 많이 부렸기 때문에 박대통령 시해 사건 때 같이 죽었다고 봐도 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도 모릅니다만 듣기로는 아이들이 '순사 온다' 하면 무서워했다니까 한국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순사였을지도 모르죠. 지금이야 순경이라고 하면 누가 겁을 내겠습니까마는 일제시대라는 특수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군인이 힘을 쓰는 시대가 되면 순사 정도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는, 더군다나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예수는 피지배 민족의,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공인 받지도 못한 떠돌이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둔하는 지휘관이 찾아와서 '주여' 하고 엎드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중에 몰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찾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의 행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지휘관이 피지배 민족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라고 시인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백인들이 우리나라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일을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들어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거꾸로 황인종인 한국사람이 미국에 가서 백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선 앞잡아 보기 때문에 일이 잘 안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 보아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골 가나? 아니, 부산 간다

부산 사람이 서울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서울 친구들이 부산 가는 친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시골 가나?" 그런답니다. 시골 가는 것 맞습니까? 부산 가는 사람 보고 "시골 가나?"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요? 부산이 얼마나 큰 데 시골로 취급하나? 여러분, 부산도 시골로 치면 포항 사람은 뭘로 취급하겠어요? 우리는 제법 큰 도시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저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한다는 얘깁니다. 겨우 한 나라에서도 지역가지고 이 모양인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하고 엎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런지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중풍병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다는 것도 예삿일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 챙기거나 돌보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옛날 종이나 하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시절에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렸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백부장은 인종간의 벽도 넘어섰고 계급간의 벽도 넘어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병이었으니까 단순한 중풍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위급해진 하인을 위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큰 일을 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세가 보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부모가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을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시원한 답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시원하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합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기대 이상의 답변을 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을지 다마는 자기 수준이지 설마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로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선선하게 시원한 대답을 해 주셨고 백부장은 뜻밖에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도저히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 수고롭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기이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기이한 믿음을, 놀라운 믿음을 드러내시더니 느닷없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이방인들이 천국에 와서 천국잔치를 하겠지만,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고 하시는데 백부장이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데 대한 엉뚱한 화풀이인 듯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소원을 깨끗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냥 읽으면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내용으로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부담이 되죠? 많이 읽으면서 동시에 찬찬히 묵상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답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지만 백부장이 찾아와서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좀 특이합니다.

다양했던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하신 말씀들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6절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피로워하나이다**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이 이어지나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쨌든 이 백부장이 말을 덜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예수님께서 더 들어볼 것도 없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부장이 예수님더러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까 말까 망설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빨리 갔습니까, 천천히 갔습니까? 천천히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려듭니다. 그 사이에 어떤 여인이 몰래 만져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냥 가시면 뭘텐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주고 받고 있을 때에 옆에서 있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급하기 이를 데 없는데도 예수님은 느긋합니다. 심지어 더한 경우도 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이들이 빨리 오시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이들을 더 계셨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그렇게 동작이 느린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서는 말도 끝나기 전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느냐는 겁니다.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거나 이적을 베푸실 때도 상대방에 따라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려는 경우도 있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한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 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덜렁 고쳐주시기보다는 뭔가 이상한 과정을 하나씩 거쳐서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경우에 여동생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는데...” 이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버렸으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전히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룬 다음에야 오셨습니다. 울고 있는 이 자매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 줄을 믿느냐?”고 그러니까 “믿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언제요? “우리 오라비가 살 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금 산다고는 전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살려 놓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에 오셔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그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에도 살겠지만 지금도 믿는 자가 살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오신 겁니다. 늦게 오심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잘 아시죠? 자기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모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마태복음 15:26)’** 세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해도 이 여인이 그걸 받아들일 만큼 믿음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것임을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단쳐서 들을만한 사람에게 야단치지 못 알아들을 사람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며느리 노릇 잘 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옆에서 봐도 정말 잘 하는 며느리예요. 그런데도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구박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그 집에서 살지도 않고 좀 떨어져 있으면서 아예 며느리 노릇조차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도 않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한대요.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물어보았답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입도 뻥긋 안하면서 잘 하고 있는 맏며느리는 왜 그렇게 구박하느냐?” 하니까 대답하는 말이 “사람이 사람 같아야 말을 하지!” 하더라입니다. 아예 못되게 굴면 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중풍병 환자를 상에 놓힌 채 메고 옵니다. 사람이 많아져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나요? 객관식으로 할까요? 1)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3)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몇 번이죠? 3번요? 이렇게 질문할 때는 좀 틀려야 합니다. 2번이라구요?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2:4절입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뭘데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나?”고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립니다. 그걸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묻습니다. 어느 것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왜 쉽느냐 하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이비들이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치 않은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입니다. 죄사함 받으면 표가 나나요? 그런 말을 하기는 쉽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하는 얘기는 거짓인지 진짜인지 바로 판명하지 않습니까? 둘러선 그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쉽겠

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때처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엉뚱하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시끄럽게 하나요? 보기가 다섯 개도 아니고 세 개밖에 없는데 왜 여러분들이 답을 못 맞추시나요? 예수님께서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서 ‘저가 누구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이적을 베푸실 때도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어떤 여인이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몰래 만졌습니다.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손을 대기는 누가 대요?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댄 여인이 따로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이 여인이 속일 수 없음을 알고 나아와서 고백을 하죠. 그렇게 하심으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어찌다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확신케 하시는 겁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답답해 하고 있는데도 녹장을 부리시는 이유가 다 있더라는 얘깁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려하심

그러면 백부장이 그렇게 나아와 간구하고 있을 때에는 왜 이런 저런 과정도 없이, 백부장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렇게 선선히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믿음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말썽만으로도 고칠 수 있으니까 말썽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제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고 얘기를 했을까요?

백부장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선수를 치신 셈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그 순간에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썽만 하옵소서’라는 백부장의 답변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놀라운 답변을 이끌어낸 것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느냐는 경고가 바로 뒤따라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 아닐까요?

백부장을 향한 칭찬은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권하는 책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거기에는 유대인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이 말씀이 없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하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봅니다.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려고 하셨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책망받는 유대인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가깝습니까? “교회도 오래 다녔고 교회 봉사도 이만큼 하니깐 이 정도면 됐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방인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린다면 우리가 바로 이 백부장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백부장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도 이 귀한 신앙을 가졌던 백부장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경고하기 위

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기이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인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종교적인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었기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유대인들을 좋아할 이유가 그렇게 없거든요.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공부를 합니다.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고,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사람이나 생물들이 진화되어 왔다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배우는데 오히려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나 학문이 우리 신앙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잘 극복해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일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왔다 갔다는 하는 것을 언짢게 보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뛰어노는 것조차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등부, 중등부 시절에 잘 가르쳐두지 않으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흔들리기 전에 우리 어른들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까?

우리 몸에 있는 머리털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하나를 다 세고 계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서 수염이 이만큼 자라났는데 하도 심심하니까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수염을 째 밀쳤답니다. 한쪽으로 밀어놓고 일일이 세어보니까 사백 몇 개가 나오더라네요. 그러면 머리에 있는 것에다가 잔털에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이면... 그게 몸에 가만 붙어있나요? 저절로 빠지고, 저절로 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헤아리신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태양계가 아무리 넓고, 이 우주에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겐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집에 모셔다가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얼마나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아셨으면 “제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집에 오시는 걸 막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집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위대한 선생님을 집에 모셔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잘 해야되지,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아주 맛있는 걸로 대접하는 게 잘 하는 겁니까?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오지 마십시오.”가 예수님을 더 잘 대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시고 싶긴 하지만 음식솜씨가 좀 없어서 그래서 옆집으로 모셔요? 집으로 모셔다가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 도저히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오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예수님을 더 높이 대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 모시는 일도 잘 하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오지 마십시오.” 하는 것도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좋은 대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저녁에 “강도사님 저녁을 같이 합시다.” 하고 전화하는 사람이 굉장히 미워요. 토요일이 많이 바빠거든요. 아니 토요일만 바쁜 게 아니고 거의 매일 바쁩니다.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별로 안 반가워요.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공부하자 할 때는 안 오더니 밥 먹자 소리만 자꾸하고...” 여러분, 강도사 대접 제일 잘 하는 게 ‘공부하자 할 때 열심히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 좋은 대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밥 먹자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으면 없는대로 섭섭할 겁니다. '저거끼리만 묵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잘 하는 일이지만 "도무지 황송해서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진짜로 훌륭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집안 형편이 다른 집보다 못하겠습니까? 먹을 음식이 부실하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위대하신 분의 아들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 참 궁금해요. 성경이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 한가지는 추측이고 한가지는 본문에 근거가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1) 성경이 만든 믿음

백부장의 이런 믿음은 성경이 만들어 놓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에 입교는 안해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배웠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도 틀림없이 회당에서 성경말씀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한 것이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이 분이 회당에서 성경말씀을 배우다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특별히 좋아하거나 은혜 받는 경우가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 데리고 시내 한번 같이 나가보세요. 수 많은 간판 중에 어른이 본 간판과 아이가 본 간판이 달라요. 아이들 눈에는 먹는 간판은 기막히게 들어옵니다. 어른들 눈에는 먹는 간판보다 뭐가 잘 보이죠? 아직도 술집 간판이 잘 보이시면 반성을 많이 해야죠.

아이들의 눈에 잘 보이는 것과 어른의 눈에 잘 보이는 간판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도 특별히 은혜가 더 되거나 특별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구약 말씀을 회당에서 꼭 배워왔다고 치면 어느 부분에 가장 관심이 있었을까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와 처지가 비슷하거든요.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웃나라 선지자에게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한 번 내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시오." 했단 말입니다.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적어도 아람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나와서 상처난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보지도 아니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백부장이 그 기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요? 이때 만약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아만은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인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약을 쓴 것도 아닌데도 가서 씻으라는 말에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꼭 와서 약을 쓰고 만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2) 자신의 독특한 삶을 통해서 독특한 믿음을 소유함

그런데 본문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터득한 것이죠. 명령에 죽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잖게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 일을 하면서 적당히 피를 부렸거나, 또 위험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도망쳤더라면 결코 그런 시를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만큼 희생적으로 양을 돌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

었습니다. 백부장도 명령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명령 한마디에 따를 움직이는 자기와 자기 부하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어떤 애가 아버지를 몹시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헌신적이고 최선의 삶을 살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아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체험으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기회만 있으면 “이 놈의 직장 안 때려치우나 보라!” 이러면서 이빨을 갈고 다니시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신 곳이라고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복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백부장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했을 측면도 있겠고, 또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가정을 돌아보며 직장에서 노력을 하느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이 장차 이 아이의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나 자신의 신앙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비상! 백부장 같은 초신자 등장!

여러분 주변에 이 백부장 같은 초신자가 혹시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백부장 같은 초신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조금 긴장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저 초신자를 통해서 나를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긴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또 오래 믿었다고, 혹시 방심하고 있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 같은 초신자를 통해서 내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 주변에 백부장 같은 사람은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쩌면 내가 백부장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이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을 때 백부장은 동의했을까요? 이상하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기이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인데? 아니, 내 부하도 말만 떨어지면 착착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백부장은 자기에게 그렇게 기이한 믿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칭찬이 이상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 이 백부장 같은 초신자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혹시 내가 백부장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셨음에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거든 잘 살펴보고 자신의 믿음을 너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평소엔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차근차근 공부도하고 설교말씀 듣는데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힘을 좀 내시고 말씀에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이웃관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충실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을 걸 믿어야지!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도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개역, 이사야 2:6-22]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장례식에서, 젊은 부인이 먼저 죽은 남편을 원망하던 말이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약속을 굳게 굳게 해 놓고 이 어린 자식들을 놓아두고 먼저 가면 난 어떡하란 말이나?” 하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슬픈 일이니 위로하고 달래야 하지만 식장을 나와서 생각하니깐 우습기도 하더군요. 만약에 죽은 신랑이 벌떡 일어나서 딱 한 마디만 하고 다시 눕는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누군 먼저 가고 싶어서 가느냐?” “능력이 안되는 걸 어떡하란 말이나?”란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약속은 잘 하는데 약속하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러겠노라’고 약속한다는 것은 속임수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약속은 못하겠네요? 하긴 해야죠! 내일은 뭘 하고 십 년 뒤에는 뭘 할지 계획은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 때까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돈 벌면 아빠한테 좋은 차를 한 대 사 주겠답니다. 고맙다고 해야죠. 그런데 그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은 어디 있으며, 우리 애들이 살아있다는 보장은 어디 있으며, 그만한 능력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린 우리 자신의 능력을 생각도 안하고 약속도 하고 계획도 세우곤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잘 하죠? 결혼하기 전에야 그래야지요. “나하고 결혼만 하면 내가 평생을 보장하고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맹세를 하지만 실제로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장가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긴 해야죠. 말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을 들어놓든지, 재산을 미리 따로 떼어주든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말만 그렇게 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된다면 사기를 친 셈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부인을 보고 “저 사람은 나 없으면 혼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이 먼저 죽고 자기가 나중에 뒷처리를 다 하고 죽어야 하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잘 될려나?” 하더라고요. 부인 혼자서는 시내도 못 나가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부인이 굉장히 무능해 보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었어요. 매사에 유능한 분이었는데 결혼하고 남편이 없으면 집 문도 나서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 없으면 시내도 못 가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하시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어서 웃고 말았지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식구들을 평생 돌보아줄 능력이 없음을 안다면 나 없이도 혼자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로만 “나 없으면 저 사람은 밖에도 못 나가요.” 그러다가 진짜 없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만 믿고...’ 마음은 그렇죠. ‘나만 믿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의 솔직한 자세입니다.

사람은 정말 강한 존재입니다. 정말 질기고 강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찌다 머리에 작은 찰흙이라도 하나 터지면 그만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콧구멍만 잠시 막아버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허약한 존재 아니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고, 그걸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는 책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동방 풍속이라?

이사야서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가 책망을 심하게 한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부터 또 책망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동방 풍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동방은 앗수르나 아람,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섬기고, 그들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주된 요인입니다. 동방 풍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지 현재의 우리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이들이 입학시험을 쳐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이들이 입학시험이나 취직시험을 쳐서 떨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이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재수가 없어서 떨어졌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노라고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한다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실제로 동방 풍속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심결에 ‘우연히 있잖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여전히 우린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나, 주권보다는 우연을 더 믿고 있는지도 모르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나쁜 일이 계속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운이 나빠서요? 사주팔자가 더러워서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방 풍속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 있는 일인데 부부끼리 잘 싸우죠? 실컷 싸우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니까? 왜 싸웠냐고 물으면 “궁합이 잘 안맞아 가지고...” 혹시 그런 분 계시죠? 당장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궁합은 무슨 궁합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쓰는 말 하나 하나에 알게 모르게 이런 이방 풍속이 배어 있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교수 아파트에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 전에도 그 동에서 몇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 동이 있는데 유독 한 동에서 여러 분이 돌아가시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나빠서요? 터가 나빠서요? 터가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안 좋은 일이 더러더러 생기면 터가 나빠서요? 액운이 끼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머리와 행동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우리 머리 속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입학 시험칠 때가 다 되어가는데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하루쯤 새벽기도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큰일났다. 내가 기도 한 번 빠진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시험에 떨어지는 것 아닐까?” 혹시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입장을 바꾸어서 하

나님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정성이 없어서 어떻게 아이를 대학에 보내겠느냐? 올해는 꿈 깨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천지신명께 찬물 떠 놓고 빌던 것처럼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천지신명께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믿었지만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격이 없고 정성이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에 동방 풍속이 가득했으니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블레셋 술객?

6절에,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자리를 블레셋 술객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제사장에게 갔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블레셋의 영향을 받아 술객을 찾고 있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도 잘 안되고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상담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께 가야겠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목사님을 찾는 게 기본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말씀이야 잘 아시지 세상 일이야 잘 아시겠나? 목사님이 교회 일은 잘 알겠지만 우리 이런 사정까지 아시겠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목사님께 여쭙어 보고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를 찾아 갑니까? 친구? 아니면 잘 아는 선배를 찾아갑니까? 그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조언을 해 준다면 다행이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저런 지혜를 일러 준다면 그게 블레셋 술객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내 전화를 받았는데 “어이, 홍선생, 두 달만에 잡든지 아니면 평생 잡히든지 둘 중 하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분이 그 때도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지금도 신실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선배가 후배에게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결혼한 후배에게 ‘두 달만에 잡아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교훈입니까?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나온 겁니까? 교회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전해주지 않더라는 얘데요. 전화를 끊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웬 전화예요?” 하고 물어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두 달만에 당신 잡으라고 그런다.” 그래요? “두 달만에 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인가보다.” 그랬죠. 우리가 후배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게 블레셋 술객이라는 얘깁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술객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 말에 따라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신약에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번 항해가 위태하니 출항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고 했는데도 전문가는 바울이 아닙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괜찮다 좀 더 가서 하자.”고 출항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맞죠. 그러나 바울이 비록 피조죄한 죄수지만 결코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전문가의 말을 듣고 나갔다가 배는 배대로 깨어지고 재물은 재물대로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했다면 그것은 블레셋 술객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방인과 언약을?

6절 마지막에,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교류도 있고 상업적인

교류도 하게 되죠. 이방인과 교류를 하게 되고 손을 잡고 언약을 맺고 살다보니까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 믿는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그들이 이방인과 언약해서 결국은 이방인과 똑같아져 버렸다는 얘깁니다.

제가 경주에 2년 있다가 학교를 그만 두고 나왔는데요, 몇 년 후에 들리는 소식이 제 바로 옆자리에 나 이 많이 드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이 장로라는 겁니다. 2년 동안 가까이 있었지만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는데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기 옆에 날마다 성경 펴놓고 들 여다 보는 사람이 있는데, 또 같이 성경공부하자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티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분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 이 되지 않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마음이 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믿는 티를 내면서, 함께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과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똑같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믿는 티를 내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지 않 은 채 그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이방인과 언약을 맺고 살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노는 모습은 별로 화끈하지 않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노는 것 을 옆에서 지켜보면 화끈합니다. 잘 놀입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어울리면서 분위기도 맞추어 주면서도 어떻 게든지 구별된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화끈하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지 기피의 대상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홍 집사님과 몇 가정이 어울려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서로 나누었던 소감 중에 참 인상 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늦게 교회 나오셨으니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가 싶어요. “믿는 사람과 함께 여행 을 떠난 건 난생 처음입니다. 술도 안 먹고 화투도 안 치고 밤새도록 지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안 믿는 사람들 놀러가면 코스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것 이 참 신기하다고 하더라구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다운 방식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전히 떨어 어져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어울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은금이 풍부하고, 보화가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대신에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제사장 대신에 블레셋 술객이 되어 있고 이 방인과 더불어 이 모양으로 살고 있을까요? 원인이 7절에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 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며 병거가 무수하며...’라고 말합니다. 이거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재산도 엄청 나게 많고 그걸 지켜낼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보물을 다 실은 배와 같습니다. 은금이 풍부하고 보화를 가득 실은 게 정말 잘못입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될 가 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재물이 있는 곳에 가 있거든요.

집에 돈이 별로 없는 분은 교회에 앉아 계시면 설교 말씀이 잘 들릴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돈을 좀 가지 고 계신 분은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가만 있어봐라. 내가 문을 잠겼나? 안 잠겼나?” 이 생각부터 들기 시 작합니다. 안 잠근 것 같다 싶으면 설교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헐레벌떡 쫓아가보면 문이 잘 잠겨져 있어요. 분명히 잠겼는데도 안 잠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예배 끝날 때까지 내내 안 잠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재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가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없애라는 말입니까?

우상도 가득하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웃시야가 52년을 다스렸고 이어서 요담이 16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솔로몬의

영광과 영화를 누렸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다가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살았던 모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속으로 굶아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면 이진 절대로 복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보화가 있었는데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라고 합니다. 은금이 많고 보화가 많고 말(馬)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상도 많고...’ 이것 때문에 많은 좋은 것들이 전부 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상도 많고...’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넘쳤고...’ 이랬더라면 그 앞에 있었던 보화가 엄청난 복이죠. 7절이 말하는 이 모습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배와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배입니다. 그런데 8절에 붙은 이 구절이 방향키와 같습니다. 방향키를 잘못 움직여 육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배에 아무리 많은 보화를 실으면 뭐 합니까? 키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잊지 말 것은 재물의 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재물과 함께 자라기’를 간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이 재물만 느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지식이 깊어지는 것만큼 재물도 함께 자라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화와 재물은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많은 재물에 붙어 있는 ‘우상도 가득한 것’이 문제더라는 말입니다.

욥이 고생을 엄청나게 한 다음에 재물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욥을 생각할 때 욥의 재산이 배로 늘어난 것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늘려 주려고 그 고생을 시켰을까요? 아닙니다. 욥이 받은 진정한 복은 욥기서 42장 앞 부분입니다. 재산이 늘어난 것을 하기 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그냥 어렵듯이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복이고 후에 재물이 늘어난 것은 보너스입니다. 욥이 받은 진짜 복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 것,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재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재물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이 없이 재물이 늘는 것은 재앙의 원인이요 타락의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은 것 좋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이 우상 탓도 있겠지만 또 한가지는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다음에도 높은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갔다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교만해집니까? 이유를 따져보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교만해지고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앞에 수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신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진짜 높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려고 결국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높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만이 높아가고 콧대가 자꾸 올라간다면 ‘아,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을 높일 수가 없으며 결국은 형제 앞에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예외없는 심판

12절에서 16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죠? 몇 개가 나오는가 한 번 보세요. 헤아려 보면 8번이나 나옵니다. 말끝마다 ‘모든,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교만한 자 높은 자가 다 없어지리라는 얘깁니다. 여덟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좀 거칠게 말하면 ‘한 놈도 빠짐없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던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들이 다 낮아지고 나면 높아지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지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끝까지 그냥 버려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교만이 다 꺾이고 난 다음 하나님만이 최종적으로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외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절을 봅시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엄과 두려움으로 나타나실 때 이들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암혈, 토굴 혹은 바위틈에 숨어 들어갑니다. 계시록에 보면, 바위틈에 숨어서 산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산아 내 위에 무너져다오’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암혈과 토굴에 숨어 있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겠습니까? 굴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죤한 자들이 암혈과 토굴에 숨었습니다. ‘그래 잘 숨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토굴에 숨어있고 암혈에 숨어있는데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들 것입니다.

20절에,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이 금으로 만든 우상을 왜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집니까? 한 때는 사람에게 경배를 받던 물건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숨으면서 이걸 품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걸 품고 두더지와 박쥐가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갔죠. 왜 던집니까? 자기들이 숨을 곳에 두더지와 박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니 쫓아내야 할 것 아니요? 아까운 금, 은은 숨겨두고 다른 돌로 쫓아내지... 돌인지 은인지 가릴 겨를이 없을 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한 때는 사람에게 경배를 받던 그 우상이 아무 소용없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에게 경배를 받던 그 우상이 두더지와 박쥐를 쫓아내는 데에 돌 대신에 사용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빠짐없이, 우상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티코는 차 아니냐?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민족들을 의지했고 이방민족과 손을 잡았고 그들과 언약하며 그들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여름 휴가를 가면서 티코를 타고 안동에 갔다 왔습니다. 오는 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손보러 갔더니 “이걸 타고 안동까지 갔다 왔어요?” 하더라구요. 티코 타고 안동 가면 걱정되고, 소나타 타고 가면 괜찮고, 그랜저 타면 괜찮습니까? 티코 타고 백 강도사님과 3년 동안 천안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바쁘다 싶으면 큰 차 작은 차 추월해 가면서 3년을 다녔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길가에 본넷 열어놓고 손을 보는 차 중에 티코는 별로 없더라구요.

티코 타고 먼 길 가면 불안하고 그랜저 타고 먼 길 가면 마음이 놓입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어찌다가 타이어에 구멍이 나거나 호스가 하나 끊어지거나 새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기름이 새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중앙고속도로를 내려오다 보니까 셋길 같은 것이 하나 있던데 ‘위험하면 여기에 박으시오’라고 적혀 있더군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세울 수 없거든 옆으로 틀어서 ‘언덕에다 박으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서야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차예요. 차를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걱정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은 안심하고 먼 길을 잘 다니는데 차를 좀 아는 사람은 함부로 못 다닙니다.

운전하다가 음로수를 마시고 빈 강통이 운전석 밑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데굴데굴 굴러 다니다가 브레이크 패달 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패달에 강통이 끼여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디 박치기라도 하는 날이면 이런 차보다 더 허약한 게 사람입니다. 차도 어찌다선 하나 터지면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의 핏줄 하나 터져버리면 제대로 기능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호흡이 코에 달려 있습니다. 구멍 하나만 막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그걸 믿고 너희가 어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잘 만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이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펌프는 그렇게 못 움직입니다. 자동차를 십년 타면 많이 타셨죠? 20년 타면요? 여러분들이 모두 자동차라고 해 보십시오. 지금 몇년째 굴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멀쩡하죠? 기계로 치면 얼마나 잘 만들어진 기계인지 모릅니다. 아니 정말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실수하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하나만 탈 나면 바로 휘청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너무 많은 걸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믿어야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튼튼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약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굳은 맹세, '나만 믿고 살아라' 너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못난 자식을 둔 불쌍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 '우상도 가득하며...'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 보물 재화도 참된 복이 되어 잘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풍부한 재물과 우상을 같이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끔찍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 날이 되면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재물도 아니요 우상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스라엘이 불쌍한 게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못난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너, 지금 이러면 이렇게 되고...' 잔소리하는 아버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잘못할 때마다 책망을 거듭하다가도 끝에 가 보면 '그래도 난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계속 반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셨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언제까지 그리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싶을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먹을 것 없는데 배가 몹시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라도 마셔야죠. 물이 허기를 면해 줘니까? 흔히 말하기를 배를 잠시 속여두는 거죠. 배가 몹시 고프면 사탕 한 개면 허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식이 됩니까? 배고픔을 잠시 속여 두는 겁니다.

어쩌다 광부들이 무너진 갱도에 오래 갇혔을 때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할까 싶어서 일부러 소변이나 대변을 안 본다고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지만 속에 넣고 버티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빠져나가면 배가 더 고프다고 그러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잠시 배를 속이는 거죠. 인생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싫던 좋던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넉넉하고 든든한 신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잠시 속이는 사탕 하나와 같은 겁니다. 거꾸로 은혜를 받아서 '신랑도 못 믿겠다, 뭐도 못 믿겠다' 이러면 안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인한 상태에서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고 든든한 직장이 있으면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는 그것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화를 부르는 것이 될지 복이 될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한다면 한다.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하므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 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흑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개역, 출애굽기 6:1~13]

내가 오 파운드야!

제가 병아리 교사 시절에 모시고 있던 학생과장은 아이들이 붙들려 오면 늘 하는 말이 “야, 내가 오 파운드야. 너 알지?” 이래요. 그 선생님이 매를 안 들면서도 아이들을 잘 통솔하는 걸 봤습니다. ‘오 파운드 알지?’ 이러면 웬만하면 다 돼요. 아이들이 실제로 겁을 내는데 매를 드는 건 잘못보았습니다. 사고 친 아이들, 말썽 피운 아이들이 이 선생님 앞에 오면 거의 잘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내가 오 파운드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오 파운드가 뭔지 아세요? 학교 다니면서 사고쳐서 매맞은 분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선생님, 오 파운드가 뭐니까?” 야구 방망이 무게가 오 파운드랍니다. 자기 별명이 오 파운드라고 늘 강조하는 것을 아이들은 알아요. ‘잘못 걸리면 야구 방망이로 끝장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 별명이 뜻하는 오 파운드라는 것을 저만 몰랐지 아이들은 다 알아요. 입학하기도 전에 선배들을 통해서 소문 꼭 퍼져 있었습시다. “이 학교가면 오 파운드 선생님이 있다던데 누구지?”라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는데 그 선생님 앞에 오면 거짓말 할 생각부터 사라지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분이 의도적으로 자꾸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솔을 쉽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김두환 씨 얘기가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데, 틀림없이 그 안에 이런 대화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고? 김두환이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모르냐?” 이런 대답이 나오면 곤란하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이 김두환이라는 걸 알고 듣습니다. “내가 누구냐? 두환이 아니냐?” 그게 무슨 뜻이예요? 요즘은 조폭이라고 합니까마는 옛날에 강패들 영화나 아니면 강패들이 모이면 이런 류의 소리를 합니다. “내가 영등포 쌍칼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뭐니까? 주로 그 말뜻을 아는 사람에게 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 이름값에 해당하는 일을 내가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값을 본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두환이 아니냐?”는 말은 ‘한번 한다 하면 한다.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내가 오 파운드인줄 알지?” 시작하면 끝을 내겠다라는 엄포를 담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몇 번쯤 나오는지 혹시 주목해 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말이 반복이 되거나 특이한 표현이 나오면 꼭 신경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줄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말입니다. 강패나 무서운 선생님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자기 이름을 강조할 때도 그 이름이 지니는 의미가 무겁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다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 아니냐?’는 것은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확신, 아주 엄숙한 선언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6장 2절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이름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니까? 아니면 이 앞에도 나왔습니까? 가령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그 전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설명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이름 뜻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여호와와 이름의 이름을 물랐을까요?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이제 하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는 이 말씀과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는 표현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변형된 형태로 봅니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로라는 표현과 여호와임을 알리라는 표현을 합치면 네 번 정도 나옵니다. 계속 그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내가 누구냐? 오 파운드 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둔소리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해라. 잘못된 게 있거든 빨리 불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웬만하면 다 실토해 버려요. 끝나는 거죠. 학교 학생과장 선생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로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언약을 이루리라

4절을 봅시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했더니 이제 곧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제는 이루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이 큰 일을 요구한 사람도 요청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셨고 스스로 계획하셨다가 이제 그 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십니다. 6절을 봅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로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찌라'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세요.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한마디로 귀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혹독한 고역이 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여호와로라' 거듭 거듭 말씀하시면서 이 큰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괴로움이 심해진 것 때문에 괴롭고 귀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크고 아름답지만 우리는 불평하고 괴롭고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불평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릅니다. 뭘 갖고 섭섭해요? 그저 조그마한 것, 정말 작은 것 가지고 '정말 우리 엄마 맞나?' 하고 덤비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큰 일 갖고 안 그래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베풀어 준 큰 사랑을 깨달을 때가 오긴 오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와 비슷합니다.

12절을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백성들도 '아이고, 마, 해방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듣기 싫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지도자라도 똑바로 서

서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이끌어 가야 할텐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 지도자가 앞장서서 '아니 백성들도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잘 낚아,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다니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고 거절한 게 몇 번쯤 되는지 혹 헤아려 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앞에서 부름받을 때에도 그 말을 계속했습니다. 6장 끝에 보면 그 말이 또 나옵니다. 모세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입이 둔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혀가 좀 짧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혀가 좀 짧으면 말이 어떻게 되지요?

가령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습니다. 백성들을 모아 놓고 연설을 해야죠. 혀짜래기 소리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같으면 잘 들겠습니까? 말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나라의 형편이 좀 어려워지니까 대통령이 발음을 잘 못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경제 발음도 못해서 맨날 '깡제'라고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근거 있는 말은 아니죠. 흠을 잡으려니까 그런 걸 흠잡은 건데 모세가 혀가 짧은 상태라면 한사코 못하겠다고 버틴 이유가 있는 셈이지요. 막무가내는 아닐 수 있다는 말이지요.

결국은 모세가 전면에 안 나서죠. 말 잘 하는 아론을 붙여줘서 내가 하는 말을 형에게 전하고 그러면 형이 백성들이나 또 바로에게 나가서 그 말을 전했던 말이지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보면 확실히 모세의 발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시는 데도 모세도 '못하겠습니다' 백성들도, '아, 마, 싫습니다' 이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분이라는 뜻에서 '나는 여호와로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 기획, 연출, 제작: 하나님

본문을 우선 세 가지로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제작하신 이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옆에서 도와 드렸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분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쉽게 모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를 불러서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끝까지 밀어 붙여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듯 싶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셨으며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요청하거나 어느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맞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출애굽에선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밑에서 고생했던 히브리 노예들의 노력을 잊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게 뭘니까? 한 가지 있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은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듣고 그들을 구해내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한 일이라고 하면 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출애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세가 노력을 했고 아론도 했고 여러 사람들도 또 했겠죠. 혹시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뭘 좀 배우더니 “엄마, 나를 엄마가 낳았어 하나님이 낳았어?” 하고 물으면 어느 게 맞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겉으로 보면 내가 했고, 사람이 했고, 모세가 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물리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단지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을 뿐이지 뒤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연애를 오랫동안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정은 서로가 다 했겠지만 그 결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밥상 놓고 기도 실컷 해 놓고 밥투정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고 믿으면서 평생토록 싸우면서 사는 거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했다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 성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누가 허물어 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많이 돌아서 무너졌다.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이성에 가서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거기 가서 또 돌아야죠? 아니 여리고 성도 뽕뽕이 돌아서 무너뜨렸으니 아이 성에 가서도 또 돌아야죠? 안 돌아잖아요. 여리고 성이 고함소리에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다른 전쟁터에 가서도 고함을 질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하나의 표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만 해라. 나머지 일은 내가 한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다운 전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지만, 이기게 하시고 그 전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다가 조금씩 뒤로 빠지면서 실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는 하지만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나서지 않아도, 때로는 모세가 나서지 않아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내가 여호와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루고야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고 마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으면 해야 합니다. 매도 이왕지사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게 낫다 그래서 먼저 맞는 분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를 맞을 사람이 아니고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왕 받을 복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라고 버티듯이 버텨도 이왕지사 하게 될 복이라면 뒤로 물러서기보다 앞장서서 먼저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러나 있다가 억지로 하기보다는 ‘이왕 받을 복이라면 먼저 받지’ 이런 자세로 앞장서서 나가면 일을 이루시기는 하나님이시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출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가는 일, 이 땅의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 없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는 모세를 억지로 붙들어서 그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말

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 민족을 구원해 내라고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버티어도 하나님께서 끝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모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며칠 전 어느 분이 은혜로운 책이라면서 읽으라고 그래요. 포항에도 잠깐 계셨다가 지금은 중국에 들어가셔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자기가 중국에 가기까지 나름대로 소명감을 확인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부인이 동의해주기까지 날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때 초등학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못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살았답니다. 이 교수 아파트단지예요. 그 조그마한 아이를 설득하면 설득이 됩니까?

민지 않는 양가 어른들의 허락까지 받아서 여기 교수직 버리고 중국으로 건너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그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 선교하러 간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할 때 자신에게 있던 모든 걸 버려두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명감에 불타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얼마나 갈등을 겪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꼭 내가 가야 합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을 수 없이 겪으면서도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가곤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무 갈등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싶어도 우리는 고민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싫다 싫다 해도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끝내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시작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 하나 따라오는 것이 ‘이 일을 이룰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름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어 보여도 그 일에 기꺼이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가 무조건 순종해 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3. 관객: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이루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시는데 아무나 다 부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태복음 1:21)’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만 그 일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 백성이 아닌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나름대로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은 너무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다는 애굽입니다. 아무나 마구 다 부를 것이면 무엇 때문에 그런 비싼 희생을 치르겠습니까?

요즘 군인들이 쓰는 총은 100M나 200M쯤 떨어진 곳에서 겨냥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100M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직선거리 200M는 바라보면 숨이 차서 뛰기도 싫어요. 먼거리입니다. 그래서 경주할 때 200M 코스는 직선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200M를 쳐다보고 땀땀 너무 멀어서 숨이 답답해서 못 뛸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총으로 정확하게 겨냥하면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는 군인들이 총을 그렇게 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쏘아부는 총알에는 사람이 잘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보고 정확하게 겨냥하면 맞출 수 있음에도 적군을 그렇게 정확하게 안 봅니다. 총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그냥 당기는 거죠. 그러면 총알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목표를 겨냥해서 한 발 한 발 쏘시는 분이겠어요? 아니면 ‘예라, 아무나 맞아라’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어떤 영화에서는 총알을 참 많이 쏘아대죠? 엄청나게 쏘아대지만 적이라든가 나쁜 깡패들이 쏘는 총알은 옆으로 빗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쏘는 총알은 기가 막히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총을 들고 나타났다면 ‘아무나 맞으려면 맞아라’ 이렇게 쏘겠습니까? 하나님은 헛되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는 자기 백성을 겨냥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 하면서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고 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아무렇게나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류는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잘 요약해준 말씀이 13절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누구에게 명을 전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이 구속의 역사는 단순하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서 믿는 성도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되어서 고향으로 가게 되면 친척과 친지를 만난다는 즐거움을 안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러나 그 중에는 고통스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친지들을 만나서 “또 한 며칠 괴롭게 눈치봐야 되고, 부대껴야 되고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조금 바꾸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으로 좀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려고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무슨 능력이 있나 힘이 있나? 아무 능력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한사코 못한다고 버티던 그 모세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그렇게 버티었던 모세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단지 순종하고 행동에 옮길 뿐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요? 모세가 나서서 말하기는 했지만 그 일이 되도록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못합니다 못합니다’ 했지만 사실은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못한다고 했죠.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넌 가서 전하기만 해라. 그 다음,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친척들 만나고 참 마음이 편치 않거든 내 가까운 친척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모세처럼 쓰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친척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총력전도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교회 한 번 나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속이 뒤틀릴 때가 많아요. ‘내가 뭐, 내가 답답해서 그러냐?’ 싶을 때가 많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일에 작은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총력전도집회 주제를 참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을 당신에게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빙그레 웃고 말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사람만 압니다.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행복을 조금 힘들지만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난 그저 심부름할 뿐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모세 생각에는 도무지 이들이 말 들

[2003.09.07] 내가 누구냐? 한다면 한다. (출애굽기 6:1~13)

을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잘 안 듣습니다. 말 안 듣고 불평 불만 투성인 이들이 결국은 출애굽을 감행하게 되고 수 없이 불평 불만을 하면서도 끝내는 가나안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여러분의 친지, 이웃들이 들을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니,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여러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참으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돌연변이를 꿈꾸며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이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 된 암소와 삼년 된 암염소와 삼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배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개역, 창세기 15:1~11]

연금술사

은이나 구리를 가지고 금을 만들어 보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은이 금과 성질이 비슷하니까 잘 하면 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구리도 색깔이 비슷하니까 어떻게 잘 하기만 하면 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했으면 벼락부자가 되었겠지만 모두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해보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덕분에, 금은 못 만들었지만 화학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연변이를 만들어보겠다고 열심히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어찌면 옛날의 연금술사와 비슷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돌연변이를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둡니다. 돌연변이 실험에 제일 많이 사용된 게 초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파리에 X선을 쬌이거나 약품처리를 하거나 온도를 변화시켜서 초파리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초파리가 많이 희생이 되었겠죠. 초파리를 가지고 돌연변이를 만들어 보려던 과학자들은 무엇을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초파리로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사진으로 찍어둔 것을 보았는데 실제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초파리를 가지고 돌연변이를 많이 만들었지만, 진짜 만들어야 할 돌연변이는 사실상 못 만들었습니다. 초파리에 X선을 쬌어서 최소한도로 나비가 나오거나 잠자리가 나와야 성공인데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돌연변이는 만들어 냈습니다마는 끝내 나비가 되거나 잠자리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실험도 물론 실패한 셈이죠. 왜 애꿎은 초파리를 가지고 돌연변이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었을까요?

진화론이 발표된 다음에 진화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용-불용설이 있었죠. 우린 학교 다닐 때 용불-용설이라고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읽기를 잘 해야 합니다. 용-불용설입니다. 쓰면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이론이었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나중에 이것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획득형질은 진화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야구 선수를 해서 오른팔로 공을 자꾸 던지다 보니까 오른팔이 왼팔보다 많이 굵어지고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오른팔이 굵은 아이가 난다. 이것이 용불용설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미하기 전에 쥐의 꼬리를 잘라서 교미를 많이 시켜봤답니다. 그러면 꼬리없는 쥐가 나오지 않을까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바보짓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한 때는 그랬습니다. 도저히 안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되는 게 없느냐고 찾다가 돌연변이를 발견했습니다. 돌연변이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유전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해서 모양이나 크기나 색깔이 다른 초파리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돌연변이죠. 문제는 초파리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돌연변이 실험도 사실은 실패로 끝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대상으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아브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을까요? 말하자면 초파리 같은 아브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돌연변이를 만들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은이나 구리를 가지고 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옛날의 연금술사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금술사나 돌연변이를 연구했던 분들의 실험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초파리 같은 아브람을 결국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꾸어 놓습니까? 아들을 바치라 해도 기꺼이 순종할만한, 우리는 감히 흉내내기도 어려운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마 됐심더!

본문의 아브람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봅시다. 1절에, ‘이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후에’라는 말씀은, 14장에서 그 당시 세계대전이 있었고 아브람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거대한 적을 상대로 밤중에 기습작전을 펴서 조카와 소돔 고모라 백성들을 구출해서 소돔 고모라 백성을 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기습으로 한 방 먹였는데 저놈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브람이 그랬다는 걸 알면, 저들이 만약에 다시 쳐들어 온다면 꼼짝 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4장의 전쟁은 가나안 지경에 있던 모든 나라들과 부족들을 치고 간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집에서 길렀던 군사 318명과 동맹했던 작은 부족들과 기습하여 일을 크게 벌여 놓았으니 자칫 잘못하면 보복을 크게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힘깨나 쓰는 덩치 큰 친구에게 평소에 많이 당하다가 어느 날 뒤돌아 보고 있을 때에 옆구리를 한번 콧 찌르고 내뺐다면 다음부터는 근처에 얼씬도 안하는 겁니다. 한번은 성공했는데 ‘붙들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브람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왜 방패라고 그러니까? 내가 널 지키겠다는 뜻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신 다음에 ‘내가 받을 진정한 상급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백성을 찾아주었다고 해서 ‘사람만 나에게 돌리고 재물은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아브람이 그걸 거절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돈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맞지 않고,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지 진짜 재물이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끗이 거절하고 돌아온 아브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재물 잘 거절했어. 네가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재물은, 상급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의 것이면 아브람에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같은 고백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약 내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 나의 상급이라면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람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람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 자신을 네게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람의 얘기는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르에셀이니라’ 아브람이 또 말하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후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아들 하나 안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게 언제 아들 하나 주시렵니까?”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모르고, 그건 귀에 안 들어오고 “뭘 주시려고요?”

더군다나 여태 아들 하나 안 주셨으니 이젠 포기할랍니다. 대신에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자란 이 충실한 종을 아들로 삼고 그냥 살겠습니다. 여태 안 주셨는데 제가 뭘 더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애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신 이 엄청난 말에 대한 반응을 한 번 보세요. 너무해요. 2절 3절에 나온 아브람의 답변을 경상도 말로 압축시키면 ‘마 댕심더’ 입니다. 아들을 주신다고요? “마 댕심더. 애나 데리고 살립니다.”는 얘데요. 이곳 포항 말이 좀 거세긴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면전에 대놓고 “마 댕심다?” 맞아 죽어도 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놓고 아브람이 “하나님 댕습니다. 더 이상 아들 안 기다릴랍니다. 애 데리고 살립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자한 분이시길래 괜찮았지 우리 성질 같았으면 많이 얻어터졌을 겁니다.

꿈 같은 약속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주신 그 무엇이 소중합니까? 좀 쉬운 표현으로 바꿀까요? 남편 자체가 소중합니까? 아니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소중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빨리 빨리 대답을 해야 하는데 멍하게 있다간 집에 가서 싸웁니다. 부인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그 부인이 날 위해서 해주는 그 무언가가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이렇게 주시니까 감사하고 조금 섭섭하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만약 지옥에 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리라. 왜요?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게 목표 아니예요? 뭐하러 거기에 갑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보다 예수님 자체가 더 귀하고 행복이란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람이 “아니 그것 말고 무얼 주시려고요? 아뇨,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포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 안 주셔도 엘리에셀 데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는 애깁니다. 이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4절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철없이 야단맞을 소리하고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약속합니다. “아들 하나도 안 주셨는데요?” 하고 거의 빠지다시피 해 있는 아브람에게 ‘밤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이 많습니까? 오늘 밤에 나가서 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울진에 갔습니다. 울진에서 밤 하늘을 보았는데요, 정말 별이 많더군요. 어릴 때 본 은하수를 몇 십년만에 다시 본 겁니다. “울진의 밤 하늘이 참 좋구나.” 그랬답니다. 그런데 우리 문진성 집사님이 몽골 갔다와서 한 얘기가 더 걸작입니다. 고지대에 공해란 하나도 없으니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가만히 듣다가 거꾸로 물어보았습니다. “밤 하늘이 검은 색이 아니고 그러면 누런 색이겠네?” 누런 색이랍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통에 별을 잔뜩 따다가 담아놓은 것 같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은 포항 하늘 같았겠습니까? 울진의 하늘 같았겠습니까? 아마 저 몽골의 밤 하늘 같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별이 눈에 보였을 겁니다. 네 자손이 이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별을 셀 수 있겠나?’ 보라는 것입니다.

몽골에 한 번 갔다 오십시오. 다른 건 못 보시더라도 꼭 밤 하늘은 보고 오십시오. 울진의 밤 하늘도 참으로 감동적이었는데 밤 하늘이 검은 색이 아니고 반짝반짝 하는 노란색이라면 아브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남들은 결혼하고 아이들을 잘도 낳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닌데... 도무지 자기 생애에는 있을 것 같지 않은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땅에 소위 아브람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람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야 당연히 아브람의 후손입니다. 이슬람인들

도 아브람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 많은 사람 중에 아브람의 후손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아브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주 귀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 됐습니다.” 하는 그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6절 보십시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래요. 아니,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 엉뚱한 소리하던 그가 그 단세[그 짧은 사이에] 믿음이 그렇게 커져 버렸나요?

어설픈 믿음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이렇게 많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아브람이 확실하게 믿었겠죠? 그러면 그 믿음에 어긋난 짓을 다시는 안 했겠죠? 그러나 한 장만 넘어가면 이스마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람이 제대로 믿었다면 이스마엘이 왜 태어납니까? 사라가 주는 첩에게서 왜 아이를 낳았느냐는 말이에요.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내년 이맘 때 네게 아들을 주리라’고 하셨을 때에 누가 웃었습니까? 사라만 웃은 건 아니예요. 아브람도 웃었습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어요? “왜 웃느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딱 잡아 떼었죠. “아니다, 정녕 웃었느니라.” 그래서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 그래서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웃음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 또 웃을 래?”라는 말입니다.

이삭을 바라보는 동안에, 아니 이삭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웃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히 웃어? 그래서 벌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지 못할 일을 그 뒤에도 계속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난리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도 성경은 여기에서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만큼 대단한 믿음만을 믿음이라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뭘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지 봅시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생각해서 몰래 만졌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할 때 잘 보십시오.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인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찾아온 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길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할 수 있거든이 뭐니까? 여기서 일단 불합격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 거든요.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대뜸 한다는 얘기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재미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합니다. “믿나이다!” 해 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면 고친다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해야지요. 이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다급하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말해놓고 보니까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게 자기 속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거든요. 도대체 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애절한 마음을 믿음으로 인정해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가난한 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건드릴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어떤 성격의 믿음인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없는 아브람

아브람의 현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으려고 했겠지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고 '그래야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했을텐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와서 우리 속에서 무슨 핑계거리를 찾다가 발견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을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본래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싶습니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99세에 와서 완전하라? 그러면 그 전에는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6절에 아브람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산을 옮길만한 대단한 믿음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7절에,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 이 말은 이 땅도 네게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람이 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아브람이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외에 할 말이 뭐 있겠느냐 싶은데 아브람 입만 떼면 실수입니다. 8절 보세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말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쉽게 고치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 땅을 주신다는 증거가 뭐니까?'라는 말입니다.

'증거'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증거위주의 사회는 굉장히 불행한 사회입니다. 부부 사이에 '증거 대어 봐라!' 이 정도 되면 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사회는 믿어주는 것보다 증거위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직을 하다가 밤에 화재가 난 걸 발견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빨리 소방서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양동이 들고 물 뜨러가는 것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비극적인 얘깁니다마는 그것부터 먼저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하고 불끄러 뛰어다녔는데 불을 끄지 못하고 점점 더 커지고 기자가 닥치고 감사반이 닥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불을 발견하는 순간에 당직일지를 꺼내서 '몇 시 화재 발견' 이것부터 써야 합니다. 기자가 오든지 감사반이 오면 일지부터 봅니다. 아무 것도 기록이 안 남아 있으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근무는 제대로 했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면책이 된다는 얘gie요.

아이들이 여름에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수영 미숙으로 죽거나 사고가 났다면 담임 선생님이 책임이 있을까요? 이것도 답이 참 모합니다. 유능한(?) 선생님들은 여름이 다가오면 학급 서기에게 당부를 해 놓습니다. "애, 선생님이 물조심하라고 하거든 훈화란에 날마다 물조심하라고 써 놓아라." 시켜 놓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학급일지부터 가져갑니다. 그런데 담임 훈화란에 날마다 물조심, 수영조심, 연탄가스조심이라고 쓰여 있으면 면책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도는 잘 했는데 애들이 잘 안 들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그게 소위 증거위주입니다. 평소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잘 가르쳤느냐는 모릅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노련한 사람은 빠져나갈 궁리는 잘 합니다. 장부를 잘 만드다는 말입니다.

장부 잘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되는 길인지 모르는 게 편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째 이 모양일까? 장부 만들다가 세월 다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하나님께 "증거가 뭐니까?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아빠, 아빠가 날 낳은 진짜 아빠 맞아?" 그러면 뭐라 하시겠어요? 혹시 증거물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래 아니다. 이 놈아!"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너 아버지 맞다. 생긴 것 봐라." 그 다음에 외삼촌 불러오고 삼촌 불러와서 증인으로 세우면 웃기는 꼴 아닙니

까? 진짜 아버지는 때로는 “아니다 이 놈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너 커봐라. 커 보면 안다.” 그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라

아브람이 하나님께 “증거가 뭐니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 주셨어요? 뒷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제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도 않은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훗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나는 한번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먼 훗날 후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래, 지나 보면 다 알게 된다’ 그런 약속입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선물을 하나 사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아빠 말을 못 믿겠다고 각서라도 쓰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누구냐? 아빠 아니냐?” 이걸로 끝내는 것 맞지, 거기 앉아서 각서를 써주고 도장을 찍고...? 아주 재미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가능한 답은 “기다려봐. 기다려 보면 다 되는 거야.” 아닐까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아브람은 아브람다운데요. 아브람이 누구와 비슷합니까? 아주 철없는 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답변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람은 초파리?

아브람은 참 철없는 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의 특징이 뭐니까?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대로 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는 약속을 전혀 안했는데 아이는 얼마 있다 보면 “약속했잖아?” 하고 우깁니다. 누가 틀린 겁니까? 아버지는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맞아요. “지난 번에 약속해 놓고는 왜 안해주세요?” 애 말도 맞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대로 듣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자란 어른인지 알아보려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열심히 듣고자 한다면 내가 자란 증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내 말만 하고 싶어합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거기에 적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설픈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부 사이에 안좋은 버릇을 고쳐봐야겠다 싶어서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잘 안 고쳐집니다.

우리집 사람의 특기가 뭐냐 하면, 제가 이걸 좀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할려고 하는데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할려고 하는데 “여보 이거...” 하면 그만 하기 싫어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저절로 될건데...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번번이 생기거든요. 왜 이럴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똑같은 현상을 두고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가 조금 더 긴가봐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집집마다 그런 예가 많더군요. 똑같은 현상을 두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 작은 차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버릇이 얼마나 안 고쳐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버릇 하나조차도 잘 안 고쳐집니다. 양말 벗을 때 뒤집어서 벗는 경우가 계시죠? “여보, 제발 양말 벗을 때 뒤집지 마세요.” 평생 해 보세요 고쳐지는가! 고쳐진다면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작은 버릇조차 안 고쳐지는데 하물며 사고방식, 습성... 정말 잘 안 고쳐집니다. 억지로 해 보아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가정 사역하시는 분들이 충고하기를 이런 경우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판하나 써 놓으세요. '우리는 공사중' 이 딱지를 언제 떼는지 아십니까? 평생 그냥 갑니다.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 그게 잘 안된다는 거죠.

사람의 작은 버릇 하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먹는 이 자체가 예삿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술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슷한 은을 조금만 바꾸면 금이 될 것 같은데 안됩니다. 초파리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잠자리가 되지 않아요. 이 철없는 아브람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노력으로 사람이 안 바뀝니다. 내 생각, 내 노력 대신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가능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자꾸 이끌어주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게 하고, 공부하자 하면 어떻게든 건수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자꾸 접촉시키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춘남녀가 앉아서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을 당신께 맡기겠소."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인생? 그런 골치 아픈 얘기하지 말고 저녁이나 사주세요." 이래 가지고 결혼해 놓으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키우신 얘기가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던 아브람을 독생자를 바치라고 하는 명령까지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키워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과 인내로 돌연변이를!

하나님께서 철없는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키우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철없는 우리를 붙들고 이런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 힘을 내어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신앙의 인물로 키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친히 돌아보시며 아브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데 무슨 방법으로 아브람을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셨는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말씀 한마디로 돌연변이를 만들다시피 바꿀 수 없었을까요? 이 철없는 아브람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바꿀 능력이 하나님께 없었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로 하실 때, 자녀로 삼고 바꾸어 나가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던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과 인내로 사람을 바꾸려 하십니다. X전을 쪼이거나 약품처리해서 돌연변이 만들 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사랑과 인내로 상대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날마다 증거하며,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시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얼마나 토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고 얼르고 또 야단도 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그냥 약품 쓰고, X전 쪼여서 돌연변이 만들 듯이 그렇게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붙들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랑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일지를 한 번 돌

아보시되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상태보다 이런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원하시며 이런 나를 보시면서 사랑과 인내로 나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시간이 많이 걸릴지 적게 걸릴지는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순종 안하고 버티면 야단을 맞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면 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도무지 돌연변이가 될 것 같지 않은 초파리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키워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도 있겠죠. 연금술사는 금을 만들겠다고 많은 실험을 했지만 깨끗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마십니다.

돌연변이 실험은 끝내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처럼 철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우리들을,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너무 보잘 것 없고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애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것을 확신합니다.

가슴이 아픈 선지자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제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는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개역, 이사야 6:1~13]

어두운 시대

우 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때 같아 보입니다.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볼 때마다 마음 편한 소식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삼백만을 육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 가정 중에 최소한도 두 세 가정 정도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결과로 깨어지는 가정도 무수하고 자살도 최근에는 아주 빈번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도 부모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혼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주변을 조금만 넓게 보면 이런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 주관을 가지고 좀 분명하게 잘 이끌어주면 좋을 듯한데 정치하는 분들도 이리저리 갈라져서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의리라든가 인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익 외에는 전혀 믿을 것이 없는, 힘이 없으면 전혀 믿을 것이 없는 것이 국제사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안고

우리 시대와 똑같은지는 않아도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안고 몸부림쳤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경고와 질책을 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아픈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책망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보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이사야가 결국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하는 것 있죠? 그 가사가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지 아십니까? 처절하게 아픈 현실을 보고 몸부림쳤던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

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뜰에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아름다운 구절이 현실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이사야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견딜수 없는 민족에 대한 아픔에 몸부림치던 이사야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귀한 복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위대한 왕의 죽음

6장 1절에 보시면 '웃시야의 죽던 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었던 해를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시야는 당시에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적대국가였던 앗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지중해 연안국가의 우두머리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 왕이 죽었다는 것은, 나라를 잘 이끌어 가던 위대한 왕이 죽었다는 것은 국가에 대단한 위기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한 위기였는지 역사를 조금 더 훑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얼마쯤 지나자 북쪽 이스라엘의 악독하기로 유명한 왕비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로 시집을 옵니다. 그 어머니를 닮아서 아주 독한 딸이 시집을 왔는데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자기 손자인 왕자들을 전부 죽이고 왕권을 틀어잡습니다. 그 때 죽지 않고 용케 빠져나간 갓난 아이를 제사장이 기르다가 일곱 살 때에 왕으로 세웁니다. 어린 왕을 제사장이 잘 지도해서 나라를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이 왕이 요아스인데 나이가 들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이웃 나라의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기명들을 빼앗아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요아스 후에 아들 아마샤 왕이 등장하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포로로 잡혀 갑니다. 포로로 잡혀 가서 꽤 오래 있다가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아들 웃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웃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얼마나 쇠약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허약한 나라를 웃시야가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웃시야 왕은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으며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튼튼해지고 먹고 살만 하니 또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고 종교적으로 부패할 때에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선지자가 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표현 잘 아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절규에 가까운 말씀을, 웃시야가 등장해서 백성들이 잘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살만하고, 넉넉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살수록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섬기도록 평소에 기도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실력자의 부상

나라가 부강해지고 튼튼해지면서 백성들이 방종한 생활로 흘러가고 있을 때 이웃에서는 앗수르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의 앗수르가 강해지면서 굉장한 위협이 닥치고 있는 그 때에 웃시야 왕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앗수르가 새롭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나라를 잘 지도해 왔던 왕이 죽었고 백성들은 흥청망청일 때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뭘 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위급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에 붙어 있는 표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정확한 말입니다. 민족의 아픔과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가 성전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되고 위기의 때라고 생각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어달려야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어달렸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나타나실 때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십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위엄으로 가득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신뢰할 왕은 웃시야가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셈이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이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엘리사가 있던 성을 아람군대가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사환 아이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적군이 완전히 성을 둘러쌌어요. "선생님, 큰일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군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백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결격사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았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얻어서 자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쨌거나 아이를 낳았으니까 신체적인 결함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사라에게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신체검사를 해보면 한 사람이 문제가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까지 안 주십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아이를 주십니다.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니까? 이 아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낳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가정에, 교회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원인을 찾아보면 나름대로 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더 근원적인 답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웃시야보다 더 위대한 왕

웃시야가 죽었습니다. 이사야의 생각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웃시야 왕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열심히 찾을 필요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함께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믿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웃시야보다 훨씬 위엄이 있는,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셈이죠. 왕이 높은 보좌에 앉았을 때는 대부분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국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판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곳에 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는 겁니다. '웃시야가 죽은 것이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되느냐?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회복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회복의 첫 단계는 자신부터

이사야서를 읽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한 장 한 장 잘라서 읽기보다는 그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고를 발했다가도 마지막엔 회복으로 매듭이 됩니다. 사이클처럼 늘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5장과 6장을 분리해서 보시면 안됩니다.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 6장에서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죽어야 할 백성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고 나니까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나라를 염려하고 있었지만 실제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믿는 자로서 믿음을 확고히 하지 못한 채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구한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말이지요.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해 놓고 보니까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것이죠. 교회 일이든 남을 위한 일이든 열심히 일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웃을 닮고 형제를 닮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먼저 죽을 죄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다면 가수가 목소리를 잃은 것이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쉽게 말하면 죽은 목숨입니다.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이사야처럼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스스로 부정함을 깨달았던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스랍이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댄으로서 자기가 정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정함을 깨닫고 할 수 있는 일은 애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우리가 한듯 싶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원통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깨끗케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저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할 뿐이죠.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것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부정한 이사야가 정결케 된 것이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즐거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전의 일입니다. SFC수련회였는데 표어가 '주의 숯불을 내 입술에'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대회장 하시던 분이 잠이 많아서 대형 실수를 3가지쯤 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표어 제창입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다 같이 표어제창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높이 들고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주의 입술을 내 입술에' 이랬다나요. 얼핏 들으면 무슨 애긴지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실수를 크게 한 셈이죠.

핀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댄으로서 이사야가 정하여졌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숯불로도 정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숯불이 어디에서 온 숯불입니까? 6절을 보세요,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이라고 하죠? 단이 뭐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에서 나온 이 숯불은 사실은 피흘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도 피 흘림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숯불도 단순한 숯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없는 숯불이라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사야가 정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입술로 여태까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

이사야가 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하게 되고 나니까 이사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난 날에 부정한 입술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그냥 생각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정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심히 외쳤던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소되어질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고 전할 자격이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당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린 당당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우리가 교회일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일을 맡았을 때 능력이 없어서 다고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넌 용서할 때 네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한 줄 아느냐?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맡겼냐?'고 물으면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모세가 내가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한다고 발뺌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능력 없음을 고백해도 되지만 우리끼리 일을 나뉘야 할 때 일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우리 스스로 능력있는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보기보다는 이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고 용기를 좀 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하자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선지자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랍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기 딱 알맞은 우리 능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 빛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또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정결케 하시고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정결케 된 그가 자기를 향하여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라'고 명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일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명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보여주지만 합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지금부터 너를 보낼 테니까 내가 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다 보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이사야야, 네가 가라.” 이러지 않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더러 스스로 결단하고 나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꼭 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압박을 가하는 상사도 있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이 귀한 일을 누가 맡아야 되겠냐?’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정결케 하셨음을 확신한 이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죠. 이사야의 결단도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사야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역지로 진 십자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로 진 십자가도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구나 하고 “내가 하겠나이다” 하고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의 결단도 위대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정결케 하고 그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 안하면 벌 받을 줄 알아라’ 그렇게 해서 겁주고 공갈쳐야만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고 깨달은 대로 움직이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알고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나서겠습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그런 아픔을 가졌던 이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참 불행하게도 그 전에 외치던 메시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전하라는 말씀이 좀 달랐으면 싶은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듯 합니다. 그 뒤에 회복을 이야기하시지만 회복이 있기 전에 범죄한 그들에게 작정한 심판은 그대로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행하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그루터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대한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루터기에 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싹이, 거룩한 싹이 자라나서 또 다시 거대한 나무를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훗날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은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베임을 당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자라나 나무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그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민족을 염려하며 기도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애통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도 없고 기도할 제목도 별로 없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 시대는 우리가 가슴아파 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린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그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진짜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에 진정한 해답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의 시작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사명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다른 데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매어달려 보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싫어도 회복은 내게서 시작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면 동시에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나로부터!' 본문 같으면 이사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믿어지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능력이 있다고 '나를 보내소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것이지 능력이 있다고 나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징계를 하고 매를 들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 중에 끝에 회복을 말하지 않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한 징계를 하고 매를 가했다 해도 끝에는 반드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에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꼭 아파야 호들갑 떠나?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기도할 제목조차 없다고 여겨질 만큼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것이 진짜 훌륭한 기도이고 진짜 신자입니다. 병이 나고 몸에 탈이 나야 병원이다 약국이다 쫓아다니면서 온갖 부산을 떠는 사람보다 몸에 병 없고 건강할 때 몸을 잘 간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꼭 아파야 병원 쫓아다니고 난리 치겠습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잘 돌보시는 것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입니다. 건강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만날 문제가 터질 때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건강을 잘 유지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라가 어지럽다고 생각이 되고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들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이 말씀이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아픔이든 그 일을 하나님께 내어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눈에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사야가 본 것은 훗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독사 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역대지략에 기록된 행적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 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흥한 일로 네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베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놓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을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갹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 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홀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이십이 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개역, 열왕기상 14:6~20]

두 가지 표준

열 왕기나 역대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 중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선한지 아닌지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삼은 왕이 누구죠? 누구와 같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혹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선한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러면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남쪽 유다는 대체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는 다른 표준을 씁니다. 다윗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을 평가할 때 한 번만 나옵니다. 그 때까지 다른 표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 사용했던 표준은 누구일까요? ‘누구 누구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더라’고 할 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남쪽 유다 왕을 평가할 때 표준은 다윗이고 북쪽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잣대가 되었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선한 왕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사람이 다윗이고 악한 왕의 표준은 여로보암입니다. 어떤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지 한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학창 시절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공부 안 하고 말썽쟁이...’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공부 잘 하고...’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또 있을 겁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체로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고, 싸움 잘 하고 장난이 심했습니다. 포항이란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니다. 주먹깨나 쓰지만 그래도 비교적 선한 주먹패에 드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덩치가 참 좋았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밥을 많이 먹던 것만 기억납니다. 우리가 개를 ‘아바이’라고 불렀습니다. 밥을 얼마나 많이 먹지요. 우리가 조그마한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닐 때 이 친구는 찬밥을 갖고 다녔습니다. 자기 찬밥의 밥을 다 먹고도 다른 친구들의 밥을 열심히 덜어 먹곤 했는데 지금은 시의원이 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동기회에 가서 만났는데 시의원이라고 옷 매무새를 잘 갖추어 가지고 의원 뺑지를 달고 나와서 아주 젊잖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밥 먹는 품이 영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씹지 못하고 오물오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빨이 다 나갔대요. “벌써 이빨이 나가서 그걸 못 씹으면 어떻게 하냐?...” 복장을 잘 갖추고 점잖게 앉아서 고기 한 점 물고 오물오물 하고 있는 것과 옛날 학교 다닐 때 아바이라고 불리며 밥을 그렇게 많이 먹던 모습을 생각하면 한편 우습기도 하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뭘로 기억할 건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왕을 얘기할 때는 항상 다윗이 떠오르고 악한 왕을 얘기하고 싶으면 여로보암이 떠올랐습니다. 믿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를 누군가가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일의 표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는 믿을 수 있다’ 이런 일이라면 ○○ 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표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은 합시다. 악한 왕의 표준이었던 여로보암의 이야기에서 거꾸로 어떤 교훈을 받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때 그 사람

본문 14장 2절입니다. ‘그 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고한 사람이니라’고 말합니다. 실로에 있는 아히야에게 가라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히야는 아주 오래 전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로 있을 때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별을 주시고 나라의 열 지파를 떼 내어서 너에게 주리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떼어서 너에게 주는 것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고 범 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라를 떼어서 너에게 주면 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가르치라’고 신신당부했음에도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말을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번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무서운 많은 징계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을 돌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났습시다.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가 시작되면서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자기 부인을 아히야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아히야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막다른 상황에 부딪치니까 겨우 하는 소리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 보시오. 저가 내게 내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던 그 사람입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염치는 좀 있었던 모양이죠? ‘변장하고 당신이 여로보암의 처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해서 가라’고 당부합니다. 마치 젊을 때 잘 나가던 남편이 자기 하고 싶은대로 다 하다가 늙고 병들어서 옛날 아내를 찾아오는 꼴이나 비슷합니다.

정말 잘못했노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들어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여로보암의 경우는 용서를 빌고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몰래 살짝 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건지 알아보라는 거죠. 보내면서 3절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고 시켰습시다. 왕이 보내는 선물 같으면 상당히 덩치가 크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일반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가갈 때 들고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선물을 선지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나름대로 왕이 보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으면서도 이런 데에 머리 굴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해결해 볼 거라고 얼마나 잔머리를 굴렸는지 모릅니다. 압복강을 건널 때 형이 두려워서 가족을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만약에 형이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피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제일 뒷편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과 아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럼 제일 앞에는 누구를 두었지요? 가족을 그렇게 쪼개서 강을 건너면서 어떻게든지 몰살당하는 일만은 면해 보자고 생각할 때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름대로 머리는 참 많이 쓴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했다라면 그런 아픔을 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는 머리를 잘 굴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았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처가 변장하고 아히야를 찾아갔습시다. 그 때는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몰래 들어가는데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갑자기 그렇게 부르니 여로보암의 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당황하고 놀랄 겨를도 없이 선지자는 바로 무서운 경고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무서운 경고만 주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 두 번 말하면 좀 알아듣지!

13장에,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름 없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서운 경고를 발합니다. 훌륭한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고 경고를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그가 돌아가는 길에 작은 실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충분한 경고를 발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잘못과 여로보암의 죄를 비교해보면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며 이렇게 사소한 잘못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실 때는 얼마나 무서운 징벌이 있을 것임을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돌아서지 않았더라는 것이 13장의 결말입니다. 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 나라를 왜 쪼개서 너에게 주는지를 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9절에는 여로보암이 다른 사람보다, 그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유혹에 이끌려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여로보암은 죄질이 다릅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사람들이 유월절만 되면 성전을 찾아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겁니다.

국경을 막아놓고 남쪽 벧엘과 북쪽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두 개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라고 한 겁니다. 정치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게 나라를 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했더라면 그 나라는 자기 손에서 튼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왕보다 더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9절 끝에 보시면,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버릴 때에 어떻게 버립니까? 앞에 버려요? 앞에 버리는 것도 곤란하죠. 쓰레기통에 버려야지요. 쓰레기통이 아닌 아무데나 버리는 것도 곤란한데 그것도 ‘뒤로 던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잘 것 없는 쓰레기보다 못한 상태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번 경고를 했고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 징계를 시작했는데 그 징계의 시작이 바로 이 아들의 병입니다.

또 여로보암의 집에 내리는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의 속한 사베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놓인 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갹게 쓸어버릴지라’** 여기에 ‘거름을 쓸어버린다’는 표현이 *MT* 성경에 보면 ‘똥을 치우듯이 치워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름이라고 번역된 말이 똥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길에 누군가가 한 무더기 싸놓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치워요? 흔적도 없도록 치워야지요. 여로보암의 집이 앞으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쓸어버릴 때에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개가 먹고 새가 먹는다고 합니다.

먼저 죽는 게 복이라?

죽은 다음에 제대로 장례가 치워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체가 먹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모욕으로 생각하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무슨 선한 뜻을 품었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뜻을 품은 이 아이가 왜 제일 먼저 죽습니까? 이 아이가 먼저 죽는 것이 그나마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먼저 죽기 때문에 그나마 백성들이 슬퍼하며 제대로 장례를 치워줄 수 있는 유일한 아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죽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말은 역으로 다른 식구들은 절대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선한 뜻을 품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히 복을 주시는 겁니다.

ROYC, 우리말로 학군단이라고 하는데 대학 3학년 때 선발해서 2년간 훈련하고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찌나 군기가 센지 1년차(3학년)가 2년차(4학년)를 보면 발발 땀니다. 목청이 찢어져라 인사를 해댁니다. 그런데 학년이 서로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2년차가 1년차에게 캄캄하게 어두운 곳에서 기합을 주고 있었습니다. 1년차들이 발발 기고 혼이 나고 있는데 2년차 친구가 뒤에서 “야, 이놈들 봐 땡땡이치고 있어.” 하고 툭툭 차는데 말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다들 열심히 기는데 한 놈이 뒷발질로 도로 차드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반응이 이상해서 “이놈 봐라” 하고 툭 건드려 보니까 말은 안 하고 도로 뒷발질이 세지는 겁니다. “이 놈의 새끼, 너 이리 와봐” 하고 끌고 갑니다. 좀 떨어진 곳에 끌고 가서는 고래고래 고함만 지르고 있지 벌은 안 주잖아요. 다른 동료들은 “저 놈 혼나고 있는가보다.” 하겠지만 정작 본인은 쉬고 있는 겁니다. 다른 1년차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따로 불러내서 터지는 흥내만 내는 거지요. 이 아이가 먼저 죽은 것이 여로보암의 집에 엄청난 재앙이 내릴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 복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먼저 죽은 것과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초점은 이 아이의 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여로보암의 식구들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할 것이냐는 데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들

여로보암의 처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바로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말대로 앞으로 이 집안에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임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무슨 얘기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19절을 보세요,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즉 그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히야 선지자의 말처럼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이 닥쳤으며 그 이후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엇이냐는 이야기가 나올법 한데 전부 생략해 버리고 대신에 모든 이야기들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기록할 가치도 없고 언급할 대상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 정도 되겠지요. 왕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은 행적을 두 가지로 다시 표현하고 있죠?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린 일과 다른 나라와 싸운 이야기들이야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선지자가 보기에 별로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니 궁금하거든 역대지략을 보라는 식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역대지략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3년 갔다 오면 평생 이야기거리가 생깁니다. 3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찰찰 쏟아집니다. 겨우 3년 해 놓고... 죄송합니다. 방위병으로 갔다 와도 얘기가 많던데 월남 전쟁 1년 갔다 오면요? “얘기 좀 하라.”고 하면 “안 한다.” 그러죠? 그런데 옆에서 조금 아는 채 하면 어느새 줄줄 쏟아집니다. 평생 얘기거리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왕 노릇을 22년간 했습니다. 그만하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것 전부를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고 하고 생략해버린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4년만 하고 나와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어느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 진 빚을 임기 마치고 나와서 강연료 받아서 빚을 다 갚더군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또 듣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로보암인들 쓸 이야기가 없었겠느냐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는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역대지략에 기록됨’이라고 끝내버립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여로보암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왕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얼마나 선한 왕이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언급합니다. 그러나 공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악명도 유명하긴 유명한 거지

성경에 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북 이스라엘 왕 중에 오프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던 왕이란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다른 국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오프리 왕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건설하여 수도로 삼고 주변 나라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공을 받기도 했던 강력한 지도자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부강케 했고 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성경은 그것을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다면 그런 많은 업적도 성경에 기록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알고 싶으면 역대지략이나 보라는 식입니다.

여로보암과 관련된 기록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역대지략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로보암의 일은 뭘니까? 심지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야단맞은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들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를 설명할 때만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성경에 좋은 이야기만 남길 수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얼마나 좋아요? 모세, '온유함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다' 좋잖아요? 여로보암, '하나님께 야단만 맞고 악한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창 뜨고 있을 때에 실제로 유명한 극작가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분의 작품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대요. 자기의 유명세를 업고 신출내기를 비난하고 욕을 퍼부은 바람에 이름이라도 남은 셈이지요. 셰익스피어를 창을 쥐고 흔드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뜯어보면 '셰이크'는 흔들다, '스피어'는 창이거든요. 나중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 채 셰익스피어를 크게 비난하고 헐뜯었기 때문에 이름이나마 남은 거지요. 그런 식으로 이름이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여로보암이란 이름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게 왜 등장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의 대명사,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의 기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22년 통치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을 역대지략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두 기록을 평가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야단맞을 짓만 했다'는 것이고 역대지략에 기록된 것은 '의미없는 짓만 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여로보암에 관한 두 가지 기록과는 좀 다른 종류의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기록을 남기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했더라는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저히 흉내내기 어려운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는 위인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위대합니까? 야곱은 뭘로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삭을 좋아하신다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큼 이삭이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야곱도 동일합니다.

이삭은 무엇 때문에 위대하며 야곱은 무엇 때문에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뭔가 번쩍 번쩍하는 업적을 남겨야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삭처럼 살아도, 어쩌면 야곱처럼 애를 쓰기는 늘 쓰지만 엉뚱한 짓만 하고 잔머리만 굴리면서 평생을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로 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린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떠한 삶을 위대하다고 말하는지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둘로 나누어서 한쪽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 34절입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5절에,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것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37절에서 39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서는 대접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할 만큼 큰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죠? 40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억할 만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훨씬 못한 형제를 생각해서 그를 돌봐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만큼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뭘 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형제에게 내 이웃들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을 걸 참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말할 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평양에 있던 강패가 목사님이 되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왕년에 그렇게 유명한 강패가 목사가 되었는데 어쨌든 강패가 버스칸에서 그 목사님 앞에 주먹을 휘둘렀던 모양이죠. 이 목사님이 아마 주먹을 부르르 안 떨었겠습니까? "내가 왕년에 유명한 강패였지만 지금은 목사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참았습니다. 그래도 내려오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니가 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믿습니다. 덕은 누가 봐야 됩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은 덕을 좀 봅니까?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책에 차곡차곡 기록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만큼 위대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참아보겠다." 이런 것이 값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기 싫은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고 해 봐야겠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쫓겨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능력을 베풀었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너 욕심 때문에 한 거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값진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우리 자신도, 남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보잘 것 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하는 작은 희생도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한 일은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내용이 아니라 역대지락이나 올림직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라는 얘기죠. 나중에 없어져도 전혀 아쉽지 않은 책 말입니다. 거기 기록된 내용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고향 마을 할머니 앞에서는 개똥이!

사도바울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몸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큰 일을 이루어 놓아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합니다. 맹수와 더불어 맨 주먹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칩시다. 모인 관중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며 박수를 치겠습니까마는 그 일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피제제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며 쫓겨다닌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가 만약에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맹수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고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삶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강도사님'이라고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집에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있는 부인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보시겠습니까?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다 소중한 일입니다.

누가 뭘 하느냐?보다는 '누가 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집안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돌아보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 귀한 일입니다.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다 해도 다른 목적으로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역대지락에나 올려라' 하실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욕심과 내가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귀한 일이 못됩니다. 누가 하느냐도 아니요, 무슨 일을 하느냐도 아니요,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분이 '고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마을 출신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에서 위대한 대통령이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환영하고 있는데 늙은 할머니 한 분이 뒤에 서서 이렇게 건네 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뭘 대단한 사람이 온다고 하더니 윗집 개똥이네!' 이런 것이 고향이라는 거죠. '윗집 개똥이 왔네!' 하시는 그 할머니 앞에 대통령이라고 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지를 말지!

고향이라는 곳에 가면 대통령의 신분을 벗어 던지고 그 옛날 개똥이 노릇하는 것이 그 할머니와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게 되어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아는 것 가지고는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나고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해도 부모 앞에서는 자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진짜 귀한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 앞에서 많이 배운 것, 많이 번 것 가지고 품 잡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 접수 딸 일은 우리가 이땅에서 뭔가 번쩍번쩍하는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하고 참고 견딘 것 이런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기억할 때마다 '저 못된 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흐뭇해 하시면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7년만의 고백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이 일 후에 흑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흑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겨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 하였느니라(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개역, 창세기 48:1~7]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 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개역, 창 48:15-16]

이래도 안 웃어?

결 코 웃지 않는 학급이 하나 있었습니다. 웃지 않는 학급은 문제가 큼니다. 웃지도 않으니까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선생님들마다 그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던 중 연세 많은 선생님이 중간 발령이 나서 한 학기를 마치고 다른 도(道)로 전출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내가 저 반 아이들을 한번 웃기고 가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우스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안 웃고는 못 견딜거다.” 하고 얘기를 실감나게 했는데도 표정에 변화있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무실에 내려와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홍 선생은 그 반 아이들을 어떻게 웃겼냐?”고 해요. 그 교실에 웃음소리가 나면 “아, 영어 시간이구나.” 다 알아요. 영어시간 이외에는 숨소리도 웃음소리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한 석달쯤 미친 짓 하니까 되는데요.” 그 반 아이들이 워낙 무반응이라서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저 혼자 성공했어요. 저는 그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수업을 잘 합니다. 그런데 영어시간 끝나고 나면 완전히 냉랭하게 굳어버려요. 어느 누구도 그 교실에 가서는 웃겨보지도 못하지만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표정이 딱 굳어버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저만 알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그 아이들보다 그 아이들을 한번 웃겨보겠다고 애를 썼던 나이 많은 선생님입니다. 중간 발령이 나서 전출을 가시기 전에 “내, 가기 전에 이 아이들 웃기고 가겠다.”고 나이 많은 분이 작심을 하고 들어가서 실패하고 나온 그 표정이 지금 제겐 선합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끝내 한번도 웃겨보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비유컨대, 하나님께서 그를 한번 웃겨 볼려고 평생을 따라다녔는데 지독하게 웃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147년만에 웃었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깨닫고 방긋 웃었습니다.

협박한 세월 끝에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가 연세가 얼마나고 물었을 때 자기 삶을 한마디로 ‘참으로 협박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부터 얼마나 고생스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을 한마디로 ‘협박한 세월’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려면 낱밤을 새워도 다 못한다’고 하시던데 누가 할 말이 더 많을런지 야곱하고 시합해 보세요. 그 모든 고난 끝에 야곱이 정말 의미심장한 웃음을 남겼습니다. 야곱의 웃음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오늘

우리의 웃음이 되어야 하리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보면서

48장 1절에서 '이 일 후에'란 야곱이 147세로 죽을 때가 되어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긴 후를 가리킵니다. 나를 애굽에서 장례 치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특별히 유언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야곱을 찾아온 이 요셉이 어떤 아들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을 두었습니다마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좋아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고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이 전부 들에 나가 일하고 있을 때에 이 아이만 채색옷을 입혀서 집에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야곱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깁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했고 귀하게 길렀던 이 아이가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죽음은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 다시 찾을 때까지 야곱에게 잠시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적어도 20년 동안 이 아들의 죽음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죽지 않고 애굽에서 총리 노릇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야곱에게는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훗날, 죽은 아들 생각 때문에 자식들이 곡식을 사러 갈 때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할 때에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못 보낸다'고 버티는 겁니다. 표면상 이유는 베냐민이었지만 실제로는 죽은 요셉을 잊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면서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을 내 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요셉을 잃어버린 고통의 표현입니다. 적어도 20년이 넘도록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요셉은 야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거꾸로 야곱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흥년이 들어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간 사이에 야곱은 거의 기진해서 드러누워 있었죠. 아마 죽을 때가 다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곡식 사러 간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얘깁니까? 야곱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마차, 가지고 온 물건들을 보고 간신히 일어난 겁니다. "정말이냐?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만나보리라."

다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길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을 붙들고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 애굽에 갔거든요. 거기 가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제 진짜 죽을 때가 되어 마지막 순간에 아들 둘을 데리고 찾아온 이 요셉이 야곱에게 어떤 아들이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고, 가장 고통을 준 아들이었고, 마지막에는 더 할 수 없는 기쁨을 준, 가장 큰 기쁨을 준 아들이었습니다. 이거 병주고 약주는 정도가 아니예요. 이 아들을 앞에 앉혀 두고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4절을 보세요.

벤엘에서 만났던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순탄하지 않았던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무슨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등장합니까?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라고 말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가나안 땅 루스' 하니까 조금 낯설어 보이죠? 이 루스를 야곱이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벤엘이라고.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벤엘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복이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지나간 많은 세월 중에 벤엘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내게 이 귀한 복을 허락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벤엘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리라고는 상상

도 못했습니다. 멀고 먼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는 중에 들판에서 외롭게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분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야곱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게 정말 잘 지켜주셨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묘한 얘기를 합니다.

아람에서 만났던 라헬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셉이 나와 상관없이 애굽에 가서 두 아들을 낳았지만 이 두 아들을 당당한 이스라엘의 지파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후에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부를 때만 쓰는 별칭이지 정식으로 12지파를 말할 때에는 요셉 지파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나 에브라임은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12지파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7절이 약간 이상합니다. 라헬이 죽은 얘기를 언급을 하거든요.

왜 요셉의 두 아들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형제들, 즉 삼촌들과 대등한 위치에 두었느냐 하면 아마 야곱이 라헬을 생각하는 듯 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아들을 잘 낳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그것도 늦게서야 요셉을 하나 낳았고 한참 뒤에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거든요.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일찍 죽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라헬의 후손을 하나라도 더 늘리려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사랑했고 자식이 많지 않았던 라헬을 생각해서 이 두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아들은 라헬의 소생이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됩니다.

여기서 사랑받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을 평생토록 지탱해 주었던 두 가지 사랑이 있다면 하나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곱은 임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기쁨도 주고 아픔도 주었고 마지막 순간에 참된 기쁨을 주었던 요셉을 앓혀 놓고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젊을 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과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에 대한 회상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길고 긴 야곱의 생애가 막을 내리는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두 개의 사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생각난 거죠. 이 두 사랑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야곱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뜻밖에도 베엘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정말 충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약속을 하셨지만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격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필요한 것을 다 주고 다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야곱이 한다는 소리 보세요. 뭐 달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평안하게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핀트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엘에서 그런 약속을 하시고 난 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 있을 때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다 막아주십니다. 결국은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 오다시피 돌아올 때 외삼촌이자 장인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옵니다. 단단히 버르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야곱을 따라잡기 바로 전날 밤에 그 외삼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주 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악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야곱에게 할 말이 있었지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따라왔고, 모든 걸 빼앗아 가겠다고 무섭게 따라왔지만 그 말 한마디에 라반은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 돌아

갑니다. 뒤에서 추격해 오던 삼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추격해오던 외삼촌에게서 벗어나고 보니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씩씩거리던 형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형님을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식구들과 모든 때를 강 건너 보내놓고 혼자서 밤새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겁니다. 밤새도록 뒹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매어달릴 때까지 옆에서 집적거리는 겁니다.

새벽녘에서야 하나님을 알아보고 매어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야곱이 죠. 이름 뜻이 '간사하다, 비열하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름을 달고 이제껏 살았느냐? 계속 그 이름대로 살래? 이제 좀 바뀌라. 뭘로요? 이스라엘이라고! 무서운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이름을 바꾸어준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누구를 두려워 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을 건너가라고 하는데 건너가서도 여전히 형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형님이 만약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와서 우리를 치면 몰살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가족을 네 동강으로 나누죠. 제일 앞에 한 때를 보내고 좀 뒤에 한 때를 보냅니다. 제일 뒤편에 놓아둔 가족이 누구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아들은 제일 뒤에 둡니다. 죽으려면 누구부터 죽으라고요? 다 죽더라도 누구만 살라고요? 라헬하고 그 아들만이라도 어떻게든 살아라고 뒤에 두고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셨고 아무 탈없이 돌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만 이겨내느라고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돌아보시며 지키고 있는데 야곱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믿을 건 자기 머리, 이런 걸 무슨 머리라고 그러죠? 잔머리라고 그러죠. 이 머리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로하여금 고통스럽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큰 고비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저기서 사랑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야곱은 라헬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견디어 내었습니다. 7년동안 종살이 하듯이 머슴살이 했는데 라헬을 연애하므로 수일같이 여겼더라고 합니다. 연애라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정말 누구를 끔찍하게 사랑하면 그녀를 위한 7년간의 헌신도 며칠간 고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 고생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침에 깨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흐리멍덩한 언니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속이 아프고, 심정이 상했을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제대로 항의도 못 해본 채 삼촌의 숙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년을 다시 더 봉사해라. 7년 더 하면 진짜 줄게. 이러면 못 견딜 겁니다. 그런데 삼촌이 "미안하다. 그렇지만 라헬도 지금 줄 테니까 7년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야곱은 한꺼번에 두 아내를 얻고 함께 14년을 봉사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고생한 셈이죠.

라헬을 정말 좋아했지만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간신히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녀가 일찍 죽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다른 형제보다 요셉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죽은 아내에 대한 미련 때문에 더 심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유독 더 사랑했고 결국 편애한 셈이죠. 그 편애가 결국은 형제간에 서로 죽이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물론 전후사정을 아는 우리로서는 죽은 것이 아님니다마는 야곱의 생각에는 요셉이 죽은 겁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베냐민 하나만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에게 애절한 사랑을 쏟습니다. 죽은 아내 라헬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죠. 어느 날 애굽으로 양식 사러가야 하는데 그 하나 남은 동생을 데리고 가야 한답니다. 베냐민요? 못 보냅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보내겠다고 버티는 이유 또한

일찍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겁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아들들이 야곱을 협박하는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죽이세요.” 하면서 아들을 담보로 맡겨놓고라도 데려가려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어떻게 데려가냐?” 하며 야곱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것 역시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긴긴 세월동안을 그렇게 돌보고 있을 동안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을 못 잊어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거나 추구하거나 받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라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라헬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사랑이었지만 라헬에 대한 그의 사랑은 너무나 일찍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풍성한 물질의 복까지 다 주셨습니다. 반면에 라헬에 대한 사랑은 부인간의 갈등을 일으켰고 자식간에 갈등을 또 일으켰습니다. 형제간의 갈등은 엄청난 아픔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많은 복을 허락하시고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사랑을 쏟았지만 야곱은 알지 못한 채 라헬에게 온 마음을 쏟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리듯게 철든 야곱

그랬던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요셉에게 이 두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일찍 죽은 부인 라헬에 대해서 애절한 감정을 가진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일찍 죽은 아내였고, 또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였거든요. 낚시꾼들에게는 잡은 고기보다 잡다가 놓쳐버린 고기가 얼마나 커 보이고, 얼마나 아까운 건지 모릅니다. 하물며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아꼈던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일찍 죽어버렸으니 오죽했겠느냐 말입니다. 야곱을 보고 한 가지 깨달읍시다.

지금 내게 있는 남편, 지금 내게 있는 아내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러지 마십시오. 옆에 있으니까 있는가보다 여기지 마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야곱을 보세요. 일찍 죽은 아내를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애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짜증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그러시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다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는 거죠. 막상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낼 대상조차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동생이 남에게 돈을 조금 떼이고 나니까 제수씨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도 내고 화도 많이 냈죠. 어느날 직장을 그만 두고 나왔는데 얼마나 밉던지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퇴직금이라고 댔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고, 우리 집(시댁)에 와서도 안색이 좋지 않아요. 힘들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수씨, 우리가 제수와 시숙이라는 사이로 만났기 때문에 만나도 다정한 대화 한마디 못 나누고, 한국에서는 우리 관계가 어려운 관계라서 하고 싶은 얘기도 잘 못 나누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었더라면 위로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렇네요.” 하니까 그만 전화통에 대고 우는 것 있죠. 힘도 들었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수고 시숙이라는 관계를 따지지 말고 힘들 때 위로하며 기대가며 삽시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 암이 걸렸다고 판정이 난 거예요. 가뜰이나 이런 저런 일로 어려운데 암이 걸렸다니 “야, 이거 참 큰일 나겠구나.” 했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제수씨를 만났더니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돈 잃으니까 미워죽겠고 직장 그만 두고 나온단니까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없단니까 말도 하기 싫고 아무 것도 하기 싫더라는 겁니다. 이런 저런 일도 좀 했는데 다 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확 돌아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돈 없어도 괜찮고 능력 없어도 괜찮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

요. 세상에 사이가 그렇게 좋아지네요. 우리 제수씨 하는 얘기가 “그 전에 그렇게 밍고, 일하기도 싫을 때는 그나마 남은 게 있고 기쁠 게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다.”는 겁니다. 위를 좀 잘라내고 난 뒤에 동생 부부가 얼마나 다정스럽게 사는지... 참 사람 사는 것,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부부 사이에 짜증스럽고, 성질이 난다면 “아, 아직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서로 기대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맞을 겁니다. 그러니, 없는 것 때문에 짜증스러워 하기 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잘 하면 여러분을 짜증스럽게 하는 그 문제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일찍 죽은 그 아내를 생각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덜 예쁘고, 하는 일이 시원찮은 아내라 하더라도 여러분 곁에 있다는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각을 조금만 바꾸시도록 당부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드디어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뜻함 때문에, 이 사랑을 잊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깨달은 것 같아요. 베엘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야곱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겠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다라면 외삼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형님 에서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잔머리만 굴리며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정말 충실하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비록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깨달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직접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하신 약속을 가만히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는 불렀지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습시다.

그 분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다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시다. 아마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야곱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시다. 그랬던 그가 죽기 직전에, 15절 보세요, 죽기 직전에 와서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여기까지는 옛날에도 하던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까지 하고 끝났어요. 이제는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줄 몰랐습시다. 그런데 지금와서 돌아보니까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의 이 잘난 머리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낸 줄 알았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인간되게 만들어 오셨구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벗어난 것이 내 머리, 내 피, 내 잔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라는 걸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죠.

지나온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를 기르기 위한 도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참 일찌기도 깨닫습시다 그죠? 죽기 직전야 그걸 깨닫고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즉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를 들으시려고 야곱의 평생에 그를 따라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아직도 못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알 때부터 나를 기르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게 있죠?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야곱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의 남으로부터'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잘 몰랐던 일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계셨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려면 낱밤을 새워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실 분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표현을 빌리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어쩌면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들이 다 나를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 만들고 계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웃지 않는 아이들처럼

도무지 웃지 않는 아이들을 한번 웃겨 볼거라고 작심했던 그 나이 많은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참 고운 마음을 가지셨던 분인데 끝내 아이들을 한번 웃겨보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전근간 일이 아련한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웃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대학원 아파트에 있는 안재민 임현수 부부의 아들 동현이가 태어난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동현아 까꿍"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돌려버리더니 이제는 뻔히 쳐다보면서도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좀 심해요!

애기 엄마가 옆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거든다고 하는 말이 "동현아, 강도사님에게 한번 웃어봐 줘" 그러니까 뿔뿔 뿔뿔 하는데, 얼굴에 미소가 번질 듯 하다가도 굳어버리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굉장한 발전입니다. 집에서는 잘 웃는답니다. 이렇게 아양을 떨어도 웃지 않는 동현이가 미울까요? 좀 섭섭할지 몰라도 미워하면 미워하는 어른이 바보죠! 동현이보다 더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평생을 따라다니며 '야곱아 까꿍'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까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한번만 웃어봐 줘" 하나님께서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돌아보시며, 다 해주셨는데 야곱이 참 오랜만에 한번 웃어줍니다. 죽을 때 다 되어서야 겨우 알아본 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야곱의 삶과 비교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야곱보다 훨씬 일찍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지만 "또 예배 시간 가야 되냐?" 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얼굴 표정을 굳힌 채 버티는 우리 동현이하고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야곱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 웃어 주세요." "동현아 까꿍"하는데 나무막대기처럼 딱 버티고 있으면 누가 불쌍해요? 나는 그래도 별로 불쌍하지 않은데 애기 엄마가 그러대요 "동현아, 불쌍한 강도사님에게 한번 웃어줘 봐."

나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던 그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도 참 감동스러울텐데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제서야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크게 웃은 셈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하는 것조차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앞의 두 개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라헬에게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라헬에 대한 사랑도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도 못한 채 라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제대로 얻지도 못했던 말입니다. 아마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살았으면 라헬의 사랑도 분명하게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하십니다. 이 표현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야곱은 147년만에,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은 야곱보다 훨씬 나은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며 남은 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귀뚫은 종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도 타작 마당에서도 포도주 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습니다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육년 동안에 품군의 값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개역, 신명기 15:12~18]

종 학교 여자 아이들이 귀를 뚫어 귀고리를 달고 오면 복장위반입니다. 그래서 다 빼앗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몸에 구멍을 다 뚫었을까?” 그저 놀랍습니다. 가끔은 잘못 뚫어서 컷볼이 붓거나 상해 있는 경우를 더러 보기도 합니다마는 맨 살에 어떻게 구멍을 내나 싶어서 만져보니까 조금 두꺼워요. 귀를 뚫어서 목직한 것을 달고 다니는 걸 보면, 아이들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조그마한 것을 꽂아 다닙니다마는, 굵은 것 달고 다니는 것을 보면 불안합니다. 저러다가 누가 잡아 당기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가끔은 용감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뚫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잘 하면 이제 마음껏 귀를 뚫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뚫으라고 하시는데 여자 아이들보다 좀 더 용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도 타작 마당에서도 포도주 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동족을 종으로 사서 6년이나 부렸으면 값을 후하게 쳐서 내보내라는 얘깁니다.

종을 산 값에 6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값을 후하게 쳐서 내보내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이건 종으로 샀다기보다 취직시켜 주는 셈밖에 더 되나요? 이스라엘의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예나 옛날 영화에 나오는 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종이라고 표현되어도 실제로는 종이 아닙니다. 품꾼이에요. 종이라고 생명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비싼 값을 주고 사왔더라도 6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으면 나갈 때 품값을 후히 쳐서 내 보내라. 이게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아무리 해도 남는 게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 왜 종으로 팔렸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팔리는 것은 주로 가난 때문입니다. 빚을 못 갚아서 팔려간 예가 더러 보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팔린 사람을 종으로 사서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내보낸다면 이것은 구제차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선심을 쓸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빚을 대신 갚아주던가 아니면 그냥 탕감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몸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공짜를 바라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몸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될 만한 사람도 그럴 만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6년이라는 종살이를 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리는 사람이나 팔려가는 사람이나 종을 사는 사람의 입장을 다 고려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6년 동안 종으로 지낸 사람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면, 나가서 스스로 살지 못할 경우가 또 생깁니다. 여전히 종으로밖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람이 나가서 여전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서 내보내라는 건데 사람들의 생각은 늘 거꾸로입니다. 종으로 있다가 나가서 독립할 것 같다 싶으면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아버리죠. 가끔은 나쁜 사람들이 사람을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 팔려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자기 몸값을 지불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옴아매 버립니다. 더 많은 빚을 안겨버린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긴 빚 때문에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 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비록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기

간이 지났을 때에는 스스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서 내보내라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규정입니까?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은 그런 경우는 전부 동족일 때에 한합니다. 그럼 외국 사람을 종으로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외국인을 종으로 샀을 때는 영원히 종으로 둘 수 있습니다. 내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면 6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나갈 때 품삯을 쳐서 줘야 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돈 갖고 외국인을 종으로 데리면 훨씬 낫지 않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 종을 사겠습니까, 이방인 종을 사겠습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은 별로 남는 게 없는 장사입니다. 누가 동족을 종으로 사겠어요? 외국인을 사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럴 때에 동족을 종으로 사느니 외국인을 사게 되면 18절 끝에 보십시오. 얘기를 다 하신 후에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합니다. 동족을 종으로 사면 별로 남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외국인을 종으로 사서 평생 종으로 부리겠습니다.” 이러면 종을 부리는 것 만큼은 덕은 되겠지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좀 더 벌 수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더 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돈을 더 벌고 이득을 취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 손해일 것 같고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노력해서 이익을 더 많이 취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것이냐?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마디다’라는 말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참으로 ‘마딘’ 복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번 돈은 좀 해롭습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해로운 복입니다.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동족을 종으로 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손해볼 각오를 하고 해야 할 일인데 재미 있는 것은 14절 끝에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고 말합니다. 그 종에게 후하게 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 종에게 주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덜 벌고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조금 밀지는 것 같아 보여도 진짜 마딘 복입니다. 이게 오래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15절입니다. ‘너는 애굽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왜 종을 6년만에 그렇게 내보내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속해 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구해내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되었던 이 사람이 또 누구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 내어서 자유인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종으로 두지 말고 후히 쳐서 자유를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도 어려운 형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것 내 놓고, 저것 내 놓고, 남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중에서 일부를 달라고 하십니다.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면서 10개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한 말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희

를 불러내서 내 백성을 삼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누가 먼저 뭘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작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서문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십계명의 서문이 없으면 십계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 집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걸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인데 다 구해내서 자유인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너의 종을 그렇게 품꾼으로 고용하고 자유를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렸는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작은 것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궁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것이 있으신 분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일만 달란트와 백 데나리온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일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고 백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노동자가 먹고 쓰지 않고 평생 모으면 2달란트 내지 3달란트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3천내지 4천 세대를 지나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전국의 세금 총액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일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몇 대손쯤 되십니까? 대충 30몇대 정도죠? 그나마 뼈대 있는 집안이라면 무슨, 무슨과 30몇대 손인데, 만약 우리 조상이 옛날에 어떤 실수를 해서 일만 달란트 빚을 졌다면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기껏해야 30몇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3천 세대 후손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만 달란트가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백 데나리온은 몇 달 정도 노동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한 천만원 정도될 겁니다. 백 데나리온도 적은 돈 아니죠? 천만원이 어디 적은 돈입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갚을 수 있어요. 기를 쓰고 버티면 몇 달 고생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백데나리온과 일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통이 큰 분이기애 비유를 들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만 달란트를 언급하셨을까요? 그 일만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만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며 애를 써도, 평생 드러도 백 데나리온은 채울 수 있겠지만 일만 달란트는 감히 흉내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웃들에게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들이 내게 끼친 손해를 용서하고, 내 종이지만 자유를 줘서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이스라엘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되리라' 말하자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표현을 조금 바꾸어 보면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내 품꾼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너의 종이 되겠느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누구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얘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까? 종살이 하던 놈을 내가 구해다 놓았는데 또 누구 종이 된다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어느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깁니다.

피치 못해서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종으로 치지 말고 품꾼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주고 사온 종이라도 영원히 종으로 부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며 품삯을 주어서 내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자유인을 삼으신 그 일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내라고 했는데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6년이 끝이 났습

니다. 많은 샅을 주어서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팔리는 일이 없도록 잘 사시오.” 하고 주인이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종으로 팔렸다가 6년만에 많은 품삯을 받고 나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어떤 종이 “주인님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 집에 영원히 종으로 있겠습니다.” 이런 종이 있을까요? 군인들이 제대 날짜를 날마다 계산을 하는데 어쩌다 일주일 연기되어 버리면 못견딤니다. 정말 못견뎌요. 군대에서 줄병을 보고 고참이 심심하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너 제대할려면 며칠 남았어?” “팔백 며칠...” “야, 내가 니 같으면 죽는다 죽어. 내 며칠 남았는지 물어봐.” 이렇습니다. 하루 하루 손꼽아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나든지 해서 연기되면 사람이 정신을 못차려요. 그런데 만약 6개월 연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6개월 연기되었던 분이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네요.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을 때에 복무기간이 6개월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못 견딤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군에 있는 군인들도 제대해서 나가는 걸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6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만 하고 나가야 할 판국에 “주인님, 나 안 나가겠습니다. 종으로 남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안되는데도, 16절 보십시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종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네 종이 되리라’**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 자원해서 종이 되려고 합니까? 본문에 이유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라고 말합니다. 6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이 너와 네 집을 사랑해서 나가기 싫다 하거든 그를 영영히 종으로 두라는 애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종으로 살던 사람이 나가서 혼자서 살아갈 능력이 없겠다 싶어서 나가서 고생하며 사느니 주인집에서 주인님과 함께 살려는 수도 있겠고 또 종으로 들어와 살 동안에 그 집에서 다른 종과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유해서 나가게 되면 결혼할 식구를 봐두고 나가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나가느니 주인님 집에서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수가 있겠지요. 어느 경우이었던간에 스스로 종이 된다는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니까. 주인이 정말로 사랑할 만한 사람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인과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 그런 말 쓰시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종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분 나빠요? 괜찮습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종의 개념이 옛날에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종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어떤 종이죠? 주인을 사랑해서 기꺼이 종으로 있고 싶어하는,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부부 얘기를 한 번 해 봅시다.

어떤 부부가 가장 행복할지 생각해봅시다. 첫째, 서로가 종노릇 하는 부부, 두 번째, 서로가 왕노릇하는 부부, 세 번째, 한 사람만 왕노릇하고 한 사람은 종노릇 하는 부부, 어느 부부가 가장 행복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왕노릇할 수 있다고 치고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하십니까? 서로 종노릇하는 게 제일 낫다고요? 아니 서로 왕노릇하는 게 안 나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나는 왕하고 당신은 종하는 것’ 그게 더 안 나아요? 괜히 옆의 눈치 봐 가면서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종노릇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싸워 이겨서 왕노릇하는 것, 재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보셨어요? 재미 있습니다. 방에 가만히 누워서, “여보, 물. 여보 뭐...” 그래도 열심히 갖다 주는 분이 있다면 재미 없을까요? 왕노릇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왕노릇하는 게 최고로 좋은 행복인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 위에 수준이 더 높은 행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왕노릇 하는 사람은 언젠가 왕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동안도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 아니지만 언젠가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부간에 진짜 서로 종노릇하는 부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결혼 잘 해서 그동안 큰소릴 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거들랑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늙어서 후회하기 전예요. 누군가에게 스스로 종이 되다시피 종노릇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아이들 참 불행해요. 옛날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한테 심부름 하나 안 시켜주나...” 기다리고 있다가 모처럼 심부름 하나 시키면 그게 그렇게 좋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점심시간마다 선생님 하숙 집에 가서 도시락 들고 오는 것을 낙으로 삼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에게 도시락 가지고 오라고 시킨 것이 감사해서 나이 많이 들어서 회상하면서 쓴 글을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 참 똑똑합니다. 똑똑한 만큼 행복하지가 못해요. 옛날 우리는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선생님을 돕는 것이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시험지 채점을 거들 때는 “선생님, 이거 맞았다 할까요? 틀렸다 할까요?” 선생님이 보시고 “그거 틀렸다 해라.” 기분 좋잖아요. 선생님이 시킨 일이라면 밤샘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건 행복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늦어 보세요. 전화가 빗발칩니다. 어쨌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행복을 모르고 크는 거죠.

별난 제 친구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집에 가면, 엄마한테 발을 쑥 내밀고 있으면 엄마가 물 떠다 발 씻겨주었습니다. “야, 너 창피하지 않냐? 대체 무슨 짓이냐? 다 큰 놈이?”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내 발 씻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난 그 엄마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어. 그래서 귀찮지만 발 내밀고 있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 진담이고 농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속에 일말의 진실은 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것, 희생하는 것을 보세요. 거의 종노릇 수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종이라도 자원해서 기꺼이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맛있습니까?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맛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종노릇하는 것이 부모의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은 스스로 종노릇하면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이 자식에게 먼저 갈 게 아니고 부부 사이에서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긴 행복보다 서로 종노릇하면서 누리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자기들끼리 싸우고 싸우던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에 연설하러 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치고 박던 국회의원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국회에 들어오는데 박수를 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사람은 치고... 서는 사람도 있었고 안 일어선 사람도 있었대요.

연설 도중에 박수를 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쳐야 돼요? 그냥 고민만하고 있어야 돼요? 쳐야죠! 어제까지 같은 국회의원이었을지라도 지금은 국가 원수가 되어서 연설을 하고 있으면 쳐야죠. 그런데 왜 안쳐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속으로 칠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순종하고 스스로 종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종노릇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헌금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되나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헌금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예배요? 오늘 또 수요일인가? 가야 되나? “갈까 말까?” 이런 생각 드세요? “오지 마세요.” 이러면 안되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이게 스스로 종된 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수준까지 못 이르고 그냥 끌려 다니고 눈치 봐서 나와도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이 이런 행복한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치면 좀 힘드지만 끌려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종노릇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는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갈 5:13). 종노릇 해도 좋은 것은 이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종노릇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부부 사이에, 이웃 형제와 이웃 사이에 스스로 나를 낮추어서 종노릇할 수 있다면 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누르고 호령하는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스스로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쁨은 모든 걸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질이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스스로 종노릇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게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귀를 뚫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데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은 특별히 뚫으라고 만드신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달고 다니는데 아프지 않대요. 간단하게 뚫는답니다. 여집사님들 앞에서 괜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영원한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귀만 뚫으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뚫으라고 꺾볼을 만들어 두셨다면 한번은 뚫어야지요. 귀고리나 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표시를 내라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귀걸이의 의미가 뭐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다' 그런 의미에서 달고 다니십시오.

두 가지로 요약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어느 누구도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어느 누구도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가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너희를 구원해 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무엇에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종이 되지 말라는 성경구절이 참 많아요.

돈에 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상의 종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귀신의 종이 되어서도 안되죠. 심지어 썩어짐에 종노릇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우리가 종노릇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생애 최대의 목표를 두고, 그것에 종노릇하지 말라고 성경은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느 누구의, 그 무엇에도 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만 달란트짜리 값을 지불하고 사다 놓았는데 어디 가서 종된단 말입니까? 종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무슨 종입니까? 사랑에 감격하여 종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에 감격한 종은 다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귀를 뚫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리 가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저리 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리 가는 것은 그건 내 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특히 믿는 형제와 더불어 살 때 '아, 참 꼴보기 싫어.' 그래서 고개를 외면하는 것이 정상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하나님께서 그만 용서하라 하시네.' 그러면 내 기분, 내 성질 다 죽이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꼴에 남자라고? 속이 되게 뒤틀리지만 그것은 내 기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나 내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 사이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참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성질상 도저히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종노릇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8절 끝에 있는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이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에 귀걸이만 달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할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런 의미로 귀걸이를 달고 다니십시오. 얼굴에 구멍 뚫어서 뭘 잔뜩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군요.

방송에 얼핏 지나다 보니까 목표가 천개라는 사람이 있더군요. 몸에 구백 몇 십개까지 뚫었습니다. 천개를 뚫는 게 목표랍니다. 손바닥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 끼워 놓았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장로님이 어떻게 아세요? 피어싱이라고 합니다. 몸에 그렇게 많은 구멍을 뚫는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그 한번의 귀는 안 뚫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야 실컷 뚫든지 말든지 놔두고 우리는 단 한번만 제대로 뚫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귀를 뚫는 일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는 고백으로 이미 구멍을 뚫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생은 내가 하고...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낳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폐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개역, 사무엘하 7:8-17]

부모의 고생, 자녀의 평안

한 국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열심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과외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적잖게 봅니다. 어떤 가정 주부가 몸을 짓으로 경찰서에 잡혀 갔는데 자녀 과외비 때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네 어른들은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흔히 하는 말로, 기둥뿌리 하나는 빼야 되고 허리가 휘도록 희생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바라는 게 뭘니까?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려고요? 글썄요, 그런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너희들은 커서 이런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고생하는 부모들의 소원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을 앞뒤로 연결해서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많은 고생을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 놓습니다.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부강한 나라에서 온갖 부귀를 다 누린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각오해야 하며 또 그 희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네북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하는 말로 ‘동네북’이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추수할 때쯤 되면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일년내내 농사지은 것을 깨끗이 빼앗깁니다. 오죽하면 기드온이 굴 속에 숨어서 타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기회만 있으면 밀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힘있는 왕을 세워서 전쟁을 할 때 왕이 앞장서서 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평안히 살 수 있다’고 하시는 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실패한 다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 놓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후에 어느 날 ‘나는 궁에서 참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천막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계셔야 할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세상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다윗의 생각을 기뻐하신 하나님

본문 7장 2절을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는데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상당히 겁니다. 6절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감격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으나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전혀 말한 적이 없는데 다윗이 자원하여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가당한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수고란 왕이 된 후에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한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시라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라고 말합니다.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고 왕이 평안하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라고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왕으로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셨다면 다윗은 한 일이 없단 말입니까? 다윗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리 하셨다는 말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백성의 주권자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말씀을 듣고 선을 보러 갔습니다. 만이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야 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 둘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분명히 이 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듯한 후보들을 다 보아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또 있느냐?"고 물으니 이새가 "말썽이 있긴 있는데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고 합니다. 왜 안 데리고 옵니까? 거기에 데러오기에는 너무 어렵거나 다른 형님들은 다 왕이 되더라도 저 막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어른들 하는 일에 아이는 끼여들지 말라'고 해서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후에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름을 날립니다. 승승장구해서 군대장관까지 지냈습니다. 한참 잘 나가다가 사울에게 쫓기죠. 적어도 십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시거는 왜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도록 하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삼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셔서 왕으로 만드신 후에, 9절 보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대적을 다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나안족들이 있었습니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놓아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쳐들어 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랬던 그 주변족속들을 다윗이 하나 하나 다 평정해 버립니다. 여부스,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전부 평정해 버립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도 살아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요즘도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지면을 종종 장식하죠?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시 정복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정복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강인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저러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시절에는 그 모든 주변 국가들을 전부 정복했습니다. 북쪽은 유브라테스강 상류입니다. 거기서부터 쪽 내려와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정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누가 싸운 겁니까? 이 전쟁을 누가 다 치뤘느냐 말입니다. 다윗이 치뤘습니다. 다윗이 치뤘음에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파하셨다'고 말합니다.

싸우는 다윗,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멸하셨으니 다윗이 수고한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다 치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8장 6절에,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합니다. 14절에 그 표현이 또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쳐서 주변 국가를 평정한 것은 전부 다윗이 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싸우기만 하면 항상 이겼습니다. 그런데 못 이긴 족속들이 있었어요. 왜 못 이겼는지 아십니까? 싸움을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못 이긴 것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싸우지 않은 민족에게는 졌어요. 싸우는 건 누가 싸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면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승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네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집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사사시대와 달리 이제는 다른 민족에게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니라 튼튼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 튼튼한 나라를 세웁니까? 나라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다윗이 한 일이 없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전쟁을 다 치뤘던 것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다윗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우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선교사들을 위시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건 하나님이시요, 앞으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지만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었었습니다.

헌신하는 성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이웃의 안 믿는 사람 불러다가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는 것, 이것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력으로 안된다는 말이 있죠? 집안에 있는 우리 식구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인력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수고는 내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심고 김을 매고 기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해서 농부가 할 일이 없습니까? 농사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니까, 부모의 수고를 통해서 자라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때가 되면 자라는 것이 가르쳐서 되는 일입니

까?

예쁘게 자란 아이들이 “우리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고 할 때 “얘야, 우리가 한 일이 있냐? 네가 곱게 잘 커줘서 고맙지!” 맞습니까? 어떨 땐 그렇게 곱게 곱게 잘 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애를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수고가 없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거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수고, 솔로몬의 영광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엄청나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누릅니까? 그 영광을 솔로몬이 다 누려요. 12절을 봅시다,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네 몸에서 날 네 자식을 네 뒤에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물리갈 때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의 몇몇 대통령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웠지만 후임은 거의 자신들이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원래 마음에 두었던 분은 다른 분이었던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노 대통령 다음에도 정말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이 정말 원하지 않았던 분이 들어왔어요. 이 분 뒤에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통령 마치고 얼마쯤 지나지 않으면 측근이나 아들이 전 부 감옥가고 유배가다시피한 것은 후임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탓일 겁니다. 후임을 잘 세우면 부정할 것도 잘 드러나지 않을 테니까요. 국가적으로는 잘 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고대에 후임 왕이 자기 몸에서 난 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나라가 아주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권이 약해지고 나라가 흔들릴 때는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왕권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것은 죽임을 당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몸에서 난 네 아들이 왕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아직 이스라엘이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14절에, ‘나는 그 아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가 아들에게 해주듯이 많은 복을 그에게 허락하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호사를 누렸습니까?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궁과 성전을 보고 현기증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았으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은이 돌같이 흔했다고 합니다. 북쪽 유브라데스강부터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조공을 받았습시다. 그건 별로 부럽지않다고 해도 정말 부러운 게 있죠? 솔로몬의 아내가, 본문에는 후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w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몇 명이죠? 700명입니다. 빈장을 지금으로 말하면 첩입니다. 첩은 몇 명이에요? 이러다가는 헛꿈 꾸는 사람이 많을테니 그만합시다. 솔로몬이 누렸던 호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호사가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솔로몬보다 더 복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많은 수고를 통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걸 다 누립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린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누린 그 호사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더 크다는 걸 말합니다. 꿈 같은 애깁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그 큰 복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안 믿어지시죠? 조금 더 내려가봅시다.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넘겨준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나누어진 뒤에 북쪽 이스

라엘은 253년간 지속됩니다. 그러나 평균 30년도 안되는 왕조가 9개나 생깁니다. 왕조가 9개라는 것은 왕의 권한이 아들에게 바로 넘어가지 못한 쿠데타 사건이 9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왕조가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던 시대에 남쪽 유다는 흔들리지 않은 채 약 500년간 이어집니다.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쪽 유다도 쿠데타가 일어나 왕과 왕자들이 한꺼번에 몰사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어떻게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서 맥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왕이 암살을 당했음에도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의 주변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어가기 어려운 일입니다. 끊어질듯 끊어질듯 하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500년이나 유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에 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영원히 지속될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라면 다윗의 나라는 그 나라에 대한 상징일 뿐입니다.

뜻은 고맙지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말에 대한 답변이 13절에 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저는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몸에서 날 자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식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은 너는 건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재료를 많이 준비해서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니까?

대상 22장에 보시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라고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부정하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뿌린 피는 엄밀히 말하면 다윗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루라고 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의 피가 왜 다윗의 책임입니까? 굳이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피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와의 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인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모든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러면 세워진 그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가고 누리는 것은 솔로몬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책망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역할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솔로몬은 세워진 그 나라를 잘 보전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지키고 보전하고 누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란 뜻입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윗이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느라고 고생한 사람 따로 있고 세워 놓은 나라를 누리고 즐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누가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고생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심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를 누리며 즐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

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걸 누리고 즐기는 사람은 오늘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수고, 우리의 행복

다윗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다윗이 평생 전쟁을 치르며 고생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진정으로 고생하고 고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워준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잘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누려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는 내가 다 했다. 복을 누리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더 복 많은 성도 아닙니까? 아니라구요? 물질과 많은 아내에 눈이 먼 탓이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되신 행복을 즐기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코가 껴서 날마다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즐겁습니까? 부인이 천명이 넘었던 솔로몬보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십니까? 설마 그보다 더 행복하려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 한 그릇이면 죽합니다. 오늘, 일 많이 했으니까 열그릇 먹으라고 열 그릇 갖다놓으면 한 그릇보다 열배로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 천명이 부럽다고요? 다 헛꿈입니다. 많다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진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 못한다고 아파트 올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높은 데서 뛰어 내린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잘 하는 아이들예요. 돈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돈이 많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대요. 진짜 행복은 '공부 잘 하고, 돈도 많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행복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조금 비뚤어져 있으니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답답하고 짜증나고 성질나는 일들이 많은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는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극복해 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애썼는데..." 하고 기억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함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짜증이 나며 성질이 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죽었다?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못 하며, 어떻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면...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다가 선교사들이나 이런 저런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저히 살아 남을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는 '이 행복을 나 혼자 누릴 수 없다'해서 또 다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이런 분들이 많답니다. 가서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이 행복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해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죽음을 피해서 도망 나온 그곳으로 돌아가며 한 말이 '통일이 되거든 다시 만납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았던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기에 그랬을까요?

빌레몬서 잘 아시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자유를 찾아서 도망갔던 노예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새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바울이 주는 편지 한 통을 들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도망쳤던 노예가 잡히면 죽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보고 주인이 지난 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면서 형제로 맞아 줍니다. 그런 다음 노갯돈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가서 선생님을 잘 모시라'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로 돌아오는 오네시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은, 옛날에 목숨걸고 탈출해서, 사람 많은 로마에서 숨어 지내겠다고 가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다시 밟으며 '주인님도 나를 형제로 받아 주셨고, 예수를 알게 해 주신 바울 선생님도 나를 자기의 신복이라고 부르셨다!' 이걸 생각하면 기분이 어

땀을까요? 하늘을 쳐다봐도 즐겁고, 땅을 봐도 즐겁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넘어져 이마가 깨져도 얼굴에 웃음이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에게 모든 걸 용서받고 바울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나 복음을 듣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을 내 형제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그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의 걱정은 다리에 털이 많은 겁니다. "저 놈이 얼마나 행복하면 기껏하여 고민이라는 게 다리 털밖에 없나?" 싫어요. 살 빼는 것이 고민이십니까? 얼마나 고민할 게 없으면 그런 걸 고민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본인에게는 작은 일은 아니겠지만...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 딸이 도시락 반찬에 소세지를 넣어주지 않는다고 우는 걸 보고 속이 터져 못 살겠더라는 겁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는 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목사 딸이라는 것이 어떻게 소세지 하나 때문에 우느냐?"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쉬운 게 없으면 그러느냐 말이에요? 본인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말로 다 못합니다. 무슨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무얼 가지고 그러세요? 혹시 그게 다리 털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일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야, 털 많은 것 가지고 뭘 그러냐?' 이리시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소세지 하나 때문에 징징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솔로몬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북한 땅, 죽음의 땅을 도로 찾아가던 그 사람들의 행복이 솔로몬이 누린 행복보다 못한 걸까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생과 수고는 내가 다 할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되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언젠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 이웃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고생은 내가 하고...'인데 점을 찍어 놓은 부분에 무슨 말이 생략되었을까요? '고생은 내가 하고 복은 내가 누리고' 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고생을 다 해 놓았으니 너희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라는 애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보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 놓았으니 솔로몬아 너는 이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흔히 하는 말로 부모가 빠 빠지게 고생을 해놓고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뭘니까? 나중에 자식이 잘 되면 배 아파요? 나는 먹을 것 못 먹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사네! 배 아파요? 그런 부모는 없잖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희는 이런 고생하지 말고 평안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게 부모의 당부 아닙니까? 고생은 내가 하지만 복은 너희가 누리기를 바란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고생을 해야 합니다. 무슨 고생요?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 말입니다.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고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요. 전도해 보면 압니다. 누가 답답합니까?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답답해요. 누가 답답해요? 전도하는 나만 답답해요. 그것이 '고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은 내가 합니다. 이 수고와 헌신의 열매는 우리 이웃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평양의 강패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좀 어설픈 강패가 주먹을 휘두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김익두야' 한마디만 하면 탁 엎어질텐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주먹은 부르르 떨리는데 참았답니다. 내

[2003.11.09] 고생은 내가 하고... (사무엘하 7:8~17)

려오면서 뒤돌아 보고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기꺼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귀하다는 걸 알면 저절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 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엘이라 불렀더라 [개역, 창세기 35:9~15]

야 곱이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압록 강가에서 씨름을 걸어온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고 야곱이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내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물고 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첫 마디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왜 물었을까요? 자기 이름이 야곱인데 뜻이 좋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행동들을 돌아보아라. 네 이름하고 흡사하지 않느냐? 너, 그 이름 가지고, 그 이름대로 계속해서 살거냐? 이제 이름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이름을 고쳐 주셨는데, 세월이 적지 않게 흐른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하는 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린다마는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뒤늦게 베엘로 돌아온 야곱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죠? 베엘입니다. 베엘이 어떤 장소입니까? 오래 전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을 속였다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자 외삼촌 집으로 잠시 피하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잘 지내다가 처음으로 혼자 먼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보호하며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지만 야곱은 거기서 조건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세기 28:20~22)’ 그렇게 약속했던 장소가 베엘입니다. 뭘 주시면요?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면... 최소한의 것만 주셔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던 장소가 베엘입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몇 년만에 돌아왔을까요? 밧단아람에 최소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숙곳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상당한 기간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옮겨 간 곳이 세겜입니다. 숙곳과 세겜을 거친 기간이 얼마였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대충 짐작할 수는 있어요. 밧단아람을 떠날 때 디나의 나이는 많아야 서너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세겜성에서 디나가 큰 일을 당하게 되죠. 그 때 디나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갓난 아이였던 디나가 그만큼 컸으니까 숙곳과 세겜을 거치는 시간이 최소한 십 여년은 지났다고 봅니다.

베엘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베엘에서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돌아보며 지키며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노라' 약속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밧단아람에 가서 20년을 지나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합니까? 베엘로 가야죠!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끗이 잊어먹고 엉뚱한 곳에서 10여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엘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은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걱정할 게 없으면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0여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재산과 많은 가족...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 야곱이 베엘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살기 좋은 곳에서 십 수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베엘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베엘에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야곱이 저 밧단아람에서 거할 동안, 또 여기까지 올 동안 항상 동행하시면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신 하나님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부인과 자녀를 많이 얻고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이 야곱의 부지런함 때문입니까? 그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가졌던 그 많은 재산도 하나님께서 다 채겨주신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분위기를 보니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외삼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쳐 나옵니다.

열흘만에 외삼촌이 군대를 이끌고 따라옵니다. 어쩔 작정인지는 모르지만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죽일 능력도 있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사실은 야곱을 따라잡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면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야곱이 잘했든 잘못했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라반이 무서운 기세로 따라 왔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손댈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추격해 오던 외삼촌의 위협은 그렇게 모면했습니다. 겨우 한숨 돌리고보니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여년 전에 형님의 복을 가로채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던 야곱을 마중하려고 형님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아닙니다.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 때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가족들을 한꺼번에 다치지 않으려고 가족들을 몇 그룹으로 나눕니다. '에서가 만약 이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피하리라'는 속셈이었는데 이것이 에서가 얼마나 두려워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 다 쓸데 없는 걱정이니라...'

야단 맞아도 쥔 야곱

아무런 어려움없이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동행하시며 그를 돌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베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엘로 오지 않습니다. 가야 할 베엘로 가지 않고 숙곳에 머물러 있다가 또 세겟성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뜻하지 않게 딸이 성폭력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겪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엘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너는 왜 가야 할 때에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그러고 있느냐?'는 책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엘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베엘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입을 옷, 먹을 양식만 주셔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해 놓고... 하나님이 적게 주셨나요? 고비고비마다 다 지켜주셨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고 베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엘로 가라, 네가 그리 가야 한다'고 하셔서 베엘로 온 것입니다.

그가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을 봅시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 매...’라고 하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오는 곳이 밧단아람이 아닙니다. 밧단아람은 이미 10여년 전에 떠난 곳입니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세겜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이제야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고서는 여태 기다리고 계셨는데 밧단아람에서 출발해서 10여년이 넘어서 이제야 야곱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야곱을 보시더니 반가운 듯이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어야 합니까, 야단을 쳐야 합니까? 야단맞을 만한 짓인데도 이렇게 늦게 온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야단 대신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합니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하는 것은 ‘너 하는 짓이 네 이름하고 참 잘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뭘니까? 왜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까? 쌍둥이가 태어날 때에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거든요. 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막 싸웠어요? 무슨 일로 싸웠겠어요? 알 수 없죠. 아마 먼저 나갈려고 싸웠는가 싶기는 하지만 알 수는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아이들이 나올 때 발꿈치 잡고 따라 나오더니 나와서는 기어코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발꿈치’라는 것은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발꿈치를 든다는 말도 나쁜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발꿈치가 그렇게 나쁜 표현이 아니니까 이해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바꾸자면 아마 ‘등 친다’는 말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발꿈치를 잡은 자’를 우리 식으로 바꾼다면 ‘등치는 자’ 혹은 ‘등 두 드리는 자’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뜻이 그리 좋지 못해요.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형님이 받을 복을 가로챘을 때 예서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재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하는 짓도 이름에 딱 맞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산다는 걸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형님도 인정하는 겁니다. ‘너 하는 짓이 네 이름하고 참 잘 어울리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잔머리의 대가 야곱, 호적수 라반

야곱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잔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잔머리의 대가’라고 한다면 어떨까 모르겠네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끔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자리를 가로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복도 가로챘습니다. 더러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훨씬 수가 높은 잔머리의 대가를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이 한 수 더 뜹니다.

좋아했던 둘째 딸을 보고 7년 동안이나 노력 봉사를 했는데 결혼식하고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동생이 아니고 언니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속임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보다 라반이 한 수 더 위입니다. 작은 성공은 여러 번 거두었지만 결국은 큰 실패를 경험한 것이 야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엘에서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돌봐주었음에도 까맣게 잊어먹고 엉뚱한 곳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야곱에게 ‘이제 베엘로 가거라’ 해서 겨우 찾아온 야곱을 향해서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보세요.

이름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네가 하는 짓에 딱 어울리지만 너를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좋은 이름으로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심한 농땡이가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야, 이 말썽쟁이야’ 하고 한 대씩 쥐어 박는

게 보통입니다. 사실이 그렇지만 그래도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죠.

“얘들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아이들 있잖아 나중에 큰 인물이 잘 안되더라. 그런데 저렇게 사고치고 말썽피우던 놈들이 나중에 출세하더라. 나중에 동창회에 가 보면 저런 농땡이들이 동창회장 하더라. 그러니 저런 놈 팔시하지 마라. 나중에 너희들이 크면 저 놈이 동창회장 할거야.” 그때부터 그 농땡이를 동창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상적인 이름은 농땡이, 사고뭉치입니다. 그런데 개를 동창회장이라고 불렀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맞아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내나 남편, 혹은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세요? 아이들이 잘 할 때가 많습니까, 못할 때가 많습니까? 대체로 부모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세요?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나?” 이런 식으로 대하나요? 그 말이 맞습니다. 아이들은 으레 하는 것이 바보 같고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보가 맞아요. 맞아도 하나님의 표현을 빌리면 ‘네 하는 것이 바보지만 나는 너를 바보라 부르지 않겠노라’ 이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부인에게 존경 받고 사시는 남편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관계를 유심히 보면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나 많으면 많을까. 남편을 보고 뭐라고 부르세요? 제가 많이 들은 표현은 “아이고 저 원수?” 원수도 아니고 웬수더군요. “저 고집불통” 맞아요? 맞습니다. 꼴에 남자라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맞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겠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에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다 죽을 죄인입니다. ‘너희들이 죽을 죄인이다마는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좋은 이름으로 부르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애를 쓰실까?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야곱에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잔머리만 굴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무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적어도 십여년 전에 붙여주었습니다. 압박 강가에서 모든 가족을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어두운 밤에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아마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밤에 누군가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씨름인데 영어로는 틀림없이 레슬링입니다. 도대체 그 밤에 무엇을 했을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밤중에 누가 나타나 계속 집적거리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씨름할 형편이 됩니까? 누군가가 자꾸 집적거리니 붙어싸운 겁니다. 싸우다가 야곱이 깨달은 것은 이 사람이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밤중에 거기에서 집적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으니 내게 매달리라’고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밤새 씨름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찢단 말입니다. 지는 사람이 환도뼈를 치는 바람에 야곱은 다리를 절뚝절뚝 절고, 이 사람은 멀쩡한데요? 저주는 겁니다.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이름을 주시려고 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와서 씨름을 걸고, 매달리게 하고, 저주는 겁니다. 이 이름을 붙여주려고요. ‘자,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부터 누구를 두려워할거냐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가라’고 하는데 그게 10여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로 산 것이 아니고,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형님을 만나면서 가족을 네 동강으로 나누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자녀들은 제일 뒤에 두고, 그럼 제일 앞에는 누구 두었겠어요? 정말 잔머리를 잘 굴린 사람입니다. 여종과 여종의 아들들을 제일 앞에 두니까 이들이 나중에 사고 안 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 이름을 주신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그러나 나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로 부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답답한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참 재미있어요. 왜 이러실까요?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다음에 야곱에게 땅을 주겠고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야곱에게 땅과 후손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땅과 후손의 의미를 야곱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야곱이란 이름이 제격이지만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마는...'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흠,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겠노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도 야곱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가지 생각을 해 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잔꾀만 부리며 평생을 살았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이름이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두 글자로 우리 모두는 성도 아닙니까? 거룩할 성, 거룩한 무리들이예요. 여러분, 정말 거룩합니까?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성질내고 짜증내며 하루를 지내셨어요? 이 이름이 우리에게 도저히 맞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성도라고 부르겠노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섯 글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사셨느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야단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 모양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요소가 좀 있는가 싶다가도 아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별수 없는 존재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아,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며 눈물 흘리지 마세요. 사람은 그러려니 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헛꿈 중의 하나가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멋진 사랑을 이루어 보자'는 건데, 결혼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마 탄 기사가 나타나서 나를 행복의 나라로 이끌 것이다' 현실입니까? 꿈입니까? 일찌감치 깨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완전히 허황된 꿈입니다. 또 '나만 잘 하면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마는 나만 잘 하면 될 것이다 해서 정말 잘 하면 오히려 반발해서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잘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바보 같아도 나만 잘 하면 될 것이다? 아니요, 더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미묘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네 가정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그렇고, 사람의 일들이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됩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부족하다는 걸 참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영 바보 같고 고집불통이고 못쓰겠다 싶어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를 먼저 생각하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선이 사람에게 바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생각합시다. 내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도 보시기에 분명히 그럴거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니 나도 별수 없잖아요? 우리도 성도라고 부를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부족하고, 성도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야 그런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처럼 다 살 수 있냐? 성정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철저한 야곱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인가?

두 번째로, 그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인이라 할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짧게 대답하면 ‘예’ 하십시오. 길게 대답하시려면 ‘본래는 아닌데, 내가 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거룩합니까? ‘예’ 하십시오. 어째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무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단니까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만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가 바라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는 짓을 보면 내 백성 아니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못나 보이고, 내가 왜 이 모양이나 싶을 때도 우리의 눈이 나 자신을 바로 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 가지고 천국갈 사람이 되겠냐? 믿는다고 하는 내가 이게 뭐냐?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기 전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까?’ 그걸 꼭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고 봤더니 이런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계시더라! 그러면 됐지요!

하나님의 눈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꼭 하나님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꼭 그걸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이나 친구들을 부를 때 좋은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못한 이름으로 잘 부르죠? 제가 가르친 여학생 중에 예쁘고 깔끔하게 생겼는데 아이들이 ‘오지리’라고 불렀어요. 오지리? 무슨 뜻이냐?’ 하고 물었더니 한 녀석이 웃으면서 자칭 ‘오드리’라고 한대요. 오드리 햅번, 참 예쁘고 청순한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자칭 ‘오드리’라니까 경상도 말로 좀 모자라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오질(줄)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과 오드리를 결합해서 만든 표현이 ‘오지리’래요. 아이들의 말 만드는 재주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스스로 잘 났다고 하는데 같은 값이면 잘 난 길로 해 주면 좋은데 꼭 그렇게 깎아내려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여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저 녀석들이 나에게 별명을 이쁜 길로 붙여주면 어떻겠냐?” 길래 “어떤 별명을 붙여주면 좋겠느냐?”니까 백설공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같은 값이면 나이트 선생님이지만 백설공주 이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니까 아이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야, 백설공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르는 그 선생님 별명이 백설공주예요. 얼핏 들어보면 백설공주처럼 들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백설공주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올려주는 것보다 깎아내리는 쪽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큰 사랑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될 만큼 좋은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이라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다면 걱정할 게 없네요. 아무렇게 살면 어때요? 아무렇게 살아도, 야곱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는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데도 야곱으로 살면 그 삶이 험악한 삶이 됩니다. 야곱이 나이 많이 들어서 애굽의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나이를 물었죠. 네 연세가 얼마나고 물었을 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아니라고 그래요. ‘130밖에 되지 않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험악하게 살았구나 싶은 거죠.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면서 뭔가를 이룬다고 열심히 해 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이삭은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이삭의 삶은 야곱과 비하면 너무나 평탄합니다.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어코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압박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살라고 했을 때 그 때부터 이스라엘로 살았으면 그 후에는 별 고통이 없었을 겁니다. 형님 만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말이에요. 그런데도 두려움을 떨쳐 버리지 못합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살았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당장 베엘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 버리고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그의 삶이 그렇게 험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하다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주시니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도 됩니다. 아니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성도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서라도 그렇게 만들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으로 살든 이스라엘로 살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편하게 갈거나 아니면 고생하면서 갈거나는 차이 밖에 없습니다.

야곱처럼 살래? 이스라엘로 살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너희가 야곱처럼 살래?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살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용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요?’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야곱처럼 살고 하는 것이 야곱 같아도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노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계속 된다면 때로는 냉정하게, 내가 야곱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거룩한 무리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계시는 데도 내가 야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험악한 게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우리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의인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배웁시다. 우리 가족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도저히 존경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 당신을 존경하는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집에 가서 그런 말 하시려거든 앞 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하세요. 앞부분은 속으로 하고 뒷부분만 하세요. 부인에게도 한마디 하셔야죠. '아무리 들여다 봐도 예쁘다고 할 만한 곳은 하나도 없더라도 나는 당신을 예쁘다고 말하겠노라' 그것도 앞부분은 속으로만 하고 뒷부분만 말하세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그러지 마시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나를 볼 때 아무리 봐도 잘난 구석이 없고 주변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나는 나를 잘난 놈이라고 부르겠노라."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선지자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오십 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야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좇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야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야가 에스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쥔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모친 밋세바에게 고하여 가로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나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원할 계교 베풀기를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야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나도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 [개역, 열왕기상 1:5~14]

우 리말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죠? 별로 안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관심이 많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병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지내기에 괴로운 사람입니다. 병은 전혀 주지 않고 약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체중이 100Kg를 넘어요. 애가 배고파 하는 것을 못 참아서 엄마가 달라는 대로 열심히 주었기 때문입니다. 중3이 100Kg를 넘으면 가당치 않습니다. 이런 것이 약만 주는 엄마 아닐까요? 결국 약이 되지도 않았지만...

병 주고, 약 주고

밋세바에게 나단은 어떻게 보면 병도 주고 약도 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밋세바에게 나단이 병을 준 사람이 됩니까?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훑쳐보다가 사고쳤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 사고가 전적으로 다윗만의 책임입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밋세바에겐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 위에서 임금님이 내다 보면 흰히 보이는 곳에서 왜 목욕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쳐다볼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임금님이 부르면 부른다고 쫓아가요? 목숨을 걸고 못 간다고 버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직후에 다윗이, 왕이 부르니까 쫓르르 쫓아가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았습니다. 다윗만의 책임입니까? 저는 밋세바에게도 상당 부분 비난받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섭도록 질책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으니 네 집에 재앙이 끊이지 아니하겠고...' 많은 책망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는 무서운 선고를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밋세바에게 병을 준 셈이지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던 때의 일입니다. 왕자 중에 아도니야가 자기 멋대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때 나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반란을 저지하고 솔로몬과 밋세바의 목숨을 구해내죠. 이런 약을 준 것 같습니다. 나단은 왜 밋세바에게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이런 역할을 했을까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도니야의 반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아도니야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연장자입니다. 맡아있던 암몬이 형제간의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이 압살롬인데 반

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다음 아들이 아도니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야는 가장 연장자입니다. 솔로몬은 열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아도니야가 당연히 왕이 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6절에 보시면, **‘세용이 심히 준수한지라’**고 했습니다. 용모가 왕이 될만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친이 네가 어떻게 그리하였느냐는 말로 한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는 것은 꾸중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기에 별 부족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란 말이죠? 정상적으로 간다면 아도니야가 왕의 자리를 당연히 물려받을텐데 왜 반란을 일으킵니까? 5절을 봅시다,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 왕을 시키겠다거나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높여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서 제대로 된 왕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전배 50명을 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배란 왕이 행차할 때에 그 앞에서 ‘물렀거라’ 하고 길을 여는 사람들과 수행하는 무리들을 가리키는데 이 일을 처음 시도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일종의 자기 과시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것은 자기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이을 왕이 솔로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두셨습니다. 아도니야가 거사를 일으킬 때에 솔로몬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걸로 보아서 왕위를 계승할 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해서 나섰기 때문에 아도니야는 반란을 일으킨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준수하고, 힘이 있음에도 실패해 버린 사람을 꼽으라면 압살롬, 사울, 여기 아도니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쳐주지 아니하는데도 자기 능력으로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도니야가 아주 착했다고 그럴까요? 좋은 인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이 주는 느낌은 오히려 다윗이 자식들에게만은 적절하게 훈계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야 뿐만 아니라 암몬이 잘못했을 때나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에도 아들들을 적절하게 훈계하지 않았습니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가 싫어하는 행동이나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없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 야단쳐야 할 때 제대로 야단치지 못하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겁니다. 정말 자녀가 야단을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때 냉정하게 야단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다윗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도니야가 단독으로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 같고 누군가 믿을만한 사람이 있었지 않겠느냐고 한다면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아도니야가 요압을 믿고 반란을 일으켰을 겁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데 요압이 가장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와 사무엘서에 보면 요압이 애꿎게 죽여버린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넬인데, 다윗이 사울의 집안과 오랜동안 싸우고 있을 때 사울의 집안을 완전히 다윗편으로 넘겨줄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물론 동기상 약간의 잘못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울의 나라를 완전히 넘기려고 했던 장수가 아브넬이었습니다. 만약에 두 나라가 합쳐진다면 적장이었던 아브넬이 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넬을 요압이 속임수를 써서 죽여버립니다.

그 후에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군의 군대장관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궁으로 환도해야 할 때 반란군의 실권을 잡고 있는 아마사를 다윗이 성공적으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습니다. 그런 다음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삼았는데, 결국은 요압이 아마사를 또 죽여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와 경쟁이 될만한 사람을 전부 제거하면서 자기 위치를

확보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야를 죽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야를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렸죠. 불의한 명령이지만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실천했던 인물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압살롬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해서 마지막 싸움을 하러 갔을 때 백성들이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한 명령을 백성들이 다 듣고 함부로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않을 때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다는 말을 듣고 요압이 단숨에 달려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요압은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다윗도 죽기 전에, 요압이 참으로 결끄러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저 요압이 평안히 죽게 해서는 안된다.'

요압은 다윗이 팔시할 수도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요압이 다윗이 노쇠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왕이 될텐데 그러면 자기도 물러나야 할 때가 되지요. 그런데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아도니아를 지지해서 왕으로 세운다면 자기는 여전히 실권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명분도 있거든요. 그리 생각해 보면 이 아도니아 반란의 실질적인 주모자는 요압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큼니다.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제사장들이 전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왔던 사람입니다. 그 때는 다윗도 계속 쫓기는 몸이었기에 다윗이 당한 모든 고난을 아비아달도 다 겪었습니다. 어려울 때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공헌을 많이 했죠. 그런 아비아달이 왜 이 반란에 가담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은 이 시절에는 특이하게 제사장이 돌이켰다는 점입니다.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함쳐지면서 그쪽에 있던 제사장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쫓기는 다윗에게 가서 그 때부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있었던 제사장도 나라가 함쳐지면서 제사장이 돌이 된 것입니다. 나이도 아비아달이 많아요. 공을 따진다면 아비아달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 꼭 사독이 먼저 나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나오거든요. 어쩌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사독에게 밀렸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측에 가담하면서 사독이 쥐고 있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엘리 제사장이 워낙 큰 잘못을 저질러서 '너희 집안에 제사장이 끊어지리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나중에 반란에 가담한 일로 인해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쫓겨갈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2장). 아비아달은 이 기회를 통해서 사독을 누르고 종교적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모의를 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만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고려해야 할 유력한 인물들을 꼽으라면 솔로몬 편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나단 선지자도 있고 사독 제사장도 있고 또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브나야입니다. 그런데 못 끌어들이었어요. 요압과 브나야가 라이벌 관계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라이벌 관계가 됩니다. 나단 선지자요? 나단 선지자는 끌어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겠다는 사람에게 동조했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모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열심

이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행동을 개시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가장 답답하거나 놀래야 할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나 밋세바가 앞장서야 되는 문제인데 나단이 급하게 이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밋세바를 찾아와서 계책을 일러주고 '당신이 들어가서 왕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도니아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밋세바가 범죄했을 때, 다윗이 범죄했는데 굳이 밋세바가 범죄했을 때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다윗은 늙어서 물러갈 사람이니까, 주로 밋세바를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밋세바가 범죄했을 때 인정사정 없이 무섭도록 질책하던 나단이 밋세바와 솔로몬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섭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일입니다. 다윗과 밋세바가 범죄했을 때 나단이 찾아가서 무섭도록 책망을 합니다. 밋세바가 미워셔요? 아니면 밋세바가 잘 되라고 그랬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 왕에게 뛰어가서, 왕과 결혼해서, 입 짝 닫고 잘 살고 있는데 무섭게 책망하는 이유가 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질책을 했던 겁니다. 다윗과 밋세바가 범죄했을 때 책망해야 된다. 누가 할거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과감하게 잘못을 지적해서 회개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예수 잘 믿는 처녀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유아세례 말입니다. 별로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이를 낳은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죠. 그러면 교회에서 벌을 받아야 되죠? 잘못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아이에게는 세례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화란에 공부하러 가신 분이 그걸 보고 참 놀랐다고 하시대요. 미혼모가 얘기를 안고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걸 보면서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 했으면 용서도 철저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밋세바가 지은 죄가 작은 게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무섭도록 질책하지만, 본인이 회개했으면 깨끗하게 용서하고 도와야 할 일이 생기면 깨끗하게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죠. 나단의 행동을 보면서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용서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했을 때나 어려움에 처했거나 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단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단의 이러한 자세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나단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나단은 얻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나름대로 뭔가 얻을 게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아무 것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받을 게 없어요. 반란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 덕을 보는 사람은 사독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장인 것도 영광이지만 아들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습니다. 얻을 것이 있다는 뜻이죠. 브나야도 요압이 차지하고 있던 군대장관의 자리를 나중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나단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아들에게 물려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받은 것도 아무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계산에 참 밝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가령 대형 할인점에서 무엇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바라지 마십시오.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기에 많이 걸리죠. 사기 당했다, 속았다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대체로 뭔가 거저 얻으려고 하다가 당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짜로 뭔가 해주는 사람은 일단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싸우고 있죠? 국민을 위해서? 믿는 분 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은 계산에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무슨 자선 후원회 같은 곳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보낼 때 금액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통이 큼니다. 우린 후원금 낼 때 천원 이천원 내는 법은 없죠? 최소한도 동그라미 하나는 더 붙여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짜다 뭐 어쨌다 해도 실제로 어디에서 후원을 하거나 도와야 할 때 되면 통이 큼니다. 아니 우리가 실제로 큰 게 아닌데 안 믿는 사람들이 워낙 작으니까요. 모 대통령도 천원밖에 안 보냈는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술값 내는 것 보면 참 통이 큼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왕창왕창 나가는지 몰라요. 술을 조금 먹는다는 사람이면 술값이 우리의 십일조 정도는 나갑니다. 술을 좀 한다는 사람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남을 좀 돕자 해보세요' 생기는 것이 없는 일에 지갑을 쉽게 여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뭔가 바라지 아니하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돈 안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생기는 게 없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런 점을 좀 본받으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함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나 권사직을 우리가 탐을 내야 합니까 탐내지 말아야 합니까? 참 미묘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진한다, 남보다 좀 나아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그 자리를 탐내면 안됩니다. 그 자리가 섬김을 위한,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기에 욕심을 낸다면 널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열심히고, 왜 그렇게 충성하십니까? 장로되고 권사되려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번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면 교회가 썩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결과를 예상하고 노력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직분만을 염두에 두고 노력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칭찬 안 해주나?’ 그런 생각조차도 깨끗이 버리고 교회를 섬길 수 없을까요? 아무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아무 것도 얻을 생각없이, 개인적인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참 잘 하시는 모양이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야단을 친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 교만해진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권사님, 저도 인간입니다. 칭찬 들으면 기분 좋고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도 칭찬 안 하면 저도 힘 빠지고 맥 빠진답니다. 그냥 두세요.”

본인은 칭찬 받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없이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옆에서는 그렇게 칭찬해주는 것이 잘 하는 겁니다. 옆에서 칭찬해 주면 교만해진다? 이런 생각은 곤란합니다. 감사해서 열심히 하시면 옆에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 버리는 것 아닐까? 칭찬한다고 반드시 사람버리지는 않습니다. 잘 생긴 사람에게 잘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내일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도와 주는 것이 힘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나단입니다. 나단은 아무런 댓가도 기대하지 않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이 범죄했다는 건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단한 위기입니다, 과감하게 책망할 수 있었던 사람이니 정말 큰 일을 한 겁니다. 왕이 노엽게 여기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나단은 왕을 책망함으로 나라의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했고, 아도니야가 반역을 일으킨 때에도 앞장서서 막아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단이 얻은 것, 나단이 바란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기는 것도 없는데 왜 나단이 열심이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단지 그 하나의 이유로 나단은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왕이 범죄했을 때 ‘왕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라고 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신이 나온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말해야 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 잘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또 다윗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겸비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지난 번에는 책망하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면 나도 감정

이 있는 사람인데...?’ 나단은 자기 기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라면 가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라면 가서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나단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심부름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책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고, 아도니아의 반란을 저지하려고 그렇게 열심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병도 주고 아니면 약도 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주로 변덕이거나 아니면 자기 이기심 때문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분 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옆의 형제에게 병도 주었다가 약도 주었다가... 우리에게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단은 자기 기분 따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내 기분, 내가 얻을 것 안 얻을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 그럴 수 없소!’ 이런 일이 믿는 우리에게 흔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자존심을 접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면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무슨 죄를 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저 집사는 쳐다보기도 싫어! 무슨 큰 잘못 때문에 그런지 따져보세요. 어쩌면 큰 죄라기보다는 내 자존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존심이 더 센 경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나단에게는 내 기분, 내 자존심 이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면 왕을 책망하는 일에도 나서고 목숨을 걸고 반란을 저지하는 일에도 나섰다는 뜻입니다. 나단이 밧세바에게 병도 주고 약도 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 중에는 지혜보다는 그저 막무가내로 용감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범죄한 사실을 지적할 때 사용했던 비유 아시죠?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이 있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것이 아까워서 옆집의 양 한 마리,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런 죽일 놈이 있나?” 노발대발하죠? 그 때 나단이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올 수 있겠습니까?’ 이랬으면 다윗이 반발을 했을지 모르는데 남의 얘기를 실컷해서 다윗의 대답을 다 얻어놓은 후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니 다윗이 꿈쩍을 못하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나단이 왕에게 바로 뛰어가지 않았습다. 왕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나설 타당한 이유가 있는 밧세바를 움직입니다. “당신이 들어가서 먼저 이야기 하십시오.” 그래서 밧세바가 들어가서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조금 늦게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지원 사격을 하는 거죠.

‘왕이 나이가 들어서 무능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마구 들이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윗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도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밀고 들어간 것 아닙니다. 대신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단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나단이 다윗을 대할 때 쓴 표현들을 보면 상당히 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단과 비교해 보면 우리 속에는 ‘덜된 나단’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용감하게 가서 직설적으로 퍼부어 버리는 경우가 많죠. 내 말이 맞다해도 그렇게 퍼붓는 것은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 혹은 우리 아이들을 책망해야 할 필요가 있어도 화가 나면 하지 마십시오. 화풀이만 하지 마십시오. 고함지르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시다. 나단이 굉장히 다급하지만 바로 직설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참으로 지혜롭게 접근하였습니다. 잔소리가 되면 반발해요. 잔소리는 말이 맞는데도 반발해요.

‘고객 감동’이라는 말이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도 고객을 감동시켜야 장사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가르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감동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말이 맞다고 해서 막 들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습니다. 옛날에는 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직설적이라서 거부반응이 큼니다. 어떻게든지 감동시킬 수 있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효과가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책망하고 아도니야의 반란을 저지시킬 때에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이렇게 노력해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왕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범죄하는 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것입니다. 왕이 범죄했을 때에 용감하게 나아가서 무섭게 질책해서 회개시키고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었던 나단이, 아도니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재빠르게 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아도니야가 왕이 되면 그건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까? 아도니야도 현재로서는 가장 연장자인데요? 연장자가 나라를 이어받으면 왜 다윗의 나라가 아니냐는 겁니다. 아도니야가 왕이 된 것은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이 두 사람입니다.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임에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혈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다윗의 나라는 먼 훗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파하고 튼튼한 나라를 세웠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을 제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훗날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단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튼튼히 세웠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헌을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단을 본받아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믿고 충성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는 셈입니다. 벽돌 한 장이 작은 겁니까? 무슨 벽돌이냐에 달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작은 보탬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일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일을 하는 것 별 것 아니지요? 요즘은 그것도 계산해서 한 달에 얼마씩 쳐준다면요? 가정 주부가 집안에서 하는 일을 한 달에 얼마로 칩니까? 그걸 돈으로 계산한다는 자체가 그 일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충실하게 돌보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열심히 다닙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이 월급이라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 가며 속에 온갖 배알이 다 뒤틀리는 데도 참고 버텨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중한 사역지라는 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남 보기에 반듯한 일이 있고 남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칭찬하건 안 하건, 보아주건 안 보아주건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간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몰래, 남이 알세라 몰래 몰래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행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2003.11.23] 병 주고 약 주는 선지자 (열왕기상 1:5~14)

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개역, 히브리서 5:11~6:2]

부부가 싸우더라도

후 시 부부가 싸움을 하더라도 그날의 문제만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당신, 이거 처음이 아니잖아?” 이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춰내기 시작하면 싸움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친정도 들먹이고 시집도 들먹이면 끝장을 봐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시더라도 절대 옆으로 새지 마십시오. 예전의 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되면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지 못할 게 틀림없으니 절대 옆으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쭉 해가다가 옆으로 빠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옆으로 쏜 이야기입니다. 옆으로 빠졌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던데, 히브리 기자는 조금 빠져나갔다가 다시 제 길로 돌아와서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마무리 짓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랬을까요? 오늘은 히브리서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이 기자가 잠시 옆으로 빠져나갔던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요약

히브리서의 핵심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탁월한 분이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그는 그 어떤 사람이나 제사장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분입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귀한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뒷쪽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냐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5절은 '천사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라는 것은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적이 있느냐? 누구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란 말이죠.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어지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얼마나 충성했느냐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5장에서는 대제사장 얘기가 계속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인데 예수는 아론의 후손들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론보다 더 뛰어난 점을 몇 가지 지적합니다. 아론은 사람이지만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5장 3절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다'는 말입니다. 아론은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도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걸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인지 설명을 계속합니다.

잘 나가다가...

그런 다음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해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 11절에 걸립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겠나 싶어서 그만 얘기가 옆으로 새어 버린 겁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옆으로 틀어버렸습니다. 13절이 옆으로 빠진나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라'고 합니다. 누가 어린아이란 말이죠? '너희가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되니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가 참 난감하구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란 얘기는 '제발 좀 자라나 거라'는 말입니다.

12절에 '때가 오래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지 오래 되었음에도 아직도 어린아이니' 이 말은 흔히 하는 말로 '언제까지 얘기 노릇할거냐?'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지 몇 년인데 아직도 아이 짓을 하는 거냐는 질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세, 아론,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다가 옆으로 새어 버린 이유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안하겠다는 애깁니까? 하겠다는 애깁니까? 6장 뒷편부터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설명을 안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으니 주의해서 잘 들으라'고 경고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나이 많은 어린이

예수 믿은지 오래되었고, 교회를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면 모르는 게 많습니다. 혹시 처음 교회 나와서 제가 하는 이 말에 해당되더라도, 아니면 '아, 저게 내 얘기구나' 싶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처음에는 다 그런 거니까 괜찮습니다. 처음 나오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세례 받는데 '어머님,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묻거들랑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세요' 잘 가르쳐 났습니다. 세례 문답 때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답이 뭐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예요' 유명한 애깁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애깁니다. 교회 안 나오던 아빠가 교회에 나오기로 하고 처음으로 구역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도 반가워서 "오늘은 예배에 처음 참석한 아빠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판에는 기도를 마쳤는데 다른 식구들이 전부 눈을 꼭 감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다 했는데 다들 눈을 감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또 했지요. '다 했는데?' 싶어서 보니까 여전히 눈을 감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하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었다가 또 하고 끊었다가 또 하고... 어떻게 마쳤을까요? 옆에 앉아 있던 부인이 늦게서야 눈치를 채고 "이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금 더 하고 마쳤습니다.

기도라고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아빠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엄마가 반갑다고 "오늘은 아빠가 기도합니다." 하고 다 눈감아 버리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아빠가 딱 다섯 자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만세!' 그것도 제대로 된 기도일까요? 그 진심만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기에는 얼마나 우스운 애깁니까?

모처럼 심야기도회에 왔는데 쭉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도중에 도망가

신 분도 있어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갑니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말도 끊기고, 이야기하라면 잘 하는데 기도는 왜 그리 안 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경우가 처음에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거냐 말입니다.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일을 많이 시킬까봐 도망가고, 회사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냐?” 소리 할까 싶어서 교회 다니는 티도 안 내고, 아니면 “너 교회 다니지? 질문 하나 해 볼까?” 그게 무서워서 아예 티도 안 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때가 오래’**로 된 말씀은 ‘별써 예수 믿은지 몇 년인데 아직도 초보 노릇하고 있느냐?’는 책망입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법이니 괜찮습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지 하루 이틀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 믿은지 오래지만 어린 아이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 말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 왜 그렇게 웃고 다니니? 넌 왜 사는 것이 즐겁니?”라고 물으면 왜 즐거운지 그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니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나온 어떤 책의 제목이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이렇게 웃고 말지요’였는데 그렇게 하고 말아요? 옛날에 이름깨나 날린 책입니다. “당신 사는 모습이 뭔가 있을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웃고 말아요? 대답할 이유를 가지고 있으란 얘깁니다. 주변사람들이 내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적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으면 어린아이라는 거죠.

만만한 그리스도인

같이 근무했던 어떤 선생님이 머리는 참 좋은데 좀 뼈뺏하게 좋아요. 이 친구는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쟁이한테 이런 것 물으면 참 재미있데이...” 일번 타자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면 아담이 따 먹을 줄 알았나 몰랐나?’ 입니다. 그 친구는 그런 질문만 소복이 모아서 가끔 논쟁을 걸어요. 어느 날 제게 걸렸죠. “너 정말 알고 싶으면 두 시간 내라. 두 시간 내면 내가 설명해 줄게.” 정색을 하고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 다음부터 제 앞에서는 질문을 안 해요. 그 전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일을 같이 했는데 제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일을 처리했거든요.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학교 일이었습니다. 그런 차에 정색하고 “진짜 알고 싶으면 시간 내라.” 했더니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재미로 집적거리는 거죠. 왜요? 그렇게 집적거리면 대답하겠다고 나선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실실 피하거든요. 재미가 나서 따라다니면서 찢어 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설명하지 못한 채 피하다니기만 할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공부하는 아이가 영어책 하나 떼는데 시간과 돈과 노력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수학책 한권 떼려면 어떻게,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성경책은? 성경책을 한 번 떼어보겠다고 마음이나 먹어보았습니까? 그나마 꾸준히 읽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읽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읽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십번 읽으면 도가 트이고 백번을 읽으면 뭐가 보이고’ 하는 광고를 종종 보게 됩니다마는 무조건 읽으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읽는 것 외에 영어책 떼고 수학책 떼듯이 성경도 한번 떼어보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185장)라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을 현금 시간에 부르는 사람이 뺑뺑이라면, 찬송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르지 않는 사람은 5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생각은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날 무엇주느냐, 너 무엇하느냐’는 말씀은 현

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몸을 주었으니 이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찬송도 이렇게 오해를 받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IQ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도 못하는데 그 분이 쓰신 글을 그렇게 가볍게 읽고 치워요? 그러면 평생 어린아이로 살 수밖에 없죠.

젓이나 먹고

12절 뒤편에 ‘...젓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먹을 자가 되에도다’ 합니다. 젓은 먹는데 단단한 것은 못먹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단단한 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아이들은 싫은 소리나 훈련을 잘 못 견딥니다. 입에 맞는 단 것만 좋아하고 기분 좋은 소리는 잘 듣는데 조금만 야단을 맞거나 꾸중을 들어도 견디지 못합니다. 싫은 소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또 단단한 것을 못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골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다니러 갔습니다. 조카들을 데리고 올라왔던가 봐요. 시댁식구가 올라왔다고 평소에 못 먹는 것을 사다가 대접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도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많습시다) 모처럼 시댁 식구들 왔다고 평소에 가 본 적도 없는 좋은 곳에 데리고 가서 구경시키고 맛있는 것 사 드리고 시골로 내려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가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들집에 한 번 놀러갔더니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접을 잘해 주더라 참 고맙더라’ 그런 시어머니는 훌륭한 시어머니입니다. 철없는(?) 시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덕에 재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더라.’ 평소에도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죠! 없는 돈 빚내가면서 맛있는 것 해드리고 평소에 자기는 가지 않는 곳을 구경시켜 드렸더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내 입장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이트 어린아이란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보세요. 누구 위해 저렇게 싸웁니까?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상대방은 싸워야 할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거든요. 어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는 선진국 정치가 아니고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간혹 이상하게 주차해 놓은 차를 보게 되지요? 차를 그렇게 대어 놓으면 다른 차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남의 길을 막아놓은 차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이 자기 편한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성숙한 사회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회사야 죽든지 말든지 월급만 많이 받으면 된다? 백성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 배만 부르면 된다? 다른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교회만 잘 부흥하면 된다? 이런 모습들은 전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이죠. 이런 어린아이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야 죽어 나든지 말든지 본인은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을 날마다 똑같이 반복하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덕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덕을 본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위해 고난 당하신 것밖에 없잖습니까?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이런 점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모르는 너희들이 바로 어린아이가 아니냐는 겁니다.

수박 껍질이나 빨고

13절에, ‘때저 젓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히브리 기자가 이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하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경험하는 신앙이고 체험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으로 배워서만 아는 신앙은 약한 신앙이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참 재미있어요. ‘수박 껍질기’ 여러분, 상상

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박 한 덩이를 갖다 놓고 절반 찢고 있으면... 표현이 너무 재미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체험이란 쪼개서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경만 하든지 껍데기에 혀만 갖다 대든지 무슨 맛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꼭 이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전라도 쪽에 유명한 음식 있죠? 홍어회?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먹느냐?'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하고 열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두고 왜 그래요? 맛을 아는 사람은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저도 설명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론상으로는 알 것도 같아요. 그러나 먹고 싶지는 않아요.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말씀이 얼마나 단지 아세요? 성경말씀도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렇게 달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체면상 읽기만 하지요. 내가 아는 주제, 낚시, 축구, 음식, 오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열을 내다가 성경말씀이 나오면 실실 수그러 든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거냐는 말씀입니다.

성경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남의 연애편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혹 보셨으면 어때요? 유치찬란합니다.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닙니다. 유치찬란한 게 연애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당사자에게 물어보세요 유치찬란인가? 뭔데요? 가슴을 찢릿하게 만드는 감동이지요! 옛날에 받아놓은 편지가 있거든 다시 꺼내서 한 번 보세요. 감동이 새로울 겁니다. 가슴이 찢릿찌릿합니다. 다 지나간 것이니 옆 집의 누구에게 한번 보여 줘 보세요. 남이 봐도 가슴이 찢힐까요? 정말 유치하기 그지 없죠.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 없애지도 아니하고, 뭐 대단한 거라고 접어서 묶어서 깊숙이 보관해 놓고 다른 사람은 손도 못대게 합니다. 아는 사람에게만 소중한 겁니다.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고 단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편지'란 말은 맛을 알면 그렇게 소중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고 뜻도 잘 모르니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고 잠만 오지요. 왜 어떤 사람은 이 성경말씀을 끌어안고 그것만 가지고 사느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있으니까 그 한편을 가지고 평생을 살지요.

저도 원래 취미가 많은 편입니다. 다 접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쓸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죠. 바둑들은 접은지가 20년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끔, 구경만 잠시 하죠. 구경만 해도 재미있어요. 한번 뒤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면서 스스로 접어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는 무슨 맛으로? 사탕은? 갈비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책망하는 결론이 됩니까? 선생이 되라는 겁니다. '마땅히 선생이 될터인데'란 말은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해가 되었는데, 너희가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으냐는 겁니다. 빨리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버리고 선생이 되라는 거죠. 선생이 된다는 것은 꼭 가르치라는 뜻보다 어린아이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는 젓이나 단단한 것은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단한 것을 씹을 줄 아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오징어는 무슨 맛으로 먹죠? 씹는 맛 아닙니까? 질기고 딱딱하기 때문에 씹는 맛이 있는 겁니다. 사탕은 무슨 맛으로 먹죠? 서양사람들은 그걸 빠는 맛으로 먹는데 한국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안돼요. 한국 사람에게 사탕은 단맛 외에 무슨 맛이 있는냐고 물으면 확 깨무는 맛이 있다고 할 겁니다. 딱딱하니까 깨무는 맛이 있는 겁니다. 갈비는 무슨 맛으로 먹어요? 물어 뜯는 맛으로? 단단하고 질기면 그에 따른 묘한 맛이 더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구요? 그만큼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죽이나 젓이 아이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그러면 먹는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영양만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씹는 맛이 있나, 물어 뜯는 맛이 있나, 깨무는 맛이 있나! 맛이 없어서 안돼요. 아이들에게는 좋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딱딱하고 질겨야 맛이 더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죽도 아

니고 젓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단한 식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그 속에 아주 귀한 맛이 들어있습니다.

힘든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선생이란 말입니다. 누구 한마디에 빠져서 '교회 안 간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건디지 못해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선생이 되면 좀 귀에 거슬린 소리를 들어도, 야단을 맞아도 웃으며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힘든 것을 즐길 줄 아는 선생이 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랴도 어렵고 힘든 것이라야 노력하고 배우면 그만큼 재미가 있어요. 힘 안 들이고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싫증도 쉽게 납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선생이란 얘기죠.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14절 뒤편에, **‘지각을 사용함으로’**는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은 매사를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온유와 겸손으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란 게 뭐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그 결과로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6장 2절 제일 끝에 보시면,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합니다. ‘성숙하자’ ‘자라자’는 뜻이죠.

강도사의 보람

제가 영어선생을 오래 했는데요, 영어선생의 보람은 아이들이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진짜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영어가 참 재미있어졌습니다’ 이런 편지 받으면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50이 다 된 강도사의 보람이 뭐겠습니까? “강도사님 식사대접할 테니까 갑시다.” 하는데 제가 너무 거절을 많이 해서 눈총을 받았는데 너무 거절하면 안되겠다 싶기는 한데 시간이 없어요. 대접한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선뜻 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보다 가슴을 쫘하게 만드는 기쁨이 따로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남긴 말 중에는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말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도사님과 같이 공부를 한 얼마 뒤에 배웠던 부분을 다시 읽어 보니까 글자가 살아서 고물고물해요.’ 글자가 살아서 스스로 자기 눈으로 마구 들어오더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완전히 달라지더라요. 전에는 글자만 박힌 책이었는데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공부 이거 마약이데이, 맛 들여놓으면 못 끊는데이” 하시더군요. “성경공부가 재미있습니다. 공부합시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의 이런 말에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집 터만 댕고 또 댕고

6장 2절 끝머리에, **‘교훈의 터를 다시 댕지 말고’** 합니다. 집을 짓는데 계속 터만 댕고 있는 겁니다. 언제 집 지을 거냐는 말입니다. 터만 자꾸 댕지 말고 그 위에 빨리 집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영적으로도 빨리 빨리 자라야 하는데 늘 젓만 먹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거냐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잊지마셔야 할 것은 회개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회개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매일 터 댕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은지 보십시오. 날마다 회개하고만 있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고를 쳤고요 오늘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 못난 죄인을...’ 이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린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다 구했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가끔 100점 받았다고 자랑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100점도 100점 나름이죠. 자기 혼자만 100점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다 100점 받은 거예요. 중요한 시험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받았다면 대단하겠지만 남들도 다 100점 받은 것 들고 와서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그 애 붙들고 앉아서 ‘이 바보같은 자식아 남도 다 100점인데 그걸 가지고 뭐...’ 그러니까? 아니요. 별 것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도 좀 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럴까 하다가 요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랑하고 살면 안돼요? 자랑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신랑하고 한 방 할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참았다 아닙니까. 하나님 잘 했지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회개에만 매달려 있지 말라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감사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제게 더 힘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겐 필요합니다.

헤어지는 기쁨, 보내는 기쁨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었던 박용규 집사님이 중국으로 발령이 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 군데에 전화를 했습니다. '박용규 집사님이 중국으로 발령나서 간다면 앞으로 다른 분들도 그리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어떤 어떤 분들이 갈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장차 포항제철이 확장되고 중국에서 할 일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중에 또 누군가가 가야 합니다. 아니 꼭 중국만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느 분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여기서 헤어지는 섭섭함보다는 거기 갔을 때 거기서 뭐 할거냐 말이지요? 회사에 충성해야죠. 일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터이니 그것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여기는 설교가 넘쳐납니다마는 조금만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오히려 아주 귀한 지식이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만큼 실력을 쌓아놓으면 그 때에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이 될 것이냐?'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선생이 돼야 한다' 하는 생각이 퍼뜩 든 거죠. 박용규 집사님이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한 번 드릴까 하다가 박용규 집사님은 이왕에 가는 것이니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고 부인되시는 김은옥 집사님까지 떠났으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언제 어디로 떠나야 하는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 때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쁘게 떠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홍 전도사님이 여기 오래 계시겠냐? 오래 안 계실지 모르니까 가시기 전에 본전 빼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부시간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얘기를 들이나 들춰 업고... 그러더니 저보다 먼저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내게 닥쳐왔을 때 스스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선생이 되자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텐데 아직도 어린아이로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냐고 꼭 설명해 나가다가 여기서 딱 막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좀 차리고 이제는 모두가 선생이 되자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6장 뒷편에서부터 다시 뿔기세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갑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냥 선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노력을 해야 하고 준비하고 또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선생이면 다 같은 선생입니까? 목사면 다 같은 목사고, 집사면 다 같은 집사입니까?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 호봉가지고 따지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막말로 '실력으로 하자'고 나설 수 있는 선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이웃들에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관한한 여러분 모두가 스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역되기를 기다리니라 그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개역, 열왕기상 3:1~15]

‘권’ 력이나 부, 재산 이런 것들은 자다가 깨보면 아무 것도 없는 일장춘몽과 같다’고 하지요?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낙향해서 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 고대소설에도 ‘몽’ 자가 들어갑니다. 구운몽이죠. 등장인물이 아홉 명입니다. 바람에 흩어지는 구름 ‘운’ 자에다가 깨어나 보면 아무 것도 아닌 ‘몽’ 자까지 붙인 소설입니다. 인생살이가 덧없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꿈에다 비유한 소설입니다. 제가 누려본 부귀영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제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꿈이라면 참 허무한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꿈인 줄 알았더라면...

어릴 때 꾸었던 꿈 중에 가장 허무한 것이 돈을 많이 주는 꿈입니다. 참 많이 주웠어요. 그런데 깨고 나면 왜 허무한지 아십니까? 이게 꿈인 줄 알았으면 마음껏 쓰거나 갠 것이지... 꿈에서 돈을 모은 적은 있지만 마음껏 써보고 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꿈일 줄 알았으면 아끼지 말고 저축하지 말고 실컷 사먹는 건데... 어릴 때는 그런 꿈을 꾸더니 조금 크니까 변합니다. 허무하기는 똑같아요. 참 예쁜 여학생을 사귀었어요. 가슴이 두근반 새근반 좋았지요. 깨고 나면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고 깨는건데...

일장춘몽은 제게 안 어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깨고 나면 너무나 허무한 것이 꿈이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헛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헛된 꿈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가 꿈 한번만 잘 꾸면...’ 이 표현이 조금 바뀌면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일만 잘 되면 뭐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헛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성경구절이 여기 있더군요. 15절 보세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런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이 딱 세글자로 ‘꿈 깨라’ 입니다. 꿈이란 게 그런 겁니다. 깨어나 보면 더 이상 허탈할 수 없습니다. 꿈 속에서 저축하고 아끼고... 아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깨고 나면 더 허탈한 겁니다.

깨어 보니 꿈이더라. 그런데...

묘한 것은 솔로몬도 꿈을 꾸었는데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런데 그 뒷 얘기가 다릅니다. 깨어보니 꿈이더

라. 그래서 허탈했더라? 그게 아니고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이 왔는지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 많이 꾸고 깨어 보았더니 꿈이더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꿈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고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꿈을 잘 껴서요? 아니면 꿈 속에서 하나님께 말을 잘 해서요? 아니면 일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중요한 사건 하나는 반드시 전제로 깔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이 범죄하고 얻었던 아이가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그 아이를 데려가셔도 그 슬픔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깨끗이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다윗 때문이죠.

솔로몬이 왜 큰 복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신앙, 아버지의 놀라운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솔로몬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기로 하셨으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따라서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복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과연 이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일을 했느냐는 것을 확인해 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면 솔로몬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이 놀라운 복이 저절로 들어왔겠느냐는 애깁니다. 결론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다고 하는지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이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다윗에게 지키라고 한 법도를 솔로몬이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위하여 데려다가...’**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혼인을 했느냐? 그렇게 따져볼 수가 있죠. 여기 인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연이라는 것이 불교용어가 아닙니까?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우연, 인연, 불운, 극락 등이 있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인연이라는 것이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단어인데 이런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에 사용된 '인연'은 뜻이 약간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연이 아니고 혼인관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불교적인 용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혼인을 맺고 그 딸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어긴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문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한 구절은 11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여기는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솔로몬이 이렇게 승승장구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비로 삼았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강성한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거의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바로와 결혼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에 점령한 나라에 딸을 줍니다. 그러면 딸이 그 나라에

가서 안방에서 통치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을 솔로몬 왕이 데려와서 비로 삼았는데 문맥을 보시면 바로가 통치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자기 뜻대로 다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죠? 1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 딸을 취하여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성이 필역되기를 기다리니라’ 바로의 딸을 왕비로 데려와서 다윗성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왕비를 데려와서 거기에만 두었다는 것은 못 갈 데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래도 바로의 딸인데 여기 앉아 있어야 된다 말이야? 내가 못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다윗성에만 두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역대하 8장이 설명해 줍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의 성과 다윗궁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다윗성에 있는 것은 가하나 바로의 딸이라도 다윗궁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궁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요 왕비이지만 여기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 뭐가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제 아무리 왕비라도, 바로의 딸이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쉬운 일 같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었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걸 보여주기를 위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나도 일천 번제를 드리면?

솔로몬이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에는 성전도 없고 다윗의 궁도 제대로 없었지만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고 번성했는지를 3장부터 7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일이 일천 번제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고 흥왕해지는가 보라는 겁니다. 일천 번제의 의미가 뭘니까? 조금 주의해서야 할 것은 1000이라는 것이 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번제를 드린 짐승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일천번 드린 것이 아니라 일천 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졌했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융성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왜 그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말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솔로몬이 큰 복을 받았다고 쉽게 기억합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달리 생각할 점이 또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전에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솔로몬이 열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도니야의 반란을 물러가면서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니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하신 말씀에 보면 ‘너는 지혜로운 아이이고로...’라고 합니다. 너의 지혜를 총 동원해서 저 사람 저 사람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잘 처치해야 한다. 그 당부를 하면서 ‘너는 지혜로운 아이이고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에 가장 지혜로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열번째 아들이 왕위를 차지했겠습니까? 그만큼 지혜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었던 말씀이 5절입니다. 그 5절에 대한 답변을 솔로몬이 9절에서 합니다. ‘누가 왕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6, 7, 8절의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줄까 하니 덜렁 뭘 주세요 하는 것 아니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감당하기 부족합니다. 라는 걸 먼저 다 말씀하신 다음에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뭘 주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 맞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다음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 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실력없는 사람이 “저 잘 모르는데요.” 하는 것은 겸손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싸울 자신이 없는 사람이 물러서면서 “졌습니다.”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싸울 힘이 있고 이길 능력이 있는데 “졌습니다.” 하는 겁니다. 머리에 지식이 가득찬 사람이 “제가 뭐 압니까?” 이렇게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힘도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해 질 수 있는 것은 내 위에, 나보다 더 능력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이 가능해 집니다.

솔로몬은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7절을 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 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작은 아이라고 말하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8절,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주의 빼신,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 성, 즉 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주의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란 말은 **‘다른 백성이나 저나 동일합니다’**는 뜻 입니다. 제가 특별히 나은 것이 아니고 다른 백성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보다 나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8절 끝에,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백성이 많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왕의 자랑입니다. 백성이 많다는 것은 왕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뜻이고 나라 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백성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통치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 백성들을 다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에서 자기 백성 이 많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가리켜서 자기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 셴다는 고백입니다.

이건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 할 만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답입니까? 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기도와 비교해 보세요. 이런 지혜를 달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가 지혜로웠음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 씀을 듣고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왜 기뻐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서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고(오래 사는 것), 재산도 구하는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것보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애초에 지혜로웠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증거는 또 하 나 있습니다.

6절에,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 으로...’** 자세히 보면 다윗이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뒤 에 보면 주께서 저에게 상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저를 위하여 이 큰 은 혜를 예비하시고...’** 우리 부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즉 자기에게 주신 것은 상급이 아니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어떤 겁니다?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준 게 아니고 능력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그저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 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누린 것이나 내가 누린 이것이 그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함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 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큰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

하기 전에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이미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하기 전에도 그가 지혜로웠다는 것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꿈 한번 잘 꾸고, 하나님께 말 한번 잘 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본문과 잘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큰 지혜를 받았다는 것이 옳습니다.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천국의 원리가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에 두 군데나 나옵니다. 마 13:12절의 그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지,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 지혜마저 잃어버리게 되리라 이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은 달란트 비유에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다섯 달란트나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저 게으른 종의 것을 빼앗아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며 하신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충성하지 않고 아끼고 있다가는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기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임을 알고 일천 번제를 드렸던 데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한번만 복 주시면 내가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만 하면 된다는 분이 계실까 두렵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우리더러 일을 열심히 하라는 구절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애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애김입니까 대충하라는 애김입니까? 이 말씀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회사일도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가정일에 정말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됩니까?

내가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잘리지 않으려면 회사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그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요, 내가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죽자고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걸 팽개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예배시간을 제쳐놓고 다른 일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며 게으름을 피워도 좋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이 말씀과 부합되는 것이지, 학생이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리석거나 바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릴 때 이미 나라가 튼튼하게 서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집트 바로와 대등하게 혼인관계를 맺을 정도로 이미 튼튼

한 나라를 세워놓았을 때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는 것을 알고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솔로몬은 그만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출발되었음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게 꿈이거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어쨌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셨는데 깨어보니 꿈이더라는 겁니다. 얘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이것은 허무하고 허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잠언을 남겼고 전도서를 기록했고 아가서와 시편의 일부를 남겼습니다. 조금만 넘어가서 4장 32절을 보십시오. ‘저가 잠언 삼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 다섯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고 합니다.

아니, ‘깨어보니 꿈이더라’ 했는데 그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꿈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일장춘몽이 아니라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깨어보니 꿈이었는데도 그 꿈이 화려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깁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이 꿈은 솔로몬이 꾸려고 했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꿈을 꾸려고 노력한 것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 일은 뭘니까? 꿈을 꾸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했던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은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깨어보니 꿈이더라’ 했는데도 결국은 현실이었더라는 겁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의 유명한 대사였습니다. 그런 대사를 열심히 읊조린 배우가 말은 역할이 뭐겠어요? 노랭이 역입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늘 와서 하는 소리가 ‘마담, 이번 일만 잘 되면...’입니다. 이런 소리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끝에 가서 잘 되었겠어요? 아무 것도 된 게 없습니다. 돌아가신 어느 코메디언이 ‘뭘 보여주겠다’고 평생 노래했는데 뭘 보여주고 갔어요? ‘좌우간 한번 와 보시라니깐요’ 그러면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보여 주겠다 하면서도 평생 그 말만 하다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꿈 한번 잘 꾸면’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는 사람들의 그 꿈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평생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보여준 것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자가발전이거든요. 자기가 한 일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꿈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참 아름다운 꿈을 꾸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꿈을 꿈시다’ 이러면 일찍 일찍 가서 주무세요.

꿈을 잘 꾸려면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자기 전에 쓸데 없이 이것 저것 좀 많이 잠수세요. 그래야 꿈을 많이 꾸요. 잠이 모자란 사람은 꿈을 꿀 겨를이 없어요. 실컷 자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뒤척이고 하면 꿈을 많이 꾸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꾸는 꿈은 일관성이 없어요.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끝날 때 보면 저기 가서 끝나 있거든요. 혹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줄까 하시는데 잘못 대답하면 어찌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던 사람이 꾸는 꿈과 잠 실컷 자면서 게으르게 살다가 꾸는 꿈은 다르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이 꾸는 꿈과 평소에 개꿈 용꿈 많이 꾸는 분의 꿈이 다르다는 건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 개꿈도 좋고 용꿈도 좋고 돼지꿈도 좋겠지만 사실은 허무한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참으로 귀한 현실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 것 없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아주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꿈도 허무한 겁니다. 내 인생도 보잘 것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혔고 하

나눔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더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지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전에는 그러면 바보였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 자체가 솔로몬이 지혜로웠음을 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있는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신 지혜는 그 이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업그레이드 된 지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진짜 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기 전에는 바보였냐? 아니요. 하나님을 알며 지혜로운 그가 더 큰 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진 꿈은 참으로 아름다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꾸는 꿈은 그게 충전연색 꿈이라도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는 일장춘몽이라는 말에 왜 봄 춘자가 들어갔을까요? 봄이 어떤 계절입니까? 나른해서 정신도 몽롱하고 정신도 제일 희미한 계절입니다. 몸도 나른하고 제 정신이 아닌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꾸는 꿈, 그게 춘몽이죠. 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고 말하면서 하필 봄날 나른한 시절에 꾸는 꿈이라...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지만 정말 멋지게 만들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꾸는 꿈은 현실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허무한 꿈도 참으로 아름다운 현실이 됩니다. 꿈을 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 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꿈이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좋은 희망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죠. 좋은 꿈을 가지는 것, 좋은 꿈을 가꾸는 것, 좋은 꿈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꿈보다 먼저입니다.

꿈보다 해몽? 아니, 꿈보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속담을 하나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 참 좋은 속담이죠? 해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꿈은 좋은 꿈도 되고 나쁜 꿈도 된다는 말입니다. 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이렇게 바꿉시다. ‘꿈보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크는 아이들이 장차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좋은 꿈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굳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불만이긴 하지만 그런 꿈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꿈보다 해몽? 이 말은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꿈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아름다운 꿈을 꾸었지만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름답게 이루어졌더라. 그것이 솔로몬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꿈을 꿈시다. 좋은 꿈을 어떻게 꿈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꿈을 꾸는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꿈 좀 꾸어볼려고 잠 많이 자지 마십시오. 그래서 꾸는 꿈은 전부 개꿈입니다. 돼지꿈 꾸려고 벽을 온통 돼지 그림으로 바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꾸는 꿈은 개꿈입니다.

혹시 돼지꿈을 꾸었다고 복권 사러 가지 마십시오. 설령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개꿈입니다. 좋은 꿈 꿈시다. 어떻게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꿈은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런데도 그 꿈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백성이야 죽든지 말든지

효자제일교회 강도사·홍 순관

(열왕기하 16:5-6, 역대하 28:1~19)

웃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술은 뒷문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야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라도 육십오 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곤계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빠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개역, 이사야 7:1~17]

위대한 대몽항전

고려시대 때에 몽고가 쳐들어 왔습니다. 몽고의 침략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으니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버렸습니다. 이유는 몽고 군사들이 육지에서는 잘 싸우는데 말이 물을 겁냈기 때문입니다. 물을 건너 싸우는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예 섬으로 수도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몽고의 침입에 항복하지 않고 꽤 오래 버텼죠. 얼마쯤 버텼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몽고가 유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잔인하게 짓밟았음에도 한반도의 자그마한 나라가 쉽게 항복하지 않고 오래도록 버텼습니다. 30여년을 버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역사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참 슬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국이 몽고 군사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만 강화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 없이 죽었고, 수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이 몽고 군사들의 발밑에 짓밟히고 있을 때에 왕과 대신들만 강화도에 들어가서 30년을 버틴 겁니다. 그 때는 무신정권이어서 왕이 뜻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버틴 것을 우리는 몽고에 굴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버틴 역사였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왕과 대신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국민을 팽겨쳐 두었다고 생각해야 될지 결론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구해보자고 열심히 공들여 만들었던 게 팔만대장경이죠. 참으로 귀중한 문화재라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몽고 군사들에게 짓밟히고 밤중에는 조정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리 저리 뜯기고 살았던 그 시절을 우리는 흔히 대몽항전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강해야 하지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강해질지, 튼튼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가 튼튼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국산품 애용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죠. 그런데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현재 우리는 국산품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습니다. 외국에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노력해서 수출해서 조금 벌어들인 외국에 나가서 다 써버리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나라의 강성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가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기보다 백성이야 어떻

게 되든지 자신들만의 안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킨 예가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비슷한 왕이 있기에 그 왕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합니다.

1차 침공에서

이스라엘이 한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져서 백성들이 잘 살았는데 강력한 지도자였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사야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전에서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길 진정한 왕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며 또 비록 잘못한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지라도 결국은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웃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웃시아 왕이 죽고 다음 왕, 요담이 1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 요담의 때를 건너 뛰어서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침략합니다. 북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런데 끝에 보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기지 못했는데 2절에 보시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고 말합니다. 이기지 못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1절과 2절은 굉장히 긴 이야기를 짧막하게 줄여 놓았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이 두 나라가 침공했을 때 역대하 28장에 따르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다의 왕도 죽었고 궁내대신이 죽었고 군사 12만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20만명이나 잡혀 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20만명이나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책망을 하고 돌려 보내라고 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20만 백성이 남쪽 유다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 예루살렘만 함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나라'는 말씀의 실상은 예루살렘만 함락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런 참혹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왕만 잡히지 않고, 수도 하나만 버티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하스 시대에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수 많은 백성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해도 왕이 문을 탁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었던 예루살렘만 괜찮았더라는 말이지요. 백성이야 죽든지 말든지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1차 침공이 끝났는데 얼마 후에 또 치러올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들렸으니 백성이고 왕이고 뭇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운 형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동족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우리 아들을 그 중에서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라고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치려는 것은 통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남쪽 유다를 쳐서 왕을 바꾸자' 그런 의도로 치려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볼 때마다 정통성에 있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왕조가 변하지 않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짧은 200여년 동안에 왕조가 9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왕조가 30년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날만 새면 쿠데타고, 왕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볼 때에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남쪽 유다 왕을 자기들의 뜻에 맞는 왕으로 바꾸어 보자는 의도를 품고 침략을 감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줄면 옆의 사람이 안 미운데 나는 줄려서 까닥까닥 줄고 있는데 옆의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듣고 있으면 이 친구가 미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보고 미워하고 침공하는 이유가 자기들 나라는 왕조가 너무 쉽게 뒤집어지면서 정통성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에 남쪽 유다는 굳건하게 나라가 유지되어 가는 것이 시기심을 불러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7절에, '주 여호와와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런 악한 꾀를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하스 왕은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아하스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도모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왕위를 유지할 만큼 잘 하기는커녕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의 이 도모가 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동맹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 올 것이라는 그 소문을 듣고 백성과 왕이 무척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중용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삼가며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설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연합해서 다시 쳐들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방방거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4절 뒤편에 보시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설치지도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연기나는 부지갱이와 그루터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나는 부지갱이를 무기로 쓰면 쓸만하지 않습니까? 한쪽 끝에 불이 붙어 있고 연기가 펄펄 나는 부지갱이를 들고 싸우려고 덤벼들면 어찌면 무서운 무기가 되겠다 싶은데 여기 표현은 연기나는 부지갱이에 그루터기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그루터기는 나무를 다 베어내었다 싶어도 그 뿌리 때문에 언젠가 옆에서 썩이 납니다. 그런데 연기나고 부지갱이로 쓰던 그루터기면 절대 썩이 나지 않습니다. 왜 거기다가 그루터기라고 붙여 놓았습니까?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라는 표현으로 유다는 망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썩이 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은 연기나는 부지갱이 그루터기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강성해져서 유다를 넘보고 치려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합니다. 조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기만 해다오

아하스 시대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유다가 곤경에 처했느냐 하면 아하스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렇게 요란스럽게 걱정하고 난리칠 이유가 없으니 조용히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28장에 아하스가 저지른 범죄행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 아하스의 범죄행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역대하 28장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음으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앗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고 그러합니다.

한절만 더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거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난국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걱정하며 설칠 필요없이 조용히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다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매사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공부는 죽어라고 안 하고, 학교 안 가겠다고 버티면서 늘상 사고만 치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혹은 부모님이 "언제 공부 잘 하라고 하더냐? 그냥 학교만 잘 다녀라." 하지 않습니까?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어떨 때는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 치고 나면 점수 나쁜 아이들은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매를 들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영어시간

에 맞는 아이는 수학시간에도 맞고 국어시간에도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시험이 멀리 있을 때 공부하라고 매를 들다가도 막상 시험 치고 나면 매를 안 들려고 합니다. 시험치고 나면 어떤 아이들은 체육복 하나 더 입고 학교 옵니다. 어차피 오늘은 터지는 날이니... 참 많이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는 과목은 점수가 올라가요. '시험친다고 수고했지' 하고 격려만 하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이런 판이니 공부하고 담 쌓은 아이가 그저 학교만 와 쥐도 고마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공부 안 해도 좋으니 학교만 오너라'고 그러합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다른 선생님이 매를 들까 오히려 걱정입니다. 아하스가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다른 것은 안 해도 좋으니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사고뭉치 아하스가 설치면 뭘 할까요? 우상숭배에다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저지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댄 짓하지 말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하스는 예상되는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도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왕을 만나러 갈 때 어디를 갔는가 보십시오. 3절에, **‘윗못 수도 끝 세락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하죠? 아하스가 왕궁에 안 있고 지금 못가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면 기온이라는 샘이 있었대요. 그 샘에서 흐르는 물을 농업 용수로도 썼고 한쪽에서는 세탁도 했다고 합니다.

아하스는 이 흘러가는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위를 뚫어서 물길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터널인지 혹은 다른 터널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아들 때에 가서 완공이 됩니다. 지금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립니다. 아하스 시대에 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바위를 뚫어서 물길을 내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높은 산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입니다. 적군이 침입해서 이 성을 둘러싸도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산꼭대기에 세워놓았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물입니다. 물만 구할 수 있으면 오래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해 두는 거죠.

이 물을 끌어들이는 일을 시작한 것은 아하스가 처음이 아닙니다. 오래 전에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할 때도 물을 길러오는 구멍을 통해서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물을 끌어들어서 성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작은 통로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아마 용량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하스는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적이 침입해오면 예루살렘 문을 딱 걸어닫고 버티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람 너머에 있는 나라 앗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청하게 됩니다. 앗수르에 조공을 보내며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 끝에 보면, **‘그 두 나라를 너희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성이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어떤 노력을 해도 안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렇게 강성하게 보이는 에브라임도,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라도 65년내에 에브라임이 폐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유다는 강건하게 설 것이요 에브라임은 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 사건이 있고 난 십 수년 후에 망해 버립니다.

적의 침공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했고 염려하는 그에게 이사야의 메시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이키라는 뜻인데, 믿기만 하면 굳게 설 수 있다고 하는데 아하스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거절해 버립니다. 한편으로 두려워 떨면서도 나름대로 준비는 어지간히 끝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야 어떻게 되든간에 예루살렘만은 튼튼하게 잘 보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나름대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자세를 보입니다.

밥을 안 먹겠다 이거지?

왕이 이려고 있으면 누가 제일 답답하겠습니까? 외적은 쳐들어 온다고 소문이 나고 예루살렘성 하나만은 어떻게든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고 올테면 와라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누가 제일 답답하겠습니까? 백성들도 답답할테고 이사야도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고 걱정이겠습시다마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일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제 머리만 굴리며 이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답답한 편입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11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요구해 봐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라는 것은 어떤 증거든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증거까지 구해보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답답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겠는데 그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뭐든지 한 번 요구해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매를 들지 않으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정조로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하스의 답변이 뭐니까? 12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는 말이 참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증거를 보여주며 내 말을 믿으라고 이렇게 통 사정을 하는데도 “아뇨,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밥 잘 먹으면 맛있는 것 사줄게.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엄마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 답답한 겁니까? 밥 안 먹으면 누가 답답합니까? 안 먹으면 안 먹는 자기가 답답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더 답답해하더라구요. 할머니 있는 집은 더 하죠?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답답해서 자세를 낮추어가며 아하스에게 사정사정 하는 듯 합니다. ‘준비할 만큼 준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예루살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무서운 교만의 표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도와주겠다는데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는 것은 아버지를 얼마나 서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장군의 부하들이 “각하, 우리가 모시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좋은 말같아 보이긴 하지만 부하가 상관을 체포하는 소리입니다. 표현은 아주 정중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체포하겠다는 뜻입니다. 말은 정중해도 이것이 패륜이요 하극상입니다. 믿음은 전혀 없이 신앙의 흉내만 내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비교되는 사람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두 번이나 요구합니다. 온 땅에 이슬이 잔뜩 내렸는데 자기가 갖다 놓은 솜뭉치에만 이슬이 한 방울도 없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요구하는 그 기적을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적이라는 거죠.

아하스가 만약 이 때, 어떤 증거라도 요구하라고 했으니 고생하며 바위를 뚫어 물길을 만들 필요없이 “하나님, 이 바위가 터져서 물이 펴펴 쏟아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했으면 훨씬 쉬웠을런지 모르지만 전혀 요구하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셔서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을 쏟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이 거절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푸셨다가 거절당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남의 사랑을 함부로 거절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학 친구 중에 일학년 때 군대간 친구가 있었는데 이유는 연애하다가 흔히 하는 말로 차여서 취약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용량을 잘 못 맞추어서 먹긴 먹었는데 죽진 않았대요. 살 맛도 없고 학교 다닐 맛도 없고 ‘에라 군대나 가자’ 그래서 간 거죠. 군에 간 사람들이 총 둘러매고 사고치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남겨둔 애인의 변신 때문입니다. 건디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심을 몰라주고 사랑을 거절할 때에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이 거절되었을 때에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너 아니면 다른 사람없는 줄 아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갔더니 신부가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포기할 줄 아느냐?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았건만 아하스가 거절해 버렸습니다. 거절하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요구하라고 하는데도 요구 안 한단 말이지? 네가 요구 안 해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약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예언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번에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16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약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심판을 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앗수르를 동원해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혹독한 날을 겪게 될 것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에게 쏟아 부었던 사랑을 아하스가 냉정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고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즈음이니깐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십 년이 채 안되는 때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겪게 되리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아하스에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예언 속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든지 구해보라고 하는데 안 구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지. 세상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리라는 예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하라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주겠다.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징조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분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만큼 더 큰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징조를 주겠다'는데도 달라고 하지 않겠단 말이지? 내가 누구냐? 한번 한다면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선언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 속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을 담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최초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곧 사탄을 완전히 깨부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최초의 예언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묘하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을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뱀에게는 무서운 경고이지만 옆에서 벌서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아하, 저 말씀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새겨듣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 속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안 받겠다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끈질기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도 끈질기신 분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13절에, 아하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차 이 땅에 예수께서 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한 것을 다윗의 후손이기도 한 아하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서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인도하시며, 그에게 땅과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에덴동산에서 범죄하여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들으라고 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속에 이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리라고 걱정하셨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끈질기게 아하스에게 자신을 낮추어가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원인이 아하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 23).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나서? 아니, 쓸만한 데가 있어 그런가요? 아니요! 그래도 아하스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백성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적잖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야 죽어나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나만 돈 벌면 된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길래 썩은 생선을 들여와서 어묵을 만들고, 콩나물 기르면서 비료 집어넣고, 도라지 색깔내려고 표백제 쓰고, 생선에 납을 넣어서 들여오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식이 아니냐 말이지요.

대형 아파트 단지를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곳에 세울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자기는 사표내고 나간 시장이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죠. 허가해줘서는 안되는 곳에 허가를 내 주고 사라져 버리면 그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거기에 들어온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꽤 있던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백성이야 죽든지 말든지 도대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아하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상대로 끈질기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 누군가가 잘 해서? 어떤 사람이 희생해서? 아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원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졌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왔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결단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그럴 듯하게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아하스에게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느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며 그다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사랑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는 섭섭하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